용인 근 · 현대사 증언 구술 생애 자료집 XI

용인사람 용인이야기

용인 근 · 현대사 증언 구술 생애 자료집 XI

용인사람 용인이야기

용인의 공직자 편

구 술	면 담
용인시 공직사회 ‘ 여성 최초’ 수식어가 가장 많은 여풍당당 **김남숙** 선생	박숙현
한알의 밀알로, 주위를 밝히는 작은 촛불로 40년간 평교사로 교단을 지켜오신 **김명배** 선생	김정희
격동기 용인 속 행정의 한 축 **박상돈** 선생	김지현
정의와 순종의 삶 **서석정** 선생	남기주
지역 맞춤형 교육의 씨를 뿌린 **신의자** 선생	이은성
초등 교육공무원으로 40년 외길 인생을 걸어온 용인 출신 여성 교장 **심문자** 선생	김도영
임시 공무원에서 부군수까지 용인군 행정공무원의 산증인 **이범상** 선생	김지혜
‘우리는 언제나 약자편에 서야 한다’ **지경환** 선생	김정희
경찰관으로 용인의 민생을 지킨 **지동수** 선생	김태근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

발간사

용인문화원장 **심 언 택**

구술사란 과거의 사건이나 역사 과정을 경험한 참여자나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증언을 채록하고 그 구술 증언에 의거하여 세부 내용을 서술하고 기록하는 역사 기록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생존해 있는 당대인들의 증언 채록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구술사는 현대사의 영역이면서 오늘날 매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사나 과거의 특정 사건을 정리ㆍ복원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사료의 조사와 발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제나 맞닥뜨리는 문제는 지역의 사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근대화 이후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로 인해 지역의 역사는 간과되거나 무시되어 사료 자체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즉 지역의 역사가 지엽적이라거나 보편적이지 않다고 해서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사의 체계적인 정립은 너무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민들 스스로를 역사 행위자, 즉 역사의 주체로서 그 중심에 놓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역사 서술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술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역의 사료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구술생애사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술생애사의 발간은 단순히 구술 자료를 채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역사 바로 쓰기 운동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술 채록된 인사들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 격랑의 시대를 살며 공공기관에 근무한 행정가 및 교직자들로 우리 용인의 발전을 이끌어 온 분들입니다. 오랫동안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해오던 용인이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며 산업화 및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변화를 주도하거나 그 중심에 계셨던 분들로서 당시 경험했던 생생한 증언들은 우리 고장의 소중한 현대사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금년으로 〈구술생애사〉 11집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채록에 흔쾌히 응해주신 구술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구술사 집필을 위해 면담자로 참여하신 연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 12월

일러두기

1. 본 책은 용인 근 · 현대사에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증언을 녹음하여 풀어서 발간한 것이다.

2. 본 책 「용인 근 · 현대사 증언 구술 생애 자료집 Ⅺ」은 용인 공무원, 교사, 경찰관 등 공직자 구술을 정리하였다.

3. 목차는 구술자의 가나다 순으로 구성하였다.

4. 구술 내용을 풀었기 때문에 문장은 구어체이며, 따라서 문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구술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하면 구술자의 어투를 살리도록 하였다.

5. 구술자의 간단한 약력과 사진을 실었으며, 채록 일시와 채록자는 각 구술자의 구술 내용 앞 부분에 기재하였다.

차례 | CONTENTS

발간사 4

일러두기 6

근 · 현대사증언자료

용인시 공직사회 '여성 최초' 수식어가 가장 많은 여풍당당 **김남숙** 선생 9

한알의 밀알로, 주위를 밝히는 작은 촛불로 40년간 평교사로 교단을 지켜오신 **김명배** 선생 39

격동기 용인 속 행정의 한 축 **박상돈** 선생 65

정의와 순종의 삶 **서석정** 선생 99

지역 맞춤형 교육의 씨를 뿌린 **신의자** 선생 123

초등 교육공무원으로 40년 외길 인생을 걸어온 용인 출신 여성 교장 **심문자** 선생 151

임시 공무원에서 부군수까지 용인군 행정공무원의 산증인 **이범상** 선생 181

'우리는 언제나 약자편에 서야 한다' **지경환** 선생 207

경찰관으로 용인의 민생을 지킨 **지동수** 선생 233

근 · 현대사
증언 자료

용인시 공직사회 '여성 최초'
수식어가 가장 많은 여풍당당
김남숙 선생

1957년 2월 경상북도 예천 출생
1971년 2월 예천초등학교 졸업
1975년 2월 예천여고 졸업
1999년 8월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2012년 2월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졸업
1975년 4월 공무원 공채 시험 합격
1976년 4월 예천군 호명면 사무소 공무원 첫 발령
1985년 11월 용인군 기흥읍
1996년 3월 구성면
2002년 3월~ 지방사무관 승진(상현동장, 남사면장, 유림동장, 여성회관장, 주민생활과장)
2008년 8월~ 여성최초 지방서기관 승진(정보문화기획단장, 평생교육원장, 도시사업소장, 재정경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성최초 수지구청장)
2018년 12월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

개요

- 구술자 : 김남숙
- 면담자 : 박숙현
- 1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8월 11일(수)
  - 장소 : 용인신문사(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 2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9월 30일(목)
  - 장소 : 용인신문사(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 3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11월 16일(화)
  - 장소 : 용인신문사(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요약정리

수지구청장을 끝으로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김남숙 선생은 외길 공무원 인생 동안 고른 부서와 업무를 섭렵했고, 퇴직 후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녀는 경상북도 예천에서 출생해 예천에서 초중고교를 마쳤으며,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의 길에 들어섰다. 공부에 대한 미련이 컸기에 늦깎이로 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 예술경영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천군 호명면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여성 공무원이었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당시 남성 업무 영역으로 인식 돼던 업무가 맡겨졌으며, 이를 막힘없이 처리하면서 점점 ‘ 역시 김남숙’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마침내 용인 구성면에서 여성 최초로 산업계장직을 멋지게 수행해 내면서 이후 남녀 업무 영역의 구별 없이 종횡무진 탄탄대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용인시 여성 최초 서기관, 여성 최초 구청장 등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그녀 곁을 따라다니면서 여성공직자들의 귀감이 됐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 원칙을 지키고 불의를 용서치 않는 가풍’ 속에서 성장했다. 따라서 40년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며, 꼿꼿하고 청렴한 공직의 자세를 지켜 명예롭게 퇴직 했다.

매사 빈틈없는 업무 처리와 탁월한 대처 능력을 갖췄기에 어떠한 업무가 맡겨져도 척척 해결해 나가는 만능 공직자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늘 어렵고 힘든 일이 주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여성 공무원으로서 그녀에게 최초로 남성 영역의 일이 맡겨졌을 때 힘들더라도 늘 후배 여성 공무원들에게 장애물이 돼선 안되며, 자신이 좋은 본보기가 돼야 후배 여성 공무원의 업무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다.

초창기 단발머리에 운동화 차림으로 처음 공직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공직 업무에 만족했다. 천직이라 생각했고 재밌었다고 회상하는 그녀는 예천군 유천면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유명한 일화를 남긴 장본인이기도 하다. 일명 ‘ 유천면 방석 사건’의 주인공이다.

초년병 시절,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예천군수의 연도순시를 맞이하기 위해 방석을 깨끗하게 빨았으나 스펀지가 덜 마른 관계로 군수님의 바지가 젖게 돼 당황했던 오래전 이야기는 이제 흐뭇한 전설같은 일화로 존재하면서 그녀의 공직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결혼 후 1985년 11월 1일자로 용인 기흥읍에 발령받은 이후 용인에서 퇴직을 맞이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경전철, 부도위기에 처한 도시공사 부채까지 막힘없이 처리한 그녀가 공직생활을 잘 할 수 있던 것은 오로지 가족의 희생과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출생과 어린 시절의 추억

면담자 : 40년 공직 인생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태어나셨고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요.

구술자 : 경상북도 예천에서 56년 12월에 태어났어요. 호적에는 57년 2월로 기록돼 있어요. 7남매 중에 4째에요. 아버지 김기용, 어머니 권순임. 두 분 다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 시절이 나라도 가난했지만 우리도 가난했어요. 그래도 동네에 조금만 나가면 예천읍 중앙을 흐르는 한천이 흘러요. 경안천 보다 좀 넓어요. 거기 가서 애들하고 뛰놀고 봄 되면 개구리도 잡으러 가고, 비 오면 어른들이 고기 잡으러 가면 뒤에서 주전자 들고 따라가고 그랬어요. 골목에서 애들하고 고무줄놀이, 공기, 땅따먹기 그런 거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면담자 : 원칙 있게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어린 시절 가정교육이 남달랐던 게 있었는지요.

구술자 : 옛날 어른들은 교육도 엄격했잖아요. 그러나 크게 혼나거나 한 거는 없어요. 그리고 원칙 같은 건 어릴 때는 잘 몰랐지. 근데 그건 우리 집안 내력인 것 같아. 우리 집안이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아버지부터 그렇고, 우리 사촌오빠도 그렇고. 내가 사무관 됐을 때 우리 사촌오빠가 전화 해가지고 "너 알지, 우리 집안은 부정과 불의를 모르는 것." 그 말을 맨 먼저 했어요. 그래서 "가문에 누는 안끼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면담자 : 학창시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 중학교는 시험을 쳐서 갔기 때문에 초등학교 공부는 중상위에 들어갔어요. 중학교 가기 위해 6학년 때 공부를 하는데 내가 탁 튀어나왔던 거야. 우리 학교가 예천국민학교라고 한 학년에 500명 정도 되는 큰 학교였어요. 6학년 때 공부를 좀 잘한다고 선생님이 본거야. 중학교를 갈 수 있냐없냐 그런 게 있었어요. 가정형편 상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참고서를 주고. 암튼 엄청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 내 인생에서 초 6때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어. 10등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6학년 때 성적이 좀 나온 건데 우리집은 형편이 안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힘을 준거지. 예체능이 조금 부족하니까 예체능 참고서 주고. 예천 여중에 갔어. 중학교 가서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머리만 믿고 안한거지. 다시 어린시절로 돌아간다면 초 6으로 가고 싶어. 공부한번 실컷 해봤으면.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은 가끔 해요.

면담자 : 고등학교 진학은 어디로 하셨나요.

구술자 : 나는 우리집이 가난하니까 중학교 때 상고를 갈려고 그랬지. 목표는 서울여상인데 어떻게 가. 그래서 경북에서 대구여상하고 경북여상이 있는데 거기 원서를 썼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외지에 혼자보내기가 좀 그랬는가봐. 중학교를 찾아가셔서 교감선생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외지에 어떻게 여자애를 혼자 보내냐. 애 버릴 수도 있다. 시골 노인네는 그게 안되지. 빨간 우체통에 넣어놨던 원서를 다시 꺼내 와서 예천여고를 썼어. 어찌 보면 그게 맞았을 수도 있는 것 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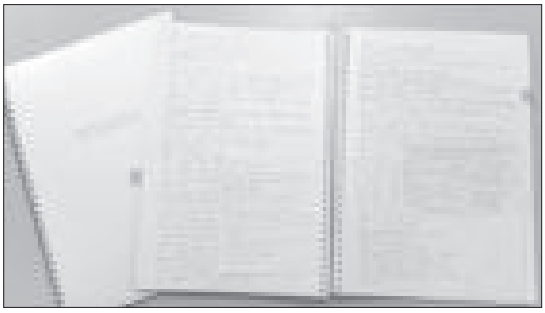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다

면담자 : 공무원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구술자 : 공무원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친구가 보자고 해서 원서를 같이 낸거야. 웃기는 얘기가 김천시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시험 보고서 직지사 놀러가자. 난 놀러가는데 정신 빠져가지고 시험은 덤으로 생각한거지. 시험이 목적이 아니고 직지사 놀러가는 게 목적이었어. 시험 발표 난 날도 군청 게시판에 공고를 붙였던 거야. 그 시절에는 그렇게 했어. 같이 시험보자고 한 애가 군청 뒤에 살았는데 걔는 공부를 잘 했던 애야. 공고를 가서 본거야. 전화도 없던 시절이야. 우리집은 시내에서 떨어졌어. 걔가 우리 집에 왔어. 남숙아 니 합격했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올라와. 그러니까 애가 우는거야. 진짜 합격했어. 니는 됐고 나는 떨어졌어. 그래서 붙은 걸 안거지.

면담자 : 공무원은 운명이었네요.

구술자 :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시험 보러 가자고 해서 갔다가 합격한 거야. 운명이야. 친구 따라 강남 간거지. 공무원시험 공부를 안했어. 그때는 과목도 국어, 영 어, 수학, 사회, 윤리 등 5과목 인데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 지금은 대학 나온 애들이 하지만 그때는 고등학교 나와 했지. 그때 그 시절에 뭐 관련된 책을 사본 친구도 있었어.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공부 잘하는 애가 보자고해서 원서를 같이 내고 같이 가서 본거야.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때 10대 1인가 그랬어. 우리는 공채 출신인거지.


공직 40년을 정리한 공책

면담자 :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공직에 몸담게 되신 건가요.

구술자 : 아니, 1년 정도 지나, 발령이 늦게 났어. 계속 기다리다가 발령이 하도 안나니까 아버지한테 여군 갈거라고 했다가 아버지가 소리를 버럭 질러가지고. 옛날에 노인네들이 용납이 되나. 예천여고를 75년 1월에 졸업하고 4월에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그때는 남자 90%, 여자 10% 뽑을 때야. 뽑아놓고는 여자는 발령을 제일 늦게 내줬어. 같이 시험 본 동기 남자들은 75년 6월 달에 발령을 받고 여자 4명이 합격했는데 그 이듬해 76년 4월 달에 발령을 내준 거야. 여자들만 엄청난 차별을 받았지. 사실은 남자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실력은 여자가 더 좋았다고도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던 거고.

면담자 : 당시는 남녀 공무원 차별이 심했네요.

구술자 : 공직생활 차별이란 게 남자들은 총무계나 이런 데를 가는데 여자는 맨날 민원창구에만 앉혀놓는 거지.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창구에 있었던 거지. 우리도 예를 들면 계장이 된다든가. 계장은 그때는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고. 그때는 민원창구만 계속 다니는 거야. 나도 20년을 민원창구에만 근무를 했던 거야. 20년을 솔직히 창구에 앉아 민원 처리같은 것은 귀신같이 해주고 사람들한테도 빨리해주고 잘하고 그러지만 행정업무 능력은 뒤떨어지는거야. 그래서 같이 들어와도 남자들하고 10년, 20년이 지나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거야. 여자들은 능력을 키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능력의 차이가 나는 거야.

공직 첫 발령지 경북 예천군 호명면사무소

면담자 : 첫 공무원 발령지는 어디셨나요.

구술자 : 첫 발령지가 경북 예천군 호명면사무소. 우리 동네에서 500이재를 넘어서 걸어서 갈 수 있고. 아니면 시내에 나와 버스를 타고 가야하는데 버스는 하루 두세 번 다녀. 도저히 출퇴근이 안되는 거야. 그래서 소재지에 방을 얻어 자취생활을 했지. 500이재는 옛날에 산이 깊어가지고 사람들이 500명이 모여야 넘어갈 수 있다는 재인데 혼자 못 간거야. 맨 첫날은 아버지하고 같이 갔어. 면사무소에서 자취방도 다 구해주고, 직원들이. 시골에 가면 따뜻한 게 있잖아.

면담자 : 첫 업무는 무엇이었나요.

구술자 : 호병계. 호적하고 병무를 보는 계인데 호적,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거지. 요즘에는 호적초본 없지만, 주민초본 전화로 다 하지만 그때는 손으로 다 썼어. 요즘은 전산으로 다 나오는데. 호적등본, 제적등본 써서 발급했지. 우리집 주소도 한문으로 못썼는데 다 한문으로 쓰는 거야. 글자를 한 글자 쓰다가 다 못 마치고 계장님 이거 어떻게 써요. 한 자 쓰다 묻고 한 자 쓰다 묻고. 한 2, 3년 지나니까 호적에 틀이 있거든. 이름자에 들어가는 글씨가 거의 비슷하고 특이한 게 없는 거야. 쓰면서 전화도 받고 할 정도로 된거지. 우리 때는 한문이 없어지는 시점이야. 따로 배우거나 그런 거는 없었지.

면담자 : 원래 머리 좋고 똑똑하셔서 일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구술자 : 계장님이 힘을 준거야. 우리 김양 최고다. 그때 김양이라고 그랬어. 그때 보건소에 모자보건, 결핵관리, 가족계획 세 명 있었어. 얘네는 가족계획 하러다니고 모자보건, 예방주사 놔주고 이런 것 했거든. 그런데 계장님이 거기 총무계 세 명하고도 안바꿔. 그래가지고 얘네가 입이 나와가지고. 그 시절은 결핵환자가 꽤 많았어요. 가족계획요원도 그 시절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그랬던 시절이지.

면담자 : 그곳에서 어디로 옮기셨나요.

구술자 : 3년 8개월 거기서 근무하고 유천면으로 79년에 발령이 난거지. 유천면은 국도변에 붙어가지고 내가 시내까지만 오면 차가 많이 있어. 다니기 편했지. 우리집에서 한 10키로 자전거 타고 다녔어. 거기서는 호적 업무는 다른 여자애가 있었고,

내가 총무계 회계를 본거야.

면담자 : 총무계 회계는 당시 남자 영역이 아니었나요. 여성 최초 회계업무였겠네요.
구술자 : 예천군에서는 여자가 회계를 본적이 없었어요. 그때 군청에서 재무과장이 놀라서 면장님한테 면장, 당신 어찌하려고 여자한테 회계를 맡기냐고. 근데 면장님이 걸작이셨어. 그때 별정직 면장이었거든. 그게 김영삼 대통령 때 없어진 거야. 그때 민정당 하시던 분이었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과장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신거야.

면담자 : 회계 업무는 잘 보셨는지요.
구술자 : 특별한 게 회계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면장들이 그냥 술 드시고 술집에 외상도 달아놓고 부채가 많아. 진짜 이건 쓰기가 좀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술집 같은 데도 해놔 놓고 인쇄물 외상 그런게 막 깔려 있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부채가 있더라고. 남자들은 아무 말 없이 한 건데 여자니까 저걸 어떻게 하나. 직전에 회계를 보던 사람이 남자였는데 굉장히 착실하게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했어. 나한테 장부를 넘겨주는데 그때 당시에 부채가 백몇 만원 되더라고.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하나. 그때 500만원 사업을 입찰하던 시절인데 계약시 인지대 하세요 하면서 돈을 주면 인지 붙이고 인지대 남는 걸 다 모아가지고 빚을 다 갚은 거야. 내가 1년 회계 보면서 살림을 알뜰하게 해줬지. 내가 잘 봐가지고 여자 후배가 또 회계 봤어.

면담자 : 당시 백만원은 큰돈이었는데 부채를 말끔히 청산하시다니 놀랍네요.
구술자 : 옛날에는 봉급도 현금으로 넣어줄 때야. 되게 재미있어요. 월급봉투 1원짜리 동전까지 해가지고 봉급 주는데, 농협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쇼핑백도 없던 시절이야. 농협이 면사무소에서 좀 떨어져 있었어. 그때 내가 7~8백만원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들고서 국도에 걸어오면 부면장이 마당에 있다가 쟤가 왜 저러냐고. 날치기 당할까봐. 쟤 좀 보라고 난리가 나고 그랬어. 남자 직원들은 오토바이 타고 갔다 왔어. 봉급날 되면 부인이 미리 와요. 저녁에 술 먹고 화투치고 다 날리니까.

면담자 : 당시 월급이 얼마였나요.
구술자 :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초봉이 4만3000원을 받았어. 수당 포함해서. 그 후 봉

급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면담자 : 방석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술자 : 제일 재밌는 에피소든데 연도순시가 와요. 연도순시가 오는데 그게 면에서 제일 큰 행사지. 차트에 딱 써가지고 차트 넘기면서 면장이 설명하고 그러는데 소파가 있고 테이블 한 개 놓고. 저쪽이 차트야. 면장이 여기서 하고 군수님 저기 앉히고. 그때 면장실에서 하는데 군수님 춥다고 석유난로를 양쪽에 놓고 했어. 근데 군수님 자리에 방석을 놨는데 그때 내 방석이 되게 예뻤거든. 무지개처럼 털실로 떴는데 무지개 모양으로 돼 있었어. 부면장님이 김양아 니 방석 저기 군수님 앉는 자리에 놔라. 근데 보니까 방석이 좀 더러운거야. 내 맘속에 군수님 오시는데 내가 앉던 걸 그냥 놔드릴 수가 없잖아. 그때는 짤순이도 없었어. 군수님 오시는데 겨울에 펌프 물을 퍼가지고 그걸 빨았어. 빨고 나니까 털실로 뜨다보니까 사이사이에 스폰지가 좀 더러운거야. 그래서 스펀지까지 빨았어. 스펀지까지 빨아가지고 남자 공무원들하고 막 둘이, 막 서로 막 비틀어가지고 짜가지고 널어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군수님 오시는 날이니까 일찍 출근해 준비했는데 겉에 털실은 다 말랐는데 스펀지가 들어보니까 조금 무거워. 그래서 부면장님, 이거 방석이 조금 무거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부면장님이 만져보더니 괜찮다! 이러시는거야. 그래서 스펀지 넣어가지고 실로 마감해가지고 군수님 자리에 딱 놓은 거야. 근데 양쪽에 난로가 뜨끈뜨끈하니까 군수님 거기 앉았어도 몰랐던 거야. 한 시간 정도 앉아 계셨던거야. 우리면 끝난 후에 용궁면에 가야하는데 그때 전화기 돌려가지고 군수님 지금 출발했다 그쪽에 연락을 해주거든. 근데 군수님 앉았다가 다하고 용궁면 가려고 일어나니까 옷이 다 젖은 거야. 막 당황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옆에 있었어. 난 거기 가서 막 울고. 군수님이 용궁을 가야하는데 그냥 갈 수 없어서 다시 군에 들어가서 관사에 가서 옷 갈아입고 가신거야. 근데 용궁면에서는 군수님 오실 시간이 됐는데 연락이 안오는거야. 군수님 지금 집에 옷 갈아입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옷 갈아입고 용궁을 가셨는데 군청에서 난리가 난거지. 행정계장이 막 면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도지사 왔는데 그랬으면 어땠겠냐고 막 난리가 난거지. 옛날에 어땠겠어. 그런데 면장님이 별정직이어서 카리스마도 있으니 아! 알았다고. 그런데 부면장님은 아! 예예 그러고.(하하하하 웃음) 군수님한테 사과하세요. 근데 면사무소 산업계장이 군수님 조카였어. 작년(2020)엔가 돌아가셨는데. 면장님이 산업계장한테 관사에 가서 죄송하다고 그러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책사가 간 거지. 작은아버지,

면장님이 죄송하다고 그러셨어요. 야야 옷 벌써 여기 가져다 놨다 이러시더래. 세탁소에서 세탁 해가지고. 군수님은 성의라고 생각하는데 밑에서 난리가 난거지. 그게 일명 유천명의 방석 사건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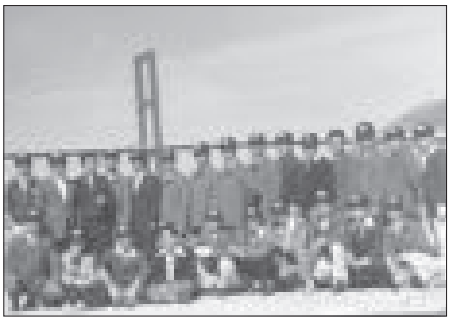
면담자 : 유천면 방석 사건, 기막히게 재밌네요.

구술자 : 그게 내가 떠나오고 난 뒤에도 계속 얘기가 된 거야. 거기에 내가 있었을 때 했던 사람들이 다 기억하니까. 토요일 되면 길에 새마을 대청소하잖아. 대청소하다가 군수님 나오신다 이런 소리 들리면 군청에서도 나와서 종이 줍고 하다가 "부면장님, 가서 방석 빠소."

면담자 : 하하하하. "부면장님, 가서 방석 빠소."

구술자 : 그런데 그 군수님이 분당 구미동에 사세요. 거기 사신다고 들어서 내가 당장 군수님을 찾아뵈러 갔어. 간다고 전화했더니 굳이 바쁜 사람이 뭘 오느냐고. 가서 내가 그때 죄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었어. 사모님이 다 잘 하려고 그랬던 건데 뭐.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사모님은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초등학교 선배여서 얼마 전에 전화 드렸더니 아버지가 치매가 조금 있다고 그러더라구. 김석종 군수님. 94세인가 95세 정도 되셨을 거야.

군복 차림의 을지훈련장면



호명면 시절 재건복 차림 단체 여행
(1열 좌측 두 번째 홍일점)

면담자 : 군수님도 훌륭하시고, 면장님도 멋진 분이셨네요.

구술자 : 그때 우리 면장님이 잘 하려고 그런건데 하시면서 걱정하지마라고 했거든. 참 멋있는 리더지. 나도 밑에 애들이 잘못해도 됐어, 걱정 하지마, 잘하려고 그런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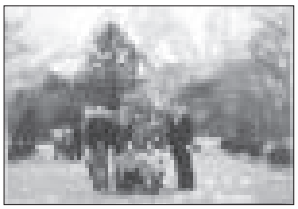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한테 배운거지.

면담자 : 유천면에 유명한 전설을 남기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셨나요.
구술자 : 유천면 있다가 예천읍으로 왔어요. 예천읍에 4년 조금 더 있다가 용인으로 85년에 11월 1일자로 왔지.

면담자 : 예천읍에선 어떤 업무를 보셨나요.
구술자 : 또 주민등록을 봤지. 83년도 주민등록 갱신할 때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였는데 고생 엄청 많이 했어. 동네 나가서 지문찍고. 주민등록이 원래 68년에 처음 생겼고 75년도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로 갱신됐어요. 68년에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6자리였어요. 75년도가 대대적인거지. 번호가 싹 바뀐거니까. 컴퓨터 검증번호 끝에 2자가 그 번호가 생긴거지. 그걸 83년에 다시 갱신한거야. 옛날에는 세로형이었는데 가로형으로 모양이 바뀌었어. 내가 갱신하다가 쓰러진 거야.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일제강점기 건물로 현재 보존되고 있는 예천읍사무소 앞에서

예천읍 동료직원들과 함께


주민등록증갱신 후 업무 함께 한 동료들과 설악산 여행

면담자 : 주민등록 갱신할 때 예천읍 주민이 몇 명이었죠.
구술자 : 그때 인구가 2만 7000명. 18세 이상인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읍사무소 다 와서 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마을회관 같은데 나가서 하는 거지. 엄청 신경이 많이 쓰였던 일이었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바꾸는 사업 할 때 차출도 해서 했어. 주민등록증에는 글씨 못쓰면 안되니까 글씨 잘 쓰는 사람 뽑아가지고 쓰고. 사진도 뒷면 까가지고 붙여야 해서 우리가 특기 사진 까기 이러면서 사진까지 붙여놓고 그랬지. 용지 수급상황 이런 거는 담당자가 다 맡아서 해야 하니까 내가 일이 많았지. 84년도까지 했나.

면담자 : 손으로 쓰고 사진 붙이던 시절이었으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구술자 : 요즘 같으면 이런 사업 있으면 사람 사 쓰라고 인건비 나오고 그러잖아.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우리가 다 했고. 요즘은 카드로 돼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사진 가져가서 압착기가 있었어. 거기다 압인 찍는 장소가 도마다 틀려. 83년도 갱신은 반공 그런 거 하고 관련이 있어. 범법자라든가 간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위치가 달라. 사진에 본드 칠해서 비닐 대가지고 압착기에 넣어 뜨거운 열 가해서 코팅하는 거지.

면담자 : 압착기로 코팅까지 하셨군요.
구술자 : 주민등록과 관련한 작업을 10년 동안 거의 했지. 내가 전산입력까지 했어. 전산입력 완벽하게 다 넣어가지고 전산으로 등본 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우리 때 한 거지. 내가 어느 날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산으로 띠니까 무료야. 내가 얼마나 분했는지 알아. 하하. 그걸 전산 입력하기 위해 1년을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그랬는데.

면담자 : 주민등록 전산 작업을 언제 하신건가요.
구술자 : 전산작업 시작을 88년인가 87년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90 몇 년도까지 했나. 완전 마무리는 안된 상태로 내가 재무계장을 간 거지.

면담자 : 주민등록 전산 업무까지 맡으셨군요.
구술자 : 용인읍에 있을 때 직원 15명이 나까지 7명씩 갈라서 밤12시까지 하면 그 다음날은 2조 돌아가면서 입력 넣고 제대로 넣었는지 확인하고 출력해서 확인하고 그 작업을 오랫동안 엄청 했거든요. 컴퓨터도 다 안되고 그래서 나눠서 했지. 그렇게 힘들게 해놨는데 등본을 인터넷으로 떼는 게 무료야.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거 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거 한다고 누가 시간외 수당을 줬어 뭐 했어. 옛날에 수당 있었으면 집한 채 샀다 이랬어. 낮에는 민원보고 밤에는 그거 해야 되는 거지.
또 주민등록 총열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다른데 가서 감사하고 우리한테 와서 하고 시도간에 교환도 하고 그럴 땐데 주민등록표가 너무 더럽고 그러니까 얘들 이번에 옷 한번 갈아입히자 해서 비닐 새로 다 끼고 그랬는데 어느날 일 하다보니까 미화원 아저씨들이 출근하더라니까. 밤 새워 일한거지. 그렇게 했는데 공짜라니 말이 되느냐고. 말로 다 표현이 안되지.

면담자 : 주민등록은 한 글자만 틀려도 안되잖아요.
구술자 :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잖아요. 그거 한 개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고. 0.1%도 오류가 나오면 안되는 거지. 그걸 손으로 다 일일이 입력 했는데. 그래서 주소 많이 옮겨 다니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어. 그 사람들도 고의는 아니지만.

면담자 : 글씨 못쓰면 안됐겠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공책 검사해서 전시도 했는데.
구술자 : 글씨 못쓰면 옛날 같으면 공무원도 못해. 글씨 잘 쓰는 사람 뽑혀가지고 일용직에서 상용직 된 사람도 있다니까. 글씨 잘 쓰는 사람이 1등이었어.
자식들이 되게 많은 집에서 호적등본 떼러 오면 인상이 확 돌아가는거야. 그러면 우리 김양 화났다고 했어. 열 몇 장인 집도 있어. 나중에는 꾀가 나니까 한통 떼달라면 먹지 깔아서 몇 장 떼서 밑에 넣어놨다가 오면 주고 그랬거든. 호명면에 있다가 다른데 갔는데 캐비닛 밑에 호적등본 떼 논 게 나온거야. 근데 그게 나오니까 요것 봐라, 요 김남숙이 꾀가 많다 그랬다지. 나중에 복사기 나오니까 이런 세상이 오다니. 복사기는 처음에 좁쌀 같은 알갱이가 있어요. 그걸 몇 번 흔들어 가지고 그 위에 놓고 흔들어. 사진 찍는 원리와 같은데 좁쌀 같은 위에 넣고 열을 가하면 그 밑을 왔다 갔다 하면 글씨에만 까만 게 묻어요. 유리에서 떼면 복사가 돼 나오는 거야. 그게 78, 79년에 나왔을 거야. 그것도 막 신기했지. 그다음에 약간 파란색 나오는 거 있지. 그런거가 나왔어. 복사기의 시초지.

용인 첫 발령지 기흥읍사무소

면담자 : 용인으로는 언제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구술자 : 결혼 후 남편이 이쪽에 회사에 다녔으니까 이쪽으로 온거지. 85년 3월에 결혼하고 11월 1일자로 용인에 힘들게 왔지. 나는 결혼 조건이 끝까지 직장생활 한다였어. 공무원 생활이 너무 재미있고, 난 일이 너무 좋았어. 85년에 용인에 처음 와서 기흥읍으로 발령 났는데 예천읍하고 비슷했어. 지금은 천지개벽 한거고. 지금 예천은 점점 쪼그라든 거고. 용인이 한참 커갈 때야. 근데 기흥이 그해 막 읍이 된 것 같아. 읍이 되면서 직원이 몇 명 늘어나고 그랬을 거야.

결혼식 장면

폐백 장면

면담자 : 용인에서는 어떤 업무를 보셨나요.

구술자 : 사회계. 사회복지계를 사회계라고 불렀어요. 복지 개념이 아니고, 청소업무하고,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래가지고 기초수급자야. 지금은 돈으로 줬지만 그때는 쌀과 보리를 줬어요. 저울에 달아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저울에 달아 주는데 쌀을 1일 144g인가, 보리쌀 몇g 이래서 주는 거야. 사회계 창고가 따로 있어요. 수불부가 있어서 얼마 줬는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숫자가 맞아야 하잖아. 맞출 수가 없어. 막 죽겠다는 사람 오면 더 퍼주고. 그러다가 도에서 갑자기 감사가 나왔어. 창고를 딱 간 거야. 근데 수불대장하고 실제하고 안맞는거야. 받고 내주고 이러는 것. 난리가 났어요. 안 맞아가지고 읍장님한테 혼나고. 수급권자들 매년 한 번씩 조사하고 쌀, 보리 주고. 마대자루 같은 걸 그들이 가져오면 우리가 달아서 주고. 뭐 나중에 다 이해가 된 거고.

면담자 : 80년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쌀과 보리를 줬다니요. 청소업무는 뭘 하신건가요.

구술자 : 청소도 오물세라고 해서 몇 백원, 몇 천원 식구 수 해서 고지서를 분기별로 내보낸 거야. 그때 상갈동에 있는 한 아파트가 오물세를 40%도 안내는거야. 그래서 청소하는 기사 아저씨들보고 그 아파트 청소하지 마세요. 내 성격이 그렇잖아. 그랬더니 왜 안해주냐 그래. 오물세를 내야지 그랬지. 난리가 난거지. 냄새가 나고. 민원이 들어왔어. 오물세 안낸다고 쓰레기 안쳐준다고. 읍장님한테 막 혼났어.(하하하). 술을 드셔도 비뚜로 안 걷고 바르게 걷는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때 많이 혼났어. 나중에 가서 다 치워주고 그랬지.

면담자 : 하하하, 오물청소를 안해주셨군요. 원칙대로 꼿꼿하게 하셨네요.
구술자 : 하도 안내니까. 나도 독촉장 고지서를 쓰려면 손이 새까맣도록 써야 하는데. 고지서 집집마다 다 손으로 섰잖아. 거기는 아파트니까 세대수가 많으니까 쓸 것도 많지. 낮에는 일하고 다 못하니까 밤에 가져가서 집에서 쓰는 거야. 팔이 아파. 굳어가지고 오른팔 들지도 못했어요. 딱딱했었지. 지금은 좋아진 거고. 나중에 내가 그랬어. 이거는 보상해줘야 한다고.

면담자 : 독촉장을 한 두장 쓰는 게 아니니 충분히 이해가 가요.
구술자 : 징수계도 있었는데 체납 고지서 썼어. 체납하는 사람들 싫어했어. 손으로 다 써야 하니까. 고지서를 돌릴 때 우편으로 안하고 통장들 통해서. 지금 통장들은 다 거져지. 그때는 돈도 안 받는데. 사회계에서 진급해서 주민등록업무 보다가 다시 기흥읍 가서 징수계에 있던 거야.

면담자 : 주민등록 업무를 또 보셨다구요.
구술자 : 용인에 8급 승진해서 왔지. 87년 2월 달엔가 7급 진급했어. 진급하면서 용인읍으로 왔어. 용인읍에 와서 주민등록업무 본거지. 그때도 손으로 썼지. 입력하는 작업 했어. 주민등록은 입력을 넣을 때는 사람 수대로 넣는 거니까 되게 많았어. 인구가 많으니까. 처음에 전산작업 할 때 모델이 용인읍이었어. 그때 인구 3만 기준으로 전산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인구가 늘어 5만이 된거야. 컴퓨터가 다운이 되는거지. 전화를 하면 프로그램 만든 회사, 내무부 이런데서 같이 오는거야. 그럴리가 없대. 와서 보면 그렇거든. 3만 기준으로 했는데 5만하니까 과부하가 걸린 거야. 87년도에 1년 있다가 다시 기흥읍에 간거야.

면담자 : 용인읍 때 주민등록 전산작업을 하신거군요.
구술자 : 주민등록 처음 전산 입력할 때 처음 시범적으로 했던 데가 경기도 광주인 것 같아. 처음에는 입력 넣는 것만 한 거지. 전산으로 뽑고 이런 거는 90년도 넘어서 한거지.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 자꾸 에러가 나니까 자꾸 보완해서 완벽한 프로그램이 된거야. 용인읍에 맞춰 프로그램이 점점 개발된 거지. 시범운영은 아니었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왔던 거지. 동사무소에서 인구가 그렇게 된 데가 없었거든. 이상하게 87년 당시에 용인읍이 커졌어. 유림동 빌라가 얼마나 늘었어. 그래서 용인이 시가 돼야 한다고 그런거지. 지금 중앙동사무소 자리.

면담자 : 다시 기흥읍 징수계로 가신 거군요.

구술자 : 88년도에 아마도 기흥에 왔을 거야. 다시 기흥읍에서 고지서 엄청 썼어. 그러다가 91년인가 92년도에 세무비리 사건이 한번 터졌어요. 부천 세무비리가 아마 91년돈가 그럴거야. 그래가지고 전체 감사를 받는 거야. 그때는 은행에 돈을 내면 본인한테 영수증을 하나 주고 은행에 하나 보관하고 한 개는 우리한테 줘요. 영수필 통지서를 줘. 그것 가지고 수납을 처리해 줘야해. 낸 사람 처리하고 안 낸 사람 다시 독촉장 뽑아가지고 보내야 돼. 은행에서 넘어온 영수증을 어떤 사람이 가져왔는데 여기는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계산을 안 하는 거야. 보통 공무원이 계산 하느냐고. 근데 나는 그걸 다 계산한 거야. 계산 했더니 은행에서 가져온 계산이 틀려. 은행이 이따위밖에 못하냐고 그랬지. 지금도 그 사람이 있어. 되게 미안하더라고. 이게 민원한테 잘못하는 거잖아. 요즘 같으면 난리나지. 이래서 안되겠다 싶어 번호 순서대로 놔가지고 고지 수납부에다 찍고, 액수 확인하면서 다 찍고. 틀림없는 거야. 세무비리 사건 났을 때 은행에서 한 것도 있는 거야. 돈을 냈다고 하는데 금액을 덜 보내는 거지. 근데 나는 여기서 그걸 다 계산한거야. 애들 안시키고 내가 다 한거야. 내 성격상 했는데 세무비리 터지고 나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거야. 전 시군이 다 한 거야. 우린 한건도 안나왔어. 잘못 찍고 그런 게 한 개도 안나온거지. 어떤 사람이 좋아서 낸 거로 찍어주면 안내도 낸 거로 되는 거지. 혹은 은행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온 영수필 통지서하고 대조필 한거지. 나는 영수필 영수증하고 며칠 것 다 해가지고 케비닛에 넣었지. 감사를 나왔는데 교차해서 다 하고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총열이라고 그걸 다 하나씩 대조했는데 난 한건도 안나왔어. 물론 당연히 안나와야 하는 거지만 어쨌든 나는 흐뭇했지.

그래가지고 전산이 된거야. 은행에서 이걸 우리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고 고지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거야. 그걸 은행에서 수납해가지고 이게 전산화가 된거야. 그러면서 행정이 발전하는 거야. 어떤 계기가 있는거지.

면담자 : 세무비리 터질 때 역시 빈틈없는 처리로 청정지역 만드셨네요. 다음은요.

구술자 : 계장이 내가 92년도에 됐던가. 용인읍에 주민계장으로 왔지. 난 승진이 기존 있던 사람들한테 비교하면 늦은 거지. 92년도 계장될 때 앞자리에 나보다 늦는 사람이 나갔어. 전입 왔다고 그랬는지 이듬핸가 해주더라고. 후배들이 나이는 많을지 모르지만 내가 공무원으로 치면 훨씬 빠른데도 그 사람들이 먼저 진급해 계장으로 있던거야. 그 후부터는 잘 나간거지.

92년에 주민등록 그때도 전산 입력 했어. 주민등록 업무를 전체 다 총괄해서 하는 거지. 그때는 출생신고 오면 새로 카드 만들고 그건 같이 했어. 전산입력 완벽하게 되고 난 뒤에 전산으로 업무를 봤지. 같이 한거야. 입력은 입력대로, 떼는 것은 떼는 대로. 그때는 복사기로 복사해주니까 걱정도 없었지. 직원들 전산입력을 밤 12시까지 시키는 게 미안해서 포곡, 모현 집이 먼 사람은 밤 12시 넘어 택시 태워 보내기 미안하니까 우리 신랑이 태워다줬지. 대지고개 넘어 집에 오면 새벽 한 두시. 그렇게 일했어요.

용인시 여성 최초 산업계장

면담자 : 용인시 승격도 됐을텐데 시청근무는 안하셨나요.

구술자 : 용인읍에 있다가 96년도 3월 1일자로 용인시가 된 후 발령이 구성면으로 났어요. 시청 아니라도 용인읍, 기흥읍이라도 해줬으면 좋은데 다니기도 불편해서 좀 속이 상했지. 그때는 애도 어렸고 차도 없으니 다니기 편하고 집 가까운 곳이 좋았지. 근데 구성에 간 것이 오늘의 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구성을 갔는데 당시 구성 재무계장을 서로 아무도 안하려던 자리였는데 내가 재무계에 갔어. 거기 가서도 일 있던 것 마무리 깔끔히 하고는 사회계장은 그 뒤 한 달 했구나. 재무계 있다가 재무계 좀 하기 싫은거야. 내가 장난을 잘치니까 농담으로 산업계장이나 한번 해볼까 했더니 진짜 할래요 그러는거야. 내가 뱉었는데 하면 하지 못 할건 뭐가 있어 그랬더니 바로 2층 면장님한테 쫓아가 김남숙이가 산업계장하고 싶단다고 그랬더니 바로 발령났어. 그런데 내가 산업에 산자를 알아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거야. 내가 산업계장을 지금 못하면 앞으로 여자가 산업계장을 절대 못한다. 여자 시켜봤더니 안되더라. 이럴거 아냐. 내가 여자 산업계장이 맨 처음이니까 또 막 열심히 했는데 나름 멋지게 했어. 농사 업무, 농지전용, 이런거 하는거야. 당시 여자는 안 시켰어.

면담자 : 산업계장 일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구술자 : 농지 취득해서 농사 제대로 짓나 안짓나. 500필지 넘는 데를 내가 다 다녔잖아. 1번지, 2번지, 3번지 이런거 해가지고 전체 동네별로 지도에 형광펜으로 색 칠해가지고 구성면 중리 몇 번지. 그 땅 그 앞에 현장을 내가 다 밟은 거야. 외지 사

람들이 엄청 사놨거든. 사놓고 농사 안지니까 처분대상 농지 그런 거를 엄청 열심히 했어. 처분대상 농지 공문을 보내니까 난리가 났지. 서울서고 어디고 빽이고 뭐고 압력이 막 들어오는 거야. 자기가 호박 심었대. 아 그 밭요. 땅이 300평인데 호박 스무개 심어 놨다. 엉성하다. 내가 가서 헤아려봤는데 그거 농사진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 처분 대상되면 농지를 팔아야 돼. 다 찾아 다녔잖아. 그래서 다 찾아낸거지. 구성 어디쯤 가면 몇 번지정도 되고 이게 딱 잡히더라고.

어떤 것은 농지 취득증명을 했는데 가보면 교회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도 있고 이래. 그랬더니 교회목사가 와서 영적인 걸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고발을 당하느냐면서 막 난리를 치고.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교회를 지어야 하는데 그런게 막 나오는거야.

면담자 : 500필지 넘게 직접 다니면서 외지인 땅 투기를 찾아내셨군요. 동백지구죠.

구술자 : 동백지구. 용인이 부동산 투기 붐이 일때야. 지정해 놓고 안하고 놔두고 그러니까 땅주인들이 농지불법을 엄청 하는거야. 묘목 같은 걸 뿌려놓고 그걸 다 보상받잖아. 그런 시절에 내가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오히려 그때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을 한거지. 그렇지만 사실 그때 나 못된 짓도 참 많이 했구나 싶어. 내 퇴임사 할 때도 그분한테 아직 사과도 못했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어. 어느날 어떤 어른이 한분 찾아오셨어. 어찌 오셨나고 했더니 봉투를 툭 던져. 보니까 검찰청에서 온거야. 벌금 300만원. 중리야. 그러니까 구성 동백지구 이쪽은 다 중리잖아. 동백은 끝에 고속도로 옆에 조금이거든. 어쨌건 동백지구 안에 있던 땅이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농지불법 많이 하니까 지역적으로 딱 찍어가지고 소문 나라고 샘플로 고발했거든. 그런데 이분이 딱 왔는데 검찰청에서 온거야. 근데 이분은 벌금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검찰청 이런데서 오면 어른들은 자기가 전과자라는 그런 생각하잖아. 내가 서늘한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소릴 하는 것도 웃기고. 난 정상적으로 행정집행 한건데. 그래서 내가 뻔뻔해져가지고 딱 보고는 봤습니다 그러고서 도로 그쪽에 놨어. 그랬더니 어르신이 받아가지고 아무소리도 안하고 가시는 거야. 그게 내 퇴임사에까지 넣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어. 그분은 농지불법 매립 한거였어. 방법을 찾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불법 매립 이런 거 없어졌어요. 전에는 30센티 이상 하면 불법으로 보는거야. 그런데 2미터씩 해놨는데 원상복구 안되잖아. 그러니까 사전에 원상복구 하라고 공문을 내보내는 거야. 안하니까 나중에 고발

들어가는 거지. 흙을 2미터, 3미터씩 쌓아 놓았는데 불법 한거지. 내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그분이 나한테 욕이라고 한 말씀 하고 갔으면 내가 오히려 속이 후련할 텐데 그게 나한테 지금까지 속에 짠하게 남아있어.

면담자 : 김남숙 뜬다 하면 다들 무서워했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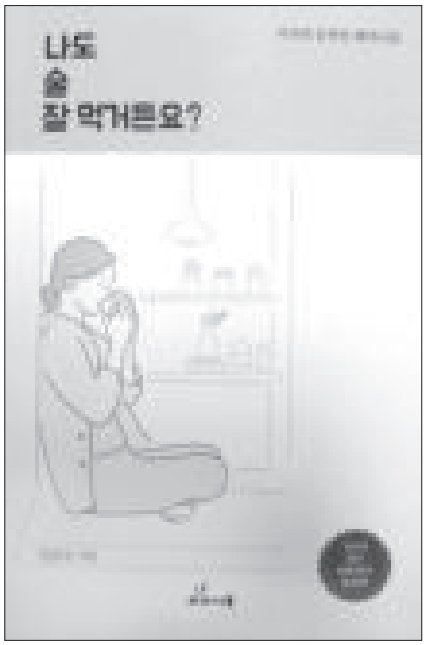
구술자 : 다 그런것도 아냐. 집 짓다보면 촌에서 옆에 조금 건드릴 수 있잖아. 그러면 불법이야. 총리실에서 감사 나오면 맨날 산업계장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양성화해줬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검찰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우리가 할 것 다 했는데 요만큼 때문에 내가 사는 집을 허는 것은 실이 너무 크다. 이제는 양성화 시키는 게 타당하다. 양성화 시켰는데 이런 게 5개나 돼. 그때 직원들이 나더러 간이 크다고 했지.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서 그걸 못했었어. 내가 간이 컸던 거야.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어찌 됐는지도 몰라. 누가 해줬는지도 몰라. 진짜 농민들, 해줘도 와서 말 한마디 고맙다고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거야. 그때 내가 협작 했으면 문제 됐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나도 그로 인해서 그 뒤로 징계 받은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거지. 종결시켜 버린거지.

면담자 : 원칙을 지키면서도 합리적이셨군요.

구술자 : 내가 일하는 방식이 원칙을 준수하고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되는 거지. 기준을 세워놓고 하니까 그 뒤에 온 사람들은 편한 거야. 그 기준 맞추면 되니까. 그런데 원칙 지켜서 한다고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원칙 100% 지켰겠어. 딱 원칙만 지키면 융통성이 없는 거지. 그런 거는 내가 정리를 해주는 거지. 무지한 사람들이 모르고 그리 하다보면 그리 될 수밖에 없는데 몇 년이 지나도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그런거는 내가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해주는 거지.

면담자 : 여성 산업계장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셨네요.

구술자 : 처음에는 여자가 무슨 산업계장이냐고 이장들이 다 사표 낸다고 그런걸 나만 모르고 있던거야. 그래서 김동해 면장이 수를 쓴거야. 그래서 내가 김동해 면장을 좋아하는 게 그래서 좋아하는거야. 농지전용을 하자면 읍면에서 농지소위원회가 있거든. 이 사람들 심의를 거쳐 시에 올리면 시에서 해주는 거야. 심의를 하는데 어느날 구성 삼거리에 횟집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 그때는 점심때 카드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 그랬어. 면장님이 5만원 주면서 김계장 고스톱 쳐 그러는 거야. 한 팀은 고스톱치고 한 팀은 카드하고. 난 그때 고스톱 돈 내기 처음 했거



공직 40년 외길 인생을 돌아보는 자전적 내용의 후배 공직자 지침서 발간. 여성 공직자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는 선구자로 여성 업무 영역을 넓혀 나갔다.

든. 맨 처음 근무하던 데서 직원들 숙직실서 화투 치는 걸 어깨 너머로 배워서 따오는 건 알아. 남자 이장들하고 고스톱 쳤는데 내가 다 땄네. 돈을 다 따가지고 그날 점심값을 내가 내고 면장님 빌린 돈 5만원에 이자 1만원해서 6만원 드리고도 돈이 막 남는거야. 같이 갔던 직원한테 너 가져 줘버리고 나니까 그 후 이장들이 아무소리를 못하는거야. 여자라고 그랬다가 화투치고 돈 다 잃었지 망신당했지. 그 다음부터는 이장들하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지낸거지.

면담자 : 어딜 가나 멋진 에피소드를 남기시네요.

구술자 : 봄만 되면 창고에 양수기 정비를 해요. 기름칠하고 되나 안되나 확인하고 그러는데. 예천서도 처음에 양수기 닦고 울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구성서 양수기 숫자를 헤아려보니까 대장보다 한 개가 모자른거야. 그때 관정에도 페인트를 노란 걸 칠하거든. 우물이잖아. 보정동에 지금도 하우스가 많지만 거기를 갔는데 관정에 페인트 칠하고 난 뒤에 관정을 보니까 양수기가 세 갠가가 꼽혀있어. 우리 숫자 하나 모자르니까 하나 뽑아가자. 하나 뽑아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한분 오셨어. 아까 면사무소에서 왔다갔는데 아침에 물주고 왔더니 양수기가 하나 없어졌다고 그러잖아. 가져와서 페인트 칠하고 깨끗하게 해놨거든.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두근두근 하는거야. 가져왔다는 소리를 못하고 필요하면 면에 것 하나 가져가시라고 한 개를 줬어. 나중에 고물상에서 한 개 사서 숫자 채워놨지. 나는 양수기로 하우스에 물주고 하는 걸 몰랐거든. 지금 같으면 사실대로 말하고 돌려줬을거야. 아니 그런 일이 애초에 벌어지지도 않았겠지.

면담자 : 구성에 얼마나 계셨나요.

구술자 : 산업계장하다가 복지계장을 한달 하고 총무계 갔나. 총무계장까지 했으니까 계

를 다했지. 호병계만 안하고 다 했어. 거의 3년 몇 개월 있었나. 구성에서 총무계장도 내가 처음 한거야. 여자가 그런 예가 없는데 맨 처음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뭐 인정이랄까 그런게 있었으니까.

면담자 : 여성 총무계장도 처음이셨군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셨나요.

구술자 : 96년에 3월 1일에 구성에 갔다가 98년 12월 14일자로 기흥에 왔어. 읍에 6급 개발과장 자리가 있었어. 개발과장도 산업계, 건설 이런 거거든. 상공계, 교통 이런 쪽도 했고. 그때 98년도니까 IMF 땐데 개발과장 얘기를 하더라고. 관두라는 소릴 안하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6급이라도 어쨌든 개발과장이잖아.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

면담자 : 개발과장 때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구술자 : 거기서는 포장마차 단속이 우리가 해야 하는 거야. 기흥읍사무소 앞에 거기 포장마차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 리어커를 적환장에다 갔다 놨어. 근데 내노라고 난리쳐서 안 줄 수 있어 줘야지. 한번은 단속을 나갔더니 오뎅 국물 펄펄 끓는 거를 한국자 퍼가지고 우리한테 막 던진적도 있고. 상갈동 박물관 하천 둔치 포장마차에 상가 민원이 너무 많은 거야. 장사 잘 되면 다른 집에서 자꾸 신고하는 거야.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을 찾다가 쓰레기 차 암롤 박스에 쓰레기를 한가득 채워서 포장마차 옆에 갖다 놓으라고 했지. 그랬더니 싹 없어졌어. 냄새 나니까 못하잖아. 너무 악랄하게 한 것 같아. 불법은 불법이니 그 사람들 편을 들 수도 없잖아. 민원이 너희 왜 방치해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지. 포장마차는 전국 어디나 골치아픈거야. 다 상대가 있으니까. 불법주차도 단속했어. 단속을 하고나면 내거만 왜 끌어가냐고 오잖아. 한참 싸우다가 근데요 아줌마 거 차 댔어요 안댔어요. 댔어요. 그럼 가세요. 그러면 성질내면서 왜 내차만 끄냐고. 바다에 그물 던지면 고기 다 잡혀요. 빠져나가는 놈 있지. 단속하면 하고 난 다음에 또 대고. 주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세게 하지 않으면 근절이 안 돼. 다 현장업무지.

면담자 : 포장마차라니요. 고되고 힘든 일은 몽땅 도맡아 하신 것 같네요.

구술자 : 거기 있다가 시청으로 들어왔지. 2000년도에 들어왔나.

면담자 : 본청 입성은 어떤 의민가요.

구술자 : 난 시청에서 너무 근무하고 싶었는데 시청을 안보내주는거야. 워낙 조직이 크니까. 그때는 시청은 여자 몇이만 근무했고 우리는 감히 시청을 못들어가 보는거야. 시청이 너무 가고 싶어서 그때 세무직이 생길 때야. 세무직으로 전직 하려고 그랬어. 근데 내가 재무계에 근무하면 그냥 세무직으로 전직을 해주는데 다른 계에 있으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내가 행정직인데 시험까지 봐가지고 세무직으로 전직할 필요는 없잖아. 농업직 이런 사람들은 바꿨거든. 그래서 내가 세무직으로 전직을 못한거지. 그래서 나는 시청 종자가 아닌가보다. 읍면종자가 따로 있고. 뭐 이런 말이 있거든. 개발과장 되고난 뒤에 다른 읍면에 계장으로 보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2000년도에 시청에 들어오게 된거지.

면담자 : 시청에서 무슨 과에서 일했나요.

구술자 : 들어와서 여성정책 계장을 간거야. 거기서 1년인가 2년 있었어. 여성발전기금 조례 했지.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 처음 생긴거지. 10억이었나. 맨 처음에 조례 자체가 없었으니까. 시장님이 20억 하지 그랬어 그러셨어. 의회에서 뭐랄까봐 그랬지. 맨날 일반 예산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항상 돈이 적고 사업을 임의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했지. 기금 이자로 하면 되니까 이자 적으면 일반 예산에서 조금 얻어다 쓰고. 예산 조금 세우면 되니까.

예강환 전 용인시장 사무관 임용장 수여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 표창 수여

면담자 : 여성계 발전의 초석을 놓으셨네요.

구술자 : 여성계에서 처음에 난 욕 많이 먹었어요. 여성단체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다 해줘. 이러지 말자. 용인정도 시에서 여성단체라면 어디 가서 강의라도 할 정도 되야하지 않겠나. 지금은 내가 해줄테니 앞으로 같이하자. 대우만 받다가 내가 그

런말 하니까. 나중에는 돈독해졌지.
내가 여성단체 하나 제대로 만들었잖아. 강의도 하고 성교육도 하고. 수지에 사무실 해서 학교 사회교육, 성교육 같은 거 하고. 그 뒤에 상현동장을 갔잖아요.

면담자 : 여성 첫 기관장 소감이 어떠셨나요. 상현동도 난개발 같은 것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구술자 : 200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상현동장 발령을 받았어. 사무관(5급)이 된다는 건 생각해본적이 없어 너무 뜻밖이라 솔직히 놀랐지. 사무관은 통상 기관장이 되는 동장이나 면장이 되는 길이거든. 근데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어. 상현동이 난개발이라고 할 땐데 민원이 엄청났거든. 막상 사람들이 이사를 와보니 아파트 값이 팍팍 떨어져서 분양가 이하가 돼 버렸어. 강남서 작은 아파트 팔고 여기서 큰 거 사고 차한대 뽑고도 돈이 남았는데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디로 오겠어. 불편함을 표현하는 거지. 시청(현 처인구청) 후문 뒤 산업도로에다 버스 대절해서 데모하는거야.
수지에 6개 동이 처음 생길 땐데 좀 많이 힘들었지. 어떤 날은 부녀회가 연판장을 돌리는 거야. 막 복사해가지고 난개발 이런 거 돌리는데 어느날 보니까 복사한 게 내용이 똑같더라고. 부녀회를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못하게 했어. 진짜 독재했지. 연판장 돌리고 그런 거 하려면 이용하지 말라고. 아파트별로 연판장 받고 이런 게 부녀회가 한거 거든. 새마을 본연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주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거기 2년 있었잖아. 오기 한 두 달 전에 회의실 줬어.

면담자 : 주민들과 신경전이 대단하셨네요.

구술자 : 힘들긴 했지. 그래도 내 인생에서 괴로운 가운데 즐거운 시절을 꼽으라면 단연코 상현동장으로 일한 때야. 어느날은 막 이 아파트 못살겠다 현수막 써붙여 놓고 이랬어. 그러고는 부녀회장하고 앞장 선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뭐라 얘기해. 난 이해가 안간다고. 저거 왜 붙여놓냐고. 저러면 아파트값이 오르겠냐고. 더 떨어지지. 여기 살면서 이 아파트 못살겠다고 그러면 누가 살러 오겠냐고. 살기 좋고 공기 좋다고 해야 사람들이 살러오지, 여기 살면서 여기 못살겠다고 하면 아파트값이 어떻게 오르겠냐고 그랬어. 이튿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동사무소 앞에 현수막이 없어졌어. 용인시장 욕도 써서 붙이잖아. 그러면 내가 욕 왜 하냐고. 용인시장이 용인시로 이사 오십시요 광고 한 번도 한적 없다고. 이사하면 맨 먼저 하는게 어린애 있으면 학교 어딨는지, 출퇴근하는 사람은 대중교통 보고

그러는거 아니냐고. 당신들이 투자했다가 지금 안 된걸 왜 용인시장 욕하고 물러가라고 그러냐고. 내가 나중에 여성회관장 할 때 찾아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 이제는 그 사람들도 거기가 좋지.

면담자 : 수지 주민들이 워낙 주장도 있고 똑 부러지잖아요.

구술자 : 어느날은 동장실서 민원실 내려가니까 직원이 막 울어. 왜 우냐 그랬더니 어떤 민원인이 새대가리라고 그랬어요. 분해가지고 우는 거야. 야 그러거든 싸워. 내가 책임져줄 테니까. 여기 50대 1, 60대1 뚫고 들어왔어. 앞으로 울면 내가 니 그냥 안둬. 사람들이 그때 동사무소가 깡통집에 있고 하니까 무시하더라고.

면담자 : 강력한 카리스마를 펼쳤던 시절이었네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셨나요.

구술자 : 남사면장 갔지. 남사면장은 다 거기 가가지고 힘들어 난리들치고 이랬잖아. 다른 사람들은 동장하고 나면 시청 들어가는데 난 왜 시청종자하면 안되는가. 어쨌든 남사를 갔는데 발령 났을 때는 기분이 좀 그랬지. 근데 가서 보니까 주민들 너무 좋고 순박하고. 얼마 전에도 갔다 왔잖아. 보고 싶어 요새도 전화오고 그래.

면담자 : 다른 남사면장들은 왜 힘들어 한 것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면민과 친해지신 건가요.

구술자 : 아파트 마을은 문 닫으면 단절이 되지만 남사는 면장이 뭐 어떻대 그러면 계속 말이 붙잖아. 난 휘둘리지 않았지. 남사면에서 이장단하고 중국을 간거야. 밤에 호텔 문을 차고 소릴 지르고 정말 창피한 거야. 둘째 날 관광 가는데 마이크를 딱 잡았어. 어젯밤에 호텔을 발로차고 시끄럽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제가 지랄시리즈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게 유행이었는데 출력을 해가지고 갔었거든. 자 어제 발로 차고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지랄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지랄은 영어로 GR입니다. 나무꾼이 선녀 옷을 훔치려고 선녀탕에 들어갔는데 왜 산신령이 목욕하고 지랄이야. 뭐 이런 재밌는 유머인거야. 그걸 쫙 읽었어. 그날 밤부터 호텔이 조용했다니까. 나중에 들으니 이장 하나가 면장 대단하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그간 내가 했던 말을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다보니 맞는 거지. 관광가고 그럴 때 음료수 사줄 돈 없어요. 동네에 사업 같은 거 들어오면 이장님들 공사 감독 철저히 하세요. 남사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최소한 2년은 무난히 있다가 가게 하세요. 왜냐면 이 공무원들이 시청 예산부서에 가서 예산 안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기억 안좋으면 남사 가는 예산

있으면 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겠어요. 잘해주면 더 보살필 수 있고 그러니까 잘 해 주시라고. 남사 서로 안가려고 하고 좌천되는 걸로 알면 안되지 않냐. 그 후로 면장이 2년 이상씩 있었어. 그렇게 바뀌어가더라고.

정보기획단장 시절 고림동 영화아파트 단지 내에 마련된 도서관 방문

면담자 : 역시 노련하세요.

구술자 : 남사에 있다가 유림동장으로 갔어. 유림동에서도 열심히 했지. 그 후 여성회관 갔지. 여성회관은 시청은 아니지만 관할 사업소니까 거기 가서 재밌게 했지.
여성회관 하고 난 뒤에 주민생활과장 6개월 정도 있었나. 그런 후 내가 진급을 한거야. 그랬더니 시청 온지 몇개월만에 국장됐다고 난리가 났어. 그럼 내가 다른데서는 일을 안했냐고. 서정석 시장 때 관장은 5급. 4급 진급할 때 6명인가 7곱명인가 했어. 그때 여자 끼워 준거지. 앞에 고참 과장님이 원래 사무관도 남녀 다 쳐도 제일 오래됐고 그분은 사무관도 우리처럼 된 게 아니고 시험 쳐서 사무관 된 거야. 나이나 경력 모든 걸로 보나 0순위였지. 그분도 관운이 없는 거지. 그 분이 과장할 때 내가 그 밑에 계장했지. 정보문화기획단이라고 도서관 하고 여성회관 관리 한거야. 그러니까 여성회관은 두 번 한 게 된 거지. 공연하고 교육, 도서관 이런 게 있었으니까. 나는 남이 하지 않은 많은 거를 경험했어. 다 했지. 문화예술과 하고 국이 따로 있었지만 공연장을 실제 관리하는 거는 정

보문화기획단에서 했어.

면담자 : 그 뒤로는 탄탄대로셨죠.

구술자 : 맨날 단장, 소장 해가지고 별이 몇 개냐고. 정보문화기획단장이 나중에 명칭이 평생교육원으로 바뀌었어. 평생교육원장은 3번 갔어. 아무리 용인시에 평생교육이 김남숙 아니면 안되도 세 번째 보내는 거는 너무 심한게 아니냐. 그러고 말았지. 그리고 도시사업소장 했지. 그때 대규모 사업을 다 갖고 있었던 때야. 시민체육공원, 경전철, 장례예식장. 큰 규모 사업을 다 관리하고 있었지. 어마어마했지. 여기 와서 놀란거야. 돈 백만원가지고 벌벌벌 떨다가 여기 오니까 억은 돈도 아냐. 체육관도 1400억대 그랬지. 장례예식장 평온의 숲도 그랬지.

도시사업소 체육주간 행사 장면을 담은 캘린더

재정위기 넘기다

면담자 : 용인시 재정 파탄 날 때 재정국장도 하셨잖아요.

구술자 : 도시사업소장 하다가 평생교육원장 했다가 재정국장으로 간거야. 그것도 경전철 때문에 7천 몇백 억 지방채 발행할 때라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 그때 용인시 부도난다는 소문이 파다 할 때거든. 그런데 도시공사도 공사채 상환이 도래되면서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었어. 부도난다니까 시중 은행에서 용인시에 돈을 안빌려주겠다는거야. 농협은 시금고니까 어쩔 수없이 했는데 당시 서 지부장이 많이 도와줬지. 본점까지 올라가서 0, 01% 갖고도 금리가지고 싸우는 거

경전철 운영 벤치마킹 차 중국 방문

야. 워낙 금액이 크니까. 사실 그거 재정국장 할 때 3.4% 받았어. 엄청 잘 받은 거지. 농협은 어쩔 수 없으니까. 대신 용인시가 채무보증 서줘야 하는거야. 채무보증 서야 한다. 근데 누가 해줘. 그러니까 돈을 안주는 거야. 시가 채무보증 동의 해달라고. 그건 안해 줄 수가 없거든. 근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거야. 밤 12시에 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그걸 받아서 며칠 사이에 900억을 갚아야 하는 거야. 500억, 400억 두건. 도시공사가 그러고 난 뒤에 명지대 앞에 땅 팔리기 시작 한거야. 그래서 살아난거야. 그때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도 같이 했거든. 사장 관두고 본부장 세 명 직위해제 됐을 때야. 그때 오전에는 사무실에, 오후에는 거기 가서 결재하고. 왔다갔다하면서 도시공사 한 필지씩, 한 필지씩 땅 팔리고. 도시공사 처음 가보니까 택지단지 같은 거 누가 사러오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라. 인쇄소 가서 홍보전단 만들어 수지, 강남, 분당 이런 쪽 부동산 쪽에 뿌려라. 그러면 노후자금 때문에 사러올 수 있다. 부도 안 나게 처리한 후에 그러면서 땅 팔면서 900억 바로 갚았지.

경전철도 국제재판소 가고. 그때 난 공무원 생활 하면서 남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너무나 많은 걸 했어.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직원들이 잘해주

니까 한거지. 원래 계약 당시 두 당사자가 어떤 분쟁이 생길 때는 국제재판소에 간다는 게 있었어.
상하수도 사업소장도 했어. 상하수도는 용인의 레스피아 그걸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하려고 그랬거든. 행자부 투융자 심사하는데 가서 브리핑을 한거야. 근데 행자부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그러는거야. 용인국장님 아시죠. 재정사업으로 하세요. 왜냐면 민간은 경전철 때문에 소송 붙고 난리 나니까 민자 사업을 줘서 안된다. 그래서 재정사업해라 이거야. 지금 보면 민자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거든. 참 별것 다했어. 그리고 경전철은 우리가 재구조화하면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됐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겼어.

40여년 공직생활은 가족의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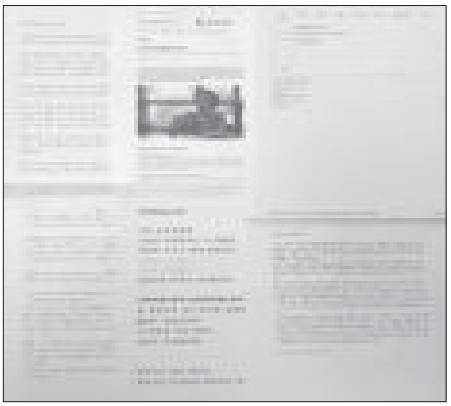
면담자 : 최초의 여성 구청장이었던 수지구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소회는.
구술자 : 굉장히 바쁘게 지냈고 엄청 바쁘게 막 달려왔고. 요즘 가끔 생각하는 게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 때도 조금 있어. 어떤 거는 그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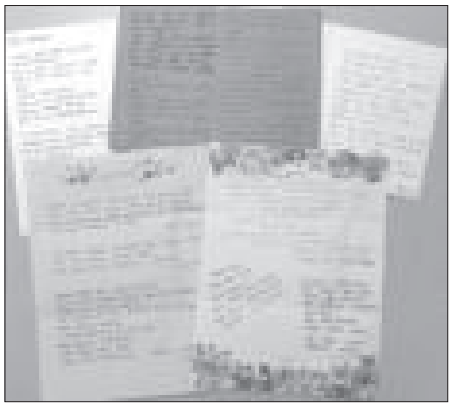
넘어갈걸. 어쨌든 후회는 없어.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 대신 우리집 애들이 좀 손해를 봤지. 가정에 우선을 두면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일찍 혼자서 잘 터득을 해서 살았어. 아침에 애가 안 떨어지려고 칭얼대면 매일 울면서 출근하고. 당시 잔업도 많았는데 잔업을 집으로 가져간거야. 애 재워놓고 밤에 하는거지. 재무계 할 때는 고지서를 번호순서대로 놔야 하거든. 번호순서로 찍어야 하니까. 우리 딸이 4살 정도 때 그걸 하더라고. 열장씩 주면 그 순서대로 놓는 거를. 1234를 아니까. 그걸 놔놓고는 엄마 이거 재밌다. 또 가지고 와. 그렇게 하면서 키웠고. 가슴 아프지. 애들이 대학을 가고 이럴 때 생각하니까 내가 애들한테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
작은놈은 어떤 날은 내가 오늘 밥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해놨지. 그 아이가 초딩 다닐 땐데. 지금도 음식해서 우리가 잘먹어주는 게 너무 좋대. 지난주에도 와서 반찬 대여섯가지 해놓고 갔어. 그래서 너 매주 와서 해주면 안되냐 그랬지. 하하.

여성공무원과 함께

수지구청 직원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임사, 송별사(직원, 첫째 딸), 직원 이메일, 신문 기사


부하 여직원들의 손편지 일부

면담자 : 석사논문은 문화 쪽으로 쓰신 것으로 아는데요.
구술자 : 단국대 석사논문을 문화쪽으로 했어요. 행정업무를 보면서 내가 좀 알아야되겠

다 싶어 단국대 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를 들어간 거지. 예술을 2년 반을 열심히 다닌거지. 내가 여성회관장을 하면서 공연장을 운영해보면서 내가 좀 알아야겠다 느낀거야. 벽에 ㄷ자 모양으로 사다리 있잖아. 그리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바튼까지 만지면서 직접 확인한거야.

학사는 안성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다녔어. 그거는 계장 때 구성 있을 때 했어. 학번이 95학번이야. 국립대라서 공납금도 쌌어. 11명이 다녀서 차 얻어 타고 다닌거야. 내가 대학 못간게 한이 돼서. 그때 우리 애들이 앞가림을 하니까 학교를 간거야.

단대도 행정학하고 사회복지 쪽 하면 사회복지사 하는 게 있는데 난 그걸 안하고 문화를 택했어. 논문은 백남준을 했어. 축제에 관심이 많아서. 백남준 관련 축제를 하면 세계적 거장들이 다 오고 그럴 거 아냐.

면담자 :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하신 것도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 문화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대표이사 뽑는단 이야기가 있어 응모 한거고. 관련해 공부했으니까 자격요건은 갖췄으니까 한거지. 조직이 공무원 조직과 다르다보니 그런 거를 체계 좀 맞춰가지고 하려고 거기 주안점을 뒀고. 공모지원사업도 좀 체계를 갖추려고 했지. 좋은 축제도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첫 축제 용인휴양림에서 했을 때 홍보기간 짧았지만 온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어. 산속에서 오케스트라 하고 쉼 뮤직 페스티벌을 멋지게 했지.

면담자 : 공직 인생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원칙과 능력을 겸비한 훌륭하신 인물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많은 지식과 전문성에 판단력, 추진력, 순발력 등 모든 능력을 갖추신 경험담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멋진 본보기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한 알의 밀알로, 주위를 밝히는 작은 촛불로
40년간 평교사로 교단을 지켜 오신

김명배(金明培) 선생

1931년 1월 11일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51번지 출생
1945년 3월 용인초등학교 26회 졸업
1951년 8월 30일 경성전기공업고등학교 졸업
1952년 2월 29일 용인군청 산림계 산림보호직원
1952년 8월 군대 입대
1954년 12월31일 육군부관학교 졸업
1955년 8월 16일 군대 제대
1956년 좌항초등학교 발령
1996년 2월 16일 포곡초등학교에서 정년퇴임
1996년 3월~ 현재 삼락회, 한시회 활동

개요

- 구술자 : 김명배
- 면담자 : 김정희
- 1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9월 18일(토)
  - 장소 : 김명배 선생님 자택(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63번길11-2)
- 2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9월 30일(목)
  - 장소 : 김명배 선생님 자택(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63번길11-2)
- 3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11월 16일(화)
  - 장소 : 김명배 선생님 자택(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63번길11-2)

요약정리

김명배(金明培) 선생은 1931년 1월11일에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651번지에서 내어났다. 아버지는 김천만으로 무녀독남의 외아들이라서 오래 살라고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며 어머니는 밀양 박씨로 성함은 박백분이다.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명배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김량심상소학교를 26회로 졸업한 후 잠시 집에서 농사일을 거들다가 서울역 앞에 위치한 경성전기공업학교 기계과에 입학하였다. 입학 당시에는 중 · 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지 못했지만 학교에 다니던 중에 인가를 받고 경성전기중 · 고등공업학교가 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졸업을 늦게 했다.

1951년 문교부에서 실시한 국민학교준교사 자격시험을 보았으나 합격발표가 1년이나 늦게 나는 바람에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산림보호감시원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광주군으로 발령을 받았다.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1952년 군대에 입대하여1954년 12월 31일 육군부관학교를 졸업하면서 하사로 1955년에 제대를 하였다.

제대 후에 산림보호감시원으로 복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충원이 없는 관계로 몇 개월간 쉬다가 용인교육청에 발령신청을 내어서 원삼초등학교 좌항분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용인국민학교, 포곡국민학교, 장평국민학교 어정국민학교의 동진원분교 등 용인의 여러 학교에서 근무를 하였다. 1988년에는 웅진군의 장봉국민학교로 전근이 되어 교직을 이어갔으나 아버님이 쓰러지는 바람에 1년 만에 용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평교사로서 열정을 바쳐온 교직생활은 1996년에 정년을 맞이하며 정든 교단을 떠나왔다.

교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삼락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용인문화원의 한시회에도 가입하여 꾸준한 활동을 한 결과, 한시대회에 참가하여 가작에 다수 당선되었고 2021년 공주에서 열린 한시대회에서는 차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김명배 선생님은 삼락회와 한시회 활동 이외에는 농사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아들내외를 옆에서 거들뿐이라고 하시지만 풀과 벌레와의 전쟁에서 언제나 지고 있다고 얘기하신다. 그리고 운동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농사일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신다.

한국전쟁 중에 결혼한 사모님과의 사이에서 3남 1녀를 두었으며 현재는 막내아들과 살고 계신다. 90살이 넘은 나이에도 왕성하게 삼락회와 한시회에도 열정으로 활동하시고 농사일에도 열심을 다하시는 선생님에게 힘찬 응원을 보낸다.

출생과 어린 시절의 기억

면담자 : 이렇게 구술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용인학 연구소에 연구위원 김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았다고 들었는데요. 여기가 고향이신 거죠?

구술자 : 네. 1931년에 여기 유방동 651번지에서 태어났어요.

면담자 : 이 자리가 651번지인가요?

구술자 : 이 자리는 583번지이고, 길 건너 저쪽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곳이 651번지에요. 이게 여기 뭐 새마을 사업인가 그거 해서 건너편에 있던 부락이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새로 만든 부락인거지요.

면담자 : 길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옮긴 것인가요?

구술자 : 정부에서 옮긴 거지요.

면담자 : 그럼 651번지는 어디쯤인가요?

구술자 : 길 건너 마주보는 산기슭 북쪽이 651번지에요. 양지 바른쪽이지요. 그쪽이 좋은데, 취락개선사업에 의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면담자 : 언제 옮기신 거예요?

구술자 :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그렇게 된 건데, 처음에는 응하지 않고 그랬는데 군직원들이 와서 설득해 가지고 거진 강제로 옮기게 된 거지요. 그 대신 집 같은 것도 전부 좋아지고 그랬어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어느 규격에 의해서 지어준 거에요.

면담자 : 그럼 집을 만들어(지어) 줬나요?

구술자 : 아마 그것도 그런 거 뭐 있었을 거야. 돈을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마 새마을 운동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면담자 : 들어오다 보니까 집들 모양이 조금씩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집들이 다 그렇게 생긴 건가요?

구술자 : 그렇죠. 비슷하지. 새마을 운동하면서 만들은 것 같은데, 그게 영동고속도로를

만들 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영동고속도로보다는 하여튼 그거보다 먼저 한 것 같아요.

면담자 : 그거보다 먼저? 새마을운동 당시에 취락 개선 사업으로 그때가 용인에서도 유방동이 취락 개선 사업으로 좀 가장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구술자 :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새마을 주택 지어주고 저기 길 옆으로다가 저쪽 방축골 쪽으로 다 막 집 지어주고 그랬는데, 버드실도 우리 동네 사는 데만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다른 데는 그대로 다 있는데...

면담자 : 다른 데? 원래 여기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구술자 : 네. 마을을 모아서 조금 더 번화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거였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좀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저기 그 금액 같은 거 액수 똑같이 보조해 가지고...

면담자 : 그래서 집 짓고 이사 오신 그때가 한 몇 년도인가요?
구술자 : 모르겠어요. 1970년대, 70년대 초반? 새마을 운동이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무렵인 것 같아요.

6남매의 장남이자 4남매의 아버지

면담자 : 선생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구술자 : 어머니는, 어머님의 아버지가 학자였었나 봐요. 공부 잘했는지 테레비에 나오면 왕이 얘기하는 것을 적는 사람이 있죠? 그거를 맡은 것 같아요. 상당히 높은 벼슬을 한 거지. 외갓집은 그거. 저 발령장이 있어가지고 그 사진을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면담자 : 외갓집이 어디인데요?
구술자 : 집은 서울인데, 워낙은 이제 범굴이 집이었었는데, 광주군 오포에요. 거기서 조금 가니까 그 노동연수원도 있고 그런데 거기 외갓집 산이 거기 있어요. 외삼촌이나 뭐 이런 사람, 누가 거기 살고 있죠.

면담자 : 어머니 성함은 어떻게 될까요?
구술자 : 박 백분. 밀양 박씨인데.

면담자 : 아버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술자 :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네 아버지 뭐 이런 사람은 지금 동원동이라고 그래. 저쪽에 지금 '머내'라고 그러는데. 아! 성남이요. 할아버지가 성남시 동원동에서 이쪽으로 온 거야. 이사 오셔서 지금 트럭 그런 거 운전하듯이 그땐 마차를 끌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성산에 나무 뭐 그런 거... 무슨 장사인지 하여튼 소 같은 걸 잘 부리고. 다른 사람은 못 부려도 그 할아버지가 있으면 소들이 전부 아주 순하고 나대지를 않고 그런 모양이야. 그런 거 했었던 모양인데, 상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재취한 부인이 우리 할머니가 된 거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무녀 독남 겨우 한 사람 생산하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버님을 엄청 공부를 많이 시켰죠.

면담자 : 아버님은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 김해 김씨인데, 호적상으로 김천만인데, 족보상으로는 김현수로 되어 있죠. 아마 뭐 명이 길라고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돌림자로 이제 족보에는 있으니까. 김현수. 우리 할아버지가 마차 운전을 했을 때 돈 많이 번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산도 사고 농지도 많이 사고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에 걸리셨다고. 그래서 내 어렸을 때 할아버지만은 무서워서 문도 잠그고 못 들어오시게 하고 그랬다고. 할아버지 상에는 동태 같은 것이 있는데, 그때 동태 눈도 있는 걸 내가 봤나 봐요. 동태 눈깔을 먹고 싶다고 해서 야단맞은 생각도 나고. 할아버지 사랑방에 이렇게 갔더니 할아버지가 저기 담뱃대로 여기 머리를 때리고 그러더라고. 그런 생각이 나요. 할아버지에게 귀염을 받은 생각은 안 나고,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면 뭐 저기 과자 같은 것 사다 주고 그런 생각이 나요. 아버님도 이제 할아버지가 큰 부자가 됐으니까 고생 안 했고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공부만 하다가 어떻게 과거 시험 같은 건 없으니까 못 보고.

면담자 : 아버님도 그럼 한학 공부하신 거예요?
구술자 : 예전에는 뭐 공부라는 게 한학뿐이니까, 외삼촌도 그렇고 이제 한학공부만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여자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도 외삼촌 공부 하는 것 옆에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런지 한문을 더 잘 알아요. 한문을 배운 아버지나

외삼촌은 한문을 안 쓰더라고.

면담자 : 선생님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 내가 6남매인데, 내 위로 누이가 있고. 내 밑으로 남자가 셋, 여자가 하나 이렇게 해서 6명이 있는 거지.

면담자 : 맏아들이라서 아버님을 모시고 사셨겠네요. 아버님은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구술자 : 아버님 연령으로 88세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만으로는 얼만지 모르겠네.

면담자 : 동생들도 용인 초등학교, 심상소학교로 다니신 거예요?
구술자 : 동생은 물론. 첫째 동생은 여기 통지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둘째 동생도 공부했어요. 셋째가 여자인데 집에서 공부 안 시켰다고. 여자 동생이 지금 안양 사는데, 왜 나를 공부를 안 시켰느냐고 수시로 불평의 말을 했죠.

면담자 : 선생님은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구술자 : 6 · 25 사변 중에 군대 가기 전에 했어요. 그 사변 일어나기 전에 약혼이 돼 있었어요. 소개받아서 약혼을 했어요. 충청도 괴산이라는데, 충주에서 괴산으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해방 후에 처남들이 뭐 공산당 모임에 나가기가 그랬는데, 그때는 공산당 세력이 많이 있었어요.

면담자 : 어떻게 소개가 된 거예요? 누가 아시는 분이 소개를 했나요?
구술자 : 그 삼촌이, 처의 삼촌이 여기 살았어요. 인공시대니까 여성동맹이니 뭐니 그런 시대다 보니 처갓집 삼촌 집으로 보냈더라고, 인공 시대니까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보냈는데, 그래서 그냥 결혼식이라는 걸, 사모관대도 동네에 있었으니까. 사모관대를 하고 결혼식이라고 하고 사는 거지. 그 처가집 식구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지...

면담자 : 슬하의 자녀분은 몇 분이나 두셨어요?
구술자 : 네 명 뒀어요. 위로 아들 둘에 셋째가 딸이고 막내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조경했는데 박사 학위 받았어요. 스스로 공부해서 대학교도 가더라고. 지금은 막내하고 같이 살아요. 걔는 외국어대학교, 이 녀석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머리가 좋은 거 같은데, 처음에는 장학금을 타더라고.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하더니 장학

금을 탔는데, 그다음에 또 공부 안 해서 장학금도 못타고 그러더라고요. 머리는 좋은데 어떻게 공부 안 하고 그러더라고.

면담자 : 사모님은 언제 돌아가신 건가요?

구술자 : 그게 그랬어요. 세상 뜬 지 15년인가 이렇게 됐을 텐데 그건 참 너무나 억울해. 당(뇨)이 있었는데, 요기(얼굴)에 뾰루지가 났더라고. 연세 병원에 갔더니 당(뇨)에 뾰루지는 이거 부작용이 날까봐 건드리기를 꺼려하더라구. 그리고 을지병원이라고 신갈에 있었는데 거기 아는 사람을 소개하더라고. 안 해주니 어떻게 해요? 용인 지금 다보스병원, 거길 어떻게 가게 됐는데 거기는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찍어 눌러 짜내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게 한 3일인가 입원하고 있다가 중환자실로 옮기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왜 중환자실로 옮기라고 그러느냐고 하고 처음에는 안 옮겼는데 두 번 세 번 자꾸 그래서 이게 무슨 수가 있나? 그래서 조치할 게 있나? 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더니, 그날로 중환자실에서 사람을 죽여 놨어. 뾰루지는 다 났어. 나았는데 중환자실로 옮기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니까 오줌 빼는 거, 이거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또 살릴까 하고서 인공호흡 뭐 이런 걸 해보려고 연세병원으로 다시 옮겼어요. 거기서 인공호흡 하는데 살아나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다보스 병원하고 그냥 원수지간으로 생각을 해요 그 당시는 이걸 재판을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왕 떠난 거 재판에서 이기면 또 뭐 하느냐? 이런 생각으로 재판도 또 여간 힘들어요? 그게? 아닌 거 아닌 거야. 이미 세상 떴으니 살릴 수는 없는 거 그거 재판해봤자 힘만 들잖아요. 재판도 법원에 가야 되니까 그만둔 거죠.

면담자 : 힘드셨겠네요?

구술자 : 아이, 힘들었어요. 워낙 시집 와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오빠가 둘인가 있어요. 그래서 올케가 둘씩이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올케들이 있어서 이 여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더라고. 시집 와 우리 집에 왔는데도 일이 익지를 못해가지고 살림을 못

부인, 자녀4남매와 함께

해. 밥 하는데 돌 투생이야.

면담자 : 조리질을 못하셨구나?
구술자 : 아주 그냥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그때는 보리타작 하는데, 학교 갔다 와 보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도리깨질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소를 길렀는데 소외양간을 치고 그런 걸 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전부 하느라고 했죠.

배움의 시작, 천자문과 김량심상소학교

면담자 : 학교는 글방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구술자 : 네. 글방이 이 밑에 집 자리가 아마 글방이었을 것 같아.

면담자 : 아랫집 자리가? 그게 몇 살 때죠?
구술자 : 그때가 집 나이로 7살이니까, 막 5살인 셈이죠. 집의 나의로 일곱 살에 저 방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천자문이라고. 저 하늘천 땅지 그거 배웠는데. 제가 여기서 그걸 했는데도, 공부를 하다가 집에서 소죽 같은 거 쑤고, 불 때고 그래서...

면담자 : 7살인데요? 7살 때 소죽을 쑤고 불을 때요?
구술자 : 불 때면서 천자문 외우는 걸 아버지가 보시고 공부 잘하는가 보다하고 그때 느끼셨나 봐요. 그래 가지고 공부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면담자 : 그래서 아랫집에 가서 천자문만 배우신 거예요?
구술자 : 천자문 배우고 동몽선습 조금 들어가자 일 년이 끝났어요. 그래서 또 저 강습소로 다녔어요. 그걸 이 아래동네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군수를 지내던 조병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르치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일본말도 가르치고 그런 거 같아요.

면담자 : 한문도 가르치고 일본말도 가르치고?
구술자 : 한문은 안 가르치고 일본말만 가르쳤어요. 그 당시가 일제 강점기니까는... 그리

고 방축골에 또 있었어요. 그때. 그것도 그 강습소이죠. 거길로 가서 또 했었고.

면담자 : 거기서도 일본어를 배웠나요?
구술자 : 네. 거기서도 일본어. 그 사람은 또 여기 선생님이 거기 가서, 아랫버드실에 계시던 선생님이 방축골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때 뭐 바람과 해가 경쟁하던 얘기, 생생하게 들리는 뭐 홍부 놀부 얘기 그런 거 많이 해주고 그랬어요.

면담자 : 그런 것도 일본어로 했어요?
구술자 : 아니요. 한글로 들려줬어요. 일본어를 가르치긴 했는데 그때 뭐 한국어도 많이 가르쳤었죠. 소학교 들어갔는데 조선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걸 공부도 하고 점수도 받고 그랬어요. 통지표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면담자 : 심상소학교가 지금의 용인초등학교이죠?
구술자 : 그렇죠. 용인학교 김량학교라고 그랬어요. 김량심상소학교 이렇게 했어.

면담자 : 김량 심상소학교?
구술자 : 네. 그 김량이라는 게 지금 용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면담자 : 그럼 심상소학교는 여덟 살에 들어가신 거예요?
구술자 : 집의 나이로 9살인데, 7살에 들어간 거지요. 집의 나이로 9살에 들어가서 1학년 마지막엔... 아니 10살에 들어갔나 보네. 확실하지 않네. 그때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면담자 : 초등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구술자 : 저희가 들어갈 때는 그랬는데.

면담자 : 그러면 무슨 시험 문제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구술자 : 기억하죠.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나중에, 구두 신문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 이름을 묻더라고요. 그 아버지 이름이, 집에 문패에 김현수라고 돼 있는데 호적상에는 김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지 성적이 좋지 않았나 봐요. 성적이 좋은 사람은 1조, 그다음 되는 사람은 2조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자반이 한 반이 있어서 3조가 됐었고.

면담자 : 그럼 선생님은 2조?
구술자 : 네. 1조는 아침반이고 2조가 오후반이었는데, 그때 후부생이라고 그랬죠. 후부생. 고부생이라고 그랬는데 쭉 계속해서 5학년 때까지 오후반으로 지냈어.

면담자 : 오후반이면 점심 먹고 학교 가는 거죠?
구술자 : 그렇죠. 그러면 학교 끝나는 시간이 6~7시 이렇게 됐는데, 겨울에는 6시~7시면 깜깜하죠. 깜깜할 때 왔어요. 그리고 5학년 때는 전기불 밑에서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김량공립국민학교 6학년상장

면담자 :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에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구술자 : 학교에는 불이 들어오지. 근데 끝나고 집에 올 때는 길이 깜깜해서 길옆에 무슨 나무 같은 거 있어도 사람인지 짐승인지 이거 분간이 안 돼. 가까이 가야 보이지. 또 어릴 때 뭐 귀신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무서움을 많이 탔었죠.

면담자 : 어머니나 아버님이 마중 안 나오셨어요?
구술자 : 마중은 뭘 나와요. 저 그때 농사짓고 그랬는 줄 아는데, 마중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면담자 : 그 어린 나이에 혼자 다니신 거예요? 그 깜깜한 길을? 아니면 여기서 누가 같이 다닌 사람이 있었나요?
구술자 : 같이 다니는 사람은 나보다 더 선배 되는 사람도 오후반이 있었나?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혼자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때 같은 학년에 그 웃동네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일조예요. 아침반이고 나 혼자만 오후반이라 그렇게...

면담자 : 그게 반이 한 번 정해지면 안 바뀌어요?
구술자 : 안 바뀌었었어요. 근데 그게 더 좋더라고요 해방 후에 선생이 돼서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오전반 일주일 했다 오후반 일주일 했다 교대로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더 나쁜 거 같아요. 오후반은 늘 그러니까 생활 리듬이 똑같아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이제 민주화가 돼서 이제 똑같은 기회도 뭐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좋지 않더라고요.

면담자 : 5학년 때까지 오후반으로 다니시고, 6학년은 어땠나요?
구술자 : 6학년 때는 교실이 남고 그래서 그런지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돼.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그걸 안 하더라고요. 전부 오전반으로만 했어요.

면담자 : 1학년 때는 조선어 과목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통지표에 조선어과목이 없다고?
구술자 : 있었죠. 그때 이거 잘못 생각을 했었는데 통지표를 보니까 조선어과목 그게 있어요. 통지표에 꺼내보고 그랬었는데...

면담자 : 이 당시 통지표가 있으세요?
구술자 : 있지요. 1학년 때는 조선어 과목이 있었어요. 4학년 때까지는 통지표가 있는데 5학년 때는 없더라구. 2학년부터는 조선어 과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2학년 때까지는 金明培로 되어 있는데, 2학년통지표에 김명배라는 이름을 한 줄로 긋고 金澤明培로 표기했더라구요. 3학년 통지표는 金澤明培로 바뀌었어요. 창씨개명을 한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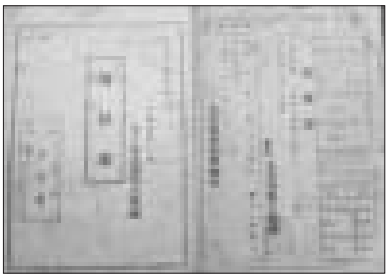
면담자 : 그렇구나.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는 안 가신 거죠?
구술자 : 중학교는 그때 일제히 아무도 못 갔었어요. 그런데 같이 졸업한 사람 중에서 성낙원이라고 그 포곡에 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5학년 때 들어 왔어요. 포곡학교 다녔었는데, 거기 포곡에서 그때 보면 4학년까지만 다니고 더 다니지 못했어요. 5학년이 없으니까.

면담자 : 포곡에 소학교가 있었어요?
구술자 : 있었는데 이제 5학년 되면은 용인 심상소학교로 용인학교로 편입되고. 저기 또 운학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도 그랬어요. 거기는 용인의 간이학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졸업하고 또 용인학교로 편입되고 그랬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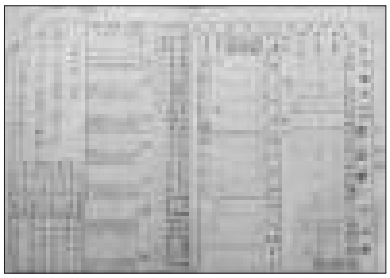
면담자 : 그럼 그 같이 졸업하신 분 중에 중학교 가신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구술자 : 그때 유방동의 방축골 살던 허정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보건대학원장 지내고 서울대학교수도 하던 사람이 있고, 또 저 포곡에 면장 하다가 저기 박정희 시대에 군 직원이 됐던 성낙원이 있고, 옹진군수까지 했던 오세응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허정과 오세응은 1조였고 성낙원만 나랑 같은 2조였어요. 나는 중학교 갈 생각도 못하고 집에서 있었고.

면담자 :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몇 년이었던 거죠?
구술자 : 45년. 해방되던 해 그때 3월 달이 이제 졸업한 연도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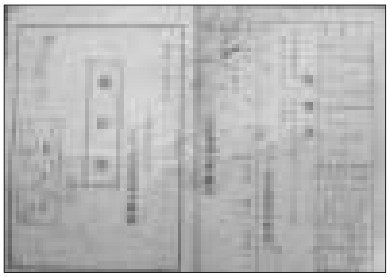
면담자 : 그럼 소학교 졸업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어요?
구술자 : 집에서 일만 했죠. 그리고 '청훈'[1] 이라고, '세이닝 훈련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청년훈련소. 국민학교에서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그걸 하는데, 제식 훈련 같은 거 조금 배웠어요. 그래도 얼마 안 배워서 해방이 돼서 그것도 그만 뒀잖아요.



1학년 통지표 겉



1학년 통지표 안



2학년 통지표 겉 – 창씨개명된 모습이 보임

1) 김량공립보통학교에서는 1941년부터 설치운영했던 청년훈련소를 재편성 확대하고 훈련을 강화하였다. 청년훈련소를 '청훈'이라고 약칭하였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을 학교로 불러 1주일에 한 두 번씩 군사훈련을 시켰다. 머리에는 전투모를 쓰고 국민복을 착용한 다음 정강이 아래에 각반을 감고 제식훈련을 비롯한 여러 군사훈련을 받았다. 교관은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이 담당하였다.

경성전기고등학교에 들어가다.

면담자 : 일제시대라서 전쟁에 대비해서 제식 훈련을 한 거네요? 혹시 모르니까... 집에서 계시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경성전기학교에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구술자 : 거기를, 아버지가 어떻게... 저기 난 들어갈 생각도 안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친구분의 아들과 같이 경성 전기학교라는 데 보결로 거기다 넣었어요.

면담자 : 여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술자 : 지금은 수도 전기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서울역 앞에 바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용인초등학교처럼 거기도 폭격을 맞아서 없어졌어요. 나는 다행히도 그때 찍은 교사(校舍) 있는 사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포로 갔다가 지금은 개포동이라고 서울 남부 저쪽에 아주 크게 잘 지어가지고 거기서 동창회도 늘 하고, 올해도 하려고 그러다가 저기 뭐 코로나 그것 때문에 못 한 거죠.

면담자 : 여기가 그럼 중 ·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시설인 거예요?

구술자 : 공업학교에요. 중 · 고등학교죠. 처음엔 중학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일본이나 미국 제도에서 중학교 6학년으로 이렇게 돼서, 6학년으로 올라갔는데 나중에 중 · 고등학교로 또 바뀌더라고. 그래서 다행히도 그렇게 되는 바람에, 6 · 25 후에 이제 산림감시 시험이 있었고 교사 시험이 있었는데, 교사 시험에 전 과목 시험이 있더라고요. 음악 미술 그런 거는 공업학교 때는 안 배웠었는데 중학교로 바뀌니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교사 시험에 그때 합격이 된 거야. 그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됐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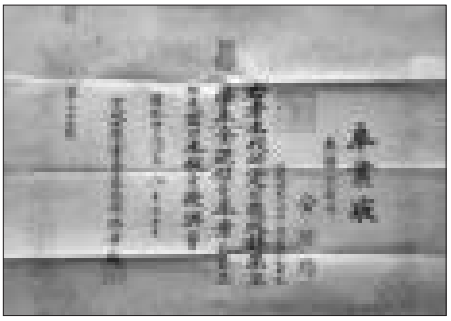
면담자 : 경성 전기 학교 때문에?

구술자 : 그렇죠. 전기학교가 이제 경성전기 중 · 고등학교로 됐다가 지금은 전기고등학교로 됐어요. 경성도 이제 수도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전기고등학교'가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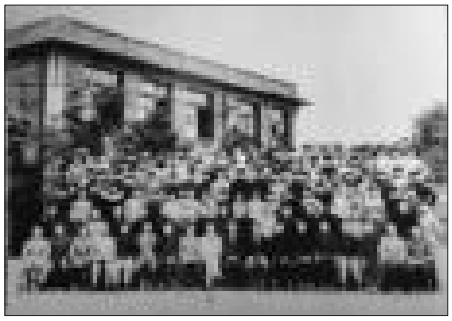
면담자 : 6 · 25가 발생을 했는데 졸업은 하신 거예요?

구술자 : 졸업 못했어요. 나중에 군대 갔는데 졸업장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다 왔어요. 졸업은 못하고 집에 와 있었는데, 수원에 중학교가, 종합중학교에서 그냥 학생을

받아주고 그래서 거기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입학도 못 했어요. 피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거 같아. 거기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농사만 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산림감시원 시험을 봐서 그거는 발령을 받았어요. 광주군청으로.



경성전기공업고등학교 졸업장



경성전기고등학교 기계과 선생님과 학생들

산림보호 직원과 교사발령

면담자 :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 교사 시험 먼저 보고 나서 소식이 없어서 나중에 군청 시험을 또 봤다고 그러셨거든요?

구술자 : 그런데 그때 합격이 된 것을 자세히 몰랐었어요. 합격 발표를 안 했는데 산림 감시원을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강습도 받고, 그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건 바로 발령이 광주군청으로 났었어요. 광주군청에서는 또 중대면으로 출장 근무를 하고 오기도 하고, 그때 사법 감찰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 같은 거 하면 붙잡아서 신문하고 막 그래라는 권리가 있고, 그것도 실습도 배우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 제2국민병이라고, 저쪽에 경상도 울산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방위 장교였던 사람이 중대면에서 그릇 만드는 공예 그거 하는 사람의 자녀이더라고요. 그때도 그걸 구웠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공짜로 갖다 주면 불 때서 그릇을 굽고 그랬었지요.

면담자 : 지금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52년에 산림보호직원 강습을 하고, 군대를 가서 육군 부관학교를 54년에 졸했는데,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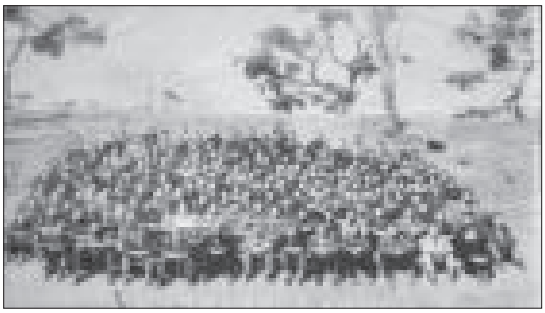
보호감시원을 한 거지요?

구술자 : 그렇죠. 군대 가기 전에 산림 보호원을 하다가 군대 영장이 나와서 간 거예요.

면담자 :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산림보호 직원을 계속 하신 거죠?

구술자 : 그걸 못했어요. 거기서 그때 충원이 없어서, 자리가 없었는지 하여튼 발령을 못 받았어요. 또 그때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지 알았으니까 교사를 하고 싶었고, 또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교육청에 발령신청을 냈어요. 산림보호직원보다는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교사를 원하지 않더라구요. 아버지가 어디 다른데 취직을 시키려고, 그때 세무서를 목표로 해서 취직을 시키려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뭐 그랬었어. 소개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온 거지요. 그런데 학교에 왔더니 그 산림 감수계에서 다시 발령이 났는데, 교육청에선 그냥 근무 좀 해달라고 억지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그때 처음에 좌항학교에 거기 들어갔는데, 사친회비라고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돈(월급)을 줘서 생활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자체에서 월급을 준 거죠.

면담자 : 제일 처음에 발령 받으신 곳이 좌항초등학교인 것이죠? 그때가 몇 년인가요?



산림보호 강습 기념 1952년

구술자 : 잘 모르겠는데 몇 년인지? 좌항학교는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발령 받기 전에 교사 생활을 한 거죠. 미발령 상태로 그때 학교가 이제 선생님들이 모자라니까 그냥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그랬던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교사를 했는데, 그때 교육공무원 발령을 도지사가 냈어요. 근데 산림 감시도 도지사가 발령장을 냈는데, 그것도 몇 개월 있으니까 발령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산림 감시원은 사표를 내서 거기 사직발령이 나고 난 다음에 교육공무원 신청을 그때 한 거예요. 교육공무원 신청도 한 3개월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럭저럭 한 6개월 동안 좌항초등학교에서 사친회비 교사로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정식발령이 1957년에 난 거지요. 정식 발령이 나니까 또 교육 공무원이 그 호봉이 높아가지고, 정

부에서 밀가루인가 이런 걸 공무원에게 좀 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교사들은 못 받았어요. 그걸.

면담자 : 호봉이 높으면 안 줘요?
구술자 : 호봉이 높아서 월급이 많으니까, 그때 군수나 뭐 이런 사람 월급하고 똑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공무원은 못 받은 사람 많지.

면담자 : 그래서 사직서 내고 사직 발령받고. 교육공무원에 발령 신청 후에 거의 3개월 걸려서 발령 받으신 거지요?
구술자 : 그렇게 행정이 느리더라구. 1955년에 제대하고 몇 개월 있다가 좌항학교에 교사가 됐는데 미발령 상태로 또 몇 개월 있었어요. 따져 보면 1956년 정도에 교사가 된 것 같아요.

면담자 : 교사 시험은 군인 가기 전에 보셨는데 언제 보신 건가요?
구술자 : 군대 가기 전에 본 건데, 한 52년쯤 산림감시원 시험 보기 전에 본거니까, 그런데 합격발표가 안 나서 다시 산림감시원 시험을 보고 발령이 나서 산림군청 직원일 때, 거의 1년이 다 되어서야 그때서 합격통지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2차 시험이 또 있었어요. 구두시험이 있잖아? 수원 매산학교인가 거기에서 실제수업을 하는 시험을 봤어요.

면담자 : 합격을 하시고 나서 소식이 없어서 알아보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발령이 안 났다고 그러셨는데요?
구술자 : 네. 맞아요. 산림공무원 한 건 여기 사진에 날짜가 있어요.

면담자 : 처음 발령 받으신 게 좌항초등학교이고 사친회 교사로 받령 받으셔서...
구술자 : 그때는 발령도 없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교육청에서, 이제 원래 합격증서는 있으니까 정식으로 된 거는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잘 확실히 기억은 안 나요.

면담자 : 사친회 교사도 학년을 맡나요?
구술자 : 전부 학년 맡았어요. 정부에서 월급만 안 줬지 사친회비로 월급을 받았으니까. 생활비로 준 거지. 정식 발령이 나면서 정부에서 월급이 나온 거지.

면담자 : 그때 처음 맡은 게 좌항초등학교 몇 학년이었어요?
구술자 : 그때 4학년 같은 거 같은데, 4학년 맡았다가 또 이제 학년이 바뀌어서 이제 또 막 3학년을 맡고 있다가 포곡학교로 이렇게 전출한 그런 것 같아

면담자 : 그럼 거기서 2년 근무하신 거예요?
구술자 : 좌항초에서 2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포곡 학교로 와서는 여러 해 동안 근무하고, 그 다음에는 용인학교로, 집이 가까운 용인학교도 전근 하더라고요. 용인학교로 갔다가 포곡학교로 거기 왔다 갔다 몇 번 했어요.

면담자 : 용인이랑 포곡은 전근을 여러 번 가셨구나!
구술자 : 집이 가까워서, 포곡도 가까워요. 근데 길이 나빠서. 좋은 길로 갈려면 비잉 꺾여서 가게 되고 이렇게 길이 산위로 해서 가면은 더 가까워요.

면담자 : 그 당시의 전대리가 둔전보다 더 번화한 것 같아요?
구술자 :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둔전이 엄청 더 크지요. 그때는 둔전에 학교가 없었어요. 그때 남 교장이 있었는데, 거기(둔전)다 학교 짓는 것을 교장이 반대를 했어요. 정부는 둔전에 학교를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학교 학생이 더 적어지잖아요? 나눠지고. 그러니까 학생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반대를 하니까 포곡학교가 커졌죠.

면담자 : 둔전에 지금 학교가 두 개나 생겼는데요?
구술자 : 그렇죠. 자꾸 인구가 늘어서 그렇게 된 거지요.

면담자 : 옹진 가셨다고? 옹진은 언제 가신 거예요?
구술자 : 옹진 간 것은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저 평교사가 이제 근무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근무점수가 좋은 사람들은 이제 시험을 봐 가지고서 교감도 되고 그렇게 했었어요. 동진원[2)]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 가도 점수가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거길 가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안 갔지 뭐야.

2) 어정초등학교 동진원분교는 1950년 5월1일 나환자촌이 구성면 중리에 들어선 후 1968년 3월에 이르러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생기자 이를 어정초등학교에 취학시키는 문제가 이 지역 주민간에 논란 거리가 되자 부득이 미감이 어린이들을 위하여 1968년 3월에 동진원분실로 설립하게 되었다. 1970년 7월에 교사를 신축하고 1971년 7월에 2학급으로 편성하였으며 1973년 3월1일에 동진원분교로 승격하였으며 동년 11월에 2개교실을 신축하였다.-「용인교육발전사」.56쪽

어정국민학교의 분교인데, 거기 닭을 많이 키워서 양계장이 많았어요. 그때 가야지 점수를 받는 건데. 그 점수 받기 위해서 거기로 전근했는데, 동진원 학교는 3년밖에 더 못 있어요. 또 거기서 이제 옹진군으로 신청을 한 거죠. 거기도 점수가 있으니까

면담자 : 동진원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구술자 : 나중에 갔어요. 점수가 있고 그래서 승진하는데 그렇게 보탬이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갔어요. 자리가 좋아서 비었을 때 이제 바로 간 거죠.

면담자 : 거기서 3년 있다가 그다음에 옹진 가신 거예요?
구술자 : 옹진 가서도 쭈욱 오래 있으려고 그랬던 건데, 집에 부모님이 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오라고 자꾸 그래서 1년 만에 되돌아왔어. 거기에서.

면담자 : 옹진 가셨을 때가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구술자 : 88년도. 88 서울 올림픽을 거기서 겪었어요. 그래서 그건 안 잊어버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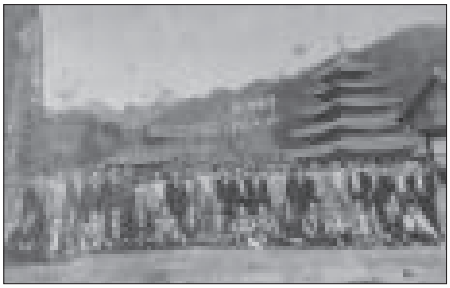
면담자 : 88년도에 옹진에서는 올림픽을 맞아서 무슨 행사 같은 것도 안 했나요?
구술자 : 응,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운동회나 하고 그랬어요.

면담자 : 88년도에 옹진 갔다가 1년 만에 되돌아와서 다시 어느 학교로 발령받으셨어요?
구술자 : 용인학교로 발령받았을 거예요.

교무실의 풍경 1993년

교무실에서의 활동 풍경

10년 근속 표창장



교직원 연수 –속리산법주사 1993년

용인초등학교 교직원 1993년

봄소풍1973년

면담자 : 교감이나 교장 시험 이런 거는 준비 안 하셨나요?

구술자 : 옹진 가고, 동진원 간 게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근데 다 안 된 거죠. 옹진에서 3년 있었으면 충분히 됐을 텐데, 옹진의 장봉으로 갔으면 거기서도 승진에 가까운 사람, 장봉에 오래 있는 사람은 점수를 많이 주지만 용인으로 금새 오니까 점수를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성적은 상당히 나쁘게 받았지. 그리고 그게 또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대상에서 전부 제외되고. 시험을 다시 못 봤지. 교감 시험에 한 번도 못 본 거지. 옹진에만 3년 있었으면 근무 성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근무 성적하고 점수가 합쳐서...

면담자 : 근무 성적이 좋아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거예요?

구술자 : 그랬었죠. 처음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거 같더니, 나중에는 그렇게 했어요.

면담자 : 선생님이 적어 주신 것에, 잘 가르치는 욕심이 커서 단체 체벌을 주고 공부 시간을 오래 가졌다고 하셨는데?

구술자 : 좌항초등학교 근무할 때, 내가 군인을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애들 하는 게 규칙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훈련 같은 걸 많이 시키고 단체 기합 같은 걸 주고, 공부시간도 아주 오래 시키고 늦게 집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나처럼 그렇게 많이 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성도 받고 그랬어. 그때 학생이 모현면 면장이 됐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

면담자 : 제일 기억나는 학생은 없으세요?
구술자 : 예전에는 기억도 잘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잊어버려. 생각이 잘 안 나요.

면담자 :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랐던 학생은 누가 있을까요?
구술자 : 내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사람이 용인시청의 여성부 무슨 최고 책임자가 같던데 그 사람이 있었고, 그 남자로선 좀 용인에서 용인경찰서장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동창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용인시 시의원 김상수라는 사람, 난 까마득하게 모르는데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시의원이 내 제자라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지금은 기억력이 어떻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고 하고 있다가 저쪽에 가면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한시 하는데도 한문 글자 늘 쓰는 건데도 쓸라고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더라구. 틀리게 써 놓고. 그러면 옥편 보고 한문 해석도 어렵더라구요. 옥편 몇 개씩 두고 보고 그러는데, 옥편을 보는데도 또 안 나오는 글자도 많이 나오더라고.

면담자 : 학교 교직 생활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구술자 : 초기에는 거기가 허OO이라고 같은 집안인데 방축골 사는 학생을 내가 처벌했는데, 이렇게 손으로 때렸는데 손자국이 나오고 그럴 정도로 그랬어. 그래서 아주 서운해 했던 그런 생각이나요. 용인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말썽을 일으켰던 거지.

면담자 : 어떤 말썽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심하게 혼내셨어요?
구술자 : 가르친 걸 가지고 자꾸 부정을 하더라고. 아니라고. 아니긴 이런 거 아니냐? 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벌을 주고 그랬던 거 같아. 그게 상당히 나한테 친절하게 하는 학부형이고 같은 집안이었는데, 난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처벌이 됐으니까. 아 그분이 또 사법서사였어요 용인에서는 저명인사지.

교육청에서도 나와 가지고서 나를 위로하고 뭐 그러더라고. 또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나겠지만, 옛날에야 문제없고 오히려 때려달라고 그랬어요. 벌 좀 많이 달라고 그러는 게 인사였어요.

면담자 : 새마을운동 때에도 학교에 계셨잖아요? 그때 학교에서 새마을 운동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요청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했던 일은 없을까요?

구술자 : 그런 게. 새마을운동 때는 부락마다 부락 담당을 시켜서 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 같은 거 하고. 꽃길 가꾸기 같은 것 지도하는 그런 생각이 나죠.

면담자 :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에 애향단 활동이라고 해서 마을마다 조직이 되어 있어서 담당 선생님이 계시던데? 어쩌다 한 번씩은 오시거든요? 선생님도 맡으신 마을이 있었을 텐데 어느 마을을 맡으셨어요?

구술자 : 가까워서 둔전 마을을 맡았어요. 아침에는 아니더라도 가서 제대로 잘 가꿔줬나 뭐 이런 거 살펴보기도 했어요.

면담자 :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신데 교단에 계시면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없으셨나요?

구술자 : 방통대에 원서를 넣었었는데, 고등학교 때 한 과목이 시험을 못 봐서 40점이 나왔어요.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사를 하니까 방통대 초등교육과에 무조건 되더라구요. 그래서 방통대를 졸업했는데, 졸업하니까 교사 호봉이 1호봉이 올라가더라구요.

용인교육신문 –5월의 교사

면담자 : 선생님 학교 다니실 때 뭐 이렇게 뚜렷하게 '나는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라는 공직관이나 아니면 원칙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구술자 : 삼국유사에 거기에 나오는 '홍익인간'이라는 것, 난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사람 사이를 이롭게 한다. 그런 정신으로 쭉 아이들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많이 썼고, 그렇게 해서 생활했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시회에 갔더니 붓글씨 잘 쓰는 사람이 가훈 같은 것을 써주고 그런 거 하더라고. 난 '홍익인간'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집에다 붙여놨지. 그리고 재직 시에 나에 대해서 누가 시를 썼더라고. 같이 재직하고 있던 동료가, 그 시가 아주 좋아서 내가 아주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포곡초등학교에서의 정년퇴임 1996년

면담자 : 누가 쓴 거예요?

구술자 : 어정학교에서 같이 있었고 용인학교와 포곡학교에서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퇴직 얼마 전에 그걸 용인교육신문에 냈더라고. 적절히 나에 대해서 잘 얘기한 거 같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 거 같아서 사진 액자에도 이렇게 집어넣어놨지.

면담자 : 선생님을 표현한 시?

구술자 : 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시로 썼더라고.

면담자 : 포곡 학교에서 정년 퇴임을 하신 거죠?

구술자 : 포곡학교에서 정년퇴임이 1996년에 했어요.

퇴직 후의 삼락회 · 한시회 그리고 농사활동

면담자 : 1996년도에 퇴직하시고 나서 계속 농사만 지으신 건가요?

구술자 : 그렇죠. 농사는 25년 더 돼요. 교사 할 때도 농사는 지었으니까 더 오래되었죠.

면담자 : 다른 활동은 지금 한시회 활동만 하시는 건가요?
구술자 : 활동은 이제 삼락회 활동이 있는데, 삼락회 활동은 원래 퇴직 교직자들의 모임이니까 퇴직하고 바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지금은 삼락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퇴직회원에게 상품도 주고 또 현직 교원이랑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정환인가 여기 교육장이 된 다음에 상품 주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그냥 전에 있던 사람들만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지.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삼락회'라는 것이 있다는 소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전화번호 이런 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러더라고. 이응주 교육장도 남아 있는데 옛날 사람이나 좀 남아 있는 거지. 지금 모임을 코로나 때문에 안 모였었는데, 그 전에 모임은 한 4~5 명 한 7~8 명, 이렇게 밖에 못 모였어요.

면담자 : 삼락회 말고 한시는 언제서부터 하신 거예요?
구술자 : 그것도 퇴직하고 나서부터 했어요. 그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용인문화원 부원장이라고 정양화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아들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아버님 하고 불러서 그런 거 소개를 하고 그걸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하게 된 거죠. 이병묵원장님하고 같이 그분이 회장이에요. 정양화 부원장님이랑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면담자 : 한시 하시면서 붓글씨는 안 하셨어요?
구술자 : 아 붓글씨도 잘 쓰는 사람 투성인데, 난 붓글씨 같은 걸 잘 못 써요. 안 해봤으니 좀 많이 안 써봐서. 어릴 땐 좀 썼는데...

면담자 : 하다 보니까. 재미있으신 거예요?
구술자 : 재미있는 것보다 너무나 어렵더라고 지금도 어려워요.

면담자 : 어려운데 차상까지 하셨잖아요?
구술자 : 그러게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걸린 거죠. 맨날 써내도 맨날 허탕이에요.

면담자 : 이번에 그 차상 하신 주제가 뭐예요?
구술자 : 공주가 문화유산이 있잖아요?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거에 대한 것이더라고.

면담자 : 이번 공주 한시대회에 몇 분이나 가셨어요?

구술자 :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잘들 모이지도 안하고, 시상 대상자 그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했는데 심사원이 또 다른 사람인지, 대게 다른 데서는 한 번 심사하고 합격자를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합격자 누구 누구인데 장원은 누구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안 하고 거기 가서 다시 써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시 써내는 거 가지고서 심사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면담자 : 그것이 차상을 받은 건가요?

구술자 : 네. 차상을 받았어요. 차상 받은 것 이런 걸 어떻게 애들이 메시지에 올렸나 봐요. 그냥 아는 사람이 많고, 현수막도 지회에서 해 놨다 그래.

공주 한시대회 차상작품

면담자 : 올해 공주는 어떻게 열리게 된 거예요? 미리 다 글을 써서 냈나요?

구술자 : 그렇죠. 미리 잘 써서 내고 그걸 1차 합격이 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1차 합격 없이 그대로 거기서 그냥 장원을 뽑았는데, 그래서 포은문화제 때도 그냥 현장에서 시제를 다 내고 시제에 맞게 글을 써 가지고 현장에서 다 심사하잖아요?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제 시상만 해요. 올해 그것도 써내는 기간이 굉장히 가까워져요.

면담자 : 써내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시제를 미리 받나요?

구술자 : 그렇죠. 그거 정도는 나와 가지고 그거에 맞게 써서 내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상할 사람만 뽑아서 개별적으로 시상을 하고 그런대요.

면담자 : 한시도 형식이 있지 않나요?

구술자 : 칠언 율시. 한시 백일장은 전부 칠언율시더라구요. 그것뿐이에요 오언율시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지금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것이 전부 칠언율시에요.

면담자 : 그동안에 한시 대회도 많이 나가셨겠네요?
구술자 : 네. 많이 나갔죠. 뭐 부산. 저기 진도. 진도에서 또 해마다 하더라고요. 여러 군데 갔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통 없는 거죠.

면담자 : 그 전에 다른 시상은 없으셨나요
구술자 : 다른 시상도 많이 받았는데 다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가작인가 그런 건 좀 낮은 거거든요. 여러 명 주고 그런 거는 좀 받았지요.

면담자 : 다음번에는 장원을 하셔야 되겠네요?
구술자 : 물론이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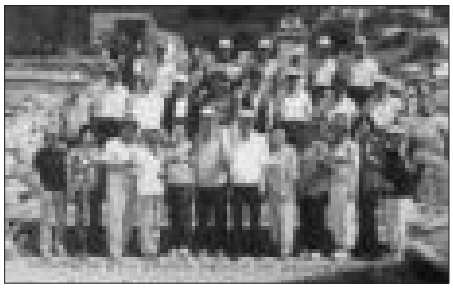
면담자 : 한시회, 삼락회 활동 말고 또 다른 활동이 있을까요?
구술자 : 없어요. 이 두 개와 농사만 지은 거예요. 집에서 농사일도 여간 바빠야죠.

면담자 : 농사는 얼마나 지으세요?
구술자 : 농사는 뭐 내가 짓는 게 아니니까, 아들이 짓고 그러는 거 보조나 하고 뭐... 논농사는 안 해요. 논농사도 했었는데 아이들이 밭을 만들었다고. 저기 유기농인가 뭐를 한다고 해서 약을 안 쓰고 그래서 그 풀 뽑고 뭐하고. 그 시간은 더 바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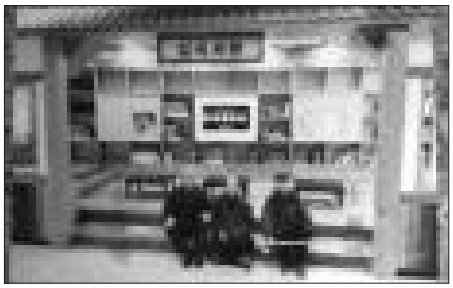
면담자 : 유기농으로 하려면 풀과의 전쟁이겠네요?
구술자 : 뭐. 전쟁은 풀한테 지고 있는 거죠. 벌레하고 풀하고 그거 완전히 졌어요. 아들 며느리가 이 유기농 하는 바람에 더 힘들어 졌죠. 내가 밭을 보고 나둘 수 있어야지. 그거 조금 하느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또 어려워요

면담자 :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그냥 농사는 아드님 며느님한테 맡기고, 운동하시고 한시회에 다니시고 하시지요?
구술자 : 그게 더 나빠요. 그게 더 하기 싫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일하는 게 제일 나아요. 지금 요새는 밤 줍고 그러는데, 여기 집에 밤나무가 있는데 이제 대전인가 그쪽 방면에서 개량종을 해가지고 그것도 심어봤죠. 근데 그것도 굵고 괜찮아. 그런데 맛은 좀 덜 하더라고요.

면담자 : 앞으로는 농사도 지으시고 계속 한시하실 거죠?
구술자 : 그렇죠. 그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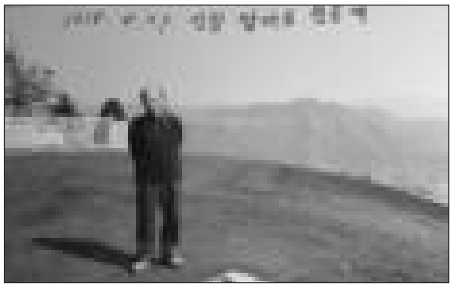


삼락회 영월 견학 2009년



삼락회 용인시박물관 견학 2018년

수도전기고등학교 6.25참전자 기념비 앞에서 2018년



영월별마로 천문대에서 2018년

격동기 용인 속 행정의 한 축, 공직과 삶

박상돈 선생

1952년 2월 10일 용인군 처인구 남동 출생
1967년 2월 일 용인초등학교 45회 졸업
1970년 2월 일 태성고등학교 졸업
1973년 군대 입대
1979년 6월 7일 용인군 용인읍 발령
1980년 11월 30일 결혼
1981년 6월 모현면 발령
1984년 용인군청 발령
2002년 9월 행정과장 발령
2005년 10월 의회사무국장 발령
2006년 9월 경기도청 발령
2012년 6월 7일 경기도기술학교장으로 정년퇴임
2013년 ~ 현재 행정동우회 활동

개요

- 구술자 : 박상돈
- 면담자 : 김지현
- 1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9월 18일(토)
  - 장소 : 처인구청 행정동우회실

요약정리

1970년대 말은 전국적으로 급격히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당시 용인군도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어 가던 시기였다. 정치 · 사회적으로 혼란기였던 1979년 6월, 박상돈 선생은 용인시 공무원 9급에 임용되었다. 이후 그는 굵직한 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용인시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공직생활을 하였다.

박상돈 선생은 1952년 현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서 평범한 농가의 7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학창시절에는 글쓰기에 두각을 나타내어 교내는 물론, 군에서 개최하는 글쓰기 대회에도 여러 차례 입상하였다. 그러나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인해 대학 진학은 일찍이 포기하고, 취업하기를 희망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스무 살에 경기도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처음 응시하였으나 호적에 기재된 연령이 당시 공무원 응시 연령에 미달되어 불합격 하였다. 그다음 해에도 응시하였으나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집안의 농사일을 도우며 지내다가 군에 입대하였고 군 제대를 한 다음해에 다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마침내 최종 합격을 하였다.

그의 공직생활은 용인읍에서 시작하였다. 첫 업무였던 ‘ 토목담임’을 시작으로 새마을계, 총무계에서 용인읍의 살림을 맡았다. 이후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깔끔한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모현읍을 거쳐 군청으로 영전해서도 용인의 재무와 회계 관련 업무를 지속하였다. 이 당시 용인에 각종 기업과 학교, 관광지와 스포츠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세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던 때였다. 재정 및 예산을 담당하는 그도 야근과 휴일을 반납한 채 용인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는 시기를 보냈다.

이후로는 점차 비대해지는 용인의 행정체계를 재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사과에서는 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자치행정과 근무당시에는 국(局)을 설치하고 구(區)를 분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복지 국장으로 임명되어 용인의 각종 문화단체 및 각 계층에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쳤다.

그 후에 의회사무국장직 근무를 마지막으로 용인시에서 경기도청으로 전출을 결정하였다. 경기도청에서는 처음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배울 점들은 겸허히 수용하였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어우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결과 1년 뒤에 도청 직원들이 선정한 ‘ 자랑스러운 간부 공무원’으로 꼽히기도 하였다.

33년간의 공직생활은 경기도청 산하기관인 직업학교 교장으로 마무리 지었다. 퇴직한 이후에는 용인시 소속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는 급격하게 휘몰아쳤던 발전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 빗겨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공직생활 중에서 체감한 바를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문학 소년의 성장기

면담자 : 원 고향이 용인이신가요?
구술자 : 나는 남동에서 태어났어. 할아버지 때 용인으로 이사 와서 줄곧 여기에 서 살았지.

면담자 : 남동이면 태고 있는 동네 맞죠?
구술자 : 고 아랫동네. 학교 바로 밑에 동네.

면담자 : 중고등학교 다니시기에는 엄청 좋으셨겠어요.
구술자 : 그렇지.

면담자 : 할아버지 때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구술자 : 그 이전에는 저 진천 그쪽에 살았어요.

면담자 :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가정환경은 어떠셨어요?
구술자 : 형제는 7남매. 형 둘, 누나 둘, 밑으로 동생 하나 있고. 살림살이는 중농정도 돼서 가정형편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 부모님들이 굉장히 근면하신 분들이라서 농지도 점점 늘고 그래서 셋째인 큰 형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나왔어.

면담자 : 선생님은 학교는 어디를 졸업하셨나요?
구술자 : 초등학교는 용인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태성을 나왔어.

면담자 : 초등학교 시절에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구술자 : 남동에서 2km 남짓한 학교로 걸어 다녔어. 어렸을 때 비교적 약골이었는데 6년간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빠지지 않고 다녔어. 그게 몸살이 아주 심할 때는 조퇴를 할망정 둘째 누이의 등에 업혀서라도 꼭 출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딱 한 번 결석했어. 60년대는 보릿고개를 겪을 만큼 살림이 어려웠는데도 자연은 살아있었거든. 앞 냇가에는 온갖 물고기며 가재가 지천으로 많았고, 뒷논 웅덩이에는 물자라, 소금쟁이. 방개 올챙이 등 호기심을 끄는 생물들이 많았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풍요로웠던 것 같애.
또 봄이면 종달새, 때까치. 여름이면 물총새 둥지를 찾아다니고, 여치를 잡으려 풀숲을 헤치던 생각도 나고. 나이가 들수록 그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을까

할 정도로 그립지.
놀이는 자치기, 땅따먹기, 구슬이나 딱지치기, 연날리기, 썰매 타기 등 어울려서 함께하는 놀이를 주로 했어.
공부는 5학년 때를 빼고 줄곧 상위권에 들어 우등상을 탔어. 5학년 때 영양실조로 야맹증이 와서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어. 글씨가 이중으로 겹쳐 보였거든. 그러고는 시험을 망쳐서 중위권으로 떨어졌어. 성적이. 그래도 글짓기는 잘해서 용인군내 대회에 나가면 일들을 했어. 그때 제목이 '내 연필'이었어. 근데 아마도 그 실력이 공직생활까지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중학교 고등학교는 비교적 상위권에는 들었는데 집에 농사를 거들어야 하는 형편이다 보니깐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었거든.
학교 끝나고는 매일 소꼴을 베고 여물 썰어 쇠죽 쑤어대면서 틈틈이 논, 밭일을 도와드렸어. 밤에 책을 읽으려면 졸음이 쏟아져 책상에 엎드린 채 자고 그랬어.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께서 작은아버지며 우리 형제들 가르치고 살림 내보내느라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대학까지 못 보낸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의욕은 크게 없었어. 대신, 문학전집을 많이 읽으면서 글쓰기를 취미 겸 위로로 삼았어.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께서 방학 숙제로 내주신 수필이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어. 쇠풀을 베며 느낀 점을 적은 글이었는데 선생님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야. 소질이 있어 보인다고 살림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갔더니 문학전집을 한 아름 안겨주시더라고. 그 선생님 덕분에 서울로 전근 가실 때까지 책을 원 없이 읽었어. 그 선생님이 이동수 선생님인데, 참 고마운 분이셨지.

태성중학교 졸업식 당시 찍은 사진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

면담자 : 고등학교 때 원래 꿈은 뭐였어요?
구술자 : 학교 다닐 적에? 학교다닐 적에 내가 한다면 선생같은 건 내가 해보고 싶었어.

면담자 : 교직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도.
구술자 : 그게 결과적으로 끝날 적에 기술학교 교장으로 끝나게 되더라고. 내가.

공무원에 도전하는 청년

면담자 : 공무원 시험은 어떤 계기로 보시게 된 거에요?
구술자 : 어렸을 때 어쩌다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이 손금을 봐줬는데 공직생활을 할 팔자라는 거야. 근데 대기만성형이라서 늦게 풀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입신양명할 운세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면담자 : 그럼 주변에 공무원을 하셨거나 추천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셨나요?
구술자 : 없었어요.

면담자 :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공무원 시험을 보신 건가요?
구술자 : 그 당시에는 만 20세 이상이 돼야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고. 원래는 1952년생인데 태어나서 하도 병치레를 많이 하고 내가 오래 살 것 같지 않으니깐 아버지께서 출생신고를 한 해 늦춰서 하셨어. 그래서 한 살 많은 당숙이랑 나이를 올려서 시험을 봐서 첫 시험에 덜컥 합격한 거지. 경기도에서 시행한 시험인데 경쟁률이 13:1이었는데 거기서 2등을 한 거야. 면접을 한 달 앞두고 호적 정정을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면담자 : 호적은 53년으로 올라가 있고.
구술자 : 원 나이는 52년생이에요.

면담자 : 그럼 스물한 살에 합격하신 거예요? 스무 살에 처음 시험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구술자 : 그때만 해도 만 20세 이상만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었어.

면담자 : 시험은 주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군수나 예산 이런거 물어본다고 서 있었는데요.

구술자 : 그거는 면접시험 때고. 처음에 해당자 안에서 합격할 적에는 면접을 제대로 못 봤어. 면접 보러 갔다가 면접관한테 야단만 맞았다니깐. 면접관이 서류를 보더니 응시원서는 52년생으로 돼 있지. 내가 관련 문서들 주민등록등본 떼 근거는 53년생으로 돼 있지. 그러니깐 '아 당신 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당신 아직 호적 정정도 안 됐는데 사문서 위조해서 응시한 사람이니 어디 면접까지 보러 왔냐고 당장 고발 대상인데 봐주니깐 당장 가라고.' 해서 쫓겨났지. 면접시험은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는 그다음 해에 또 시험을 쳤는데 필기는 합격하고 면접에서 떨어졌어. 그때는 너무 준비를 안 해서 떨어졌지 뭐. 행정에 대해 전혀 상식이 없었어. 면접관이 군수 이름이랑 면장 이름이 뭐고,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는데 내가 답변을 못 했어. 그게 두고두고 얼마나 창피하던지.

면담자 : 그럼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술자 : 거기도 있지마는 문제 출제집. 예상문제 출제집이 있어서 그거 한 3권쯤 읽으니깐 웬만한 문제들은 달달 외워가지고 별로 어려움은 없었어. 이때만 해도 아직 젊었을 때라서 다 세 번쯤 읽으니깐 달달 외워지더라고.

면담자 : 그래도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셔서.

구술자 : 아니. 잘한 건 아니고.

면담자 : 그럼 군대는 언제 가셨어요?

구술자 : 시험에 떨어진 뒤 한동안 자괴감에 빠져 지내다 영장이 나와서 바로 입대했지.

면담자 : 군생활은 어디서 하셨어요?

구술자 : 화천 상왕거리라고. 전방에서 했어. 우리 부대 있는대서 북한 38선이 한 14키로 정도 밖에 안떨어졌으니깐. 남들은 못 견뎌 하던 군생활이 난 그런대로 지낼만했어. 자대 배치 한달만에 얇은 책자 한 권 분량 되는 암기사항을 주고 외우라고 하는데 나는 완벽하게 외웠어. 저녁 점호시간에 주번사관인 소위가 다 암기하는 사람 있냐고 해서 내가 손을 들었더니 테스트를 하는 거야. 막힘없이 대답했더니 고참 병장도 못 하는데 대단하다면서 사격지휘로소 옮겨주더라고.

군대시절 찍은 사진

포반에서 보초를 서다 실내에서 상황근무하면 점호, 작업 등에서 열외 생활을 하니깐 그렇게 좋더라고. 자격지휘소는 포탄의 사격제원을 산출해서 명중률을 높일 수 있도록 포사격을 통제 지휘하는 곳으로 명석한 판단과 신속한 계산력이 필요한 곳인데, 8인치 포의 포탄무게가 60kg인데 그게 온도나 바람 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사격할 때 기상을 적용해서 제원을 산출하는데 어떻게 사격을 할 것인지 포반에 명령을 전달해야 하거든.

포병의 생명은 정확성과 신속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야. 시간 단축을 위해 평상시에 매일 제원 산출 연습을 하면서 따뜻한 상황실에서 제대를 앞둔 고참들 줄 추억록을 만드는 일을 해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지. 그때 맺은 인연으로 포대장을 비롯해서 장교며 동료들이 여러 명 우리집까지 놀러왔어.

난 지금도 군생활 34개월이 결코 허송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고 자부해.

면담자 : 군대 갔다 오셔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신 거에요?

구술자 : 공부가 아니라 농사짓다가. 시험은 그 전에 공부해 놓은 그 실력으로 본 거야. 새롭게 또 공부하지는 않고.

면담자 : 시험은 계속 용인으로 응시하신 거죠?

구술자 : 그랬지. 그냥 여기가 나고 자란 고향에다가 생활 근거지 다 보니깐 용인으로 시험을 쳤지, 제대하고 일 년 남짓 농사를 지어보니깐 별로 희망이 없어 보였어. 그러던 차에 또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하니깐 응시를 한 거지. 입대 전에 쌓아둔 실력이 유효했던 건지 어렵지 않게 면접까지 합격이 되더라고. 점쟁이의 예언이 시기가 되어 적중하지 않았나 싶어.

면담자 : 직렬은 행정직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구술자 : 고등학교 때 문과를 다니다 보니깐 행정직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았어. 토목이나 건축 쪽 기술 분야는 관련 지식도 없었고.

면담자 : 시험 합격하고 부모님께서도 많이 좋아하셨겠어요.
구술자 : 아무래도. 자리를 잡았으니깐.

운명적으로 만난 사람과의 결혼생활

면담자 :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사모님과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구술자 : 결혼은 좀 늦은 나이에 했어. 29살에. 아내랑은 지금 생각해도 멋있는 로맨스였다고 생각해. 선을 몇 번 보다가 고종사촌 동생이랑 내기를 했던 게 결혼으로 이어졌어. 동생이 같은 회사에 누가 꼬셔도 안 넘어가는 여직원이 있는데 만나만 봐도 내가 이긴 거로 해주겠다고 하는 거야.
100일을 기한으로 그때 글쓰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지. 매일 편지랑 자작시 보내다가 결국 99일 만에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 서로 통하는 게 많아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봐서 2월 10일이라고 하니깐 "어머 제 생일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더라고. 알고 보니 생일이 같은 날이야.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기수도 똑같애. 둘 다 45회. 또, 독서도 좋아하고 문학도 둘 다 좋아해서 공통점이 있어서 수월하게 대화를 해 갔지.
내가 숫기가 없어서 누구랑 이야기를 잘 못 하는데, 내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말

박상돈 선생의 결혼식 사진

을 끊이지 않게 하고. 이런 게 참 신기했다니깐.
그렇게 일 년 연애하다가 결혼했어.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반대를 좀 했어. 나이 차이가 여섯 살 나니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참 행복했어. 좋은 추억이 많았지. 그때나 지금이나 난 연애 예찬론자야. 연애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또 다른 정신세계를 경험하게 해 주잖아. 그때의 두근거림, 설렘, 황홀함, 행복감, 때로는 잠을 설칠 정도였는데, 그 하나 하나의 과정이 그렇게 애틋하고 소중할 수 없었어. 이다음에 그때 주고받았던 글들이며 갖가지 연애담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지금도 그때 글들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웠었나 새삼 가슴이 젖어 든다니깐.

면담자 :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구술자 : 솔직히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어. 워낙 까다롭고 일 많은 시집살이에 아내가 마음고생을 좀 했어. 부모님 슬하에서 2년 가까이 살다가 모현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분가했어. 아내가 제대로 중간 역할을 하지 못한 신혼 초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할 말이 없어. 평생의 흠이지.

급변하는 용인 행정 속 첫발을 내딘 새내기 공무원

면담자 : 공직 임용은 언제 되신거에요?
구술자 : 1979년 6월 7일 첫 발령을 받았어요.

면담자 : 그럼 9급부터 시작하셨어요?
구술자 : 그렇지.

면담자 : 임용 되기 전에 교육 받으셨나요? 필수 교육과정이 있나요?
구술자 : 꼭 필수는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인제 발령 먼저 받고 도중에 교육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교육을 먼저 받았어요. 그때 시험봐서 합격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교육을 받는게 아니고 일부만 먼저 성적순으로 짤랐는지 하여튼 먼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더라고.

면담자 : 그럼 여기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교육하는건가요?
구술자 : 실무교육으로서는 기안을 어떻게 한다던지 그런거랑.

면담자 : 기안작성법 이런거요?
구술자 : 그렇지. 공직자 청렴교육 같은 것들을 미리 교육시키지. 거의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 민원 응대 방식이라든지 금품같은거 수세 잡고 그럴 때 조심해라 그런 것들 위주로 교육 받았지.

면담자 : 공직 처음 임용되셨을 때 어떤 포부를 품으셨나요?
구술자 :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당시엔 특별히 포부 같은 게 없었어. 그냥 생계유지를 위해 공직에 몸을 담그게 된 거지. 처음에는 없었어도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깐 자연스럽게 공직관이 형성되더라고.

면담자 : 처음 월급 받으셨을 때 그때는 월급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나세요?
구술자 : 불과 돈 10만원 정도 됐었어.
쌀로 치면은 두 가마가 채 안 됐던 것 같애.

면담자 : 그럼 적은 돈은 아니었겠네요?
구술자 : 그렇지.

면담자 : 그 당시 동기들은 몇 명정도 됐었어요?
구술자 : 그때 같이 합격한 사람들이 열 대여섯명 되요.

면담자 : 그럼 퇴직까지 같이 하셨어요?
구술자 : 용인에서 끝까지 근무한 사람이 한 여섯 일곱명 되고, 또 용인에서 근무하다가 타 시군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타 시에 가서 근무하다가 중간에 그만 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면담자 : 그럼 선생님 임용 당시에 용인 공무원 수는 대략 몇 명 정도 됐었어요?
구술자 : 용인 군청으로 해서 읍면까지 하면 한 400~500명 정도 됐을 거야. 면사무소 같은데 대개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 그럼 11개면이면 한 200 한 30~40명 되고. 당시 군청에는 한 150명 정도 가량 됐을 거야. 400명 정도는 됐을 거야

면담자 : 임용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어땠어요?

구술자 : 그 당시 우리나라가 한창 발전과정에 있어 활기찬 시기였지.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식량증산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농촌이 빈곤에서 탈피하는 시기였지. 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생산성이 증대되고 일자리도 많이 생겼고, 새마을 사업이 결실을 맺어서 생활환경도 몰라보게 좋아졌을 때야. 아마 우리나라 최대 호황기가 그때가 아닌가 싶어.

면담자 : 그럼 그 당시 용인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구술자 :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용인 발전의 용틀임이 시작될 무렵이었던 것 같아. 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랑 영동고속도가 이미 개통돼서 교통의 요충지가 된 상태고. 기반 시설이 확보돼 있으니깐 기업들이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거지. 돌이켜보면, 발전은 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수도권에서 점점 남쪽으로 이동되는 것 같애. 그리고 지역성장은 인구증가가 꼭 필요하거든. 우선 인구가 증가하면 각종 필요시설이 갖춰지고, 세수도 엄청 증가된단 말이야. 재정 규모는 자연적으로 커지고 이게 다시 발전에 투자되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야.

내가 79년도에 임용됐으니깐 딱 그 시작점이었지. 그 직후에 용인 재정자립도나 인구증가율이 매년 전국 1위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게 된 태동이 그 무렵이었어.

면담자 : 임용되고 첫 부임지는 어디였어요?

구술자 : 첫 부임지는 용인읍으로 났었어. 그해 6월 1일에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고 일주일 뒤인 6월 7일에 발령 받았어.

근데 첫 임무는 아이러니컬하게 토목담임이었어. 아마 그 자리가 비어있는 데다가 민원을 처리하려면 실무자가 필요했던 모양이야. 3개월 정도 있다 보니깐 토목직이 오고 행정직이 근무해야 할 총무계로 가서 서무담당을 했어.

면담자 : 용인읍에 처음 오셨을 때 토목 담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셨던 거에요?

구술자 : 토목담임은 원래 토목직이 해야 하는 거거든.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거를 발급하고 발동기 같은 거를 관리했어야 하는 건데 나하고 내 직렬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업무를 했었던 거지.

면담자 : 새마을계에 근무하셨던 거는 용인읍에 계셨을 때인가요?
구술자 : 그렇지. 그때 몇 개월 안 있었어. 한 3~4개월 정도. 서무담임하다가 새마을계에서 데려가서 새마을담임 하는데 총무계장이 와 가지고 회계업무를 맡겨야 된다고 도로 끌고 갔어.

면담자 : 그럼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용인읍 일대에는 다 지붕개량 사업이 다 끝난 상황이었네요?
구술자 : 그렇지. 지붕개량은 보통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 가시권 위주로 했기 때문에.

면담자 : 아,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한거에요?
구술자 : 그렇지. 고속도로변. 그 다음에 일반 국도변에서 가시권에 있는 초가집부터 싹 없애고 그런 사업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다 완료됐던 시점이야.

면담자 : 그럼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도 임용되기 전에 이미 끝난 사업이었던 거네요.
구술자 : 그렇지. 도로가 다 돼 있을 때였지.

면담자 : 새마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때면 새마을 사업은 일단락이 되었을 때였겠네요.
구술자 : 우리 때는 새마을 사업이 한창 전성기던 시절에서 조금 지났을 때라.

면담자 : 지붕개량이나 여타 사업도.
구술자 : 거의 끝난 상태였었어.

면담자 : 그럼 그 사업을 주관하던 부서는 존재하기는 했었어요?
구술자 : 새마을 사업이라는 게 나도 새마을계에 조금 근무했었거든. 새마을 업무라는 게 존재는 했지만, 예전만큼 지붕개량하고 뭐 하고 그런 건 아니고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고속도로에 가시권에 있는 집들은 지붕이 퇴색돼서 오래돼 보이는 것들은 새로 페인트칠 하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 것은 있었어.
면담자 : 지금은 이 부서가 없어졌잖아요. 언제쯤 없어진 건가요?
구술자 : 글쎄. 아마 90년도 한 중반쯤 돼서 없어졌을 거야.

면담자 : 꽤 오래 지속됐네요.
구술자 : 새마을 업무는 꽤 오래 존속이 됐는데 그게 아마 김대중 대통령 즈음에 와서 다 없어졌을 거야.

면담자 : 그럼 이게 대민사업 쪽으로 바뀐 건가요?
구술자 : 이게 정권도 지금은 민주당 계열 보수계열 있듯이. 민주당 계열이 정권 잡으면 그 전에 보수정권의 치적 같은 것들을 많이 없애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무렵에 새마을 업무가 사라졌던 거야.

면담자 : 새마을계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신건가요?
구술자 : 새마을계에 있다가 1년 조금 지나서 노정계장으로 갔다가.

면담자 : 그 자리는 어떤 업무를 하는거에요?
구술자 : 노사. 노사분규 노조관리 이런거를 하지.

면담자 : 아!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구술자 : 그렇지. 회사측하고 노조측하고 갈등 분쟁이 많을 적에는 가서 중재 역할도 하고.

면담자 : 그때 이정문 시장을 처음 만나셨던 거에요?
구술자 : 그렇지. 그러고나서 6급 달 때 의사계장 의회사무계장으로 날 데려갔어.

면담자 : 이 분이 시장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요?
구술자 : 아니지. 용인군의회 부의장이었을 적에 나를 데려가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의장이 됐어.

면담자 : 그럼 그 이전에는 안면이 없었어요?
구술자 : 잘 몰랐지.

면담자 : 그럼 선생님 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구술자 : 그 이야기를 들은 발단이 양승학이라고 우리 동창이 있어. 양승학이 초대 의원 나올 적에 그 연설문을 내가 써줬어. 그 친구 사촌 형이 양승범 씨라고 수원에서 학교 선생님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쓴 원고하고 내가 쓴 원고하고 두 개

를 받았는데 내가 쓴 원고가 훨씬 낫다고 해 가지고 내가 쓴 원고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어. 그래서 그 친구가 의원생활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야. 이정문 시장한테. 글 쓰는 것도 잘 쓰고 일도 잘하니깐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깐 이야기 듣고 데려온 거지. 옛날부터 누가 일 해달라고 맡기면은 거절을 못 하고 '알았어' 하고 해주고 해주고 해서 남들이 한 번 친구를 맺으면 저기 하진 않지. 친분은 오래 가지.

면담자 : 용인읍에서는 2년 정도 계셨던 거네요?
구술자 : 용인읍에서는 79년도부터 81년 9월까지. 거기 있다가 81년 6월에 모현면에 승진해서 갔다가 84년도에 군청으로 들어갔지.

면담자 : 총무계로 자리를 옮기셨다고 하셨는데 모현에서도 그 업무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구술자 : 모현에서도 회계를 봤어요. 용인읍에서 회계를 보다가 갔는데 모현에서도 또 회계를 맡기더라고. 그때 용인읍에 감사계장이 있었는데 감사계장이 모현 부면장하고 친군데.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거기로 가면은 용인읍에서 믿음직하게 일 잘하고 자기가 감사 해보니깐 업무처리를 잘하더라. 그러니깐 회계 맡기면 잘할 거라고 해서 거기 회계를 맡긴 거지.

면담자 :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 세수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었잖아요. 그 무렵부터 일이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구술자 : 내가 용인읍에 있을 적만 해도 겨울이 되면 봉급 줄 재원이 모자란다고 체납세 받으러 다니고 그랬었거든. 그때만 해도 재정이 열악했었는데, 그게 90년대 들어오면서 용인시 세수가 막 늘어나서 굉장히 예산 규모도 커지고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면담자 : 그게 수지 기흥 개발되면서부터인가요?
구술자 : 거기 개발되기 전에도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개통되고 기업체 골프장 이런 게 막 생기다 보니깐 거기서 들어오는 세금들이 많아졌지.

면담자 : 아, 그런 데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군요.
구술자 : 그렇지. 골프장 한 곳의 재산세 수입이 원삼면 전체보다 많았으니깐.

면담자 : 그럼 야근하는 날도 많고 엄청 바쁘셨겠어요.
구술자 : 아무래도 공휴일이고 주말이고 애들하고 즐기고 하는 시간이 없었지. 매일 나와서 일해야 하니깐.

면담자 : 모현에서 군청으로 들어오셨을 때 몇 연도였어요?
구술자 : 84년도.

면담자 : 그 당시에도 군청으로 발령 나는 게 좋은 거였나요?
구술자 : 근데 우리 때는 무조건 '첫 발령은 읍면으로 받아야 된다.' 읍면에서 잘하면 뽑아다 쓴다 그랬는데 워낙 군청에 자리가 잘 안 나니깐 뭐 '군청 종자 읍면 종자가 따로 있다.'라고 그럴 정도로 교류가 잘 안 됐었어.

면담자 : 그럼 선생님은 읍으로 오셔서 용인의 11개 읍면을 다 근무하셨었나요?
구술자 : 아니. 용인읍에 있다가 모현면에 갔다가 모현면에서 맞바로 군청으로 들어왔지.

면담자 : 군청으로 가셨을 때 몇 급이었어요?
구술자 : 8급 때 갔지.

면담자 : 그럼 그 이후에는 계속 군청에 계셨어요?
구술자 : 그치. 군청서 경리계로 8급 때 와가지고 그때 승진하면 무조건 읍면으로 내려가라고 했었는데 나는 어떻게 예외로 경리계에 워낙 일이 많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나는 7급 승진으로 하면서 내려보내지 않고 경리계에 두더라고. 그래서 경리계에서 6급 승진할 때까지 경리계에 있었지.

면담자 : 행정직은 한 팀이나 과에 계속 있지 않고 계속 다른 과나 국으로 발령을 내던데요. 선생님은 다른 과로 발령이 거의 없었네요.
구술자 : 그렇지. 6급 되기 전까지는 회계 쪽 업무를 많이 봤지. 그 당시에는 경리 쪽 업무가 예산 집행하는 것도 다 집행하면서 계약 업무를 같이 해서 큰 공사나 사업 같은 것. 입찰해서 계약하는 것까지 다 맡아서 해가지고.
내가 팀장 달 때까지 11년을 실무자로 근무했는데 9년이 넘게 회계업무를 맡아서 했어. 읍면에서 3년, 군청에서 6년. 경리업무는 다른 모든 부서랑 연결이 돼 있어서 실제 근무는 안 해도 진행되는 사업이며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파

악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경리계 6년 장기 근무하다 보니깐 당시 거쳐 갔던 여섯 분 군수님들 판공비 쓰는 스타일도 알 수 있더라고.

급물살을 타는 발전 속 승승장구하는 공직생활

면담자 : 80년대부터 재정자립도가 높았다고 하면, 경기도 내에서 보면 순위권 안에 들었겠는데요.

구술자 : 그 당시는 군이었으니깐. 군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거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군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았던 거야. 용인이 빨리 100만 이상의 도시로 성장하기까지는 그런 타지역 보다 재정적인 여건이 풍부했기 때문에 기반 시설도 빨리 닦을 수 있고,

면담자 : 주변 시에 비해서.

구술자 : 그렇지.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거지.

면담자 :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이 닦여야지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죠. 민속촌이나 에버랜드 같은 관광시설에서도 세금이 많이 들어왔었나요?

구술자 : 기업 이런 데서, 골프장 이런 데서 세금 들어오는 거에 비하면 그거는 별로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면담자 : 골프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구술자 : 민속촌하고 에버랜드는 시세 수입 차원에서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

면담자 : 그럼 골프장이 용인에 몇 개 정도 있었어요?

구술자 : 스무 개가 넘었지.

면담자 : 그렇게 많았어요? 마을을 없애고 만들었던 거예요?

구술자 : 아니지. 골프장은 다 임야를 조성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용인은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놀리는 산을 이용해서 골프장을 개발함으로써 그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마을에 골프장 들어오면 환경 나

빠진다고 반대하고 그랬는데. 나는 좋게 얘기했어. 그게 한쪽만 봐서 그런 거지. 농약 때문에 받는 피해는 조금 지나면 무공해 농약 나오고 그러면 다 극복되는 문제니깐. '어차피 놀리는 땅 시세 군세 증대시켜줘. 그 주변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난 환영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

면담자 : 용인에 골프장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구술자 : 용인에 골프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골프장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즐겼던 스포츠였는데. 서울 가까운 지역에 한 시간 내 거리에 도착할 수 있어야 자기네들 새벽에 얼른 와서 치고 또 일들 보고 그러지. 여기서 저 충청도까지 가고 저 강원도까지 가고 그러면 하루종일 걸리려면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선호를 안 하거든. 그러니깐 용인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쭉 타고 나와서 인터체인지 몇 십 분 거리에 딱 도착하면 골프 치고 밥 먹고 또 가고 그 제일 적합지가 용인이었거든. 그러니깐 용인에 난립이 된 거야.

면담자 : 그럼 업체에서 시에 먼저 골프장을 짓겠다고 의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시 차원에서 유치한 건가요?

구술자 : 골프장 지을 만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벌써 사업부지 물색을 할 적에는 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얼마큼 가까운 거리가 어디쯤인지 놓고 따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인에 다 찍힌 거야.

면담자 : 그런 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거였네요. 하긴 80년대 중반부터 스포츠 산업이 발달할 때니깐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졌겠어요.

70년대 말 80년대 초 사회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날 때였잖아요. 용인에서도 그런 움직임 같은 게 있었나요?

구술자 : 그런 건 없었지. 80년대 이후부터 대학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깐. 모현에 외대, 강남대, 용인대. 명지대 몇 군데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학생운동은 주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위주로 많이 했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크게 저기하지 않았어.

면담자 : 학교가 들어오면 주변에 상권들도 많이 좋아지잖아요.

구술자 : 그런 것도 크게 혜택을 못 본 게. 대개 통학버스가 많이 돌아다니는 바람에 일단은 대학교가 생기면 인근에 많이 머물고 생활 소비도 촉진이 돼야지 상권도 많이 생기고 할 텐데 여기는 주로 이동이 많아서. 직접적인 혜택은 그렇게 크지 않았

어. 어느 정도 있긴 있었지만.

면담자 : 인사과에는 몇 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구술자 : 6급 때도 있었고. 그때 한 2년 10개월 정도. 인사팀장 인사계장으로 있었고. 그러고 인제 과장 때 4년 가까이 있었지.

면담자 : 보통 한 번 있었던 부서에는 발령 잘 안 낸다고 하던데요.
구술자 : 근데 그 부서에서 뭐 만약에 8급 때 근무를 잘했어. 7급으로 다른 데로 갔으면 거기서 잘한 직원들은 윗사람들이 또 데려다가 또 써.

면담자 : 일반 행정직은 부서가 엄청 많고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가서 또 일들을 해내는지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구술자 : 공직은 다 적응의 문제라. 맞닥뜨리면 다 하게 돼 있어.

면담자 : 업무 하시면서 제일 힘드셨을 때가 I.M.F 때였나요?
구술자 : 그때 내가 행정계장 있을 적인데. 제일 힘들었다고 할 수 없고. 그때 먼저 정부 조직부터 감축을 시켜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시군도 10%지 15%지 인원 감축을 시키라는 거야. 근데 그 목표를 6개월 내지 1년 사이로 둔다고. 1년 후까지 목표 10% 인원 감축을 달성하라고 그거를 추진하다 보면 용인은 인구가 그때만 해도 해마다 5만~6만씩 늘어나던 때야. 그러니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기구 조직이 늘어나야 하니깐 우리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서 인원 감축시킬 거 인원 감축 못 시키고 상쇄해서 써야 한다고 보고를 했지. 그래서 초기에는 좀 감축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유야무야 안 시키고 직원 늘어날 거를 인정을 받아서 유지를 시켰지.

면담자 : 그럼 인원감축은 명예퇴직 신청자들 우선으로 하신 건가요?
구술자 : 그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은행 금리가 굉장히 높던 시절이라 퇴직금을 찾아서 은행에 예치시키면 공무원 한 달 봉급 나온 것 이상으로 이자가 나왔어. 그때만 해도 금리가 좋았어. 그래서 명퇴하는 사람들이 골치 썩어가며 공무원 생활하느니 퇴직금 타서 편안하게 이자 받아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꽤 있지.

면담자 : 그것도 어느 정도 급수가 돼야.

구술자 : 그게 인제 대개 6급 이상인 사람들이 명퇴를 많이 했지. 은행 금리 높은 게 계속 지속이 된 게 아니라 차츰차츰 낮아져서 별거 아닌 게 됐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활하는 게 가능했었어.

면담자 : 금 모으기 운동도 용인에서 했었나요?
구술자 : 그거는 다 했지. 각 시군별로 다 했으니깐. 처인구청이 당시에 군청이었기 때문에 여기 마당에서 차려놓고 해서. 방송국에서도 촬영하러 오고 방송해 가면서 했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도 다 같이 와서 했지. 부녀회에서도 와서 하고 새마을 단체들도 오고 개인적으로도 와서 하고 했지.

면담자 : 직원 복지쪽으로도 많이 힘쓰셨다고 하셨는데 인사과에 계실 때였나요?
구술자 : 그렇지. 인사과에 있을 때. 내가 복지제도를 도입한 거는 다른 시군에서 색다른 사업들을 하면 빨리 파악을 하고 받아들여서 직원 복지에 대한 거는 제일 앞서간다고 자부했었거든.

면담자 : 그것도 어느 정도 재정이 받쳐줘야 가능한 거겠죠?
구술자 : 아이. 그럼 당연하지. 멀리서 사는 직원들을 고려해서 사택 같은 것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사지.

면담자 : 좋은 호응을 많이 얻었겠어요.
구술자 : 그럼. 저 외지에 살던 사람이 시험을 본다고 그러면 주소만 이전시켜놓고 시험 본 사람들은 근무하려면 방 얻고 뭐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오자마자 사택 들어가서 하면 일단 주거가 해결되니깐 얼마나 편해.

면담자 :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용인에 난개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구술자 : 이미 인제 90년대 중반 때부터 그랬다고. 90년대 중반 90 한 5.6년 그 무렵에 수지에 막 아파트 들어서고 그때 이미 시작이 됐었던 거야. 그 때는 논밭이었던 상탠데. 그때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 의해서. 기반 시설 없이 몇 평방미터 이내로 개발하는 것들은 다 허가를 내준 거야. 학교 뭐 도로 같은 것들도 안 갖춰졌는데 아파트 허가가 나고 하니깐. 인구는 많은데 학교도 없지. 도로 기반 시설도 안 돼 있지. 그래가지고 집단 민원이 엄청났었지. 만날 군청에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만날 와서 집회하고. 그게 그나마 재정자립도도

높고 하니깐 도로 같은 것 기반 시설 점차 닦아내고 학교 짓고 하니깐 해소되고, 해소되고 그게 한 10년 갔을 거야. 2000년도 중반까지. 그때 돼서야 민원이 해결됐지마는. 초기에는 집단 민원 들어와서 만날 처리하느냐고 일도 제대로 못 하는 날이 많았어.

면담자 : 어떻게 보면 그때 수지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데에는 그때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구술자 : 이미 기흥 수지 쪽에는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어서 이제 처인 쪽으로 개발 수요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

면담자 : 그 당시에는 처인구가 제일 발달했고, 기흥 수지는 발달이 미비한 상태여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발달시킨 거였네요.

구술자 : 수지는 변두리 면 지역이라 공무원들도 아주 오지 취급했지. 그때는 수지로 가는 거면 쫓겨나는 걸로 생각했지. 교통도 불편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았지.

면담자 : 군청에서 시청으로 이전 할 때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구술자 : 뭐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미리 여기서 사용하던 통신망이라던가 인터넷망이라던가 다 설치해 놓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용해서 전 이삿짐을 다 옮기려고 하니깐 그게 힘들긴 했는데 이삿짐 센터도 동원하고 하다 보니깐 직원들도 다 나와서 하니깐 어떻게 되긴 되더라고. 복잡하고 번거로울까 봐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고 주요 부서. 중요 부서들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나머지 부서들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깐 한달 정도 기간 가지고 다 이전이 되더라고.

면담자 : 9급부터 해서 5급까지 올라가는게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선생님 동기들중에서도 많이 없었나요?

구술자 : 내 동기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했고. 내가 79년도에 워낙 늦게 공직을 시작하다보니깐 내 고등학교 동창들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생활 시작해가지고 내가 9급 시작 할 때 3개월 있으니깐 그 친구들은 벌써 6급 달았어. 근데 내가 초특급으로다가 6급 사무관 달 때까지 그때까지도 6급이어가지고 그 친구가 한 번은 찾아와가지고. 내가 인사담당과장을 하니깐.

“내가 그만 둬야되는거냐. 너는 9급부터 시작해서 벌써 사무관 달았는데 나는 너 시작할 때 6급달았는데 여적 6급이니 어떡하면 좋냐.” “너는 네 스스로를 아마

모를거다." 그 친구에 대한 소문이 '따져보자. 찾아보자.' 윗사람이 업무를 맡기고 시키면 "그거 안해도 되는 일인데 왜 시키냐. 관련 규정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따져 보고 그러니깐 이게 직원때는 그냥 그냥 넘어 가는데 6급 정도 되면 윗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 쓰려고 하질 않아. 그래 만날 변두리 외부로만 돌고. 면이나 군에서 불러서 올라올 수가 없는거지. 그러니깐 승진도 어렵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너 넉넉잡고 1년만 해라." "그래, 어떻게 하면 되냐?""윗 사람이 뭐 시키면 이의 달지 말고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 대신 윗 사람들한테는 부탁했지. 이 친구가 나랑 동창인데 이만저만 해서 승진이 늦었으니깐 아마 앞으로는 시키는 일 잘 할테니깐 그 대신 근무평정 근평 점수를 잘 좀 달라. 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승진을 시켜줘서 그 친구가 아주 큰 은혜를 입은 것 마냥 고맙게 생각을 했지.

면담자 : 승진이 빠르다 보면 주변에 시기나 질투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구술자 : 없지 않지. 있을 수 있지.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나보다 사무관 승진도 먼저 한 사람이 국장을 내가 먼저 다니깐 그런 면에서 시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지.

면담자 : 인사과에 계셨으면 청탁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절하시기에도 힘드셨겠어요.
구술자 : 많았지. 거절하면서 그 대신 그 사람의 승진이 안되면 안되는 이유,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재 위치를 잘 가르쳐 줬어. '너는 언제쯤 승진이 될거다. 지금 하는거 봐서는.' 그게 무조건 그냥 '너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안내를 해 줘가지고 또 거의 내가 이야기 한 무렵에 승진이 되고 하니깐 남한테 미움이나 원망을 사진 않았지.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지.

면담자 : 행정과장도 지내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신건가요?
구술자 : 2002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면담자 : 행정과장 하시고 바로 문화복지국장으로 가신거죠?
구술자 : 그렇지.

면담자 : 그럼 국 체계는 지금 시청으로 이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편이 된거네요?
구술자 : 그렇지. 인구가 한 50만 명이 넘다 보니깐 수지 기흥은 그때만 하더라도 수지는

출장소로 있었거든. 기흥은 읍으로 돼 있었고. 근데 읍 치고는 인구가 뭐 15만 명이 넘는 읍이 전국에서는 기흥밖에 없는거야. 다른데 저 아래 가면 도 단위 인구 정도 되는데 읍이라. 그래서 빨리 구청, 국을 설치해야겠다 싶어서 내가 행정과장 있을 때 다 작업을 했던거지. 그거 설치하려고 경기도랑 기재부 출장도 엄청 다녔지.

면담자 : 수지 출장소는 어떤 개념이에요?
구술자 : 그거는 구청 설치하기 전 단계거든.

면담자 : 읍이나 면 단위까지도 안돼서 출장소라고
구술자 : 수지읍에서 그것도 인구가 뭐 한 20만 되다 보니깐 출장소로다 바뀐거지.

행정과장 재직당시 직원들과 찍은 사진

면담자 : 문화복지국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몇 년도에요?
구술자 : 2005년도부터 10월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그거 하다가 의회 사무국장 9월까지 한 3개월 하다가 도로 간거야.

면담자 : 그럼 국 체계가 이 당시에 처음 생긴 거에요?
구술자 : 그렇지. 그때 처음 생긴 거야. 내가 행정과장 하면서 다 만들어서 내가 국장급 달고 나간 거야. 나보고 고생했다고 시장이 "그래, 어느 국으로 가고싶냐고." 물어서 "나는 문화복지국장으로 가겠다." 그래 내가 평상시에 문화예술 단체 활성화시킬 계획도 나름대로 갖고 있고.

면담자 :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네요.
구술자 : 그렇지. 내가 내 이야기를 안하고 다녀서 그렇지. 용인의 그 문학같은 것 뿌리내리고 발전하게 된 동기가 나 때문에 시작을 했었어요. 최초로다가 시 문학 동인도 만들고 동인시집도 냈고. 용인의 처음에 만들어진 단체가 용인문학회라고 있어.

면담자 : 아, 주기적으로 월간지 내는.
구술자 : 그다음에 만들어진 게 '용인문협'이란 게 있어.

면담자 : 문협이요? 문인협회에요?
구술자 :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용인문학회'는 젊은 층. 처음 문학에 발 들여 놓는 아마추어 위주로 결성이 된 단체고. '문협'은 기존에 문학활동을 했던 기저민들 위주로 결성이 된 단체거든. 거기 내가 다 관여를 하면서 사무총장도 하고 문협 만들적에도 내가 관여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문학 각 단체라던가. 용인에서 문화 예술 활동들이 돌아가는 상활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문화복지국장을 처음 하면서 그때 예총 만들고.

면담자 : 그 당시에 만드셨던 거에요?
구술자 : 그렇지. 각 문화 예술 단체에 보조금 지원해주고 그런 제도를 처음에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이어져 오면서 다 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그 당시만 해도 용인 각 단체에 예산 보조라는 게 거의 없었어. 내가 문화복지 국장하면서 최초로다가 예산 지원해서 예술단체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예산지원제도를 만들었던거지.

면담자 : 아. 이 당시에 만들어진 거였군요. 이때는 공직생활하고 계실 때인데 겸직이 가능했나요?
구술자 : 이건 취미생활로 한 거였으니깐.

면담자 : 어렸을 적 글쓰기 잘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구술자 : 아무래도. 내 인생에 많이 영향을 미쳤지.

면담자 :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하려면 조례들도 다 변경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구술자 :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지. 다른 타시군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 할 정도로 파격적인 예산이었지. 왜 그럴 수 있었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정자립도나 재정여건이 좋아서 가능했던 거지.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세수 1조를 가장 먼저 돌파한 게 2004년도야. 그때 세수 들어오는 게 1조 2천억 정도 됐는데,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 좋은 거냐면, 저 아래 전라도 같은데 1년 예산이 불과 3조. 도의 예산이 3조. 도의 예산이 3조 정도인데 우리는 1조 2천억이 세금으로 들어왔던 거야. 그러니깐 재정여건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니깐 좋은 사업을 찾아내고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시장, 의회를 설득만 할 수 있으면은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이 됐던 거야.

면담자 :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화 쪽으로 돈을 쓰려면 보수적인 입장인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어려움 같은 것은 없었어요?
구술자 : 그런 거를 왜 저기했냐면은. 그때만 해도 수지 사람들하고 용인 사람들하고 문화 행사를 해 보면은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의 기본 자질이 차이가 있어. 좋은 공연을 유명한 사람 불러 다가 수지에서 하면 그거를 와서 보고 즐기려고 대성황을 이루는데 용인시는 여기 문화예술 회관에 불러놓고 해 보면 좌석이 3분의 1도 안 찰 정도로 문화 수준의 격차가 있었어. 그때는. 문화예술 단체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영어교사도 도입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내리면 학교들도 엄청 많이 지원을 했다고. 각 지역에 시의원들도 이야기해서 좋잖아. 학교에 예산 많이 지원되고 하니깐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깐 의회에서도 좋아하고.
내가 의회 전문위원도 했고 의사계장도 했지, 전문위원 했지. 나중에 의회사무국장도 했지만은. 의원들하고도 안면을 많이 터놨다고. 4년마다 지방선거 하면은 내가 써 준 원고 가지고 당선되는 의원이 항상 3명~4명은 있었어. 그 사람들은 벌써 나랑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업 있으면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다 긍정적으로 처리해주고 하니깐 그만큼 일하기가 수월했지.

용기 낸 도전, 또 다른 시작

면담자 : 어떻게 경기도로 가시게 되신 거에요? 그럼 별도의 시험은 없었어요?

구술자 : 시험 같은 건 없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 긴데. 민선 단체장들 선거하잖아. 이정문 시장 때 내가 핵심 역할을 많이 해 가지고 시장이 바뀌었을 때 가장 측근인 내 발령이 문제가 된 거지. 내가 다른 곳으로 가던가, (경기)도로 가던가 해야 되니깐. 그래서 내가 도로 쫓겨가듯이 간 거지. 근데 그때만 해도 시청에서 국장들이 다 도에만 가면 다 죽는 줄 알고 가기 꺼려 하고 안 간다고 했었어. 여기서 국장이라고 하면 지위가 있으니깐 무슨 행사 있으면 지휘정도만 하는데 같은 서기관으로 도에 가면 과장급이거든. 직급은 똑같은데 직위는 하나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깐 그만큼 중간 역할이나 모든 걸 자신 있게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 가면 죽는 줄 알고 가기 싫어하는 거야. 근데 나는 다행히 가서 적응해 내고. 오히려 도청 직원들이 여태 이렇게 능력있게 근무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그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간부 공무원 상 그런 거를 투표해서 뽑아줘서 내가 많이 알려졌었지. 거기 가서.

면담자 : 그래서 퇴직을 경기도에서 하신 거였구나.

구술자 : 나중에 퇴직할 적에 날 쫓아 보낸 시장이 다시 와 달라고. 퇴직하기 전에. 자기가 시장 하면서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깐 내가 벌려놨던 게 내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깐 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조건을 달았어. '내가 불러서 가는 것은 좋은데 사생활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안 하고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전임 시장을 만나네. 누구를 만나네. 그런 사생활까지 관여 받으면서 옮기고 싶은 생각 없다.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해줄 자신이 있으면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부르지 마라. 나 안 간다.' 하고 안 갔지.

면담자 : 계속 시장이 바뀌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겠어요.

구술자 : 그전에는 민선 자치 시대 처음 되면서 나중에 그런 걸 알았지만. 원래는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였지만.

면담자 : 선거에요?

구술자 : 그렇지. 첫 기에는 다 누구든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쓴 거야. 현직에 있던 시장이 퇴임하고 3개월 후에 민선 저걸로 취임하는 거거든.

면담자 : 그게 90년대 초반인가요?
구술자 : 97년부터 시작이지.

면담자 : 그럼 윤병희 군수가 민선 1기죠?
구술자 : 그렇지. 그분 공약사항 연설문을 내가 다 작성하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퇴직을 시켜서 또 당선을 시킨 거야. 그게 그렇게 하고 그 양반이 일이 있어서 그만두는 바람에 부시장으로 있던 예강환 씨가 보궐선거 나오면서 그 양반한테 나를 인계한 거야. 그래서 그때 또 같은 역할을 또 해주고. 그래 나중에 보니깐 '아! 공무원이 그런데 중립을 지켜야지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나중에 알았지.

면담자 : 그럼 그때 직급은 몇 급 정도 되셨어요? 한 팀장급?
구술자 : 5급. 윤병희 시장 때는 6급이었고. 예강환 시장 때는 5급 사무관이었고.

면담자 : 그 정도 되면 그런 일들을 안 하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고위급이었으면.
구술자 : 그게 위에 사람들이 필요해서 날 불러서 자꾸 맡기니깐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했지.
면담자 : 그쵸. 거절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면담자 : 경기도로 넘어가셨을 때 용인에 미련은 없었어요? 아쉽거나.
구술자 : 아닌 게 아니라 시에서 도로 가면 그만큼 업무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많이 염려해 가면서 가지. 내가 막상 가서 부딪혀 보니깐 직원들 수준이나 능력도 시군 단위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야.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던가 사고 자치가 시군이랑 차원이 달라. 그만큼 또 알아서 잘 처리하는 게 있어서 오히려 조금 이따 보니깐 잘 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용인시에서 맨날 행정과장, 국장이라고 하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제일이라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는데, 도로 오면서 바짝 긴장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깐 평상시에 나도 몰랐던 능력도 새롭게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훨씬 나 개인적으로 스스로 도약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 쫓아 보낸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원망도 없지 않아 했지. 근데 나중에는 내가 고맙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불러도 안 간다고 할 정도로 재밌게 했어.

면담자 : 시에서 가실 때 많은 분들이 말리지 않으셨어요?

구술자 : 그때는 의회사무국장 할 적이라. 의원들이 부당한 인사라고 자기들이 인사 철회해 줄 테니까 가지 말라고 붙들었었어. 근데 내가 그냥 가겠다고 한 거지.

면담자 : 그래도 좋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잘 적응하셨네요.

구술자 : 난 하여튼 활동성 있게 해서 그런지 도에 가도 도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있던 건설 본부에 관련된 부서, 의회 전문위원들. 내가 인복이 있어서 그런지 전에 인과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 활용이 잘 됐어. 건설 본부 직원들이 직원들 승진 못 하는 것. 예산 확보 안 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도.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내가 가서 몇 달 내로 다 해소해 주니깐.
그리고 예산도 뭐를 계속 올리면 예산 부서에서 검토도 안 하고 다 자르는 거야. 근데 그때 그 부서에서 최고의 권한을 가진 기획실장이 용인에서 부시장 하다 올라간 사람이야. 그래 그 사람 찾아갔어. 웬만한 사람들은 직급 차이가 있으니깐 어려워하고 안 찾아가고 그러지. 근데 찾아갔어. “실장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깐 “아이고, 관리 부장님 어쩐 일이세요.” “내 체면 좀 세워 주십시오.” 무슨 일이냐고. “아니 건설 본부 예산을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다 잘려서 실장님 선에 가지도 않는다던데 저 체면을 봐서 무조건 세워달라.”고 그러니깐 예산부서 과장을 부르더라고. “이번에 건설 본부에서 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올려보내시오. 거기서 자르지 말고”. 실장이 얘기하니깐 안 올릴 수가 있나. 밑에 직원들이 보니깐 시에서 올라와서 빌빌거릴 줄 알았는데 해결도 착착 다 하지. 올라가서 보니깐 내 앞에 근무하던 용인 사람이 업무추진비라고 직원들하고 회식하라고 나오는 돈은 한 푼도 안 썼던 거야. 고대로 다 있는 거야. 그래서 팀별로 저녁에 회식자리 마련해서. 화요일에는 이 부서. 목요일에는 저 부서. 돌아가면서 저녁 먹고 술 한 잔씩 해가면서 애로 사항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술잔 주고받고 하니깐 싫어할 직원들이 없는 거야. 전에 전임자들은 생전같이 저녁 먹어본 적도 없는데 이건 저녁 정도가 아니라 술잔 부딪혀가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저녁 먹고 술 한 잔 더 하거나 노래방 갈 거면 조건을 달아서 이 돈으로 가라고. 저들에게 부담 하나도 안주거든. 그러니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활했어. 하여튼. 그러니깐 1년도 안 가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경기도청 직원들이 최고다 이래서 상을 뽑아준 거지.

면담자 : 처음에 건설본부장으로 가셔서 근무하시다가 바로 직업학교로 가신거에요?

구술자 : 그렇지.

면담자 : 그럼 그건 자원을 하셨던거에요?
구술자 : 자원한 적도 있었고, 그때 부지사가 물어보더라고. 경기도 직속으로 있는 학교가 있었거든. 기술 가르치는 학꼰데. 기술 가르쳐서 취업까지 다 시켜주는 학교야.

경기도기술학교장 재직 당시 모습

면담자 : 직업학교장으로 가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구술자 : 우리 때는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려면 서기관이 5년이 지나야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할 수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5년이 채 안 됐는데 도지사가 특별권한으로 누구를 건설 본부장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나보다 승진을 빨리 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깐 내가 부지사한테 이야기했어. '승진도 나하고 비슷하게 한 사람이고 내 부하직원으로 있던 사람인데. 나보다 빠른 것도 아닌데 도지사가 특별승진 시키려고 내려보낸다는데 내가 그 사람 밑에서 부하직원으로 일하기가 그렇다. 나도 여기서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나도 자리 좀 바꿔주시오'. 하니깐 '알았다.'고. '인사 부서하고 검토해 본다.'라고. 그러더니 몇 시간 이따가 부이사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기술학 교장 자리를 줄 테니깐 갈래냐'고. '아이, 주시기만 하면 가죠.' 그러고 간 거지.

면담자 : 그곳에서는 몇 년 근무하셨어요?
구술자 : 2년 11개월 근무했나.

면담자 : 더 높은 자리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부시장이나.
구술자 : 제안은 있었는데. 처음에 건설본부 관리부장 할 적인데. 승진하기 전 단계로 부단체장을 나가야 한 대. 양평 이런데 부군수로 가라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 가서 생활하려면 뭐 관사를 쓰든지 방을 얻든지 가족이랑 떨어져 살아야 하는데. 엄청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나 승진 안 해도 좋고, 여기 직원들하고 호흡도 잘 맞고 하니깐 나 부단체장은 안 나간다고 했지.' 그래서 그냥 나중에 기술학 교장을 한 거야. 부단체장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갔지 내가.

면담자 : 그럼 부시장은 경기도에서 발령내는 거에요?
구술자 : 뭐 자체 승진할 수도 있지만.

면담자 : 아. 시에서 자체 승진으로도 가능해요?
구술자 : 가능도 한데. 대개 교류를 많이 해. 왜냐하면 시군에서는 부시장 부군수가 그 자체 내 사람들을 잘못 키워서 너무 능력있게 키우면 다음에 단체장 선거 자리를 치고 들어오니깐 그래서 자체에서 안 키우고 외부에서 받았다 갈 사람으로 시키려는 성향이 있지.

30여년 간의 퇴직생활을 돌아보며.

면담자 : 그럼 직업학교장으로 계실 때 퇴직하신 거에요? 감회가 어떠셨어요?
구술자 : 만 33년을 채우는 날이라 미리 그날 퇴직하리라 마음을 먹고 있어서. 그렇게 섭섭한 건 없었어. 그 해가 회갑이 되던 해고 그 정도면 후배 공직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했었어.

면담자 : 퇴직하시기 전에 퇴직 이후에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었나요?
구술자 : 뭐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고. 1,200평가량 땅이 있어서 농사지을 생각이었지. 일할 만큼 했으니 여행도 다니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 평소에 글 쓰는 게 취

미였으니깐 글이야 쓰면서 지낼 생각이었지.

퇴임식에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면담자 : 퇴직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구술자 : 퇴직하고 나서는 제일 먼저 여기 행정동우회에 가입하고, 틈틈이 연락이 끊겼던 군대 동기며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어울려 지냈지. 일할 때야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깐. 궁금하기도 하고.

면담자 : 행정동우회는 퇴직 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건가요?
구술자 : 의무적인 건 아니고. 자기가 내켜서 희망을 하면 가입을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면담자 : 이 단체에는 누가 권유를 하셨던 거에요?
구술자 : 아니, 권유보다도 내가 공무원 할 적에도 이 단체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근데 공무원 생활하면서 퇴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아침에 여행 간다고 버스 출발하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러웠었어.

면담자 : 그럼 행정동우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구술자 :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건강친목회라고 해서 매월 모여서 버스를 대절해서 여행을 다녀. 등산도 가고. 다니고. 1년에 한 번씩 이사회 총회 열어서 회비 사용한 거 결산도 보고. 결국은 친목 단체지. 퇴직 공직자들의 친목 단체지.

면담자 :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구술자 : 작년도부텀 못한 게 계속 못 모이는거야.

면담자 : 재직기간 동안 상도 여러 번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구술자 : 그렇지. 꽤 여러 번 받았어. 군수나 의장 표창은 접어두고 재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경기도지사, 국무총리 등 표창도 고루 받았고, 퇴직하면서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도 받았어.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공로패 수여식 사진

홍조근정훈장 사진

면담자 : 이 중에서 제일 뜻깊은 상이 있다면 어떤 상이에요?
구술자 : 도에 있을 땐데. 아까도 말했듯이 '자랑스러운 간부 공무원' 선정에 패 받았을 때가 제일 좋았지. 상 중에서 가장 대견하게 여기는 상이야. 이게 해마다 노동조합원들이 존경받는 간부공원을 투표로 뽑는 건데 거기에 선정돼서 받은 거거든.
용인에서 전근을 가다 보니깐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었지. 처음에는 그냥 지방에서 올라갔으니깐 최소한 무능하다는 소리는 듣지 말자는 마음에 열심히

근무했어. 이 상이 우선 부서 직원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는 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업무도 개선하는 게 직원들한테 좋은 인상을 줬었나 봐.

새로운 시장의 당선으로 쫓겨가듯 간 전근이었는데 나한테는 새로운 행정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라서 나중에는 아주 감사하고 다행으로 여겼어.

경기도청 근무시 받았던
'자랑스러운 간부 공무원상패'

자랑스러운 간부 공무원상패 수여식

면담자 : 그럼 공직생활 하면서 가증 기억에 남는 동료가 있나요?

구술자 : 여러 명 있지만, 공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이 이정문 전임 시장이 제일 생각나지. 노사현장 쫓아다니던 나를 91년도에 의사계장으로 발탁해가지고 끌어간 게 계기가 됐어. 그 후에도 참 오래 같이 일했어. 그분 덕분에 내 역량을 발휘해서 주위에서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지. 그게 바탕이 돼서 주요 요직들도 맡은 거고 승진도 빨리할 수 있었던 거고. 자기가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챙겨주려고 애쓰면서 때로는 남자다운 배짱도 있고 결단력도 있어서 난관을 돌파하는 시원 시원한 성격이었어. 이분이 시장직에 계실 때 내 얘기라면 다 수용해 줘서 당시 용인시 공무원들 복지혜택이 전국에서도 가장 앞섰었어. 아까도 말했는데, 사택 마련해 주고, 전국 콘도 빌려서 휴가 갈 수 있게 하고, 취미클럽 만들어서 재정 지원해 주는 동호회 활동도 활성화해주고. 그때 공무원들은 감히 골프를 칠 엄두도 못 내던 시절이었는데 골프장이 제일 많은 시에서 못하는 골프를 못

치는 것도 모순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질 테니 배우라고 풀어줘가지고 검찰에서도 손을 안 댔었어. 그 대신에 절대로 접대받지 말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단서를 붙었어. 그때 그분 덕분에 나도 골프를 배웠어.

면담자 : 그럼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가장 어렵거나 곤란한 적이 언제였어요?

구술자 :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불려가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어. 2004년엔가.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시장 비리를 캐려는 수사에 시청 직원들이 몇 명 끌려가서 호되게 조사받은 적이 있었어. 모 국장 한 사람을 징계시효가 끝나기 하루 전에 미리 승진 발령한 일이 있었는데 돈을 받고 해준 게 아니냐고 자백하라고 윽박질러서 말도 못 할 수모를 겪은 적이 있었어. 나중에 검찰로 넘어가서 조사해서 끝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지금에야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아주 내 생애 중 가장 시련이고 어려움이었어.

면담자 :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구술자 : 나도 별생각 없이 생활 방편으로 공직을 시작했는데, 고위직이 되면서 차츰 나름의 공직관이 정립되더라고. 공직생활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으로는 먼저 사명감을 가져야 돼. 똑같은 일이어도 생활을 유지하려는 방편으로 삼는 것과 사명감으로 행하는 것의 차이는 과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것을 직접 겪어봤어.

다음으로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돼. 대다수 공직자의 업무가 민원인이나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이야. 그 일들을 처리할 때 담당자가 지니는 마인드에 따라 어떤 형태든 결과가 만들어지고, 반영된 결과는 상대에게 만족을 주기도 하고 불만을 사기도 한다고. 똑같은 업무를 다루면서도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은근히 많다고. 담당자의 마인드가 가져다주는 극명한 차이야 이게.

세 번째로 공직자는 스스로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 자기관리에는 건강에서부터 언행, 인간관계, 주변 관리까지 생활 모든 게 포함하는 거야.

우선 건강한 심신을 유지해야지. 몸이 건강해야 밝고 쾌활한 마음을 지니게 되고 안정된 정신상태라야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과음의 실수, 민원인과의 언쟁, 금품수수 등 공직에서 발생하는 과오들은 거의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되는거야.

공직세계에는 상급자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기피하는 인물들도 있어. 서로 픽업하려는 사람은 인기가 있어 서로 기용하려다 보니 요직

을 두루 경험하게 되고 기피하는 인물은 한직으로 전전하는 것을 많이 봤어. 팀장급으로 3년, 과장급으로 3년을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체험들이야.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날 공직을 시작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는 직급과 지위가 상당히 벌어지기 마련이야. 다 자기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의 결과야. 경쟁에 뒤처진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평시에 꾸준히 자기관리를 하라 당부하고 싶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절대로 업무를 떠넘기지 말라는 거야. 상급자들은 이미 그 업무에 대해 다 판단하고 있다고. 누가 해야 할 업무이며, 경중과 난이도는 얼마라는 것까지도. 그 일을 묵묵히 성공적으로 처리한다면 그만한 평가와 답례가 근평을 통해 이뤄지는 거야. 수 년이 지난 후에 지시를 내리는 상급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지시를 받는 하급자가 되어 있을 것인가 결과가 그때그때 선택에 달려 있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절대로 업무를 떠넘기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후배 공직자들한테 간곡히 당부하고 싶어

면담자 : 마지막으로 남은 삶에 대한 다짐이 있으시다면?
구술자 : 우선 건강관리를 잘 하고 싶지. 소중한 여생을 병원 신세나 진다면 그러면서 누군가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살아있다는 의미가 없겠지.
그다음엔 부끄러움 없이 잘 마루 짓는 거야. 마무리에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자립해서 무언가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식, 손자 대까지 인성과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마음먹어서인지 요즘 손자들 돌보는 일이 재미있어. 마지막으로 한 세 권쯤 되는 책을 내고 싶어. 시집 한 권, 수필 두 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한 작업이야.

정의(正義)와 순종(順從)의 삶,

서석정(徐石井) 선생

1939년 12월 13일	남사면 방아리 아리실 출생
1962년	서라벌예술대학 음악과 졸업
1967년	가평중학교 음악교사로 교직 투신
2005년	남사중학교 초빙교장까지 38년 교직근무
	용인지역 10여개 학교 교가작곡(남사중외)
1972년부터	지역봉사활동 강사(인성 레크리에이션)
1987년부터	김량장동일대 아침 가로등끄기 실천10년
1998년 5월 6일	용인음악협회 초대 지부장(4년 역임)
	일명 “용인 음악의 대부(代父)”로 알려짐

개요

- 구술자 : 서석정
- 면담자 : 남기주
- 1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10월 18일(월) 10:00
  - 장소 : 처인구 유림로 236-54 자택
- 2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11월 8일(월) 10:00
  - 장소 : 처인구 유림로 236-54 자택
- 3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11월 15일(월) 10:00
  - 장소 : 처인구 유림로 236-54 자택

요 약 정 리

선생은 1939년 12월13일 용인 남사면 방아리 아리실에서 출생하였다. 하늘만 빼꼼히 뵌다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6대째 이어온 개신교의 신앙심은 선생 집안의 든든한 뿌리였다. 부모님이 말씀이라면 하늘처럼 따르는 아들로 자랐다. 초등학교 5학년때 교회 여름성경학교가 열렸다. 한국신학대학에서 왔다는 김상호 선생은 교회풍금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칠 수가 없었다. 선생은 매료되었다.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해, 김선생으로 부터 악보를 터득하고 풍금을 배웠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 모든 것에 우선하게 되었다. 그당시로는 엄두내기 조차 어려운 음악대학까지 졸업하게 되었던 계기였다. 군대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은 익어만 갔다. 교직생활에서 대부분 학생과장직을 맡았다. 문제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이었다. 사명감으로 자신있게 대처해 나갔다. 이후에 교내 합창단을 조직해 봉사를 거듭하면서 역경의 시간도 치러야 했다. 그후로부터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다시한번 뒤돌아 보는 기회를 가지기 시작했다.

사회 각계 각층에 인성레크리에이션 강사로, 10여년간 가로등끄기 실천으로 매스컴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운의 시간도 있었다. 2011년 뇌경색으로 3개월간 운신도 못하는 긴 시간이 있기도 했다. 후유증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도 감내해야 했다. 선생과 가족은 신념과 신앙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그 눈물의 기도는 통했다. 할 수있다는 신조가 그를 일깨웠다. 삶이 행복하다는 진리를 전하고 싶었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달라는 기도가 또한번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시작했다.

기쁨으로 달려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말하되, 불광불급(不狂不及)이었다. 선생은 철학자 에머슨의 말을 곁들여 주었다. “ 믿음은 종달새 알에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것이다.” 말인 즉슨 ‘ 현실의 어두운 밤이 영원한 밤으로 계속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라는 말이다. 시골소년의 꿈은 깨어 일어나는 것이었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았다.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아직도 쉼없는 실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선생의 말씀을 듣노라니 뜨뜻미지근함을 매우 싫어 하는 기독교적 신앙이 뿌리깊게 박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반숙반랭(半熟半冷)은 신앙인으로서는 적당히 할인하여 믿으려 함은 차라리 불신함만 같지 못하다 는 것으로, 순종과 정의로써 담금질 된 선생의 인생 노정(路程)에 평온함과 아름다움이 늘 같이 하기를 소원한다.

출생.가족과 유년기

면담자 : 안녕하세요. 용인학연구소의 남기주입니다.용인지역의 대표적 원로들의 구술을 통해 현대사를 기록하여 용인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남기기 위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용인 음악의 대부라고 일컫는 선생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술자 : 어서와요. 얼굴을 보니 알겠네.

면담자 : 예전에 저희 집앞에서 가로등 끄시다 만나기도 하셨지요.
구술자 : 그랬었나. 허허.

면담자 : 건강하시지요.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코로나가 제일 걱정이시지요.
구술자 : 집뒤에 산(성산)이 있어 등산을 자주해요. 그게 제일 좋아요.

면담자 : 술.담배는 전혀 하지 않으시지요.
구술자 : 그렇지. 백해무익이니까요.

면담자 : 그럼 질문으로 들어가서, 우선 출생년도와 출생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구술자 : 1939년12월 13일입니다. 남사면 방아리 아리실이구요.

면담자 : 아리실교회가 있는 마을에서 태어나셨군요.
구술자 : 그래요. 아리실교회가 생긴지 올해로 126년이고, 할아버지가 초대교회 건립에 관여를 하셨지요. 대대로 6대째 섬기고 있는 중이지요.

면담자 : 본관(本貫)은 어디 신가요.
구술자 : 달성(達城)입니다.

면담자 : 가업은 농사를 하셨겠지요.
구술자 : 그렇지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지요.

면담자 : 형제관계는 어떻게 되시는가요.
구술자 : 내가 장남이고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 둘 사남매입니다.

면담자 : 유년시절 당시에 일제강점기 였는데 혹시 기억나시는게 있으신가요.
구술자 : 나보다 두어살 더 먹은 사람은 다소의 기억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없어요.

면담자 : 초등학교 입학은 어떻게 되셨나요.
구술자 : 당시는 남사국민학교 지요. 거기에 입학을 하였죠.

면담자 : 선생님과 음악과의 인연은 어느때쯤부터 시작되었나요.
구술자 : 국민학교5학년때 교회에 여름성경학교가 열렸는데, 한국신학대학에서 오셨다는 김상호 선생이 교회에서 풍금을 치는데 그렇게 멋들어지게 치시는 겁니다. 서양 선교사가 선사하였지만 궤짝처럼 방치되었던 것이 임자를 만난거지요. 그소리를 듣고있자니 아주 기가 막힌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니 하면서 말이예요. 홀딱 반한거지요. 그래서 어머니께 "저도 풍금을 배우고 싶어요." 하면서 졸라댔지요. 그리고, 선생님을 모셔다가 점심을 한번 대접해 드리면 않되겠느냐 해서 악보 보는 법을 배우고 수시로 연습을 했지요. 밤늦도록 교회에서 남폿불을 밝히고 혼자서 풍금을 치다보면 무섭기도 하고, 초가지붕에서 굼벵이가 떨어지고, 꿩이 날다가 들어와 푸드덕 거려 놀라기도 하고, 12살 어린아이가 오후3시부터 밤10시까지 그렇게 쳐대다보니 찬송가600곡을 6개월만에 외워서 치게 되었지요. 집에서 소를 키우다보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기전에 쇠꼴을 베어놓고 와서 늦게까지 풍금을 치니 허기가 지고 했지만 끈기있게 했지요.

인터뷰 모습

성장기

면담자 : 중학교는 어느학교로 진학하셨나요.
구술자 : 중학교는 남사중학교를 다니다 3학년때 용인중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그나마 용인이 도회지격이 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56년에 중학교졸업, 59년에 용인고등학교 졸업을 했지요. 시골에서 대학갈 꿈은 꾸지도 못할때라서 농사에 조력이나 하고 있었지요.

면담자 : 그전에 6.25때 피란은 어디로 가셨나요.
구술자 : 천안 입장면으로 가서 6개월정도 있다가 왔지요.

면담자 : 남사쪽에선 피란 가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고 하던데요.
구술자 : 그렇긴 해요.

면담자 : 줄곧 농사만 지으셨나요.
구술자 : 농사짓다가 집안 대고모할머니 아들 되시는 분이 오셔서 수도검사소 십장일이라도 해라해서 수원으로 진출을 했지요. 헌데 감독을 하다보니 업자들이 엉터리 배관을 묻고 부실공사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니 네가 뭔데 지껄이느냐 하면서 따귀를 때려 고막이 터졌어요. 세상에 소리가 들려야지. 팔달문 부근에 십자의원에서 일주일 치료하고 일년근무하다가 내려왔지요.
그러면서 농사에 전력하는데 아버지 사촌되시는 서성준목사님이 아리실교회 담임목사로 오셔서, 주일학교에서 내가 동화구연과 율동하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한테 “형님,저 아이는 선생무끼요.” 하면서 “풍금은 아무나 잘 칠 수 없으니 석정이 음악대학 보내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라벌예술대학(현.중앙대학교) 음악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지요. 중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준다하니 학생들이 몰려 들었죠. 아저씨가 빚을 내서라도 가르쳐야 한다고 하신거지요.

면담자 : 그곳에서 국내의 유명 음악가의 지도를 받으셨군요.
구술자 : 김동진,이흥렬 선생등의 지도를 받았지요. 1950년대에 음악을 전공했다는게 평범하진 않았지요. 시골에서 태어난 내가 기적처럼 음악을 만나게 된거죠.

면담자 : 당시 학부 구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구술자 : 음악과, 문예창작과, 연극영화과, 미술과 등이 있었지요.

면담자 : 혹시 김주영 작가를 아시는지요. '객주''홍어'의 유명작가로 동문이신데요. 연령으로 보면 동갑이 되실테고, 대중음악에 정풍송 작곡가도 계신데요.
구술자 : 내 갈길에 전념해서 그런가 기억에 없습니다만, 김동리(金東里, 1913~1995) 선생은 기억하지요.

면담자 : 숙식이나 통학은 어떻게 하셨나요.
구술자 : 대고모할머니가 을지로6가에 사셔서 거기서 기거를 했는데, 미아리까지 걸어다녔지요. 상당히 먼거리죠. 쌀은 아버지가 대주시고요.

면담자 : 대학시절 사회적 풍조는 어떠했습니까. 젊은이의 사고방식이나 연애관이라던가.
구술자 : 보수적인 시대였으니 별로 나타난게 없어 보였지요. 대개 순수한 면이 많았다고 봐야죠. 특별하게 시대를 초월한 행동이나 과격한 학생은 극히 드물었다고 봅니다.

면담자 : 1960년에 4.19와 다음해 5.16이 연이어 일어났는데 그당시 학생이셨으면 이른바 4.19세대 이신데, 학생운동에 참여하시진 않으셨나요.
구술자 : 시대상황이 어지러워 공부를 하느니 마느니 갈등이 초래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대학생활을 마쳤지요.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면담자 : 대학시절에 클럽활동은 있으셨나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학내서클이죠.
구술자 : "맹꽁이중창단"이라고 있었지요. 종로3가에 '디쉐네'[1]라는 음악감상실에 무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중창으로 공연을 하곤 했어요. 나는 베이스파트를 맡아서 했어요. 내가 사회를 겸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호응이 좋았지요. 관객이 자발적으로 거출한 공연료로 단원들의 식비로 쓰기도 하고 보람된 활동이었지요. 그것도 일종의 봉사활동이었죠. 중창단 이름이 재미있죠.

1) 디쉐네 : 1953년 이후에 종로에 있던 전문음악감상실, 세시봉,카네기,메트로등과 한시대를 풍미하였다고 전해진다.(인터넷 참조)

군대생활과 사회입문

면담자 : 군 입대관계는 어떠했습니까.

구술자 :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신체검사를 하는데 기관지가 좋지 않다, 몸이 약하다하며 귀향증을 주면서 가라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열흘만에 집으로 돌아가니 동네에서는 제대했냐는둥 별소리를 다 하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군대가기전에 환송식이다. 노잣돈이다 했는데 말예요. 그래서 이튿날 학교로 가서 복학을 했지요. 학교를 늘 걸어다니다 보니 운동도 되고 밥맛도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 졌어요. 하늘이 도우신거죠. 이후에 교사자격증도 받고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니 군대는 당연히 가야지."라는 신념을 가지고 군에 자원입대를 했죠. 당시에 병무청이 인천에 있었는데, 군대갈테니 재입영 영장을 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는말이,"야,이미친놈아 남은 가지않을라고 별짓을 하다는데 너는 뭐야."그러죠.

그런데 신검을 해보니 몸에 흔적이 남아 있어 않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군의관에게 "군대 갔다가 오늘밤에 죽어도 좋으니 보내달라."했더니 "너 같은놈 처음본다."하면서 승낙을 하는 겁니다.

대전병참학교에서 6주훈련받으면서 무좀이 심해 춘천제1보충대로 가서 주먹밥 먹어가며 치료를 받았지요. 훈련이 정신무장을 시키는 거지요. 빠따가 춤을추었죠. 때마침 행정요원을 뽑는 시험이 있어 합격을 했지요. 하루는 덤프트럭이 병력을 실러왔는데 "너,여기타라."해서 탔지요. 춘천야전공병대로 투입이 된겁니다. 속칭 골병대라 하지요. 야전삽으로 두드려 맞아가며 훈련과 복무를 했지요. 긴장이 되니까 아픈걸 모르겠더라구요.

면담자 : 구타가 너무 심했군요.

구술자 : 맞지않고는 잠이 오질 않죠. 그당시는 통솔을 다들 그렇게 했어요. 요즘 군대는 정말 민주화 군대지요. 군기 잡는다고 더 그렇게 한거예요. 하루는 연병장에 집합을 시켜놓고 학력별로 사람을 추리는 겁니다. 초졸.중졸.고졸.대졸 이런식으로 말이죠. 해당자는 손들라 하면서요. 대졸이라 하니 정훈장교실로 데려가더군요. 육군대위가 "웅변해봤냐?" 하길래, 자신있게 "메마른 사막에서 행인이 생명수를 갈망하듯,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겠는가."하면서 즉석에서 해대니 "너 기막힌 놈이다. 6.25웅변대회 대표로 나가라." 해서 아주 신이났죠. 웅변이야 나에겐 주특기나 마찬가지죠. 초등학교때부터 열심히 했었으니까요. 교회

영향이 컸지요.
대회 나갈때는 일병계급을 달고 나가도록 배려도 해줬죠. 그러자마자 군수과 행정요원으로 발령을 받고 주일날 교회에 가니 풍금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풍금을 치니 군목이 "참 잘한다. 나하고 같이 하자." 해서 군종으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나중엔 군종하사로 근무하면서 군목이 없으면 내가 설교도하고,성경이야 읽으면 되고, 군목도 편하고, 더군다나 교회가 영외에 있어 동네아이들 모집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면서 축복받은 군대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겁니다. "준비하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릅디다. "군인 선생님"이 된거지요. 때로는 중대별로 다니며 인성교육도 하고, 강의는 최고라고 칭찬을 많이들 해줬어요.

면담자 : 역시 노력한 그대로 대가를 받으셨군요.
구술자 : 행운이자 축복이었죠.

면담자 : 제대후엔 어떻게 사회로 복귀 하셨나요.
구술자 : 송전중학교 강사로 취임을 했어요. 당시엔 음악교사가 흔치 않았지요.
더군다나 시골 학교였으니 더했죠.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자 학생중에서 문교부 인사과장이 외삼촌이라는 아이가 있어 그 양반을 통해 가평중학교로 가게 되었지요. 그때 가평중학교는 가이사중학교로 부르곤 했어요. 연유는 1952년 한국전에서 가평에 주둔하던 미40사단 크릴랜드 장군과 장병들이 성금을 모금해서 학교를 신축하게 되었는데,미군 최초의 전사자인 카이저중사를 추모하고자 교명을 "가평 가이사중학교"로 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장군이름으로 하지않고 전사자를 우대하고자 그렇게 결정한거지요. 19살에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였으니까요. 미군들이 자국내에서 좋은 악기를 들여와 학교에 밴드부를 만들었고 거기서 내가 통솔을 하게 된거지요. 음악지도 하면서 나팔도 불어보고 하니 스타가 따로 있는게 아니지요. 시골마을에서 북적북적하면서, 행사가 있으면 나가서 진두지휘도 하고 그랬죠. 가평서 삼년간 있다가 용인으로 용인중학교로 왔지요. 당시는 용인중.고 병설 학교였지요. 교감은 둘에 교장은 윤상섭교장으로 그래서 중.고생 모두 가르쳤지요. 79년 지역만기로 백암중학교로 갔어요. 그러다 다시 용인고등학교로 왔고요. 교외지도도 많이했고, 6대 신앙가(家)이니 주로 학생과장,훈육주임등을 맡아 학생과장만 20년을 하게 되었지요.

결혼과 자녀교육

면담자 : 사모님과 만나신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구술자 : 평택 진위중학교 교감과 의형제를 맺었어요. 평소 나를 사랑하시고 행사마다 강의하게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가평중 시절에 그리로 불러서는 행정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는데 "착하고 정직하고 똑 부러진 사람이다."하면서 소개해 주마 하셔서 만나보니 첫눈에 참 좋더라구요. 그당시에 나는 31살이고 아내는 25살에 연애에 들어갔지요. 양쪽이 마음에 드니까 기간을 짧게하고 바로 결혼에 이르게 되었지요. 1969년4월1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요. 신접살림은 가평에서 시작했는데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후로 용인으로 와서는 지금 전화국 뒤에 원철재라는 사람 집에서 셋방살이로 3년을 했지요. 태성학교 서무실에 근무하던 강정희 장로가 날더러 "서집사,내가 집을 소개하겠다."하면서 가진 돈이 얼마나 있느냐 하길래, "삼만사천원입니다."해서 태성중 박해조 선생네 뒷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장마철이면 비가 새서 지붕에 비닐을 씌우고 소당뚜껑을 올려 덮고 살았지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남사에 계신 아버지께 의뢰해서 다시 살던집을 개축해서 살았지요. 그러다 지금 이 자리로 온거예요.

면담자 : 사모님의 함자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구술자 : 임방자(任芳子)입니다.

면담자 : 자녀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구술자 : 삼남매를 두었어요. 아들 딸 아들 이렇게. 큰아들은 영종도에서, 작은아들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딸내외는 나와 같이 살고 있고요.

면담자 : 자녀 교육관은 어떻게 하셨나요.

구술자 : 항상 소질대로 강요하지 않는 방식이죠. 말을 물가까지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는거와 마찬가지죠. 운전을 하든 장사를 하든 부모가 간섭하지 않고 본인 뜻에 맡기는 것이죠.

작곡가 면모(面貌)

면담자 : 선생님께서 교가 작곡가로서도 유명하신데, 남사중학교 교가는 익히 알고있습니다만.

구술자 : 그래요. 남사중외에 용신중,소현중,구성중,죽전고,백현고등 10여개 학교가 됩니다. 지금도 악보를 가지고 있지요. 남사중 교가는 "남사에 우뚝솟은 광명한 등대, 불타는 가슴속에 희망을 안고, 애쓰며 힘써배워 새 일꾼 되어 힘차게 뻗어가라 남사중학교~"

아코디언 연주 모습

면담자 : 애향가도 작곡 하신게 있으시다면서요.

구술자 : 남사 애향가를 작곡하면서 계기가 되었죠. "함봉산 높은봉에 정기를 받아 대대로 살아나온 남사 내고향~" 이렇게 시작이 되죠.

면담자 :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군요.

구술자 : 내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게 되었지요.

학생 지도(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세우다)

면담자 :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구술자 : 임창숙(가명)이라고 여학생인데,태권도 2단의 유단자로 아이들 휘어잡고 돈도 빼앗고 해서 학교장을 비롯해 담임선생이 아주 힘들어 했지요. 담임선생이 못하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교장선생의 이해를 구하고, 담임선생은 행정담임만 맡기로 하고 "다른건 내게 맡겨라" 하고, "내가 저아이를 사람 만들테니 그리알라." 했지요. 다음으로 내가 학교내 샤론

중창단을 12명으로 조직해 아리랑,도라지타령,고향의 봄등을 화음을 만들어 가르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용인정신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위문공연을 했어요. 하루는 임창숙이를 불러다 놓고 “너 초등학교때는 무얼 했냐?”하고 물으니, 무용을 했다는 겁니다. 같은 부류의 학생들과 어울리다 보니 생활이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내가 “너, 위문공연할 때 5분간 무용할 시간을 줄테니 해봐라.”했지요. 계속 데리고 가면서 보니 너무 잘하는 겁니다. 아주 예쁘게 말입니다. 천사가 따로 없는거예요. 환자들이 열광을 해요.그때부터 이 말썽쟁이가 바뀌기 시작해요. 피아노 커버도 만들어 오고, 꽃병에 꽃도 꽂아 놓고, 음악실 청소에 운동장 쓰레기를 줍고하면서 모범생으로 탈바꿈하기에 이르른 겁니다. 이정환 원장이 감사장을, 교장이 봉사상을 주고, 교육장상 수상까지 하게 되니 나도 참 감격스러웠지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사랑으로 대하면 변한다는 걸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지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도 다같이 기뻐하고 학생들도 즐거워 하면서 교내에 한마디로 살맛난다 하는 말이 떠 돌았지요. 임창숙이가 졸업하는날 새벽에 창숙이 어머니가 음료수를 사들고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졸업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창숙이 아버지도 만날 술에 취해 다니더니 이제는 온가족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기뻐했지요. 용인고등학교에서 전설이 되었지요.

면담자 : 감사한 날이 되었겠군요.

구술자 : 축복의 날이었죠. 교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줘야 한다. 이것이 교사의 직분이다 하면서 새로운 다짐의 기회도 되었지요. 경찰이 변해야 민중이 변하듯이 말이죠. 경기도에서 중.고학생과장 모임이 있었을 때 성공사례 발표회가 있었는데 변화를 강조했지요.“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교사의 직분이다.”
성공사례를 발표해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회도 있었지요.
임창숙이가 내딸과 동창입니다.

면담자 : 혹시 따님도 음악을 전공하였나요.

구술자 : 지금 성남제일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있어요. 사위도 음대출신으로 지금 태성고 음악교사로 있지요.

면담자 : 모두 음악가족이시로군요.

구술자 : 기독교 신앙이 만들었지요.

면담자 : 정년은 어디서 하셨는지요.
구술자 : 원삼중학교에서 교장으로 했지요.

면담자 : 원삼중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구술자 : 2000년으로 기억되는데, 원삼중학교 출신 중에 오남영 중장[2)]이라고 육사교장이 있었습니다. 원삼에 해주오씨가 많기도 하니 학생중에 자기네 할아버지뻘이 된다는 아이도 있었지요. 그래서 내가 오중장에게 편지를 했어요. 두가지 부탁으로, 첫째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유지의 견학을 부탁하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 학교로 오셔서 성공사례를 강연해 주십사 하면서 편지를 했더니만 열흘만에 전화가 왔어요. 교장선생님의 요청을 들어 드리겠다 하면서, 날짜는 우리가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군대조직이다보니 철저한 단계가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편이 좋지않으니 육사버스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하니, 해결해 드리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무과장을 불러, 견학가기로 결정이 되었으니 준비하시오. 했지요. 가기전날, 교장실 밖에서 정확한 군화소리가 납디다. 세명의 군인이 사전에 점검차 온거지요. 버스에 탑승 인원체크와 인솔교사 확인 등을 하고 돌아갔지요. 다음날 에스코트 차량까지 와서 안전하게 태릉까지 도착을 했지요.도착하니 교장이 직접나와서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별자리한테 인사를 받은게 나요. 성경 말씀처럼“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이 떠 오릅디다. 연병장에서 훈련모습도 보고 공부하는 자세도,학교 시설 모두 관람도 하고,총검술에 태권도 시범도 보고 그랬지요. 카메라로 전부 촬영도 하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견학후에 태도가 달라 지더라고요. 며칠후에 오중장이 답방을 왔어요. 그러니 용인에 군부대에서도 자연히 영접을 나오게 되었지요. 포곡에 55사단,3군사령부,운학동신병교육대등에서 장교들이 출동을 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오중장이 동행한듯한 어른에게 인사를 하대요. 알고보니 사촌매형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저분이 나를 키운 분이다.”라고요. 보릿고개 시절 어려울 때 친처남도 아니고 사촌처남을 돌보았다는 거지요. 조실부모한 본인을 매형이 거둬줘서 오늘에 내가 있다. 하니 모두들 놀라지요. 그러면서“저분이 나의 아버지다.” “저분이 나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덕스러운 사람이 되라. 효도하라 역설을

2) 오남영(吳南泳 : 1945~) 원삼면 목신리 출생. 원삼중. 중동고. 육사24기 1991년 장군 승진. 97년 중장 진급. 98년 육사교장 부임. 부재승덕(不才勝德)의 교육철학 견지(堅持) (참고문헌 : 원삼면지)

하더라고요. 보세요. 일등병의 말과 중장의 말이 어느 정도의 무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에게"지금은 국제화 시대이니 영어공부는 필수적이다. 열심히 해라." 하니 이후로 학생들 사이에 영어공부에 불이 붙었지요. 한마디로 학교는 교장의 마인드가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중장이 학교에 장학금으로 백만원을 희사(喜捨) 하기도 했습니다.

면담자 : 그 전에는 어디시 근무하셨지요.
구술자 : 남사중학교에서 했지요. 2004년도에 평택 안정리에 미군부대가 있는데,한미우호협회에서 매주 목요일에 청담고등학교 강당에서 미군을 초청해 음악,무용,연극등을 통해 미군위안의 시간을 갖고있는데 거기와서 레크리에이션 지도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쪽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시간은 열흘을 줄테니 준비해달라."라고 말예요. 무조건 알았다고 답변을 해놓고 영어회화 연습을 했지요. 내 평생에 미국사람앞에서 그런 기회가 또 있겠느냐 하면서. 기본영어 익히기로 간단하게 안녕하시냐? 나는 남사중교장이다. 나를 따라 해보라, 우리모두 다같이 손뼉을~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주 쉽게하자.
잘 따라 하는 겁니다. 못하면 벌칙으로 원숭이흉내를 내게 하기도 하면서 일년을 했더니 특히 여군들이 넘버원을 외치고 아주 즐거워 했지요.
운전이야 지금도 하지만 용인에서 평택까지 먼거리이지만 보람으로 행했죠.

사회 봉사와 절약 강조

면담자 : 용인음악협회 초대 지부장도 하셨지요.
구술자 : 1998년5월6일에 설립해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했지요.4년 약정으로 봉사했지요. 내가 경력도 있고하니 협회에 사람들이 잘들 따라 협조해 주었지요. 기간중에 경찰대학 악대도 초청해 문예회관에서 공연도 하고,여러가지로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요. 문화원 김국장도 그당시 예총에 있을 때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교류하고 있지요. 음악을 잘 알고 하니 더욱 가깝게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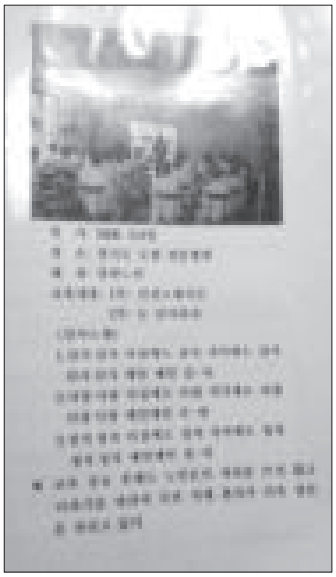
면담자 : 선생님을 뵈면 가로등 끄는 일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구술자 : 40여년 교사인생을 살면서 누가 보면 하나의 집착이라고 할 수 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이야 중앙통제시스템을 통해 일률적으로 켜고 끌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지요. 가로등이야 해가 지면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해가 뜨고 나면 아까운 전기를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 지는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원유수입을 10%만 줄여도 연간 30억달러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껴야죠.
1987년부터 10년 넘게 눈이오나 비가오나 다녔죠. 어느날 잊고 가다가 생각나서 택시를 잡아타고 가로등을 끈 뒤에 출근한 날도 있어요. 감전이 된적도 있고 추운겨울에는 동상도 걸리고, 기둥 쇠붙이에 눈을 찔린적도 있고, 자전거 브레크고장으로 담벼락도 들이받고 했는데, 아내가 늘 안타까워 하면서도 “당신은 진정한 교사예요, 정말 애국자예요.” 하면서 나를 아끼고 존중해줬지요. 우리 아내같은 사람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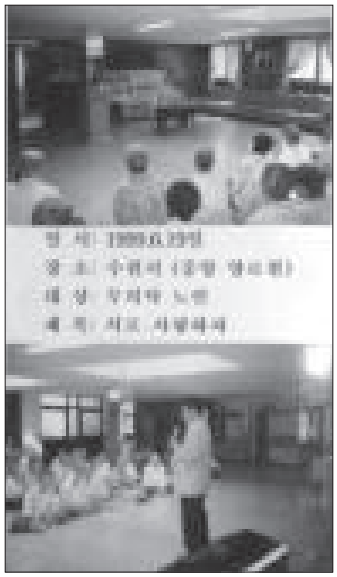
면담자 :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가요.
구술자 : 항상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절약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아까운 외화가 낭비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철엔 오전 4시 30분에 겨울철에는 오전 6시30분에 가로등을 끄기위해 김량장동5리,역북동,중앙동,마평동일대 주택가 골목길을 다녔지요.

면담자 :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절약을 강조하셨겠네요.
구술자 : 그래요. 난 겨울에도 교장실에 난로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교무실에 선생님들 따뜻하게 하라고 했지요. 그래도 감기한번 걸리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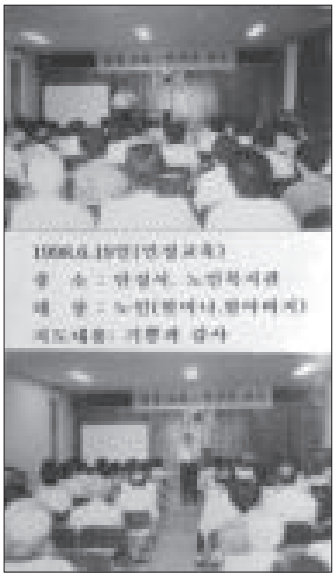
면담자 : 그렇게 하면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을텐데요.
구술자 : 학생들이 자린고비 선생님이다 노랭이 선생님이다 하면서 말을 했지만 교실에 쓸데 없는 전등이나 수돗물 낭비하는 것은 호통을 쳐서 그치게 했지요.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재활용품 분리수거등도 병행을 했어요.



경기도도립전문병원 환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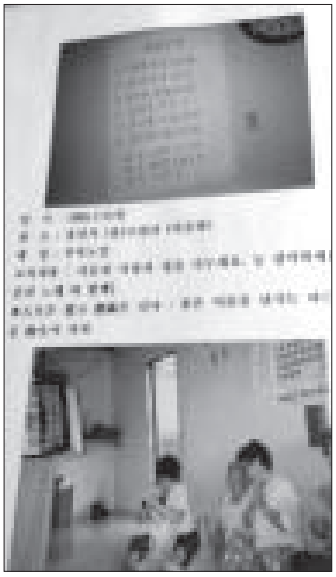
수원시 중앙양로원 교육



안성시 노인복지관 인성교육

용인시 남사면 전궁리(노인정) 인성교육

용인시 송문리 노인 위문



용인시 고림동 노인 위문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노인정 위문

용인시 유림동 노인정 인성교육

경기도 대한노인회 인성교육

수원시 양로원 위문

용인시 삼가동 노인 위문(용인여고 중창단)

생(生)의 언덕길.보람의 길

면담자 : 선생님께서 가장 힘드셨던 때는 언제 였습니까.

구술자 : 교단에 있을때부터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퇴직 후에 더욱 바쁘게 했지요. 복지관,법무연수원,경로당,학교,병원등을 찾아 다니면서 인성레크리에이션 강사로 활약을 시작한거지요. 악기 다루기와 노래, 워낙 입담이야 타고 났으니까 사람들 정신을 쏙 빼놓은 인기 강사가 되었지요. 그래서 "웃음 전도사"란 별명도 얻었지요. 그러다가 2011년에 뇌경색으로 3개월간 병원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지요. 토요일에 쓰러졌는데 어쩌다가 월요일 10시에 동수원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나야 정신을 잃었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아내도 기독교 신자라서 신앙으로 모든걸 이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바로 갔어야 하는데 말이죠. 입원.퇴원한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지요.

퇴원후에 뇌경색 후유증으로 앞이 보이질 않는겁니다. 열이 눈으로 치고 나간 것 같더라고요. 용인 모 안과에 가니 "시신경이 끊어졌다."하면서 못 고친다 하니,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딸아이가 "아빠,분당서울대병원에 가보시죠."해서 갔지요. 그래서 아내하고 다들 같이 가서 시력검사하니 똑 같죠. 그래서 낙담을 하고 나오려니 의사가 "밑져야 본전인데 입원해 보시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침 저녁으로 항생제 투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죠. 아내도 옆에서 눈물흘려 같이 기도해줬죠. 신앙의 힘으로 신념으로 말이죠. 기적처럼 한달후에 선명하게 앞이 보이는 겁니다. 의사가 놀라면서 그래요, 아마도 하나님이 모세혈관을 모이게 했나봅니다. 그러대요. 그 누구도 의술로 안되는걸 이룬거지요.

(그러면서,탁자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당겨 보인다.)

서양의 철학자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믿음은 종달새알에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요. 어두움에서 어두움만 보지 않고 어두움에서 참 빛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라는 말이지요.

현실의 어두운 밤이 영원한 밤으로 계속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아침이 밝아 올 것을 믿고 말한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면담자 : 사모님께서는 어찌 되셨는지요.

구술자 : 췌장이 좋지않아 고생하다 작년 5월20일에 소천(召天)했지요. 안타깝지요.

2019년경 얼굴색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기가 있어 용인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니

췌장암이라 해서 신촌세브란스로 가서 수술을 했지요. 다행히 차도가 있는 듯 했는데 아내가 집안일을 멈추지 않고 하면서 다시 병세가 도져서 병원에 가보니 재수술은 어렵다 해서 발길을 돌리고 말았지요. 그러다 77세에 떠나게 되었지요.

면담자 : 지금은 시력이 어떠신가요. 운전에는 지장이 없으신지요.
구술자 : 잘 보입니다. 밤에도 끄떡 없어요. 운전은 1997년 송전중 교감 때부터 했어요. 교감은 출장이 많아서 더욱 필요했지요.

면담자 :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용하셨나요.
구술자 : 자전거는 가평중학교 있을때부터 이용을 했어요.

면담자 : 아코디언과 전자오르간은 언제 장만하셨나요.
구술자 : 아코디언은 40년 되지요. 중간에 한번 바꿨지요. 봉사활동 나갈때는 꼭 가지고 갑니다. 전자오르간은 이후에 장만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지요.
(아코디언으로 '고향의 봄'과 '스와니강'을 연주. 이후에 전자오르간으로 '과수원길'을 한번더 연주)

면담자 : 교직의 입문 계기가 별도로 있으셨나요.
구술자 : 계기라면 초등학교 때 여름성경학교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지요. 풍금을 배우면서, 학교 여선생님이 '오빠생각'을 연주하는데 천사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선생님이 되어서 교사로서 용인을 빛내보자 하는 마음을 다지곤 했지요.

면담자 : 용인에서 근무하게 된 연유는 있으셨나요.
구술자 : 말한 그대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남사를, 용인을 빛내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었으니까요.

면담자 : 교직 부임 초기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구술자 : 교직에 계시던 분이 다들 순수 했지요.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사도의 길만 걸었다고 봐야죠.

면담자 : 교직기간중 주요활동은 어떠셨나요.
구술자 : 학생지도에 중점을 두고 근무했으니까 주로 불량학생을 상대로 심혈을 기울여

지도 했지요. 용인중 시절에는 김 모라는 여학생이 버스터미널에서 승객을 상대로 주머니를 노리는 학생이 있었지요. 학생과장때 학교로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훔친 돈으로 주전부리해서 없애는 거예요. 가정 사정을 알아보니 아버지는 날품팔이에 야단이나 치고 때리고 하니 아이가 방황을 했던겁니다. 내가 노트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면서 지도를 하던 중에 용인고로 가게되니 맘이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내렸어요. 이후에 나를 찾아와 그이야기를 하길래 수원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켜 공부를 하게 해줬지요. 성적표를 늘 가져와 보여주곤 했는데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졸업을 하게 되었지요. 졸업하고 나를 찾아왔는데 그전의 꼬질꼬질한 모습은 사라지고 땟국물이 빠진 아주 멋진 여성이 되어왔어요. 진정성있게 당부해서 입학을 시켰던게 참으로 잘된 일이죠.

교사란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다." 하고 더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잘하는 아이 잘하게 하는 것은 쉽지요. 그런건 누가 못하겠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면담자 : 1960년대 상황과 새마을운동 관련, 그리고 유신시기와 5공시기,88올림픽전후, 구제금융시기,2000년대등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구술자 : 시대와 더불어 특별한 경험은 없습니다. 어떠한 통제라든가 하는 것도 없었구요.

면담자 : 교직 생활중 보람과 아쉬운 경험은 무엇인가요.

구술자 : 원삼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때 이왕이면 학생들에게 특기를 가르쳐 보자하는 계획을 늘 하고 있던차에 한터(양지면 대대리)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우연히 '늘푸른 건축'인가하는 간판만 보고 무작정 들어가 "나는 원삼중 교장입니다."하고 소개를 하고는 "학생들에게 가야금을 배우게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가야금12대 값좀 해주시지요."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지요.

면담자 : 다소 무모한 방문에 부탁이 아니었나요. 일면식도 연고도 없는 사이에.

구술자 : 어이도 없어하고 기막혀 하지요. 그런데 기적처럼 거절을 하지않고 마련해 보겠다 하면서 열흘뒤에 600만원을 가지고 왔어요. 고마운 분인데, 병원신세에 이사도 하다보니 연락처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면담자 : 왜 꼭 12대 였던가요.

구술자 : 허허. 가야금 줄이 12줄 아닙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지요. 그리고 교육용 가야금은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런데 가야금을 가르칠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인대학교 국악과 이오규 교수를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리고 사람좀 보내 주십사, 교생으로 채용하겠다. 했더니 어안이 벙벙해 하더라고요. 결국엔 4학년 김미선학생을 보내 주었어요. 용돈은 비록 주지는 못했어도, 열심히 가르쳐 용인교육청에서 매년 주최하는 '맑고 밝은 노래자랑'에 참가해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6개월 만에.

교생도 학교장이 허락을 해야 가능한데 시골학교에서는 반가워 하지 않지요. 그 학교에서 5년 정도만 근무했어도 실력향상을 상당히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요.

교장의 마인드가 바로서야 다른 선생님이 따라합니다. 경시대회등의 공문이 학교에 오면 대개들 귀찮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실적이 있으니 꼼짝못하고 따르게 되지요. 기관장이 바로서야 하고, 집에서는 가장이 바로서야 하듯이 말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그물을 마실 수 있지요.

면담자 : 다른 사례가 있으신지요.

구술자 : 그리고 원삼중에서 '효자실천' 캠페인도 실시 했어요. 내가 학생을 보면서 먼저 "나는 효자다." 하면 학생이 "저도 효자입니다." 하면서 실천을 했었고 조회.종례시간에 운동장에서도 한마디로 "효자운동"을 벌여 나갔지요.

출필곡 반필면(出必告 反必面)을 강조했지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와 학교다녀왔습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죠. 선생님에게도 전파를 하고요.

아침조회때는 애국가를 종례때는 교가 부르기를 생활화 했어요.

내 스스로 교정에 풀도 뽑고,쓰레기 치우기,화장실 청소,신발장정리, 거미줄치우기등으로 학생의 본보기가 되고,가야금에 농악등을 지도하다보니 지역 학부형에게도 소문이 났던지 어느날 이현수라는 분이 교장실로 찾아오셨어요. 친절하게 차대접을 하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여쭈어보니 우리 아이들(3학년:딸.인경,2학년:아들.현경)이 학교갔다 돌아오면 "늘 교장선생님 칭찬을 하더라." 하면서 백지좀 주십사 하더라고요. 백지위에 연필로 '한달에 이십만원씩 장학금을 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원삼에서 철물점을 하시는 분인데, "훌륭한 분을 꼭 한번 뵙고 싶다."고 오신겁니다. 일하던 복장 그대로 고무신 차림에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퇴임후에 확인을 해보니 17년간을 내주셨다고 합디다. 그분은 대구로 이사를 가시고 아들이 죽산에서 철물점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고마

운 분이죠.
내가 학부모를 모셔놓고 강연을 했을 때 부인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강연 제목이 '유태인의 자녀교육'이었는데 아마도 감명을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그게 아버지에게 전달이 되어 그렇게 강인하게 교육을 시키고자 두 자식을 데리고 고성에 있는'통일전망대'답사를 이십여일에 걸쳐,된장국에 쌀로 버티고 텐트생활을 하면서 견뎌냈다고 합니다. 탈무드를 탐독하며 적용한거지요.
그리고 남사중학교에 밴드부를 조직했던 일이 보람으로 남지요. 초빙교장으로 갔을 때, 남사중 이사장이 소망교회 집사예요.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이사장에게 이 학교를 미션스쿨3로 하면 어떻겠는가 했더니 선생님 뜻대로 하시지요 하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요. 용인에는 미션스쿨이 없었으니까요.
찬송가를 하려면 밴드가 필요한데 마침 친구(김성원) 동생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김성현이라고 해병중령 출신에 월남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부탁을 했지요. 그래서 천여만원을 받아서 악기를 사들이고 이사장에게는 음악교사를 채용하자 해서 진행을 했지요. 남사지역의 목사님을 초청해 매주 목요일마다 설교도 하고 하면서요. 내가 그만두고는 없어졌더군요.

면담자 : 지역에서 혹시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던가요. 강권을 한다는 등.
구술자 : 하나님의 뜻인지 한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웅변역시 가르치기도 하고.(또한번 아코디언으로 찬송가 '내주를 가까이 하게함은'을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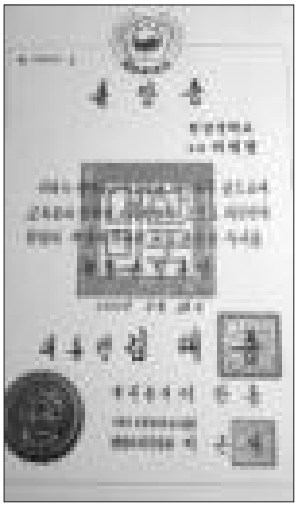
면담자 : 퇴임후부터 현재까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구술자 : 요양원,보육원, 합창단 봉사등을 하면서 연수원등 강연도 했지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지만요.

면담자 : 공직관이나 복무 원칙은 어떠하셨나요.
구술자 : 절대원칙은 사명감 이지요. 교사로서 바르게,학생들의 특기 살리기,인사 잘하기, 사랑으로 대하기,내가하면 따라온다. 세상이 변한다. 이거지요.
그러기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도 역시 나는 교사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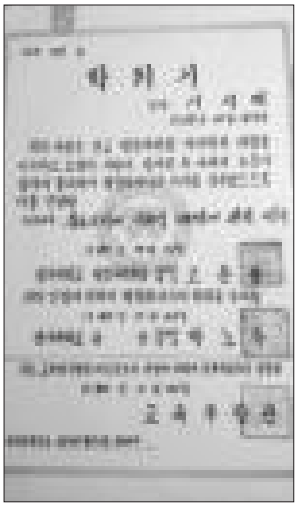
면담자 : 많은 봉사활동으로 언론의 관심과 조명을 받게 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상(受賞)도 있으실텐데요.
구술자 : 1998년 송전중 교감으로 재직시 2월16일 중앙일보와 5월15일 한국경제신문,

2000년5월20일 KBS뉴스, 2001년8월23일 용인신문, 작년5월14일에 용인시민신문에 소개가 되었지요. 가장 큰 상이라면 원삼중 교장 재직시 2002년 2월28일에 '녹조근정훈장'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받은것이죠.

교장 임명장



녹조근정훈장



석사 학위기

정담(情談)

면담자 : 후학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구술자 : 정직한 삶을 살아라. 내가 깨끗하면 그누구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면담자 : 보지않았어도 선생님은 효자 였을 분 같은데요. 기억나는게 있으신가요.

구술자 : 15살 때 어머님이 한밤중에 토사곽란이 일었어요. 남사에는 약국이 없으니 오산까지 뛰어갔지요. 삼십여리가 넘는 길에 공동묘지 산길을 따라 뛰려니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땀은 줄줄 흐르고 새벽녘에 오산 양한의원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새벽네시에 웬일이야" 하면서 문을 열어주며 "너는 어디서 왔고 몇 살이며 이름은 무어냐?" 하길래," 남사에서온 15살 서석정입니다."

하니 “너 같은 놈은 처음이다, 기특하다.” 하면서 약값을 받지 않는 겁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인사를 올리고, 그길로 다시 뛰어와 아침에 한약을 달였지요. 동생들은 어려서 하지 못하니 내가 숯불에 부채질을 해가며 온정성을 다해 어머니께 해드렸지요.
이후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 “석정이가 오산까지 뛰어가 약을 구해왔다.”
하면서 효자났다고 칭찬을 해주셨지요. 효도하면 복이 와요.

면담자 : 선생님 함자가 돌 석(石)에 우물 정(井) 아닙니까. 예부터 항렬을 따르거나 했을텐데 특이하게 누가 들으면 마치 “호(號)”를 연상 시키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연유가 있었던가요.

구술자 : 역시 기독교 신앙에 기초를 두었던 거지요. 돌우물은 성경속 ‘야곱’이 먹던 우물입니다. 반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샘물이지요. 할아버지께서 지어 주셨죠.
(이때, 오선지를 긋고 높은음자리와 샤프(#)를 그림)
어때요? 샤프가 우물 정 이지요. 허허. 나는 태생적으로 음악을 해야 하도록 되었던 거예요. 조부님이 경신중 출신이시고, 음악 좋아하시고 그영향으로 아버지도 찬송가 30여곡은 외우고 하셨지요. 음악은 내운명 이예요. 음악을 떠나서는 못살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음악 속에서 살잖아요.

면담자 : 평생을 음악과 함께 살고 계신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구술자 : 지금도 쉴새없이 아코디언이다 전자오르간이다 연주를 하지만, 그게 몸에 배여서 이제는 한몸이되니 그게 매력이지요. 영혼이 맑아지니 그게 더욱 좋지요.

면담자 : 애창곡은 어느 것인지요. 주로 연주하시는 곡이라든지.

구술자 : ‘과수원길’을 좋아해요. 나는 동요가 좋아요. 동심으로 산다는게 얼마나 좋은것인지 몰라요. 유행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세타령조의 노래는 싫습니다. 희망적인 노래 많이 있잖아요. ‘희망의 나라로’같은 노래 말이죠.
찬송가로는 ‘참 아름다워라’를 즐겨 부릅니다.

면담자 : 제가 몇 번와서 뵈었지만, 거실에 TV는 켜져 있는 것을 보지못했는데 아예 보시지 않습니까.

구술자 : 나는 TV 시청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시간에 공부를 주로 하든가 아니면 연주를 하지요. 그래야 정신이 맑아집니다. 요즘에 산에 오를때는 영어회화책을 가지

고 다니며 외우곤 합니다. 집에 오면 컴퓨터로 여러 작업도 하고요. 그런 연유로 1992년 2월21일에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중등교사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석사 학위를 받았죠.

면담자 : 선생님께 신앙이란 무엇이고 기도의 제목은 주로 어떤건가요.
구술자 : 신앙은 나를 일깨우는 것이고, 기도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요.

면담자 : 급작스런 요청에 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술자 : 허허, 이 또한 하늘의 뜻이겠지요.

지역 맞춤형교육의 씨를 뿌린,

신의자(辛義子) 선생

1945년	경북 포항 출생
1967년	서울 수도여자사범학교 졸업
1967년~1968년	이천 양정중학교
1969년~1970년	포항여자중학교
1971년~1975년	용인중학교
1975년~1977년	원삼중학교
1977년~1984년	용인중학교
1984년~1986년	백암중학교
1987년~1999년	용인고등학교
1999년~2005년	송전중학교
2005년~2007년	용인중학교. 퇴임
2007년~2011년	용인고 기숙사 사감

개요

- 구술자 : 신의자
- 면담자 : 이은성
- 1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9월 14일
  - 장소 : 용인문화원
- 2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11월 10일
  - 장소 : 신의자 선생님 자택
- 3차 인터뷰(전화 추가 인터뷰)

요약정리

39년을 한결같이 학생들과 함께했던 신의자 선생님은 경북포항에서 1945년 8월 15일에 태어난 “해방둥이”다. 선생은 씨름선수였던 아버지를 닮아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하던 아이였다. 그런 만큼 운동을 잘했지만 노래와 그림실력도 만만치 않았던 신의자 선생님은 그 시절, 운동으로 진로를 정하고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대학 입학 당시 실기시험인 체력장에서는 단연 1등이었고 과대표를 맡으며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교생실습을 나갔던 이천 양정중학교에서 첫 교사 생활을 하고, 이후 포항으로 내려가 근무를 하던 중 대학 시절에 알고 지내던 용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서 용인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다.

결혼하며 올라온 용인에서의 첫 부임지는 용인중학교였다. 당시 남녀공학이었던 용인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반 담임을 맡았고, 아이들도 잘 따라 큰 무리 없이 지도했다고 하신다. 다음으로 근무한 원삼중학교는 자칭 “그랜드캐년 원삼중학교”였다. 비만 오면 마치 그랜드캐년처럼 운동장으로 물이 흘러내렸고, 운동장마저 협소해 교장선생님과 아침마다 리어카에 흙을 실어다 운동장을 넓히기도 하셨다. 신의자 선생님께서는 부임하는 학교와 그 지역에 적합한 환경 및 특성을 살려 특기 개발을 교육 이념으로 삼으셨는데, 원삼중학교에서는 차전놀이 등의 민속놀이를 개발하셨다. 이렇듯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선생이었던지라, 당시 가르쳤던 아이들과 자연스레 친분을 형성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후 다시 용인중으로 오면서 중 · 고등 체육 교과를 같이 지도했다. 용인중 · 고 가을체육대회 특기자랑은 반 학생들이 똘똘 뭉쳐 치러냈던 잊을 수 없는 행사 중 하나였다고 하신다. 이 시기는 선생이 배구심판자격증도 취득해 용인군체육대회, 3군사령부체육대회 등 여러 곳의 심판과 어머니 배구부를 창단해 카네이션배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던 때이다. 다음 근무지였던 백암중학교에서는 씨름의 고장이라는 특색을 살려 씨름부를 창단했다. 현재 용인 씨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감독 중에는 그 당시 씨름부 학생이었던 감독이 있다고 한다. 백암중 이후엔 지역사회와 학교의 중재자로 자리매김했던 용인고를 거쳐 송전중학교, 송전중에서 매일 축구리그전을 개최했고, 이 덕분에 결석하는 아이들이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학생들과 함께 뛰고, 차고, 즐겼던 체육 교사로서의 39년 교직생활은 선생이 용인에서의 첫 부임지였던 용인중학교에서 마무리되었다.

퇴임 이후에는 용인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셨다. 신의자 선생님은 80세부터는 노래와 교정 체조를 가르치겠다는 목표로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

운동을 좋아하던 아이, 포항에서 태어나다

면담자 : 선생님 안녕하세요. 용인문화원 용인학연구소 구술생애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성함과 태어나신 곳과 출생년도 어찌되는지요?

구술자 : 네. 이름은 신의자.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포항시 동빈로 115번지이구요. 1945년 2월 28일생입니다.

면담자 : 선생님 어린 시절에는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 활력이 넘치시고 건강하시기에 여쭙니다.

구술자 : 저는 어릴 때 8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6.25전쟁이 나고 얼마 안됐기 때문에 놀이 할 수 있는 문화도 없고 그저 몸으로 가지고 노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같이 뜀박질하고, 잡아당기고, 나무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놀이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도 어릴 적부터 굉장히 활동적이고 놀이나 운동을 좋아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림도 잘 그렸고 노래도 잘했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잘 할 수 있었던 게 운동종목이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을 시작해서 핸드볼도 했는데 옛날 11인제로 시작했었죠.

면담자 : 그러시면 선생님 다니시던 초등학교에 핸드볼부가 있었나요?

구술자 : 네. 초등학교에 핸드볼부가 있어서 처음 시작을 했고, 공을 처음 접하게 된 게 핸드볼이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었어요.

면담자 : 어느 초등학교죠?

구술자 : 포항중앙초등학교

면담자 : 초등학교 입학은 6.25전쟁 이후인가요?

구술자 : 아니요. 제가 생일이 빨라서 7살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1살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보다는 말을 듣는 게 조금 어눌했어요. 힘들고.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포항에 초등학교가 다섯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섯 학교가 일 년에 한 번 씩 각 종목별로 시합을 했었어요. 주로 육상하고 구기 종목을 했었죠. 저는 그때 육상으로 뽑혀 나갔어요.

면담자 : 아 핸드볼을 좋아했는데 어떻게 육상선수로 출전을 하셨나요?
구술자 : 핸드볼을 좋아했는데 그거는 다른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나는 선생님이 육상을 하라고 해서. 아마 육상이 점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은 포환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단봉이라고 불렀는데 단봉던지기 선수를 했었어요.

면담자 : 육상종목 중에서 단봉던지기도 하셨군요?
구술자 : 네. 육상선수가 단봉도 던지고 달리기도 하고 두 가지를 하는 거죠.

면담자 : 포항초등학교 체육경기 출전 성적은 어땠어요?
구술자 : 그때는 학교별로 성적을 다 합해서 등위를 정하는데 확실하게 우리학교가 몇 등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등위에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저의 단봉던지기는 입상을 했어요.

면담자 : 좀 전에 초등학교를 7살에 입학하셨다고 하셨는데 학업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요.
구술자 :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선생님말씀을 빨리 이해를 못했어요. 한 살 더 일찍 들어가다 보니까.. 하지만 4학년부터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혼자 깨쳐가지고 다른 아이들 따라 잡은 거죠. 저희 때는 일 년에 한 번씩 학예회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들은 사범학교 출신이라 그런지 남자선생님들이 연극도 가르쳐주시고 춤도 가르쳐주시고 합창도 가르쳐주시고 했는데 아이들이 소질이 있는 것들이 다 그때 발굴이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독창도하고 합창도하고 연극도하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아~ 이런 분야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초등학교 때 내 특기를 잡아냈던 것 같아요.

면담자 : 초등학교 남자선생님들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구술자 : 그때 사범학교는 그런 재능이 없으면 안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선생님들 내가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 김병환 선생님은 오르겐 치시고, 그때 당시 배웠던 합창 중에서 사냥꾼의 합창을 배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걸 지금까지도 내가 기억을 하고, 당시에 너무 좋은 노래들을 많이 가르쳐주셨어요.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중학교 들어가서는 내가 아주 많이 뽑혀 다녔어요.

면담자 : 그러셨군요. 중학교는 어느 학교로 진학하셨어요?

구술자 : 포항여자중학교요. 그때 6.25나고 얼마 안됐기 때문에 방정분 선생님이라고 이화여대 성악과 나오신 분이고, 남편은 시인이신데 두 분이 포항까지 피난을 온 거에요. 거기서 이화여대 나오셨기에 바로 선생이 되셔가지고 제 노래를 들어보더니 (자화자찬하는 것 같지만) 너무 잘한다고 교실마다 데리고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그때 배웠던 노래가 "월계꽃"-빵끗 웃는 월계꽃~ 그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깝다 그랬지요. 근데 시골에서는 몸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체육에 소질이 있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버지가 씨름선수였어요. 그래서 나도 체육에 소질이 있었나 봐요.

씨름선수였던 친정아버지와 어머니

면담자 : 아버님이 씨름선수셨군요?

구술자 : 네. 우리아버지가 덩치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랬어요. 유도도 하시고. 씨름하고 유도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보면 백사장에다가 휘장을 쳐놓고 송아지 매 놓고, 그리고 옛날에는 소쿠리. 솥을 갖다가 걸어놓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포항바닷가 백사장이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백사장이 제철 때문에 없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 생각에는 명사십리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어서 말하자면 어릴 적부터 아버님이 제 소질을 보신 거예요. 제가 다재다능하게 다 잘하니까 대학을 어디로 보낼까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더욱이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배구 선수생활을 했었고, 중. 고등시절 6년 동안은 서울에서 체전이 열리면 경북대표로 출전을 했었거든요. 이승만대통령 계실 때부터 제가 다녔으니까.

면담자 : 해마다 경북대표로 체전에 출전을 하신건가요?

구술자 : 네. 그 시합을 포항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경상북도의 중심지는 대구거든요. 근데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해수욕도 할 겸해서 하려고 포항에서 경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출전하고 만약, 포항이 우승을 하게 되면 도 대표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다녔죠. 그래서 아버지는 체육에 소질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졸업을 하고 체대를 보낼까?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 63학번

면담자 : 그 당시 아버님께서 신사고(新思考)를 하셨네요.

구술자 : 제가 노래도 잘했는데 그때는 노래를 할 만한 곳이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노래를 좋아하기도 했어요. 또 미술선생님이 그림그리라고 하면 화판가지고 야외에 나가서 스케치하고 그림 그리고.. 그러니까 뭐를 해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운동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63년도에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교를 입학하게 됐어요. 제가 63학번입니다.

면담자 : 포항에서 서울로 보내주셨군요. 선생님 위로 형제자매가 계시지 않나요?

구술자 : 네. 큰언니가 있어요. 언니는 지방대를 가고 난 아버지가 서울로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항상 운동만하고 그러니까 남자를 보는 시야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경희대학교체육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때 쯤 신흥대학교[1]에서 경희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경희대는 남녀공학이라 아버지한테 나 남녀공학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면담자 : 서울로 보내주는 조건이 여자대학교 가는 거였나 봐요.

구술자 : 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말씀에 순종해서 수도여자사범대학교에 들어갔죠.

1) 1946년에 설립된 배영대학관과 1947년에 성재 이시영선생의 성재학원에서 설립한 신흥전문학관이 통합하여 1949년 5월 2년제 신흥초급대학으로 개교.1952년 피난지 부산에서 초급대학 정식 인가.같은 해 12월 4년제 신흥대학으로 승격.1955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하고 1960년 경희대학교로 개칭되었다.

입학할 때도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시골아이들이라고 만만히 볼게 아니에요. 보통은 서울아이들이 “시골에서 왔으니깐”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체력장을 보는데요. 다섯 가지 종목을 봐요.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공 던지기 등 해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운 좋게 1등으로 들어갔어요.

면담자 : 와~ 대단하세요. 그런데 지필고사도 물론 보셨겠죠?

구술자 : 아 그럼요. 지필고사는 1등인지는 모르겠는데 실기는 1등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핸디캡이 뭐냐면 억양, 제가 과대표를 맡았는데 억양이 핸디캡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억양이 쎄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여자인줄 알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포항은 바닷가 쪽이라 발음이 쎄거든요.

면담자 :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사투리가 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구술자 : 그런가요. 제가 용인에 올라와 산지 53년차 들어갑니다. 이어 말하면 63학번이 되어서 67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졸업전에 먼저 교생실습을 나가야 하잖아요. 체육과라서 사범학교체육과는 체육의 모든 것을 배우는데. 무용, 체육, 체육사 할 것 없이 종합적인 과목을 다 배워요. 무용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포크댄스..다 배워요. 그때 유명하신 김백봉 선생에게 우리나라 한국무용 부채춤을 배우고, 김종욱 선생이라고 일제강점기 진명여고 무용선생한테 발레를 배웠어요. 그래도 그 당시 사범학교치고는 교수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4학년 1학기 때 교생실습을 나가잖아요? 교생실습을 어디로 나갔냐면 이천 양정중학교로 갔어요.

면담자 : 교생실습을 서울에서 조금 멀리 가셨네요?

구술자 : 그렇죠. 왜 그런지 생각해 봤더니, 저희를 담당하고 있던 전성래 체육과장이 여자분 인데요. 일제 때 진명, 숙명 학교에 계시다가 영입을 해오신분 같아요. 그분이 발이 넓어서 선배들도 거기서 실습시키고 학교선생도 만들고 그랬어요. 양정중학교 교생실습 기간 중에 마침 체육대회를 하는데 마스게임 여러 개를 가르쳤어요. 부채춤도 가르치고, 한삼무도 가르치고, 포크댄스도 가르치고 해서 어찌되었건 학교가 생긴 이래 제일 화려하게 체육대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양정중학교에는 대대로 그 학교에 체육과 선배가 한 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2년을 근무했죠.

면담자 : 이천양정중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시고 졸업 후 바로 교사로 근무 하셨군요. 혹시, 어떤 분 추천도 있으셨어요?

구술자 : 아니요. 교장선생님이 "신선생 우리학교에서 선생 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범학교 나왔으니 시험 볼 것 없이 바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정중학교에서 교사생활이 시작된 거죠.

용인남자와 결혼, 용인에 뿌리를 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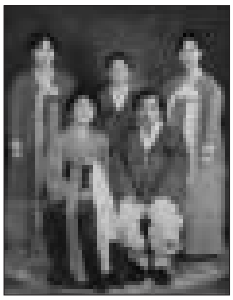
면담자 : 양정중학교에서 2년 근무하시고 포항으로 가셨군요.

구술자 : 네. 포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건국대학교 다녔던 용인사람하고 결혼하게 돼서 다시 시험 봐서 경기도로 오게 되었어요. 결혼하고는 애기도 있어서 1년 쉬고 용인중학교로 복귀하게 되었고요. 그 때 첫아이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면담자 : 힘드셨겠어요. 근무하시면서 어떻게 쌍둥이를 키웠어요?

구술자 : 그래서 1년을 쉬었던 거였어요. 애기를 낳고 나서는 다시 출근을 했지요. 친정에서도 도와주고 그리고 시부모도 계시고해서 저는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애들을 키웠어요. 다행히 애들도 병치레 한번 안하고 잘 자라줬고요. 예방접종할 때만 병원에 갔어요. 그때 당시 용인은 〈대동병원〉이라고 용인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남편분과 함께



가족사진 –
남편, 쌍둥이딸들, 아들

어머니의 음악성을 물려받은
막내아들 강형록 록커

면담자 : 대동의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구술자 : 대동의원은 시장 안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지어졌고 그 분들이 안계세요. 그때는 사람들이 병이 나면 그 의원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다행히 애들도 건강하게 자라줬고, 제가 타고나기를 굉장히 건강한 체질로 타고났나 봐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링거도 한 번도 안 맞아 봤어요. 그때 당시는 임산부가 있으면 조산원이 집집마다 다녔어요. 조산원들이 검진하는 방법은 나무로 만든 컵 모양 기구를 배에 대어보고 애기의 태동을 듣고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쌍둥이인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서 낳을 거라고 조산원을 데려와 다 준비를 했는데 임신중독증으로 갑자기 혈압이 너무 올라서 빈센트 병원에서 8.15일에 낳았어요. 저는 해방둥이고 애들은 8.15날 내 배에서 해방하고. 지금은 결혼해서 건강한 아이들 낳아서 다 잘살고 있어요.

면담자 : 용인중학교로 오셔서 근무를 하실 당시 용인중학교 학생들은 어땠어요?

구술자 : 아무래도 시골아이들이 순박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랬어요. 그 당시 용인이라고 하는 데는요 전부가 비포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와 선생을 하지”라는 생각도 했었고, 여선생이라도 남자아이들 중학교 3학년 담임을 줬어요. 그래서 지도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었고요. 또 아이들도 잘 따랐고요.

면담자 :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보통은 체육선생들은 남자선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선생님이라 쉽지 않았을 텐데요. 더욱이 남자 중학생들이라서..

구술자 : 그때 용인중학교가 남녀공학이었어요. 애들도 이쁘고 잘 따라줬고.

면담자 : 선생님께서 포항에서도 근무를 하셨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수도권인 용인과 지방인 포항과 교육의 차이는 있던가요?

구술자 : 포항이 생각보다 교육열도 높고, 또 일본이 가까워서 그런지 일본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생활수준도 높았고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시골이었지요. 저는 아스팔트에서 수돗물 먹고 자랐거든요. 어릴 때부터도 연탄불도 때고. 그런데 여기오니까 삭정이나무 때고, 펌프물 먹고 그러더라고요. 용인은 물이 센물이라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빨래도 경안천에 가서 했어요. 거기다가 용인이 지대가 높아서 춥기는 또 엄청 추웠어요. 제가 11월 30일 결혼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고사도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농사도 안 짓는데 왜 고사를 지낼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어르신들은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있어서 고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일 년 내내 무사하게 지내게 된 것도 조상의 음

덕이고, 터를 누르고 있는 것도 터주신 보살핌이니까 지내야 된다고 하면서 큰 시루 3개에다 떡을 해서 큰 시루는 마루에, 두 번째 시루는 아버님이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그리고 제일 작은 거는 터줏대감이라고 해서 장독 옆에다 세워 놨더라고요. 그 앞에다 놓고 고사지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고사를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면 고사 못 지내요" 그러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사를 지내야 한다고 하시기에 어머니 받들어 고사를 지냈죠.

면담자 : 당시에는 집안을 보살펴주시는 성주신, 터주신 등에 고사를 많이 지냈지요. 사셨던 동네는 읍내였지요? 농사를 안지으셨다고 하시기에...

구술자 :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더라고요. 집안이 상업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개량저울이라든지 되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걸 파시고 국정교과서도 배급하시고. 지금은 용인 인구가 110만이 넘지만 그때는 용인시 인구가 8만 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던 때라 각 학교에서 책을 주문을 받으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몇 백 권을 사가지고 큰 트럭을 빌려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보기에 국정교과서도 보급하시고 우리 시아버님이 인텔리에 속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때 연세로 서울 선린상고를 나오셨대요. 상업적인 것도 그렇지만 국궁도 하셨고, 한시도 잘 지으셨고, 하모니카도 잘 부셨어요. 그러셨으니까 시골에서 아들 대학을 보냈겠죠?

면담자 : 그러시면 그 당시는 새마을 운동을 많이 했었던 시기인데 용인에 있는 학교학생들은 관련 활동은 하지 않았나요?

구술자 : 그때 용인은 아주 작은 면단위도시. 그때는 새마을 운동을 해도 아이들 동원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대신에 제가 새마을 지도자로 뽑혀서 새마을 연수원에 가서 3박4일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경기도에서 여선생님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정신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연대장을 봤어요. 목소리가 하도 커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연대장 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최기철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덴마크로 연수를 가서보니 그 나라는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 우리나라도 돈 없는 사람이 치료를 못 받으니까 의료보험기초를 세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려 박사를 만나러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사고로 화상을 심하게 입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화상치료 하는 곳이 없어서 미군부대에서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

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희생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너무 잘 되어져 있는 거죠.

연대장을 맡았던 경기도교사 새마을지도자 연수

그랜드캐년, 원삼중학교

면담자 :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학교 근무하실 때 이야기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용인중학교에 근무하시고 원삼중학교로 가신건가요?

구술자 : 네. 용인중학교에서 5년 있다가 원삼중학교로 갔어요. 거기는 여기보다 더 시골이잖아요. 원삼중학교 남자 아이들은 저하고 지금도 왕래를 해요. 일 년에 한 두 번 씩 모이고. 제 생일 때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만나서 저녁도 같이하고 그러는데요. 애들 나이가 지금은 60이 넘었어요. 시골아이들이라서 정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서른 한 두 살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도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이들

이 학교에 와서는 맘 놓고 뛸 수가 있잖아요. 공차는 것을 좋아해서 같이 뛰고, 또 체육대회 할 때면 그 애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적당한 나무 베어다가 차전놀이 하는 것 만들어서 차전놀이도 하고, 강강술래도 가르치고 해서 원삼지역 사람들에게 약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기억이 나요.

면담자 : 그래서 원삼중학교 제자 분들이 선생님을 더 좋아하고 자주 찾아뵙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임을 하시면 그 학교학생들의 환경이나 지역적 특징을 보고 아이들에게 무슨 운동을 가르칠까 생각하고 적합한 운동을 찾아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삼중학교에서는 학교에 맞는 적합한 운동을 찾아주셨는지요?

구술자 : 원삼중학교에서는 좀 전에 얘기 했다시피 아이들에게 민속놀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원삼중학교는 당시 조건이 너무 안 좋았어요. 교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운동장이 너무 좁고 협소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건너편을 보면 비만 오면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우리가 그랜드캐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출근하면 아침마다 리어카에 흙 실어 와서 운동장을 넓히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들 체력장을 하는데 100m가 안 나오니까 길에서 체력장검사를 했어요. 교장선생님하고 그렇게 운동장을 넓히니까 축구장하나 나올 만큼 넓이가 됐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학교에 피아노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가을에 추수하고 남은 논에서 이삭을 주워오라고 했어요. 이삭으로 쌀 만들어 팔아서 피아노를 마련하려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면담자 : 축구장하나 정도로 운동장을 넓힐 만큼 공간이 있었나 봐요?

구술자 : 뒤에 있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깍아서 했던 것 같고, 그 산이 아마도 원삼중학교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그게 가능했죠. 정말 시골이었어요. 그때는 용인군 체육대회를 용인종합운동장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운동장만 있었지 스탠드도 없었고, 비만 오면 종합운동장마당이 진흙바닥에 질퍽질퍽하고 그랬어요. 시합은 해야 되는데..그때만 해도 넓은 스펀지가 있었어요. 큰 스펀지로 물을 빨아들여 짜고 해서 임시변통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용인은 지금하고 많이 달랐죠. 요즘은 시멘트 때문에 너무 좋아졌지만.

면담자 : 그런데 원삼중학교에서는 오래 계시지 않으셨네요?

구술자 : 아 그때는 원삼중학교 갈 때는 용인중학교에서 교육장님의 발령으로 주임발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원삼중학교로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용인중학교로 갔죠.

열정의 용인중학교로 다시, 배구심판자격증을 따다

면담자 : 용인중학교가 용인에서의 첫 부임지여서 그런지 더 정이 갔었나 봐요.

구술자 : 그럼요. 용인중학교는 남녀공학에다 여자아이들도 있고. 여기서 정이 많이 들었죠. 학교에서 해마다 가을체육대회를 하는데 "학급특색"이라고 반마다 특기 자랑을 했었어요. 어느 반은 민속놀이도 하고, 어느 반은 굿 하는 것도 하고, 어느 반은 아이들이 시루에 떡을 해다 놓고 비는 것도 하고 그랬어요. 재밌었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 구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해보니까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보여요.

면담자 : 체육시간에 하는 건가요?

구술자 : 네. 그게 체육시간 학급특기자랑, 열여덟 학급이 중복되는 학급이 없어야 돼요. 반별로 적어내면 그걸로 준비해서 설명도 하고 다 하는 거였어요. 차례대로. 그것 준비하느라고 밤 9시.10시까지도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준비도 하지만 아이들이 집에 안가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아이들이 개인플레이지만 그때는 아주 학급아이들이 똘똘 뭉쳤어요.

면담자 : 저희도 학창시절 가장행렬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밤새워서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술자 : 에피소드가 하나있는데, 옛날 강창희 씨라고 태성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선생 부인이 박신자 씨인데 나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용인중학교에 같이 근무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국어과목이고 나하고 너무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학교행사가 있으면 하루 전부터 학교가 들썩들썩 거려요. 아이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연습하려고 "선생님 우리 연습해야 되니까 시간 쫌 빼주세요" 라고 해서 시간을 빼주면 자기들끼리 운동장가서 연습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행사 당일에 사용할 녹음테이프는 내가 미리 반마다 받아서 다 세팅을 놓고 그랬는데, 행사 진행하는 당일에 그 친구네반 녹음테이프가 실전용이 아니라 연습용이 나온 거예요.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러기에. "내가 일부러 그랬겠냐. 나도 이 행사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하고 싶은데, 더욱이 너와 나는 친구인데 내가 그렇게 했겠냐" 그랬죠. 나중에 오해는 풀렸고 오히려 그 친구하고는 더 친해지고 그랬죠. 그 친구가 대단한 게 50명 아이들 옷을 손수 자기가 다 마름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선생의 언니가 바느질해서 옷을 다 해 입히고 그랬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1년에 한번 씩 그런 축제를 하면 아이들은 너무 신나했어요. 지금과 달리 그 때는 노래방, PC방이 없었으니까 오로지 학교에 와야만 노래도 듣고 같이 활동하고 그랬단 말이죠. 학교에 오면 그나마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도 펼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일조를 한 게 양지 용동중학교 아이들이에요. 용동중학교에는 무용부가 있었어요. 그 학교는 1인 1기(技)라고 해서 기타, 아코디언.. 이런 거를 배우는데 그 아이가 자기네반 아이들을 다 가르쳐 놓는 거예요. 무용도 선녀 옷들을 다 해 입히고 그랬으니까 정말 볼만하죠. 양지 용동중학교처럼 정서적으로 그런 걸 길러줘야 하는데. 공립학교는 그렇게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라 좋지 않은 상황들도 생기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때는 그럴 여가가 없었어요. 구석구석 운동장에서 자기네반들 연습하느라고 바빴으니까요.

면담자 : 말씀하신 내용은 가을 체육대회준비를 학생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좀 전에 용동중학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용동중학교를 졸업하고 온 학생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용인중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용인고 학생들도 가르친 건가요?

구술자 : 네, 용동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여기로 오는 거죠. 여중. 여고를 같이 지도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용인중학교[2]라고 그랬어요. 남녀공학이었다가 남자애들이 점차 없어지면서 여자고등학교. 여자중학교로 바뀌었죠.

2) 1947년 7월 1일 용인여자중학원을 설립. 1951년 학제변경 남녀공학으로 편성. 1952년 용인중학교로 개명, 1974년 중, 고등학교로 각 학년 여자로 편성. 1976년 3월 1일 용인여자중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 1981년 용인여자중학교와 용인여자고등학교로 완전 분리. 1992년 용인중학교로 교명 변경하여 남녀공학이 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포크댄스 지도자연수

동갑내기 국어선생 박신자 선생님과

면담자 : 선생님 원삼에서 용인중으로 오셨을 때가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이 일어났던 시기이면서 전두환 5공화국이 정치, 사회적 이슈를 무력화시키려고 3S[3]같은 정책을 실시했던 때인데 학교에도 예전과 달리 체육, 스포츠를 강화하라는 지침 같은 게 혹시 내려 왔었나요?

구술자 : 그런 건 없었고요. 소년체전을 강화 했었죠. 그리고 전국체전도 강화해서 전국에서 유치하려고 경쟁했었죠. 기억에 남는 건 전두환 대통령 때 제가 여교사 대표로 뽑혀서 청와대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순자 여사를 봤는데, 이순자여사 아버지가 당뇨가 심해서 보리를 많이 상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당뇨라고 하는 병 자체를 잘 몰랐을 때에요. 그리고 나는 청와대가면 잘 나오는 줄 알았더니 별로더라고요

면담자 : 청와대에서는 왜 초청을 하신 거예요?

구술자 : 여선생들의 격려와 지위향상도 있고 그런 이유였겠죠?

면담자 : 용인중학교에서 7년이나 근무를 하셨는데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구술자 : 아! 연장할 때는 아마 그때는 배구를 지도하면서 그때는 2년을 더 있을 수 있었어요. 5년이 맥시멈인데 내가 7년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배구하면서 제가 배구심판을 보러 다녔어요. 경기도 배구협회에 임원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배구심판을 보면서 용인군 체육대회 할 때도 심판을 봤고, 3군사령부에서도 심판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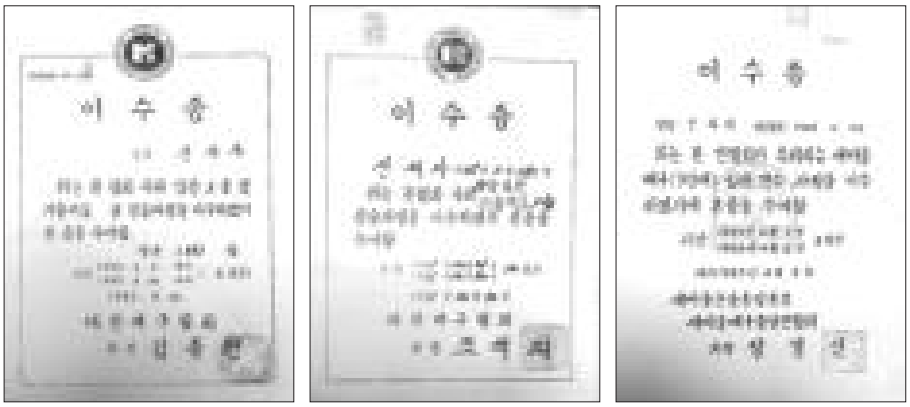
3) 3S 정책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및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성 풍속, 영상이라는 수단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배기" 정책의 통칭이다. "3S"는 스포츠(Sports), 섹스(Sex), 스크린(Screen)의 머리 글자를 딴 것이다.

았는데 제가가면 “오? 여자 심판이 왔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심판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게 약 10년 이상을 심판을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심판 보러 다닐 때 정말 재미있었어요.

면담자 : 배구심판 자격증은 용인중학교에 근무하시면서 따신 거죠?
구술자 : 맞아요. 용인중학교 있을 때 땄고. 심판자격증은 C급 B급 A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심판 나가는데. A급까지는 땄거든요. 학교에서 자격시험요건을 얻어 수원에서 시험보고, 실기보고 해서 C급부터 차례대로 땄는데, 국제심판은 영어가 안돼서 못했어요.

면담자 : 그 당시 여자 심판은 선생님 외에 다른 분도 계셨어요?
구술자 : 한 명 있었는데, 김명순이라고., 내 후배로 용인중학교에 체육교사로 왔다가 다른 데로 가신분이데 그분도 심판을 본 것 같아요. 내가 먼저보고

면담자 : 심판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죠?
구술자 : 영원히.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배구심판 A급. B급. 9인제 자격증

면담자 : 그러시면 지금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구술자 : 그럼요. 충분히 하죠. 호각만 있으면. 그래서 사위가 일본서 배구전용 호각을 사다줬는데 그 호각 끝이 휘어져 있어요. 끝이 휘어져있어서 소리가 장내에 퍼지면

서 잘 들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영국제는 빽~~소리 나고요. 한국제는 삑~~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듣기에는 영국제가 좀 귀에 편안하죠.

심판에 사용된 호루라기

면담자 : 끝이 휘어져있어서 소리가 공명 울리듯 모아져서 나오나 보네요.

구술자 : 맞아요. 그래서 그 호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살아오면서 배구 심판 보러 다닐 때가 제일 신났던 것 같아요.

면담자 : 용인중학교에 계시면서 어머니배구부를 창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창단 하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 창단이라고 하기 엔 좀 그런데요. 그 당시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용인지회에서 카네이션배 어머니배구 시합을 나가야하는데 선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추천을 받아 배구멤버들을 모집했었어요.

면담자 : 어떤 분들 추천을 받았나요?

구술자 : 학부모하고 중, 고등시절 배구했던 사람들 추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3군 사령부 장교 부인들 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추천을 받았고, 학부모 2~3명 정도해서 15명 정도 인원이 되었어요. 그때는 배구가 9인제니까 9명 출전할 수 있었죠.

면담자 : 배구연습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구슬자: 용인중학교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 한국부인회 용인지회에서 밥해오고 꽹과리 치면서 응원하고 많이 도와줘서 시합을 나갔었죠. 그리고 그 다음해에 카네이션배에 출전을 했었던 거죠. 전경환씨가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일 때 새마을연수원에서 자고 장충체육관으로 가서 시합을 했어요. 전국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카네이션이 어머니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카네이션배 어머니배구대회인거죠.

면담자 : 배구대회 출전성적은 어땠어요?
구술자 : 비록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우리는 지방이잖아요. 왜냐면 도시사람들은 프로선수들이 선수에 들어가 있어서 우승이 쉽지 않아요.

면담자 : 선생님 혼자서 배구지도를 하신건가요?
구술자 : 네. 따로 없었어요. 창단할 때는 군체육회하고 같이 했기에 보조는 체육회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미니들 배구 연습시켜서 시합에 나가기만 했으니까요.

면담자 : 카네이션배는 몇 번 정도 출전하신건가요?
구술자 : 두 번 했을 거예요.

면담자 : 두 번 출전 이후 어머니배구단은 어떻게 되었어요?
구술자 : 해체했어요. 그러니까 배구단은 약 3년 정도 했던 거죠. 제가 다른 학교로 부임해 가면서 어머니배구단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조직하고 1년 연습해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2년 동안 카네이션배 어머니배구대회 출전을 하고 해체가 된 거죠.

백암중학교에 씨름부를 창단하다

면담자 : 용인중학교에 계시다가 백암중학교로 가셨는데요. 백암에서는 그 학교에 적합한 분야를 찾으셨나요?
구술자 : 찾았어요, 백암중에서 제가 씨름을 창단했죠. 그때 선수아이들이 다 어른들이 됐으니까. 각 구의 씨름 이사장으로도 있고, 의원으로도 있고, 용인대학교 씨름부 졸업하고 학교의 씨름 지도자로 많이 있어요.

면담자 : 백암중학교에서는 씨름부를 만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구술자 : 그렇죠. 왜냐면 중.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백암도 그때는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처음 씨름부를 운영할 때 제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라면 끓여 먹여가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원래 백암이 옛날부터 씨름고장이기도하고 백암사람들이 많이 협조를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남편이 그 당시에 용인체육회 전무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씨름코치 한 명을 영입을 받아서 시작하게 되었죠.

면담자 : 처음 씨름부를 만들어 모집했을 때 학생들 몇 명이 들어왔었어요?
구술자 :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체육시간에 이것저것 시켜보잖아요. 그때 아! 저 녀석 괜찮겠다 잘하겠다 생각하는 아이들... 그때는 시골아이들은 장래희망이 뚜렷하게 없었잖아요.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운동을 잘 하면 운동 하나를 가지고도 장래희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너는 운동 잘하니까 운동하자고 해서 덩치도 있고 잘 할 수 있는 아이들로 권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곳이 부흥되기도 하고 그 아이들도 그것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 처음 시합에 출전했던 경기는 어디일까요?
구술자 : 그때 소년체전에 1명을 출전시켰는데 성적은 썩 좋지는 않았지만 처음 출전하는 경기였으니까요. 그 아이들이 용인대 체육과를 나와 가지고 지금은 용인의 씨름부를 이끌어가고 있죠. 용인고등학교에 씨름부가 생기면서 처음 씨름감독이 유세종이라고 백암중학교에서 씨름을 시작했던 아이에요.

면담자 : 선생님께서 백암에 씨름부를 만들고 후에 용인중으로 다시 오셨을 텐데 이후에도 백암중 씨름부의 명성은 지금까지도 탄탄하게 이어오고 있어요.
구술자 : 나중에는 체육연계라고 해서 만약에 용인초등학교에 씨름부가 있다 그럴 때 용인중학교가 씨름을 안 해요. 그러면 백암으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백암은 중학교에서 씨름을 하니까요. 그럼 백암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느냐면 용인상고로 가는 거예요. 용인상고가 그 당시에 씨름부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용인상고가 씨름부가 없어지면서 용인고등학교가 씨름부가 생겼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쪽으로 또 연계가 돼요.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라도 키워야지 연계가 안 되면 힘들잖아요.

면담자 : 뿌듯하시지요?
구술자 : 그래서 초창기에 뭐를 심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여자가 씨름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아버지 피를 받아서 그래요.

면담자 : 예전부터 백암이 씨름으로 유명해서 백암 우시장이 열리는 날 황소를 내걸고 씨

름대회를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도 와서 참여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전통을 살려내신 분이 선생님이시네요.

구술자 : 안했으면 모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뭐가 유명하냐고 그랬더니 씨름이래요. 아! 씨름이라면 애들하고 체육시간에도 할 수 있잖아요. 샅바만 있으면 하니까. 그래서 가르쳐보면 "이놈이 힘 좀 쓰겠구나" 라는 걸 알죠. 그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했는데요. 첫 해에 소년체전 할 때 제가 데리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여자감독이 둘이 있어요. 경기 광주 중학교 여선생님이 하나. 그 다음 백암중학교에서 나. 그때만 해도 여자가 씨름을 한다고 하는 걸 상상도 안했을 시기인데 감독을 했고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내서 백암씨름이 싹트게 됐죠. 그래서 그 애가 지금 아마 실업팀에 감독하고 있을 거예요. 가끔 씨름대회에서 보면 용인백옥 씨름단 나오죠? 용인대학교에서 씨름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데 씨름이 다른 종목보다는 판도가 그리 넓지가 않아요. 다른 데는 팀이 많고 여러분야가 있으니까 갈 곳도 많은데 씨름은 그렇지 못하죠.

면담자 : 백암이 거리상 꽤 먼 곳인데 다니기 불편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구술자 : 괜찮았어요. 그런데 처음 백암에 갈 때 백암의 텃새를 부리는 청년들이 내차를 뒤에서 몰고 와가지고 위협을 주고 그런 적은 있었어요.

면담자 : 그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었을까요?

구술자 : 백암에 사는 청년들이었겠죠. 제가 3월 2일자로 부임을 하는데 3월 1일에 책이랑 교재를 가지고 가는데 따라 붙더라고요. 교문 앞에서 딱 막 길래.. 나 내일 부임하러 오는 사람인데 이래도 되느냐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학생부장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장 사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면담자 :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요.

구술자 : 아! 그러니까 텃새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자가용이 많지 않았는데 동네에 이상한 자동차가 학교 앞으로 오니까 따라왔던 것 같아요.

체육, 교련, 한문까지.. 용인고등학교 중재자

면담자 : 그랬군요. 지금은 누가 이사를 오는지 가는지 잘 모르지만 그 당시는 지역민들과의 결속력도 끈끈하고 서로에 관심도 있어서겠지요? 이어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께서 용인중에 이어 용인고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 교육내용은 어떤가요?

구술자 : 고등학교에서 체육은 똑 같아요.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다 똑 같으니까요. 그런데 용인고등학교에서는 교련[4]을 가르쳤어요.

면담자 : 교련은 보건교사가 가르치지 않나요?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구술자 : 그때만 해도 부전공하는 하는 분들이 교련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겸직을 하라는 거죠. 교련은 해보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도 많았고, 만약에 우리가 전시(戰時)체제가 되면 학생들을 전부 전쟁터로 보낸다는 취지로 교육을 했어요. 주로 응급처치 실습을 많이 했고 사열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현역에 계신 분들이 검열하러 학교에 직접 나오기도 했고요. 학교에서 교련을 담당하는 선생들은 간호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발령 받아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는 한문도 가르쳤어요.

면담자 : 한문은 전혀 분야가 다른데 그게 가능했어요?

구술자 : 그럼요. 우리는 한문세대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우리는 한문과목이 있어서 배웠어요. 웬만한 한자는 보면 알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들 한문을 가르치라고 해서 엉덩이 땀띠 날 정도로 앉아서 학습지도안을 준비했었어요. 그때는 자습서가 없었기 때문에 한문을 쓰고 학습지도안도 하나씩 다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나중에 한문을 전공하고 오신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에게 "이거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만들어 지도한 학습지도안인데 이거 가지고 가르치면 어떠냐?" 라고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하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선생은 2년 정도 근무하다가 결혼하고 다른 학교로 가셨지요. 한문은 내 전공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

4) 1968년 북한이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무장간첩을 침투시킨 1·21사태가 발생하자, 1969년에 교련이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 당시 주 4시간이던 체육 수업을 3시간으로 줄이고 교련을 주 2시간으로 편성.1997년에 교련이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대부분 고등학교가 이를 채택하지 않자, 2011년부터 교육과정이 개정. 2014년에 폐지되다.

면담자 : 체육도 가르치고 교련도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치고 너무 힘드셨겠어요.

구술자 :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오래는 안 가르쳤어요. 약 2년 정도? 그런데 그때 가르쳤던 교련은 지금까지도 실생활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붕대법이라든지. 응급처치법이라든지... 지금도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붕대감고 하는 것 다 그때 배우고 가르쳤던 거니까요. 붕대를 감을 때 다 감고 나서 맨 위를 한번 접어서 돌리면 안 빠지거든요. 병원에서도 붕대를 잘 못 감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오해 생기지 않게 설명을 해주면 아! 그러냐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접해있는 모든 것들이 서비스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도 "나는 학교 선생님이니까"이런 생각은 전혀 안했어요. 난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도 애들하고나 학부형하고의 관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제가 어른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른들도 나를 좋아해주고 그랬어요. 언젠가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참 똘똘하고 착하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담임선생님한테 무지 많이 혼났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얘기를 했는지 그 학생의 어머니가 화가 엄청나서 학교에 오시는데 저 멀리 교문에서부터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니 울그락 불그락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교실로 가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내가 얼른 나가서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먼저 앉으시라하고 진정을 시키고 나서 "어머니 담임선생님이 그 애를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그리고 그 애는 반장이잖아요. 뭔가 서로 오해가 생겼겠지." 하고 대화를 하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중재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축구리그전, 송전중학교

면담자 : 학교와 지역사회 그 중간에 선생님이 계셨군요. 송전 중학교는 어떠셨어요?

구술자 : 송전중학교에서는 6년을 근무했는데 제가 상담 쪽을 주로 했어요. 송전에서의 6년은 참 재밌었어요. 남자아이들이 전체 38명 정도 됐고 여자아이들이 있고 그랬는데, 남자아이들 38명하고 매일 축구리그전을 했어요. 팀을 짜면 ＡＢＣＤ 4팀이 되니까 1.2.3학년 아이들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후배 유대

관계도 좋아지죠. 그 아이들과 1년 내내 리그전을 하면서 누가 어느 팀이 이겼다. 오늘 오후에는 또 어느 팀이 한다. 이러니까 애들이 날만 새면 학교에 빨리 가고 싶어하고 결석을 안했어요. 제가 상품도 준비했었고 1등에게는 그 당시 처음 나온 CD를 주었는데. 아무튼 연말에 가서는 모두 다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요. 그래서 애들이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축구리그전을 펼쳤던 송전중학교 근무시절

용인중학교에서 정년퇴임을 맞이하다

면담자 : 선생님께서 용인중학교에서 퇴임을 하신 걸로 압니다. 교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보람되다"라고 느꼈던 계기나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술자 : 보람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치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체육을 했다는 것에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 연령대에 체육활동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체육을 전공했다는 부분에 한 번도 후회 한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내가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 보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과 같이하는 것. 예를 들어 큰 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대회를 지도하고 마스게임처럼 어떤 작품을 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만들어내는 그 희열감은 컸어요. 그래서 체육을 하면 좋은 게 체육학과가 심지어 생리해부까지 다 해야 하는 학과에요. 사회생활의 기여도가 높은 학과예요. 첫째, 건강해야 되니까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WHO에서 제시하는 건강의 정의를 보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놓일 때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셋 중에 하나만 잘못되어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요즘은 신체도 좋고 정신도 좋은데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많잖아요. 교도소 가는 사람 구치소 가는 사람, 특히 예전에는 체육인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디어 등이 체육인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지만요. 그리고 체육을 해서 좋은 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몸을 유지할 때 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아 본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체육이라는 것이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참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죠.

면담자 : 그러시다면 공직생활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있었을까요?

구술자 : 아쉬웠던 점은 그때 당시에는 요즘과 달리 운동장형편도 안 좋고, 체육이라고 하면 시합이 있는 것이기에 방과 후에 남아서 아이들 지도하는 건데 지도하면서 과외시간 할애가 쉽지는 않았어요. 과외수당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책임감과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야 했었고, 또 제가 여자 체육교사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부분이죠.

결혼해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는 출산휴가를 1달 밖에 안 줬어요. 지금은 육아휴가라고 해서 1년씩 쉴 수 있잖아요. 남편들도 육아휴직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원삼중학교 근무할 때 막내를 임신했는데 그때는 학교로 가는 버스도 1대만 다녔거든요. 그런데 버스위에 얹어놨던 짐이 툭! 떨어졌는데 내 배에 떨어진 거예요. 기사아저씨가 놀래서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다행히 괜찮더라고요. 옛날에는 장날에 가려면 콩이야 뭐야 하는 것들을 버스에 싣고 다녔거든요. 원삼중학교가 얼마나 험난했느냐 하면 눈이 오면 빗자루로 길을 쓸어야 차가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 막내를 낳았을 때 교장선생님이 소고기하고 미역을 사오셨어요. 요즘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면담자 : 와우정사 지나가는 길. 곱든고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구술자 : 네 맞아요. 와우정사 곱든고개길. 곱든고개가 험하니까 처음에 원삼중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남편이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교사의 사명은 학생 1명이 있어도 가야된다.” 그랬어요. 교사가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우리 시아버님하고 생각이 같고 잘 통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한 달 버스표도 끊어주시고 그러셨지요.

퇴임 후의 삶을 이야기 하다

면담자 : 선생님께서 퇴임하신 이후에 용인고등학교 사감선생님을 하셨는데 퇴직하시고 바로 근무를 하신건가요? 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 네. 용인고등학교에서 4년 동안 기숙사사감을 했어요. 제가 퇴직을 할 당시가 62세인데 넘쳐흐르는 에너지도 있고 활동력도 있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애들도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내가 아직도 충분히 일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맥시멈 80까지는 일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62세면 거의 20년을 내가 어떻게 지내야겠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뜻을 얘기했더니 교장선생님도 잘 됐다고 하시면서 기숙사 사감을 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인고등학교 기숙사사감을 시작하게 됐고 4년을 연속으로 했죠. 그때 100명 아이들을 데리고 여자아이들 90명, 남자아이들 10명 데리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4년제 좋은 학교들 많이 갔어요.

면담자 : 그때의 선생님을 기억하는 학생들이 많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용인고등학교 기숙사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구술자 : 기숙사 안에 사감실이 있어서 거기서 다 먹고 자고 해요. 지금도 용인고 기숙사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백암에도 있어요. 아이들이 여건상 도시로 못 나가는 아이들은 거기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태성고는 사립이라 지금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송전에 있을 때 한 학생이 수학을 잘해서 경시대회 1등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교감선생님이 그 애를 태성고로 보내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기숙사는 잘 되어 있느냐. 믿고 맡길 수 있느냐 등을 물었죠. 환경이 중요하니까요. 그냥 마룻바닥에 이불 깔고 자고 그러면 못 보냅니다. 혹시라도 그 애가 병이 났다든지 하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애가 태성고로 갔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조기졸업 했는데 태성학교 생기고 처음이에요. 시골에서도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은 아이가 나와요. 그 애가 포항공대를 갔는데 그 어머니가 제천여고 나와서 배구 선수였어요. 근데 그 엄마가 밤중에 전화 와서 “선생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운열이가 포항공대를 갔어요” 그러기에 고2인데? 그랬더니 조기졸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면담자 : 용인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4년 계시다가 나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요양보호

사 자격증을 따신 건가요?

구술자 : 제 생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육체적으로 레크레이션 하는 것 , 노래 가르쳐 주는 것, 교정 체조하는 것처럼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니까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그런 지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자격증을 땄어요. 한 번은 티비를 보니까 일본인데,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그런 것을 지도하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도 저럴 수만 있다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터미널 앞에 요양보호사 교육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3개월 동안 했어요. 2개월은 이론하고 1개월은 실습을 해요. 이것도 국가고시에요. 처음 자격증을 따서 남동 〈하나애〉요양원에서 2년을 근무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레크레이션이나 교정체조나 노래지도라든지 이런 육체적인 것을 하려고 갔더니 와상臥床환자이거나 아니면 휠체어 탄 환자고 치매환자고..내가 착오를 일으켰던 거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씩은 외부에서 공연을 와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게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면 제가 노래도 지도하고 그랬지요. 거기서 2년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면담자 : 그러시면 선생님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면서 생각하셨던 노래도 가르치려했고 교정체조도 가르치려 했으나 현재는 선생님의 그 꿈을 아직 못 이루고 있는 거네요?

구술자 : 그렇죠. 아직은 못 이루고 있다고 봐야죠.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는 음악만 탁 틀면 자기반끼리 나와서 선생님들하고 손잡고 포크댄스를 췄던 그때처럼은 아니지만 요양보호 하면서 노래도 가르치고 교정체조도 하려던 일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애들은 지금도 만나면 선생님 그때가 최고였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가 아니면 언제 선생님 손을 잡아 봐요. 그러거든요. 동작 5~6가지만 가르쳐주면 그냥 그 노래에 맞춰서 춤추고 그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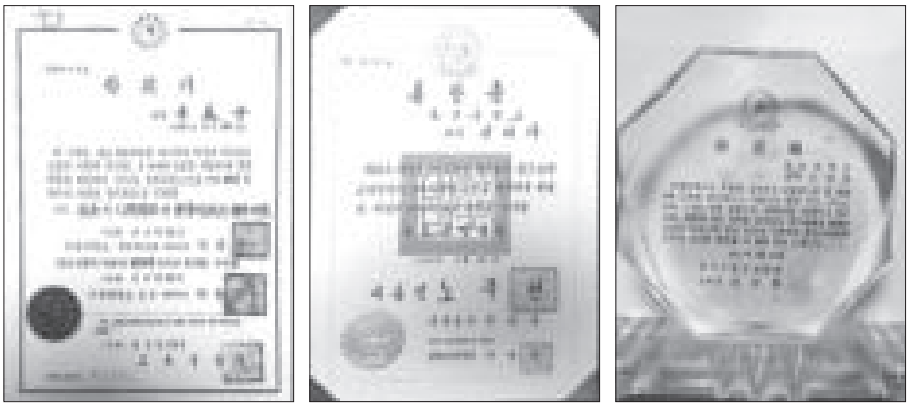
면담자 : 저도 학창시절 포크댄스를 배울 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냥 보는 것과 내가 직접 손잡고 춤을 춰 보는 것과는 즐거움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구술자 : 맞아요. 감상하는 것하고 내가 직접 하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활력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거의 날라 다녔으니까요. 제 나이 얘기하면 사람들은 놀래지만 지금도 저는 육체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신에게 “내가 과연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나

름대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초저녁에 물을 한 컵 정도 마셔요. 그러면 새벽 3시30~40분경에 틀림없이 잠에서 일어나져요 생리적으로. 그러면 화장실에 다녀와서 그때 또 물을 마셔요. 그리고 아침식사하고 화장실 한번 갔다가 물을 한 번 또 마셔요. 그렇게 내 몸이 몸을 요구할 때는 물을 마셔줘야 해요. 어떤 사람이 자꾸 다리에 경련이 일어난다고 하던데 그건 수분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저도 쥐가 나서 다리에 쥐가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먹으면서 실천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어졌어요. 한번 실천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노래를 불러요. 예를 들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이렇게 부르다가 중간에 막히면 벌떡 일어나서 가사를 적어요. 레파토리는 트로트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 까지 다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잠 들어요. 그렇게 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해야지 약에 의존해서 내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몸을 받았을 때 한번 뿐인 인생이라고. 우리 생명에는 스페어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 날까지 아프지는 말아야 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면담자 : 선생님께서 80세까지 활동하시겠다는 목표를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건강함과 가까이서 느껴지는 활력을 볼 때 적어도 85세까지는 늘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센터에서 노래도 배우시고 또 가르쳐도 주시고 하시면서 꿈을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 바쁘신 중에도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술자 :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고생하셨어요.



대학원 석사 학위증. 39년 교직의 퇴임시 받은 녹조근정훈장과 송공패

초등 교육공무원으로 40년 외길 인생을 걸어 온 용인 출신 여성 교장,

심문자(沈文子) 선생

출생 및 경력

1945년	경기도 용인군 출생
1964년	용인고등학교 졸업
1968년	동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1968년~1975년	용인초등학교 · 포곡초등학교 교사
1998년	수원 신풍초등학교 교감
2003년~2005년	용인 마성초등학교 초대 교장
2006년~2008년	용인 나곡초등학교 2대 교장, 퇴임

표창

1995년	모범공무원 표창

활동내역

2009년~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복지관 등에서 색소폰 연주 봉사
2021년~	한국다문화 교육 강사

개요

- 구술자 : 심문자
- 면담자 : 김도영
- 1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 장소 :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로 68번길(음악연습실)
- 2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10월 7일(목)
  - 장소 :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로 68번길(음악연습실)
- 3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10월 29일(금)
  - 장소 :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로 68번길(음악연습실)

요약정리

심문자 선생은 1945년 경기도 용인 김량장리에서 태어났다. 선생의 아버지 심재혁씨는 당시 용인면장을 역임하셨으며 5.16혁명 이후 '용인군재건촉진회' 회장으로 일하셨던 분으로 항상 검소하고 강직하셨으며 가정교육 역시 흐트러짐 없던 분이셨기에 선생은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아버지를 꼽는다. 또한 당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자녀들의 학교 교육만큼은 꼭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교육열을 가지셨던 부모님은 5남매 모두를 당시 수원과 서울로 유학 보내 공부시키셨으며 그 덕분에 형제들은 평생 진로를 만들어 주신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다.

선생은 초중고를 용인에서 마치고 1964년 서울 동국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였으며 1968년 졸업하였다. 당시 여자로서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을 특별히 원하셨던 부모님의 권유로 인천교대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1968년 첫 부임지인 용인초등학교의 교사로 발령받았다. '반드시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절박함이 없었으므로 교직에 특별한 뜻이 없었던 선생이었지만 용인초등학교에 발령받아 학생들을 대하면서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는 의욕을 갖게 되었고 특히 6학년을 연속 담임으로 맡아 애정과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어느덧 교직의 매력에 깊이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용인초등학교에서 6년, 용인포곡초등학교에서 2년 동안 6학년을 지도한 후 1977년 수원의 학교로 전근되어 근무하던 중 승진에 뜻을 두고 1985년 인천에서도 배를 타고 10시간을 가야하는 경기도 옹진군 대청면에 있는 대청초등학교를 지원하여 발령받았다. 대청초등학교에서는 밴드부를 조직하여 당시 대청면의 행사나 학교 행사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3년 후 발령받은 수원정자초등학교에서도 70명의 밴드부를 창단하여 학교 행사인 운동회, 애국조회 등에서 많은 활약을 하였다. 이점을 인정받아 우수한 근무평가를 받고 1998년 수원신풍초등학교의 교감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용인은 선생의 나고 자란 고향이며 교사로서 첫 발을 내딛은 고장이었으므로 '교사로서 마무리는 꼭! 용인에서 아름답게!'라는 평소 소신에 따라 용인 관내 초등학교의 교장직을 희망, 지원하였고 2003년 3월 드디어 용인 마성초등학교의 초대교장으로 발령받게 되었다. 당시 여성 교장으로는 용인에서 4번째였다. 신설 학교의 여자 초대교장으로 발령받았다는 기쁨도 컸지만 막막함이 앞섰다고 당시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선생은 교가 작사 및 교화 · 교목 · 교표를 정하였으며 다양한 나무들을 교내 곳곳에 심었고 급식실, 양호실, 어학실, 과학실 및 도서실 등을 어린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 아름다운 학교로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6년 발령받은 용인 나곡초등학교에서도 학교 구석구석을 신경 쓰려 노력하였으며 40년의 교직을 마치고 이곳에서 2008년 정년퇴직하였다. 선생은 퇴직 후 색소폰을 배워 교장단 밴드에 참여하고 다양한 곳에서 봉사하였으며 최근에는 서울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등의 다양한 행사와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복지관, 독거노인 무료급식소 등에서 봉사하며 바쁘지만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선생께서 교직을 떠난 지 벌써 13년이 지났다. 하지만 6학년 담임을 맡았던 제자들과의 인연은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자주 왕래하며 자식처럼 스승을 알뜰히 챙겨주는 제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선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한다. 비록 소소하지만 마음을 표현하고자 어느덧 60살이 된 25명의 제자들에게 2019년 환갑잔치를 직접 열어주었고 코로나19 때문에 그 다음 기 제자들의 환갑잔치는 잠정적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씀하신다. 유난히 제자 자랑도 많고 제자들과의 추억도 참 많은 선생은 '제자들에게 받은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돌려주나. 그것이 과제!'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선생의 모습에서 행복한 스승의 넉넉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

면담자 :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용인에서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셨고 교장으로 퇴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용인과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술자 : 바쁘신데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배경

면담자 : 성함과 본관은 어디신지, 출생년도와 출생일은 언제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술자 : 저는 심문자입니다. 청송 심씨. 1945년 12월 27일. 양력. 해방둥이예요.

면담자 : 성장하실 때의 집 주소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구술자 : 그 당시 용인군 용인면 김량장리 북구라고 그러나? 번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면담자 : 선생님의 어머님, 아버님 성함과 두 분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구술자 : 아버님은 청송 심씨. 있을 재자, 붉을 혁자. 심재혁(沈在赫)[1]. 그리고 고향은 용인 원삼면. 어머님은 동래 정씨세요. 밝을 명, 순할 순자. 정명순(鄭明順). 고향은 수지.

면담자 : 선생님 기억 속에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구술자 : 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가정적이고 반듯하시고 하튼 정도를 걸으시는 분이셨어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행동만 하셨던 거 같아요. 흐트러지고 그런 모습 보인 적도 없으시고. 나 태어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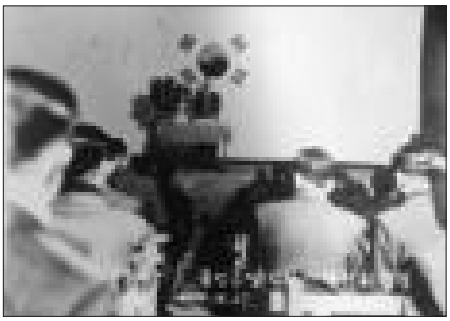
집 앞에서 부모님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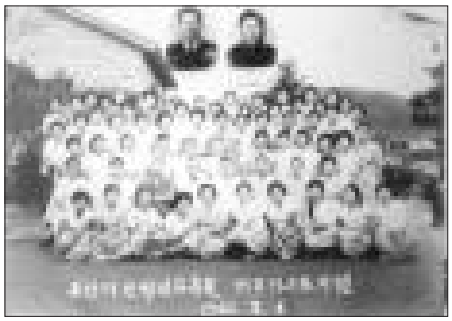
1) 심재혁(沈在赫): 제 6대 용인면장 (재임기간 3년, 1956.08.03~1959.08.02), 제 9대 용인면장 (재임기간 6월, 1960.12.26~1961.06.19)을 역임하였음.

서부터 늘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늘 내 머리 속에는 엄마가 건강하지 않았다는 기억만 있고 아버지는 그런 내색 없으시고 반듯하신 모습이었고 가정적이셨다고 할 수 있지요. 그 시대에는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식들이 봤을 때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분이셨어요.

면담자 : 아버님께서 용인면장을 역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술자 : 2대, 3대 아마... 용인면 그때 면장. 그 시기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번 민선 면장을 했을 때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투표하면 밤새도록 동네 마이크를 통해서 '몇 표 나왔다!'고 막 이런 거 하고요. 각 동네마다 스피커를 통해서. 그 당시에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나오셨을 때도 압도적으로 (당선)되셨고요. 지금은 중앙동, 고림동, 유방동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그 때는) 고림리, 유방리, 남리, 삼가리 이런 데가 다 하나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곳이 전부 용인면에 다 속하는 거였죠. 우린 어렸을 때부터 용인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많이 안다고 하는 게 아버지가 그런 관리직에 계셨으니까요.





용인군 재건촉진회에서 활동하신 심문자 선생의 아버지
(좌측 – 연단 위, 우측 – 2열 왼쪽에서 4번째)

면담자 : 아버님께서는 공직생활 전에 다른 일을 하셨나요?

구술자 : 안 하셨던 거 같은데요. 남들은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 때는 거의 그런 거였었는데 장사도 안 했고 농사도 많지 않았으니까... 그냥 집 옆에 있는 밭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정도로 부유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생활은 어려웠던 편이었어요. 밥을 굶고 그러진 않았지만... 천주교 성당에서 저희 집에다가 우유가루나 옥수수가루 같은 것을 한 포대씩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굶지는 않았지만 여유롭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5 · 16이 일어났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해에는 면장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는 '새마을재건촉진회'[2)]라는 게 생겼었어요. 5 · 16군사정권에서 면장을 그만두시고 있는데 그 당시 용인군의 '용인새마을재건촉진회'가 '회장을 맡아 달라!' 그래가지고. 일반인들, 청년들 교육 (정신교육)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치시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총괄적인 거. 대표처럼요.

면담자 :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구술자 : 어머니도 아버님 못지않게 요즘 여성이라고 그래도 (될 만큼) 담대하셨다고 그럴까? 아버지보다 오히려 스케일이 좀 더 크다고 하실까? 아버지로 인해서는 속상한 게 없으셨지만 어머니는 건강이 별로 안 좋으셨잖아요? 그 때문에 외아들이 7살 때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그것에 감동받고 그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면담자 : 어떤 면에서 어머님이 담대했다고 생각되셨나요?

구술자 : 우리 집이 넉넉하지는 않은데 친척들이 (우리 집에서) 항상 같이 산 적이 있었어요. 대개 원삼면 쪽에.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어머니가 친척들 중에서 사촌 얘들이 중학교를 못 가고 또는 중학교는 가는데 고등학교를 못 가면 다 우리 집으로 와서 먹이고 재우면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친척 중에서 부모님이 없어서 갈 때가 없는 조카가 있었어요. 결국 우리 집에서 살면서 시집도 보냈고. 우리도 먹고 사는 게 넉넉하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배워야한다고. 그래야 우리 집안 뿐 아니라 심씨네 (집안도 일어난다고). 그냥 다 해 준 거예요. 그 때는 그 집안에서도 그런 것(양식)을 갖다 줄 만큼 여유롭지도 못했고요. 그러면 데리고 와서 태성고등학교라도 다니게 하고. 어머니가 못한다고 하면 못하잖아요? 그런 면이 참 존경스러웠어요. 나도 시댁 식구가 와서 그런다면 거두지 못하는데... 그전에 우리 엄마가 그런 거를 '보내라!' (하셨던 거예

2) 재건촉진회 : 5 · 16군사쿠데타 세력은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쿠데타를 '국민혁명'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지도층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쿠데타세력은 재건국민운동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고자 재건국민운동본부를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기구로 배치하고 1961년에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직속기관으로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설치되었다. 1961년 6월 30일자로 재건국민운동 시 · 군 · 구 · 읍 · 면 촉진회 회칙(준칙)과 이 · 동 촉진회 회칙이 제정 · 시달되어 지구 조직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지부 산하에는 각급 행정구역 단위마다 촉진회를 두고 최말단에는 국민반(방)이 조직되었다. 6월 22일까지 서울지부 관하 9개구의 촉진회 결성을 비롯하여 전국의 각급 지구조직을 7월 20일까지 완료하였다. 혁명정부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주요민간단체의 임원, 저명한 언론인 · 출판인 · 교육자 · 연예인 · 종교지도자를 이 운동의 지도적 위치에 임명하였고, 누구나 자발적으로 회원이 되도록 요구하였다. 그 결과 재건국민운동본부는 39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재건국민운동은 5 · 16군사정변 직후부터 국민의 도의 · 재건의식을 높이기 위해 벌였던 관주도적 범국민운동이었으며 1961년 6월부터 1964년 8월 재건국민운동본부가 해체될 때까지 이어진 국민운동이다.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1961.6.11)에 따르면 재건국민운동은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민주주의 이념 아래 협동단결하고 자조자립정신으로 향토를 개발하며 새로운 생활 체제를 확립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의 7가지 실천요강은 용공중립사상의 배격, 내핍(耐乏)생활 실천, 근로정신 고취, 생산 및 건설의식 증진, 국민도의 앙양, 정서순화, 국민체위 향상 등이었다. 구체적인 세부항목에는 민족긍지의 앙양, 수입 내 지출, 창의력 앙양, 협동적 생산활동, 부정부패 배척, 국민단합, 전통계승 등을 담고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결정을 못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먹고 살 것도 풍족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면이 엄마가 참 존경스럽고. 결단력도 있으시고 아량도 있으셨어요.

면담자 : 식구들이 모여 있을 때 가정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구술자 : 아버지가 말씀이 별로 없으셔요. 진짜 하실 말씀만 하시고 그러는데 저녁에 이렇게 술상을 차려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식구들이 빵 둘러앉아서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는 무릎 꿇고 앉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앞이니까. 그리고 그 때 식구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이랬던 분위기였어요. 아버지는 가정적이셨다니까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나? 그런 당신의 뜻(주관)을 그렇게(말씀) 하시고 가족들이 자주 모여서 그렇게. 그 만큼 집안 분위기는 안정되어 있는데 걱정이 늘 엄마가 아파서 맨날 약 사러 다녔던 기억만 나요.

면담자 : 선생님께서는 해방둥이셨는데, 유아기 때 생각이 나세요?

구술자 : 안 나요. 6 · 25때 무서웠다는 생각만 나요. 우리 집이 장로교회가 있는 산이랑 저쪽 감리교회가 있는 곳의 한 가운데인데 우리 집 딱 한 채밖에 없었어요. 밭 가운데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도 내려다보이고 저쪽에서도 내려다보이고 그랬는데요, 마루 밑에 구멍을 팠었어요. 방공호를. 비행기만 뜨면 식구들이 다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거기서 숨었던 기억이 나고. 무서우니까. 비행기가 뜨면 너무 무섭고. 허허벌판에 우리 집이 딱 한 채밖에 없었고. (1. · 4후퇴 때는) 아버지 따라서 (가족들이) 청주로 피난을 갔었는가본데 나는 막내니까 아버지 지게타고 붙들고 갔던 기억까지는 나요.

면담자 : 선생님 댁이 외딴집이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던 곳은 어디쯤이었어요?

구술자 : 거기가 천주교 있는 쪽이 가장 시장통이고, 거기가 가장 번화가였고요. 저희 집은 용인초등학교와 용인중학교 사이에 있었던 집이다 보니까 다 주변은 논, 밭이었어요.

면담자 : 선생님 집에서는 수여선 다니는 철로가 다 보였을 거 같아요. 수여선이 1930년부터 1972년까지 다녔다고 하는데 선생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네요?

구술자 : 네. 있었어요. 그 때 기차는 머리가 이렇게 있고 연기를 확~ 내면서 앞에 기관실이 연기를 내면서 가요. 용인(역)에 오면 용인(역)에서 한참을 머물러요. 용인(역)에서 석탄을 넣고 때는 건가 봐. 거기서 어정을 넘어가려면 언덕이었어요. 그러면 기차가 느리게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얘들이 거기서 다 뛰어 내린데요. 거기서 얘들이. 기차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기차가 갈려고 하면 다시 타고. 그 만큼 기차가 힘을 못 쓰는 거였지. 그런 기차를 보다가 이제 전동차가 되었어요. 칸이 다섯 칸인가 여섯 칸이 되는 전동차가 갔어. 그 때는 좀 빨리도 가고 좀 이쁘고. 지금 경전철 같은 게 6칸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머리 그런 게 없어. 지금 지하철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런 게 빨리 달리니까. 처음에는 화물칸이 있었는데 그 때는 화물칸이 없이 달리고. 지금 경전철은 한 칸이더라고? 그때만 해도 한 칸이 아니라 (수여선은) 여섯 칸이었으니까.

당시 용인초등학교 옆 길

면담자 : 선생님께서는 수여선을 제일 처음 타 본 기억은 언제세요?

구술자 : 아마 중 ·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탈 일이 없고. 기차타고 여주 신륵사로 여행을 갔었고 친구들이 신갈에 사는 얘들도 있고 양지에 사는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이 자기 집에 놀러오라고 하면 기차타고 놀러 갔고요.

면담자 : 지금으로 따지면 역세권에 사셨던 거네요. 시외버스터미널도 있었고 수여선 역도 있었고요.

구술자 : 그렇죠. 걸어 다니는 일은 없었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교통이 좋았죠. 문화혜택을 많이 받았죠.

면담자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디로 다니셨어요?

구술자 : 용인국민학교, 용인중고등학교에 다녔어요.

부모님의 권유로 걷게 된 교사의 길

면담자 : 대학 과정은요?

구술자 : 대학은 서울 동국대학을 갔어요. 그 때 언니들이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은 큰 언니네, 1년은 둘째 언니네, 3학년 4학년 때는 오빠네서 다녔어요. 다 결혼했었으니까요. 그 때만 해도 아버지가 (나를) 자취는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네, 오빠네 그렇게 있으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면담자 : 동창들 중 대학 진학한 여학생들이 많이 있었나요?

구술자 : 당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2~3명 정도? 64년도에. 53년에 6 · 25가 끝났잖아요? 내 생각에 64년이면 (전쟁 끝나고) 몇 년 안 지난 건데 대단한 거지요. 전쟁 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의식도 크고 여건이 된다는 게 대단하죠.

면담자 : 동국대에서 전공은 무얼 하셨나요?

구술자 : 사학과. 아버지가 계속 중학교 선생이든 고등학교 선생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는 과목을 하라고 그래서 특별한 뜻은 없었고 그냥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만 했고요. '내가 이걸로 꼭 밥을 벌어 먹고 산다!' 그런 생각은 안 했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꼭 대학을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동국대학교 졸업식에서 부모님과 함께

면담자 : 아버님은 대학 진학 때부터 딸이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네요?

구술자 : 교사를 하는 거를 엄청 (원하셨어요). 시집을 가도 교사는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해 보면, 막내딸이다 보니까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당시 여성들은 회사 같은 데는 다 결혼하면 그만둬야

했고, 선생들도 결혼하면 그만두는 선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 결혼을 해도 공무원은 자기가 원할 때까지 있을 순 있으니까... 그거는 공무원이나 선생님밖에 없다. 그거였죠. 그래서 나는 지금 항상 아버지 산소에 가면 감사하다고 해요. 아버지 안목이 먼 훗날을 보셔가지고 (내가) 교장까지 갈 수 있었고...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연금을 받고... 늘 부모님한테 감사한 거죠.

면담자 : 교대를 나오신 거는 아니셨는데... 교직이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술자 : 1968년 그 때 인천교대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우리 언니가 선생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정보를 알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 때 나는 서울에 있을 때였고. 시험을 봤던 건 아니고. 이수는 한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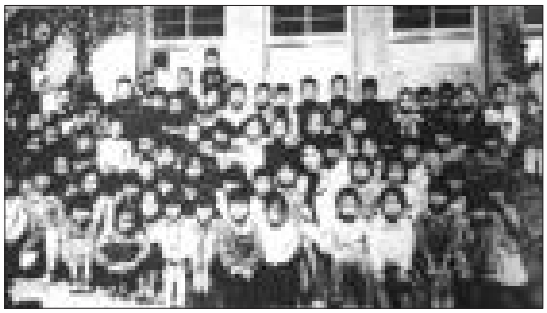
면담자 : 얼마동안 교육 받으셨어요?
구술자 : 개월 수는 잘 모르겠는데... 3개월이었나? 5~6개월이었나? 생각이 안 나는데. 5~6개월쯤 되겠지요? 재밌게도 다녔어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기차타고 통학하면서.

용인에서의 교직 생활

면담자 : 초임지로 발령받은 곳은 어느 학교였나요?
구술자 : 용인초등학교. 그냥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한 거지요. 우리 집이 학교 바로 옆이잖아요. 출근하는 맛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출근하는 거 같은 신갈로 가고 싶다 했었는데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교육청에서 발령을 냈던 거 같아요.

면담자 : 선생님께서 희망한 학교랑 다르게요?
구술자 : 그 때 희망을 안 받았던 거 같아요. 그냥 어느 군만 받았지. 어째든 이 학교만 아니었으면 좋겠다했는데 집 가까이로 발령받았어요.

면담자 : 교사로 첫발을 내딛는 것이었기 때문에 설레었을 것 같은데요?
구술자 : 내가 교직에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낀 상태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니까 생각이 이젠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너무 예쁜거예요. 진



발령 후 담임 맡은 2학년 친구들

용인초등학교 국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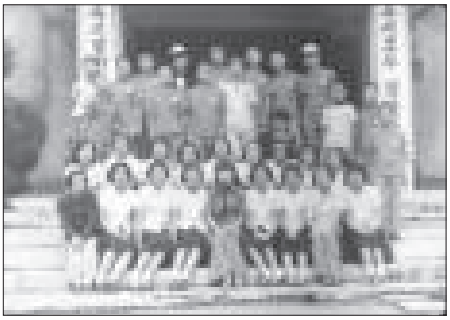
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고. 동생이 없어서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예쁜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직에 이젠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몰랐던 아이가 하나 깨우치니까 보람을 느끼고 또 아이들이 감사해 하고 부모들이 감사해 하고. 그런 인간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용인초등학교에 부임해서 첫 해 4학년을 3개월을 맡았고 그 다음해는 2학년을 맡았고 그 다음해는 6학년을 맡았고. 그 제자들이 6학년이 됐을 때는 나를 따라 온 거예요. 내가 계속 6학년을 맡았으니까요. 그 때는 반을 안 바꿨어요.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 때 가르쳤던 제자들은 작년에 환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자들 환갑잔치를 다 해줬어요.

면담자 : 당시 용인초등학교는 전교생이 많았나요?

구술자 : 전교생이 한 학년에 6반까지 있었으니까요. 6반까지 60명씩에서 70명씩 있었으니까... 한 학년에 한 400몇 명씩 되었으니까 (많았죠). 그 때는 용인(면)에 용인초등학교랑 운학초등학교 2개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멀리서도 학생들이 이 학교로 와야 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았지요. 멀어도 다 걸어 다녔는데. 그리고 그 때는 학력경시라는 게 있었어요. 학력경시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각 군 교육청에다 시험문제를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수능처럼. 똑같이 나눠주면 이제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학교대항을 시켜요. 평균 몇 점 어느 학교, 평균 몇 점 어느 학교 이렇게. 68년도나 69년도에. 그 때 왜 그랬냐면? 중

학교 입학시험이 없어졌어요[3]. '없어지면 공부를 안 할 것이다!' 생각하고 도교육청에서 방안을 낸 거였죠. 그러다보니까 공부를 몇 시까지 했냐면? 어두울 때까지 막 했어요. 반반이 모두 다. 나머지 공부가 아니라 전체를 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보면 어떨 땐 학생들을 집에 보내놓고 어두워지면 애들이 산길을 넘어가는 애들이 많은데... (집에 잘 갔을까 싶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나요. 그 때는 전화도 없었으니까 뭔 일이 없나 싶어서요. 그 때는 공부를 열심히들 했어요. 중학교 입학시험이 없어지면서.

제자들과의 추억



중학교 진학 후 교복입고 찾아온 제자들을 맞이하며 용인초등학교 교정에서

3) 중학교 입시제도 폐지: 문교부는 1968년 7월 15일에 중학군의 설치와 추첨을 골자로 196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무시험 진학제도를 발표하였다. 중학교 입시폐지에 따른 실시절차는 ㉠ 1969년도는 서울특별시만 실시하고 ㉡ 1970년도는 부산 · 대구 · 광주 · 인천 · 전주 · 대전의 6개 도시에 적용하며 ㉢ 1971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해서 서울은 모든 중학교를 4개 군으로 나누며 지방은 시 · 군을 단위로 지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추첨방식은 1969학년도에는 은행 알을 이용한 추첨배정이었으나 1970학년도부터는 우리나라 교육사상 최초로 등장한 전자계산기(IBM 1401)를 이용하여 추첨번호를 배정하였다. 그리고 1971년도에 전국적인 무시험진학제도 실시 이후, 추첨방식은 컴퓨터에 의한 무선추첨으로 해당 학군 내에 있는 학교번호를 배정하였다. 중학교 무시험진학제 이후 초등학교 아동들의 신체적인 성장이 향상되었으며,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의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학부모 및 학생의 과중한 입시준비를 위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켰고 중 · 고 재수생 문제가 해소되었다. 또한 이 제도 이후 중학교 진학율이 급증되는 등의 변화를 낳게 되었다.(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면담자 : 그렇게까지 공부 시키다보면 제자들하고 더 끈끈해졌겠어요?

구술자 : 그래서 그 때 제자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나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선생님을 못 잊어 하는 게 공부시간 이후에도 열심히 한 거를 제자들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들한테 최고로 열심히 해 주는 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단도 많이 맞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내가 교장 되었을 때도 나를 축하해 주고. 그 제자들은 중학교를 가서도 선생님을 찾아와요. 이렇게 맨날 선생님 찾아오는 게 그 제자들의 낙이야. 그렇게 단체로 왔어요. 어느 학교를 가도 쫓아 와요. 내가 교직에 있어서 보람 있는 거는 연금이 아니에요. 내가 마성초등학교에 교장 발령 났을 때도 다 찾아와 주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용인(초등학교)에서만 한 400몇 명이 될 거예요. 6학년만. 용인하고 포곡에서. 수시로 찾아와요. 칠판에도 '오늘 몇 시에 심문자 선생님한테 간다!' 이렇게 써 놓고 그랬데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이 '도대체 심문자 선생님이 누군데 이렇게 맨날 칠판에 이름이 쓰여 있나'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두고 보면 제자들이 가장 고마워요 인생에서. 스승의 날이 되면 지금도 우리 집엔 꽃다발이 엄청 많아요. 제자들이 감사패도 만들어줬어. 그 제자들이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만들어 준거예요.

면담자 : 감사패를 보면 53회 졸업생 6학년 5반. 76년 8월에 감사패를 만들었네요? 당시 고등학생 때였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만들어 준 감사패

구술자 : 그러니까요. 트로피를 만들었다니까요. 대단했던 거 같아요. 돈 모아가지고 감사패를 만들 생각을 다 하고.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재산처럼 우리 제자들이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요즘에는 선생님의 존재가치가 다르잖아요? 저는 요즘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옛날에 운이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난 제자들만 생각하면 난 부자예요. 제자들은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TV프로그램에서 (선생님을) 왜 못 찾느냐고?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선생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못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면담자 : 초임 교사 시절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가요?

구술자 : 용인초등학교 제자들이 나를 이렇게 따르는 이유가 (우리 반이) 매번 일등만 했어요. 공부를. 근데 나를 좋아했던 이유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이야기를 너무 잘 해 줬던 거예요. 내가. 얘들이 막 통곡을 하고 울 정도로 그리고 웃을 때는 막 자빠지게 웃을 정도로. 옛날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 줬어요. 제자들이 지금도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6학년이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금강산 찾아보자~'이런 거 (노래) 말고 '저별은 나의 별~' 이런 건전가요 있잖아요? 이런 것도 흔히 가르쳐주고요. 지금도 동창회 때 모이면 "야, 우리 6학년 때 불렀던 노래 부르자!" 그래요. 그런 노래 부르면 가슴이 막 저기(뭉클) 할 정도로. 또 체육시간 같을 때도 개천에 가서 수영하고 물고기 잡고 그렇게 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대로 안 했던 거 같아요. 그 땐 (개천에) 물고기도 많고 물이 깨끗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체육시간에 수영하러 가는데 무수막에 유방리 쪽으로 가면은 거기 개울이 좀 깊었어요. 아이들이 거기로 가자고하면 거기로 가요. 그런데 교실에 딱 들어왔는데 한명이 없는 거예요. "어머! 얘 빠져 죽었나봐!" 아무도 못 봤데. (그런데) 거기서 이 아이의 집이 가까우니까 학교로 안 오고 바로 집으로 가 버린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는) 공부만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줬던 거 같아요. 선생님이 반듯한 교과서 같은 선생님이 아니고 쪼금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도 제자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친 거라고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해요.

면담자 : 당시 학교의 모습과 요즘 학교의 모습은 무엇이 다를까요?

구술자 : (지금하고는) 입학생 같은 것도 다르고. 옛날에는 앞에 수건을 달고 이름표 달고. 얘들이 코를 많이 흘려서 꼭 달았어요. 또 끝나고 선생님들이 호루라기로 불며 삑삑 하면서 셋, 넷 하면서 따라오고 했는데 지금은 입학식이라고 그런 게 없잖아요. 학교 종도 옛날에 '땡! 땡!' 이렇게 치는 거였잖아요? 요즘은 아니지. 땡! 땡! 치는 종은 용인, 포곡까지는 있었던 거 같은데 수원에 있는 학교로 와서는 방송실에서 틀어 주는 음악이었던 거 같아요. 거긴 너무 큰 학교라 '땡! 땡!' 소리는 들리지가 않아. 수원에서 용인으로 다시 왔을 때는 이미 그런 정서가 아니었고요.

면담자 : 또 생각나는 건 없으세요?

구술자 : 그리고 당시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도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5.16혁명이 일어난 후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종이(공책의 앞

난롯불을 지피며 공부하던 교실 풍경

뒤 겉면) 위에까지 다 쓰고. 처음에는 연필로 앞 페이지, 뒤 페이지까지 다 쓰고. 처음에는 연필로 썼다가 색연필로 썼다가 뭐 그렇게 종이도 아끼면서 살았지요. 그것도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종이 한 장도 아끼는 거지. 우리나라가 가난해서요. 새마을운동의 일환이었어요. 그 때 새마을운동을 학생들이 전부 하면서 여름방학 숙제가 퇴비 만들어 오기 하고. 그걸 쌓아서 놓고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서 (인분을) 퍼 다가 그걸 부어요. 운동장에서가 아니라 그 옆에 '실습지'라는 데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걸 해다가 밭에다 봄에 뿌리고 가지도 심고 호박도 심고 그랬던 거였지요. 그렇게 자랐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커서 50대, 60대가 되 버렸잖아요? 그 때 시절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우리 제자들한테 "그 때 너희들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잘 산다고 해서 그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도시락 보리밥 싸오기 운동(혼식하기 운동)하고. 그나마도 못 가져오는 아이들이 더 많았고요. 갖고 온 애들도 꼭 검사해서 먹고요. 그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예요. 그리고 체육시간이면 뒷산에 솔방울 주우러 가는 거예요. 솔방울이 다 땔감이었거든요. 그러면 교실 교사자리 밑에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 쏟아놔 인제. 그러면 아침에 당번이 와서 거기서 솔방울을 꺼내다가 난로를 피우지. 가루연탄이 저쪽(운동장 끝)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 당번이 그걸 퍼 다가 물에다 개요. 그래가지고 솔방울하고 나무 같은 거를 때서 불이 올라오면 그걸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구멍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구멍을 뚫어요. 연탄처럼. 그러면 당번이 되면 일찍 와야 되는데 새까맣게 묻고 그거 하느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퍼다 놓으면 애들이 오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조개탄 이런 거는 조금 후에 나왔고요. 그것도 6학년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1~2학년 같은 경우는 바로 (집에)갔고요. 그렇게 새마을운동 했던 것이 산역사잖아요.

면담자 : 새마을운동 할 때 마을청소도 했잖아요?

구술자 : 그럼. 새벽에 나와서 마을마다 청소를 했어요.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동네로 나가요. 학생들이 참석했는지 조사하러 새벽에. 출석도 불렀어요.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새마을운동 했던 기억도 많이 남고요. 또 하나는 그 때는 국경일이라고 하면 집집마다 태극기 달라고 했어요. 조사까지 했고요. '태극기 단 사람 손들어!' 해서 보고까지 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 때는 안 단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태극기 그리기 대회도 했어요. 대충이 아니고 자로 재서 컴퍼스로 대고. 일등 주는 거 상장도 주고. 그런데 지금은 그리라고 하면 아무렇게나 그리지만. 그리고 그 때는 색칠도 예쁘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면담자 : 교육과정 중에 있었던 건가요?

구술자 : 교육과정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 넣어주는 거야. 국가적인 흐름이었다고 봐야겠지요? 반공에 대한 웅변도 많이 하고 포스터 그리기도 많이 하고. 새마을운동 중에 애국가 4절까지 외우고 부르기. 바른 글씨 쓰기 대회가 있었고. 교과서처럼 쓰는 거지요. 요즘 얘들은 (글씨가) 날아가지. 요즘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글씨 못 쓰잖아요? 그 때는 교과서처럼 글씨 쓰는 대회도 했었고.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새벽 청소했던 거, 보리밥 싸는 거 조사하는 거. 그거는 교육청에서도 조사가 나오고. 갑자기 나와서 얘들 밥 먹는데 조사하고. 그 전에 하여간 그랬었어요. 그때 국가사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어요. 돈이 많아도 함부로 못 써. 지금도요. 그 때를 생각하면 돈을 함부로 못 쓰는 거지. 노인들이 돈이 있어도 못 쓴다고 하잖아요.

면담자 :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제자들이 있으시죠?

구술자 : 그런데 제자들이 다 용인에 살고 있어요.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퇴임식 때 내가 전부 이야기를 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 선생님이 누구를 일등으로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게 된 거고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이 된 거. 선생님이 된 거는 제자들한테 내가 빚만 지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항상 빚을 지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떤 때는 막 미안해. 내가 해 준거는 없는 거 같은데 제자들한테 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 같아서요. 이 제자들한테 받은 고마움을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늘 있어요. 우리 제자들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 너무 행복하고. 주변 분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 때 52회. 53회, 54회, 55회, 56회 용인국민학교 다 6학년 졸업생이야. 그렇게하고 또 포곡에서 41회, 42회 가르쳤고요.

면담자 : 용인초등학교에서 6년간 근무하시고 포곡초등학교에서 2년 근무하셨던 거네요?
구술자 : 네. 그리고 포곡에 그 당시 에버랜드(용인자연농원) 없었어요. 내가 75년도, 76년도를 포곡에 근무했는데 에버랜드가 없었을 때, 그 때 터 닦을 때였어요. 76년도에는 어느 정도는 틀이 조금 잡혔고요.

면담자 : 터 닦으면서 동네가 많이 변했겠어요? 아이들은 어땠나요? 용인초등학교와 포곡초등학교는 생활권이 달랐으니까요.
구술자 : 네. 생활권이 달라도 항상 학교 대항을 하면 용인초등학교하고 포곡초등학교가 1위, 2위를 했어요. 운동은 용인하고 포곡이 경쟁하고, 학력경시는 용인하고 신갈하고 경쟁했다고 봐요. 용인, 포곡, 신갈. 요 3개 학교인데 포곡이 공부도 그렇게 좀 잘했고 운동도 잘 했고. 또 거기(포곡)있는 제자들이 의리들이 대단한 거 같아요.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 제자들은 꼭 자식들처럼 저희들끼리 모여 놓고 “선생님, 우리 모였는데 나오실래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요. 밤 11시에도. 내가 가면 “봐라, 선생님 오신다고 했지?” 그러고. 나는 제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스타일이예요.

면담자 : 당시 포곡에 자연농원(현 에버랜드)이 들어왔잖아요. 엄청난 세상이었을 텐데요?
구술자 : 자연농원 개장을 할 때 포곡초등학교 학생들은 무료로 들어오라고 해서 갔었는데 “이거 바닥에 만 원짜리 한 장씩 깐 거다!”라고 말 할 정도로 그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거다 이랬지. 다 산이었는데 산을 다 깎아서 만든 거니까. 정식 개장 전에 학교에 와서 무조건 다 들어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회전관람차, 동물들 이런 거. 이병철씨가 그 때 살아계셨거든요. 까만 차가 오면 앞뒤로 수행하는 차들이 쭉 오잖아요? 그 차가 까매서 볼 수가 없지만 하튼 그 때 이병철씨가 탄 차가 지나가는 것만 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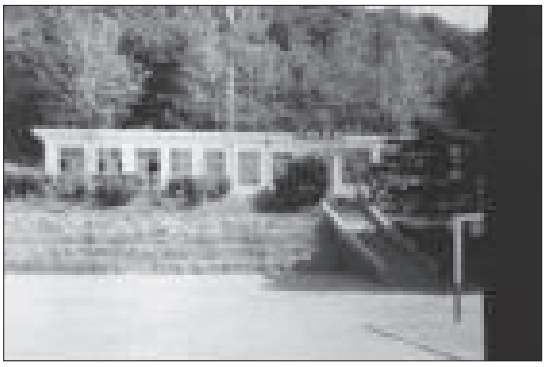
교장이 되기까지

면담자 : 교장이 되려면 어떠한 과정이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술자 :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연구를 해야 돼요. 아이들과 우리가 이렇게 가

르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 보니까 달라졌다 그런 결과들. 그건 자기가 택하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선생들이 도시에서만 있으려고 하잖아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시골에 발령 나면 예전엔 막 울고 그랬었는데 그런 학교를 가서 근무를 하면 농어촌점수를 줘요. 시 같은 곳은 아무것도 없고. 오지 같은 데를 간다든지 아니면 섬에 가서 있다든지. 그런 곳에 가서 있으면 점수를 많이 주고. 나는 승진을 위해서 섬으로 지망했었어요.

면담자 : 어느 섬으로 가셨던 거예요?

구술자 : 대청초등학교라고 옹진군에 있는 학교예요. 그 당시 경기도교육청 소속이었어요. 지금은 인천교육청 소속이 돼 버렸지만요. 거기를 갈려면 하늘의 별을 따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이 교장이 되려고 하면 여기서는 10년 걸리는 점수가 그런 곳에서 3~5년 정도 근무해야 따는 점수라 치열했었어요. 대청초등학교는 (인천에서도) 배 타고 열 시간을 가야 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평이(근무평가가) 각 학교에서 일등이 되어야 하는 거였고 그것도 각 학교마다 일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백여 명이 (지원서를) 냈다는데 그 중 여섯 명이 됐어요. 근데 제가 됐어요. (대청초등학교에서) 3년을 근무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지금도 그 제자들이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제자 복이 있나 봐요. 완전 섬마을 선생님이었지.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 들어갔잖아요? 남편이랑 나랑 우리 애랑 다 들어갔으니까요. 사람들은 거기에 병원이 없었으니까 (애기를 데리고) 들어올 생각도 못했었는데 나 이후로는 하나 둘씩 들어와요. 사모님들이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고... 또 거기서 근무하면서 밴드부를 조직을 했어요. 애들이 밴드해서 드럼치고 장구치고 불면서 면 행사에 베레모 쓰고 행사하고 좋았어요. 재미있었고.



대청초등학교 전경

면담자 : 그 전에 연구 활동하셨던 게 있으셨어요?

구술자 : 그럼요. 연구 활동도 계속 했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표창도 승진하는데 1점을 줘요.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으면 한 달에 3만원씩 또 월급이 더 나와요. 그리고 승진하는데도 1점이 더 높고. 그런데 이 모범 공무원 표창을 일 년에 전 경기도에서 여섯 명밖에 안 줘요. 초등에서 여섯 분을 주고. 그러니까 승진에 관계되는 점수니까 얼마나 다 따고 싶었겠어요. 공적서가 이 만큼이에요. 실사도 나오고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 동안에 제자들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그 동안 교사 때 애썼다는 거를 공적서에 이 만큼 써서 냈는데 (모범공무원 표창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근평'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 한대로 농어촌 점수도 있어야 되고 연구도 있어야 되고 표창도 있어야 되고. 근데 선생님들마다 방학 때 연수를 해요. 연수 성적이 또 있어야하는데 그것도 100점을 받았어요. 또 승진하기 위해서는 근평을 세 번 연거푸서 받아야 하는데 한 번은 받고 그 다음 받을 때는 또 학교를 옮겨야 하는데 저쪽 학교에 가보면 이미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기다려야 되고. 근데 또 받을 때쯤 되면 또 옮기고. 이래가지고 근평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진을 포기하려고도 생각했었어요. 그냥 교사로 남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 남편이 "나이 들면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 얘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학부형들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그 자리(교장)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좋지 여기까지 고생하고 와서 왜 포기를 하느냐!" 그러는 거야. "남자들도 거기까지 오려면 다 고생하고 사연도 엄청 많아.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 다 견디고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와서 포기를 하냐!" 해서 또 견디고 또 견디고 했지요.

면담자 : 연구는 어떤 연구를 하신거예요?

구술자 : 주로 예능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체육 분야 했고 미술 분야 했고 음악 분야 했고 과학도 했고. 연구하는 일정기간 동안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발전했는지 그것을 전과 후를 비교해서. 수원 정자초등학교에서 내가 밴드합주부를 창단했어요. 애국조회를 월요일마다 (하는데) 밴드합주부가 단복을 입고 계단에 서서 애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 교가 이런 거를 다 연주했어요. 학교에 손님오시는 행사 때나 운동회 때 퍼레이드 다 하고. 돌리는 거 있잖아요? 앞에서 지휘하는 거. 에버랜드랑 서울랜드를 내가 쫓아다니면서 지휘하는 사람에게 배워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서 알선을 해 준 거죠. 초등학교에서는 이게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 만족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등등 다 해 가지고 모범

공무원 표창이 나온 거예요.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한 명 추천받는데 제가 된 거예요. 그 때 내가 음악에 소질이 있다는 거를 알아서 퇴임 후에도 음악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여성 초대 교장으로 발령받은 마성초등학교

면담자 : 교장으로 첫 부임하셨던 마성초등학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학교인데 애로사항은 없으셨어요?

구술자 : 마성초등학교는 아파트단지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가 36학급으로 짓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삼성래미안(아파트)인데 30평대가 없어요. 60평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할머니들 하고 사는 경우는 좀 있지만요. 완전히 도시지, 거기 얘들은요. 다 서울에서 온 아이들이고 농어촌이 아니라. 근데 그 옆에 구성초등학교는 옛날부터 전통 있었던 학교였어요. 이쪽에 또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 사람들은 구성초등학교로 많이 갔어요(보냈어요).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성초등학교는 농어촌(학교)하고는 아니고 도시화된 학교예요.

초대 교장으로 재임했던 마성초등학교 체육대회 장면

면담자 : 교장 발령받은 후 첫 학교가 마성초등학교인데 초대 여자 교장선생님으로써 책임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 때 상황이나 각오는 어떠셨어요?

구술자 : 학교를 완전히 그리는 거죠. 뼈대만 남겨놓고 완전히 나머지는 내가 그려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선생님들을 승진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연구학교'

라는 게 있어요. 연구를 3년을 하면은 그 근무한 선생님들한테 점수를 주는 게 있어요. 아까 승진에.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모범적인 선생님들이 왔죠. 그리고 우선 학교를 아름답게 해야 돼요. 여자 (교장선생님) 학교니까 아름답게요. 교육청에서 심어준 나무는 기본 틀만 심어주고 그 예쁜 나무들은 내가 다 심었어요. 어학실도 진짜 초현대식으로 정말 멋있게 꾸며 놨어요. 도서실도 카페처럼 누구나 와서 편히 쉬면서 공부하는 방처럼 해 놨고요. 커튼도 그 때 각자 요만한 헝겊을 다 (학생들에게) 나눠줬어요. 광목을. 전교생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해서 내면 커튼 집에 맡겨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커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작품이었죠. 자기네 반 커튼을 쫙 내리면 자기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큰 의미도 있고. 한 가지 색깔로 뚜르르 한 게 아니고 진짜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커튼이었어요. 또 전교생들이 수준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악보를 나눠주고 "다음 주 조회시간에 전교생이 두들기고 하자!" 그러면서. 아무 악기나 탬버린을 하던 아코디언을 하던 각자 자기가 좋은 걸로 해서 전교생이 조회시간에 같이 연주도 했어요. 또 전교생한테 야생화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전교생이 야생화 단지를 꾸미는 거예요. 전시를 하면 너무 예뻤어요. 야생화가. 또 어떤 학부모는 교장선생님 꽃 좋아한다고 전교생 아이들 숫자만큼 다육식물을 보내주면서 교장실에 두고 아이들 물 주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학교를 예쁘게 꾸며놨다고 할까? 미적인 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우 책임감도 무거웠죠. 일단 아이들 사고가 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또 화재가 나도 안 되고 안전사고나 화재 이런 게 제일 걱정이지요. 나는 어디를 가나 참, 자동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려고 하면 각 교실에서 내려다보고 "교장 선생님!~" 이러고 그 때도 얘들이 난리였어요. 내 별명이 '교주'였어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좋아했고. 나중에 졸업해서도 "교장선생님, 저 어느 대학 갔어요." 그러고 연락 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면담자 : 학부모님들의 협조는 어땠어요?

구술자 : 학부모들하고도 절친했고요. 그 학교에서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교실'을 만들었어요. 그 때가 2003년, 2004년이었어요. 아버지들이 다 직장에 다니시니까 저녁 한 6시쯤 교장실에서 만나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개 엄마들만 학교에 오고 아버지들은 안 오잖아요? 또 운동회 같은 때는 남자 선생님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텐트도 치고 뭐 내 놓고 뭐 상품 포장해야하고. 선생님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아빠들이 공책에다 '상'자 도장 다 찍고 몇

개씩 묶어서 다 내어 놓고 아침 일찍 와서 다 해 주셨어요. 아빠들이 신나는 거죠. 학교에 행사 때 끝나고 나면 아빠들은 또 텐트 걷어주시라고 하면 걷어주시고. 남자 선생님들이 할 일을 아빠들이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그러더니 아버지학교를 만들어서 '아빠 축구단'을 만들었어요. 1.3.5학년하고 2.4.6학년하고 이렇게 학년별로 만들어가지고 청팀, 백팀 축구도 하고. 토요일에 체육대회를 하고 그랬는데 엄마들이 옆에서 빈대떡도 부치고 김밥도 싸고 라면도 끓이고 하면서 아빠들 먹이고 그러면서 응원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학교가 축제 같은 학교로 변했어요. 마성에서는 걸 스카우트도 보이 스카우트도 학교에서 야영을 했어요. 밤새도록 야영을 하잖아요. 그게 여기는 됐어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요. 마성학교에서는. 나곡(초등학교)은 학급이 60 몇 학급이니까 크잖아요? 그렇게는 이젠 못하고. 아버지교실에서 축구교실만 했었어요. 그렇게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고충

면담자 : 선생님께서는 교직에서 총 몇 년 근무하셨나요? 근무하실 때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 40년 있었는데 두 번 바뀌었나... 6 · 25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정말 글이나 알고 덧셈, 뺄셈 알고 하튼 지식적인 거를 하고 암기 같은 것이 기초적인 교육과정이었다면 그 다음으로 바뀌는 거는 옛날에는 국어 그러면 국어책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국어가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말하기 시간에 연극도 하고 자기가 엄마도 되어보고 친구들도 되어보면서 직접 활동을 해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선생님이 혼자 가르치면 학생들이 듣고 그대로 따라서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동기를 부여해주면 학생들이 직접 해 보는 거예요. 연극도 해 보고 무슨 실험도 해 보고. 주로 지식 위주가 아니라 너의 생각은 어떠냐? 너라면 어떻게 했겠냐? 이런 걸로 바뀐 거예요.

면담자 : 그 시점이 언제쯤이었나요? 창의적인 교육과정으로 바뀐 것이요.

구술자 : 88올림픽 즈음해서요. 왜 내가 그 기억이 나냐면? 옛날에는 책이 자연책이예요.

그 자연책이 한 권이야. 그런데 자연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관찰기록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권씩 나와요. 그런데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어떤 나이들은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오후에 모였거든요. 관찰기록이라는 책이야. 근데 맨날 자연책만 배웠거든? 이거는(관찰기록) 얘들이 관찰해서 써 보는 책인데 이 책은 건드리지도 않은 거야. 그 선생님이. 6개월 동안을. 그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잘 이해 못하셨던 거지. 그래가지고 인제 그 얘들이 1학년인데. "선생님, 이 책은 언제 배워요?" 하고 물은 거야. 1학기가 끝나 가는데, "선생님 이 책은 언제 배우나요?" 그렇게 물은 거지. (웃음)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이 책은 하얗게 그냥 뒀네! 어떻게!" 거기에 아이들이 그 책에 다 써야 하는 거야. 관찰해서 써야하는데. 개구리하면 그 밑에다 개구리를 그리고 그 밑에다 아이들이 써야하는데. 개구리를 보니까 다리가 4개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뒷다리가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도 안 쓴 거야. 그게 일학년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선생님, 이 책은 언제 배우나요?" 하고 물었으니 (배꼽잡고 웃음).

면담자 :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뀐 것은 언제였나요?

구술자 : 1995년도쯤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명칭이 초등학교가 우리 한국말이고 국민학교는 일본 사람들이 썼던 그 말이다 이거지요. 일본식 명칭이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교육내용이 바뀌었던 건 아니고 명칭이. 그거는 또 몇 년도를 기억하냐면? 내가 교무부장이었을 때 일 년 치 상장을 다 주문해서 왔는데, 전부 다 찢어버리라고 하는데 그 종이가 너무 아까운거예요. 새 종이니까. 버리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 뒤에 이름이 그대로 있지만. 종이가 또 얼마나 좋아요? 교장선생님 오시면 그거 먼저 일 년 동안 쓸 거 상장 먼저 박아 놓거든요.

면담자 : 그래서 연도를 기억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교육과정이 또 바뀐 것은 언제예요?

구술자 : 내 생각을 표현해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상을 뛰어 넘는 거지. 논술적으로 자기주장을 하고, 없는 것을 가상해서 해 보는 그런 교육과정으로요. 컴퓨터가 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왔지요.

면담자 : 그 과도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구술자 : 그(컴퓨터) 교육을 받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윈도우

(Windows)처럼 (키보드를) 딱 누르면 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다 인풋(Input), 아웃풋(Output) 이런 식을 집어넣고서 딱 하면은 또 안 뜨는 거예요. 안 뜨면 알파벳 하나를 대문자로 써야 할 걸 소문자로 썼다든지,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작성을 했어도 딱 누르면 떠야하는데 안 뜨는 거예요. 학교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 때부터 정보화가 되는 거였어요. 이제 정보화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때 컴퓨터를 먼저 배운 남자선생님이 "앞으로는 이게 내가 편지를 쓰면 미국에서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랬어요. 우리들이 "에이! 말도 안 돼!" 했는데 "이런 것은 게임도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도 우리들은 컴퓨터 배우면서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컴퓨터 딱 누르면 미국으로 날아가? 말도 안 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는 우리 선생님들도 컴퓨터를 방학 때만 되면 선생님들 매일 교육받는 거였어요. 겨우 배워서 이제 치려고 하니까 윈도우(Windows)가 딱 나오면서 그냥 치면 새 글쓰기하고 복사하고 지우기하고 뭐 이런 거. 그냥 나와 버리는 거야. 내가 교무부장을 하는데 다 그 컴퓨터를 해야 했어요. 그 때는 젊은 선생님한테 쫓아다니며 부탁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면담자 : 컴퓨터 교육은 언제부터였나요?

구술자 : 1990년대 전에. 컴퓨터 시작하고 교육받고 그랬던 때가 88년, 89년 그 정도였어요. 그 때가 초창기였지. 내가 교무부장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무부장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거는 없는 거였는데 말예요.

면담자 : 그 때 교사들도 그만두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구술자 : 많았지요. 이 나이에 이거 컴퓨터까지는 못하겠다 싶어 그만 둔 사람도요. 그래도 그걸 내가 치는 거라면 누구라도 시켜서 (도움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젠 나중에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이들 컴퓨터는 컴퓨터 교육실이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는 전부 다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야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잖아요. 하튼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그 때 명예퇴직하신 선생들도 많으셨어요.

면담자 :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격변하던 그 시기를 몸소 겪으셨으니 학생들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네요?

구술자 : 교사로서도 어려웠던 시기를 다 겪었던 거지. 그거를 다 리드해야 했으니까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교육을 엄청 받아요. 방학 때 마다 선생님들이 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방학 때 선생님들이 쉰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연수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바뀌니까. 얘들한테 바뀐 것을 가르쳐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뒤떨어지는 선생님은 얘들이 금방 알아요. 우리 선생님하고 저반 선생님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꾀를 부리면 안 되는 거지요. 자기계발을 부단히 하고.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방학 있고 놀면서 일하는데 왜 월급을 많이 줘? 그러는데 방학 때 논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때 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들이 엄해 가지고 방학 때 전부 근무하게 했어요. 이렇게 두 조로 나눠가지고. 지금은 여러 개로 나눠서 (근무)하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인권을 많이 찾잖아요? 근데 그 때는 교장선생님 말이 법이야. 교장선생님이 그러라고 하면 그러는 거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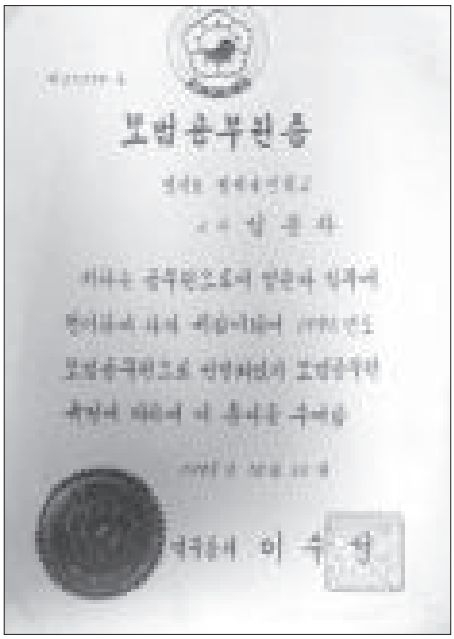
주임 과정을 거쳐 교감으로

면담자 : 어떤 교장선생님이셨는데요?

구술자 : 그 교장선생님은 법대로 하는 사람이셨어요. 근데 내가 발령을 받아서 그 학교를 갔는데 그 교장선생님도 그 학교로 발령이 나신 거예요. 동시에. 발령 받은 지 9일이 지나서 그 교장선생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셔. “심 선생님은 교장실로 오라!” 그래. 깜짝 놀라서 표정을 보니까 무서운 얼굴이야. 나는 내가 뭘 잘못 했나 해서 (갔는데). “선생님은 꼭 관리자를 해야 한다!” 하면서 “그래서 주임을 해야 한다!” 그러셔. 그 때는 주임이라고 그랬거든요. 부장을. 근데 이 교장선생님 앞에서는 내가 “못 해요!”라는 소리를 하는 순간에 “어흑!”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안 한다는 말도 못하고 교무실로 왔지. 나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 아침에 한 5분전에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내가 새로 왔는데, 그리고 여자인데 나를 주임을 시켜 논 거예요. 그래도 일단 부장이 되니까 책임감이 있어서 또 열심히 하게 되지. 그래도 그 교장선생님 때문에 부장을 하면서 나는 어느 학교를 가든 다른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인정을 받았지. 어딜 가도 성실하니까 인정을 받은 거 같아요. 그 때부터 계속 주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범 공무원 표창도 받으면서 쭉 이렇게 된 게 그 교장선생님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면담자 : 모범 공무원 표창도 받으셨어요?

구술자 : 그 교장선생님 밑에서 7년을 교감하신 분이 (내가) 수원에 있는 정자초등학교로 가니까 그 분도 그리고 오셨거든요. 그 교감선생님은 더 대단하신 분이지요. 그 대단한 교장선생님 밑에서 7년을 견딘 분이니까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그이는(옛 교장선생님) 외부적으로 강하고 이이(새로운 교장선생님)는 내부적으로 강하다는거야. 이 교장선생님은 교육과정을 판다던지 그런 거야. 나는 이렇게 센 교장선생님들은 다 만났네요. 그 때도 그 교장선생님 밑에서 교무부장을 한 거예요. 그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한테 "밴드 가르칠 선생님을 찾아와라!" 선생님들이 다 안 한다고 한 거지. "그럼 교무부장이 해!" 하신거지요. 그래서 (밴드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이 나를 최고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과급을 내가 100%를 두 번이나 받았고 유럽여행을 다녀오게 됐고 모범공무원 표창도 받고. 모범공무원은 또 월급 외에 그 때 돈으로 3만원을 다달이 더 주는 거였어요. 삼년동안. 그리고 교감선생님으로 승진하는데 승진점수로 1점을 줘요. 영점 몇 몇 점으로 떨어져서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했는데 1점을 주니까 이거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였어요.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되어 받은 표창장

면담자 : 선생님께서 교직에 계실 때와 비교하면 요즘 아이들에게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구술자 : 교감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교감이라는 게 눈과 눈이 마주쳐야지... 줌으로 해서 멀리서 선생님을 텔레비전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등교해도 만질 수도 없어요. 선생님이 쓰다듬어 줘도 안 돼. 옛날에는 남자 선생들이 아이들 등이라도 쓰다듬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남자 선생님이 등을 만졌다하면 바로 성추행으로 몰려요. 잘못했어도 야단을 안 쳐. 왜? 야단 치고 내가 욕먹을 일이 뭐 있어요? 나는 너 잘 되라고 야단쳤는데...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과 어떤 접

촉도 없고 교감도 없고. 그런 점이 없어서 좀 아쉽지 않은가 그래요. 교장선생님들도 교사를 별로 만날 일이 없고 교사가 학생들을 만날 일도 별로 없고 학부형들도 안 만나고.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변했어요.

롤 모델이 된 스승

면담자 : 교장 재임 중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구술자 : 아쉬운 점은 별로 없고. 교장이 할일이 따로 있고 교사가 할 일이 따로 있지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교장이에요. 관리자는 내가 직접 애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선생님들이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나 사기나 이런 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관리자니까요. 그게 좀 다르고. 그래서 나는 교장 때도 열심히 했어요. 마성초등학교 교장 때 연구학교를 3년을 했고 선생님들도 승진을 하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지요. 용인초등학교 출신 제자 중 작년에 환갑이었던 여자 제자가 있어요. 승진을 안 할라고 했는데 요번 8월 말에 교장으로 퇴임한 제자예요. (그 제자가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러지. 내가 "노력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포기라는 거는 하지 마라. 해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요렇게 길을 가라. 요런 거 따야 승진을 한다. 해 보는데 까지 하다가 가방 끈 짧아져서 안 되는 사람 너무 많거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해 볼 수 있는 데까지 해 봐라." 그랬지. (그 제자가) 교장을 나간 거예요. 교장실에 내가 축하하러 갔지. "아이구, 우리 제자가 교장을 했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저두요, 교장선생님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 그렇게 내 역할을 또 했지요. 난 내 제자가 (교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웠던 거야. 공부를 일등으로 잘 한 제자였는데... 근데 선생님이 된 거야. 그 제자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5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잘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나를 보면서 선생님의 그 열의에 자기도 모르게 막 공부를 해 가지고 맨날 일등을 하는 거야. 신바람이 난 거지. 그래서 자기는 선생님이 되어서 '나도 우리 제자들한테 그런 선생님이 될 꺼야!' 하면서 그게 꿈이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엔 교장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길이 엄청 어렵거든요. 학교에 (교사가) 100명이 있는데 교장은 하나고 교감은 하나 아니면 둘인데. 학교마다 선생들은

많은데 (교장이 되려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거지. 그전에는 학교가 이렇게 안 많았어요. 용인에도 나도 모르는 학교가 수 없이 생겼지만 나 때는 그냥 구성이면 구성초등학교, 기흥이면 기흥초등학교, 용인이면 용인초등학교 이런 식이었지. 그런데 선생님들이 (교장 되기가) 어려우니까 또 어렵게 왔다고 하니까 아예 꿈도 안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얘들만 가르치려고 선생 했지 내가 승진하려고 선생하려 했냐? 이런 거지요.

정년퇴임식의 심문자 선생과 퇴임식에 함께 했던 제자들

퇴임 후의 생활

면담자 : 퇴임 이후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구술자 : 나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놀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차도 있겠다, 차박? tv에서 캠핑하는 것만 나오면 그것 보면서 지금도 나는 꿈이 생겨요. 남편하고 어디를 못 가봤어요. 너무도 바쁘니까. 세계여행은 싫고 차 트렁크에다가 간단한 거 싣고 아무거나 넣고 가고 싶어요. 부르스타(휴대용 가스렌지) 넣고 라면이나 넣고 김치 한통 넣고 그냥 쭉 갔다가 3박4일 있다가 오고 (그렇게). 지금도 그 꿈이 아직도 있어요. 나는 경치 좋은데 아무데나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면서 지내고 싶어요). 거창하지 않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산 게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얘들 교육하면서 시어머니랑 30몇 년을 같이 살았고 결혼하기 전에도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았고 결혼하고는 어머니랑 같이 살았지요. 그러니까 어머니 두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는 못했지요. 그리고 지금은 봉사하느라고... 그래도 이거는 즐거워요. 그렇지만 이젠 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

는 게 뭐 없을까 생각하다보니까 이제 내가 늙었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나는 엄청 활발한 거 같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난 답답한 게 싫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듣기만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을 다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도 나한테 그러면 안 돼지 싶어서 그냥 내가 먼저 다 오픈해 버려요. 실수도 많고 약점 이런 거 다 얘기해 버리고 털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명랑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 같아요.

퇴직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봉사 하시는 선생

면담자 :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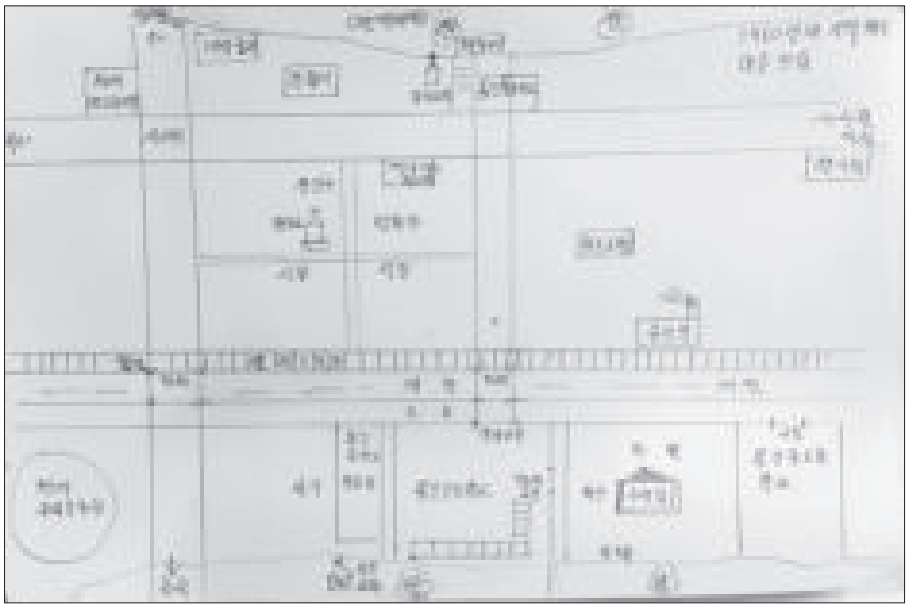
구술자 : 퇴임하면서 색소폰 배웠어요. 퇴임하고 1년 후부터 봉사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꾸 불러주니까 바쁘게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부모 연수를 좀 해 달라고 해서 학부모교육으로 자녀교육에 대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녀 교육할 줄 몰라? 다 알지요. 강의하다가 연주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즐겁지. 내가 웃음치료도 배웠고 노인심리상담도 있고 다문화교육도 땄잖아요. 어저께도 다문화교육도 하고. 내년부터는 학교로 좀 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주로 노인복지관,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고요.

면담자 : 선생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교육 공직자로서 매력에 빠지셔서 중간에 그만 둘 수 없었던 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술자 :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교장까지) 못했겠지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고. 직업으로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지겹지요. 내가 약 70년을 되돌아보니까 과거를. 참 곧게 온 거 같았는데, 정말 꼬불꼬불한 길을 잘 넘어온 거 같다는 생각이 들

더라고요. 다시 그 길로 가서 시작하라고 그러면 이제는 못할 거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다시 간다면 교직을 택할 것 같긴 해요. 난 그걸 오늘에서야 느꼈어요.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했어요. 제자들을 만나면 제자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뭐든지 그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쉽게 온 거 같지가 않아요. 당시 직장여성이라는 것이 가정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자로서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가정 살림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때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관리자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가족들의 배려랑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고요... 그러면서도 그걸 끝까지 버팅기고 왔다는 게 나는 내가 너무 대견하고 (그래요).

면담자 : 오랜 시간동안 많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께서 기억하는 1960년대 김량장의 모습

임시공무원에서 부군수까지
용인군 행정공무원의 산 증인
이범상 선생

1936년 9월	처인구 역북동 380번지 출생
1955년 2월	용인초등학교 36회 졸업
1964년 12월	용인군 공무원 임용(내무과)
1968년 12월	용인군 내무과 기획예산계장
1970년 5월	용인군 내무과 행정계장
1975년 7월	용인군 문화공보실장
1977년 9월	경기도청 기획관리실 경제통계계장
1991년 1월	용인군 부군수
1994년 3월	이천군 부군수 퇴임
1995년 6월	민선1기 용인군 군수 출마
1995년 ~	대한적십자사 용인시 대표 운영위원

개요

- 구술자 : 이범상
- 면담자 : 김지혜
- 1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 장소 : 자택 인근 카페(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 2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
  - 장소 : 전화 & 이메일
- 3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 장소 : 자택(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요약정리

이범상 선생은 오랜 기간 용인군의 발전과 함께해온 행정 공무원이다. 1936년 용인군 역북리에서 출생하여 1964년 12월 용인군 내무과 지방농업기원보를 시작으로 공무원으로의 첫발을 뗐다. 그 후 1991년 용인군 부군수가 되고, 1994 이천군 부군수로 퇴임하기까지 푸르디푸른 삶을 살았다.

28살에 공무원이 되어 손에 붕대를 감고 새벽까지 등사판을 긁으며 예산 편성과 운영계획 · 기획 관련 일들을 했으며, 한창 일할 때는 일 년 동안 군화를 두 켤레나 떨어뜨릴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새마을 운동 태동기에 그 관련 업무는 행정계 관할이었으므로 그는 새마을 전선에서 전 과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투신할 수밖에 없었다. 부락마다 진행되는 새마을 관련 업무의 행정지원과 더불어 1971년 남북 적십자회담이 개최될 때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주변 초가집 8백 동의 지붕개량, 담장 개량, 제방에 떼를 입히는 작업을 완수해야 했기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다. 그 덕분에 용인의 고속도로 주변은 다른 도시보다 먼저 개량이 완수되어 타 도시에 귀감이 되기도 했다.

1971년 용인의 얼과 발전 방향을 담은 용인군민헌장 초안을 이경환 선생과 함께 작성, 이병도 박사와 그의 가족을 포함한 일곱 박사의 감수를 받아 제정하고 제1회 용인군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했다.

1973~4년 용인자연농원(현 에버랜드)과 용인민속촌 건립 시기에는 용인군 문화공보실장을 역임하며 홍보에 힘써 그 공로로 경기도 교육감의 표창을 받았다. 또한 비가 오면 강물이 넘쳐 등교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학생들을 위해 사회 각계 인사한테 서한을 보내 성금을 모금하여 다리를 설치하고 지붕을 개량하여 상록수 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일련의 군 공무원으로의 실적을 바탕으로 1977년 경기도 지방 공무원 기획관리실 통계담당관실 경제통계 계장으로 이동하여 86아시안 게임 · 88올림픽 개최에도 일조를 했다.

그 후 용인군 부군수로 금의환향하여 공무원들의 부러움은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오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었다가, 얼마 후 오해가 풀려 이천군 부군수가 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다 1994년 정년퇴임하여 향년 86세에 이르렀다.

오늘 내가 누리는 삶은 누군가의 희생이 바탕이 된 시간의 값이라고 한다. 그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의 삶이 있었기에 용인군이 용인시가 되고 용인특례시가 된 것이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군화가 닳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대를 달렸기에 그의 닳아빠진 군화는 기념품이 되고 우리는 오늘을 맞이한 것이다. 임시직 공무원에서 부군수가 되기까지의 입지전적 인물로의 삶, 행정 공무원으로 용인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력 등, 그가 겪은 개인적 삶은 우리의 역사이자 용인의 역사,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역사다. 1964년부터 1994년까지 30년 동안 사철 푸르른 상록수와 같은 그의 행정공무원으로의 삶과 80여 년의 생애를 기록으로 남긴다.

출생 및 가족관계

면담자 :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인문화원에서는 매해 구술 생애사 자료집 발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용인시 공무원들의 구술을 수집하고 있어 행정 공무원인 이범상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구술자 : 제가 계신 곳인 문화원으로 가서 인터뷰하면 좋은데 다리가 시원찮아서 부득 먼 길 오시라고 했습니다.

면담자 : 괜찮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내시기 어떠십니까?
구술자 :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매주 와서 고기며 과일이며 사놓고 가고, 여러모로 신경 써 줘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면담자 : 그러시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구술자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80번지에요. 옛날에는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라고 했지요. 1936년 9월 7일생이고요. 여든여섯 살이에요.

면담자 : 젊어 보이십니다.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 다 돌아가시고 남은 형제가 4남매에요. 저는 막내고요

면담자 : 그러시군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옛날 집이 아니시죠?
구술자 : 예. 지금 집은 처인구 중부대로 신우 아파트 1388, 101동이에요.

면담자 :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거 같은데 학교는 어디로 다니셨나요?
구술자 :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면담자 : 고학을 하셨다고 듣긴 했는데...
구술자 : 용인국민학교를[1] 나오고 그다음에는 강독이나 이런 거하고 야간학교를 나오고 했어요. 별로 공부를 많이 못 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배 이상 노력을 해야 했지요.

1) 용인초등학교 36회

면담자 : 어려운 시절에는 학업을 이어가기가 참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 최종학력은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지역 개발 전공 석사예요. 기획 실장 당시 야간을 나왔어요.

면담자 : 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공무원 시험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술자 : 사무관 시험을 보는데 서울 가서 네 사람이 방을 얻어서 여관방에 들어가 공부를 했어요. 네 사람씩 쓸 수 있는 방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10시가 되면 자야 했어요. 근데 저는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가서 가로등 밑에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그랬어요.

면담자 : 참 열심히 하셨네요.
구술자 : 그렇지요. 남들보다 네 시간 동안 더 공부했지요. 역북리에 살 때는 화장실이든 어디든 벽이나 천장이 있는 곳은 책 내용을 전부 써서 붙이고, 이것이 완전히 머리에 소화되면 찢어버리고, 또 붙이고 그렇게 했지요. 노력을 다른 사람보다 더 한 거지요.

면담자 : 용인에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셨군요.
구술자 : 사무관 시험공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휴가를 내서 서울 가서 한 달 동안 한 거지요.

면담자 : 직장 다니시면서 공무원이 될 생각을 하신 계기가 있었나요?
구술자 : 제 첫 번 직장이 생약조합인데 이게 용인군청에 있었어요. 그곳이 한약 약초를 다루는 조합인데 군청 산업과 전작계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같이 어울리곤 했지요. 배구라는 운동 있지요? 그 배구를 같이 어울려서 하게 됐어요.

역북동 자택에서 부인과 함께(사진제공 이범상)

면담자 :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셨군요.
구술자 : 예. 종사를 같이하다 보니까. 근데 하루는 거기서 저를 보고 우리 군청 직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기획예산[2] 임시직원으로 발탁이 되었는데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면담자 : 그때가 몇 살쯤이세요? 결혼하기 전인가요?
구술자 : 아마 28살 된 거 같아요. 결혼을 스물다섯 살에 했으니(1961년경)... 공무원은 그 후에 했고.

면담자 : 당시 결혼은 소개로 많이 하던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구술자 : 그렇지요. 맞선을 본거지요. 한동네에 사는 이 소개로 집안끼리 선을 봐서.

공무원의 시작

면담자 : 공무원이 된 후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구술자 : 예산 편성과 운영계획, 기획 관계된 일들을 주로 했지요. 새벽 두 시까지 가리방[3] 긁어 등사하며 늦게까지 일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면담자 :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셨다고요?
구술자 : 새벽 2시까지 야근하며 손가락이 부딪히면 붕대를 감고 일을 다시 하고, 다해야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때 군수님이 워낙 세밀하셨는데 특히 도지사가 연두순시[4] 나오실 때는 더 신경을 썼지요. 그 당시에는 한문을 전부 사용했는데 글자 하나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찍어 내야 했어요. 경기도지사가 오시니 세밀하게 보시느라 결재를 안 하셔서 간신히 받았어요. 그리곤 또 밤새워 차트와 유인물을 작성해서 도지사를 모시고 그랬지요.

---

2) 1964년 12월 20일 용인군 내무과 지방농업기원보

3) 가리방(がりぼん, 등사판) 등사: 파라핀이 양면에 칠해진 반투명 종이 등사 원지에 뾰족한 철필로 글씨를 새겨 등사판(가리방)으로 밀어서 찍어내는 것

4) 연두순시(年頭巡視)

면담자 : 힘든 며칠을 보냈겠습니다.
구술자 : 그런 가운데 공보실과 협조를 해서 도지사 도착과 동시에 관내 인사 업무보고 등 순시하시는 장면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기록해서 조그만 앨범을 만들어 순시 끝나고 가실 적에 드렸더니 굉장히 감명 깊게 보시고 칭찬을 해 주신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면담자 : 고생했지만 보람도 있는 날이었겠네요. 그게 몇 년도 쯤 되었을까요?
구술자 : 정확히는 기억 못 하는데 68년도 일 거예요. 그래서 행정계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면담자 : 행정계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구술자 : 행정계장은 28개 계의 계장으로 고참 6급이 가는 곳인데 제가 7급이었는데 어떻게 발탁이 됐어요. 이제 와 생각하니 그것은 평소의 진실함과 추진력이 참작된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 업무는 인사와 감사, 그리고 새마을이 처음 시작되면서 새마을 업무가 담당 되었어요

면담자 : 승진하셨군요.
구술자 : 임시직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7급이 되어 기획예산 계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계장님이 우리 형님하고 동창이고 내가 친형 같이 존경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내가 기획 예산 계장이 된 거예요. 그 양반이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시고 내가 계장이 됐는데 그거를 죽을 때까지 죄송한 마음에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면담자 : 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구술자 : 그분을 다른 계로 보내고 내가 계장이 됐으니까.

면담자 : 아! 그분을 밀어낸 것 같아서요?
구술자 : 개인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일이 제게는 뼈아픈 일이었어요. 그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7급 행정계장이 된 거였는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면담자 : 7급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구술자 : 그게 한 6년 만에 됐나?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인정돼서 그리된 거지요. 바로 8급이 되고 또 기한이 되면 바로 7급이 되고 또 6급도 되고 그렇게 속된 말로 고속 승진, 진급한 거죠.

용인의 변화를 이끌던 시기

면담자 : 그때가 1960년대 말 1970년 초인데 새마을 업무를 행정계에서 했나요?
구술자 : 예. 내가 행정계장 할 당시는 행정계에서 인사, 감사, 새마을 세 가지 업무를 담당 했어요. 나중에 감사실도 생기고 새마을계도 따로 생겼지요.

면담자 :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1974년도에 받으신 것 같던데 맞나요?
구술자 : 예. 그때 용인군의 공무원이었어요.

면담자 : 당시 기억에 남는 새마을운동 지도자는 누구였나요?
구술자 : 남사면 동막 마을에 김종원 지도자가 기억에 남지요. 당시 동막 마을이 화성군 동탄면을 경계로 있는 마을이었는데 도박이 심해서 거기 전답이 다 화성군 동탄으로 넘어갔어요. 도박으로 날린 거예요. 근데 김종원이란 사람이 군대 갔다 와서 그런 현상을 보고 '안 되겠다. 우리 주민이 단합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단합해서 다시 땅을 찾아와야 하겠다.' 다짐하고 나무 장사 등 닥치는 대로 해 주민들이 다시 전부 찾아왔어요. 그것을 모델로 해서 이 사람을 새마을 지도자로 선정하면 개발이 빨리 되겠구나 하고 그 동막 마을을 새마을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또 그 사람을 새마을 지도자로 선정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훈장까지 받았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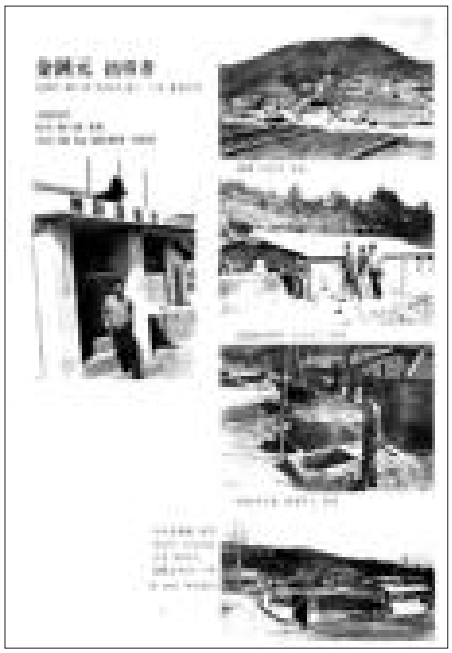
면담자 : 김종원 지도자의 훈장 추천을 선생님이 하셨어요?
구술자 : 군수가 한 거지 뭐. 결국 그 군의 책임자는 군수니까 군수가 한 거지요.

면담자 : 김종원 지도자가 굉장히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구술자 : 일개 시군에 일개 부락씩 새마을 부락이 지어졌는데 남사면 통삼리 동막 부락이 선정돼서 정부에서 세면(시멘트) 천 칠백 삼십 부대가 지원돼서 지붕 개량, 담장

개량, 부엌 개량, 하수도 등 시작이 됐지요. 특히 하수도 설치하는 데는 일곱 살 먹은 아이에서부터 80세 된 노인까지 전부 삽과 괭이를 들고 나와서 작업을 하는데 당시 서상민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과 들러 그 장면을 보시고는 주말인지라(돈을 찾을 수 없으니) 있는 돈을 전부 털어서 격려해 준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면담자 : 새마을 운동 당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동막 부락은 타 도시에 귀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술자 : 맞아요. 그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박정희 대통령 경제 동향 보고 당시 성공 사례로 보고해서 지도자가 훈장을 받고, 그런 책도 하나 나왔었습니다.[5)]



새마을운동 지도자 활동 사례집『 흙과 땀의 훈장』표지와 내지 김종원 편(사진출처 새마을운동 아카이브)

면담자 : 김종원 지도자가 당시에 새마을운동 관련 최초 훈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당

5) 새마을 지도자 사례 모음집『흙과 땀의 훈장』세대사의 1974.8.1. 발행으로 총 420여 페이지에 전국에 새마을 지도자 11명의 모범 사례를 사진과 함께 담았으며 용인군 내사면 김종원 지도자와 동막 마을에 대한 사례가 실려 있다.

시 행정계장이셨군요. 국가 차원의 새마을 운동은 어땠나요?

구술자 : 남북 적십자회담[6]이 개최되기에 앞서 온양 있는 현충비를 참배하러 가게 되었는데 길을 정비하며 고속도로 주변 초가집 8백 동을 한 달 동안에 전부 캐내야 했었습니다.

면담자 : 고속도로 주변 집들을 정비하는 거예요?

구술자 : 그 지붕 개량을 하는 거죠. 짚으로 된 옛날 집 8백 동을 한 달 동안 스레트로 개량해야 하는데 당시 과장님하고 출장 갔다가 전화로 그 보고를 받고 점심을 먹는데 과장님이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할 고생을 생각하시니 그러셨겠지요. 그래서 제가 '동력형 짚차(지프) 한 대하고 인사권을 주시면 한 달 내에 완료하겠습니다.'하고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는 직원들을 동원해 한 달 동안에 모두 마쳤지요.

면담자 : 대단하시네요. 한 달 동안 8백 동의 짚 지붕을 모두 개량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구술자 : 그 과정에서 사업에 소홀한 직원 2명을 인사 조치를 하긴 했지만, 4개 읍면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주변 지붕개량을 무사히 끝마쳤지요. 당시 손수익 경기도지사[7]가 그 사업 현장 확인을 하시며 가옥 한 동에 담장을 보시고는 '담장도 개량해라' 그런 지적을 하셔서 그것도 개량하고. 또한 화성과 용인 사이의 제방을 보시고는, '양쪽 제방에 떼를 입히고 사진으로 군수가 와서 보고해라'하는 말씀을 하셔서 또 그것도 정비하고. 그때 지시대로 양쪽 몇 km를 갑자기 할 수가 없어 예비군을 총동원 시켜서 새벽 두 시까지 작업을 마치고 결과를 보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면담자 : 대단히 바쁜 몇 달을 보내셨을 듯합니다.

구술자 : 농산과장[8] 당시는 고속도로 주변에 4개 읍면이 있는데 그걸 한다고 군대 워커를 일 년 동안 두 켤레나 떨어뜨렸어요. 나중에 제가 도청으로 발령받아 갈 때 직원들이 그 신발을 기념으로 두고 가라고 해서 두고 가기도 했어요. 그땐 그렇게 고

6) 1971년 8월 20일 판문점 중립국감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적십자회담

7) 14대 경기도지사 손수익 (孫守益): 재임 기간 1972. 6. 30~1973. 1. 15.

8) 1976년 10월~1977년 9월

생을 했어요.

면담자 : 시간은 없고 일은 많고 했을 텐데 참 대단하시네요. 고속도로 주변이면 어느 지역에 해당하나요?

구술자 : 기흥, 구성, 수지, 남사가 고속도로 주변이지요. 그 주변 지붕 개량이 제일 어려웠어요. 잠도 못 자고 일을 했으니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었지만 제일 성취감이 컸지요. 고속도로 주변이니 성남, 안성, 화성이 다 해당하는 곳인데 제일 먼저 용인이 끝냈어요. 그래서 시골인 용인이 했는데 다른 곳은 왜 못 하냐 하고 그랬지요.

면담자 : 갑자기 발생하는 일에 대처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구술자 : 반면에 처인구 백암면에 수해가 나서 가옥 25동이 파괴되었는데 역시 복구를 한 달 내에 하라고 해서 각 면에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스물다섯 동을 건축했지요.

면담자 : 한 달 안에 스물다섯 동의 건축을요?

구술자 : 바닥이 마르지 않아서 장판을 깔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면담자 : 촉박한 시간 안에 성과를 내려니 그러한 일도 있었겠습니다. 초창기에 새마을 운동을 할 때 반감도 있고 거부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어땠나요?

구술자 : 모두 다 협조적이지는 않지요. 원삼면에 도로를 낼 때인데... 그때는 동의도 없이 무조건 도로를 내곤 했어요.

면담자 :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 그렇죠. 촌부가 밭을 사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 평생 일하고 돈을 모아 땅을 샀으니 그냥 도로 내게 주고 싶겠어요? 그 마을에 도로를 낼 때 한 노인의 땅을 아들하고만 얘기해서 아들에게 돈을 주고 도로를 냈는데 나중에 소동이 난거에요.

면담자 : 어떤 소동이 났나요?

구술자 : '그 땅을 살적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샀는지 아냐. 난 죽어야지. 그걸 만약 하면 난 죽는다.' 그러면서 노인이 쥐약 먹고 죽는다고 해서 소동이 일었어요.

면담자 :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그래서 어찌되었나요?

구술자 : 그땐 그런 사람들이 약국과 짜고 밀가루를 조제약 봉투에 싸서 쥐약이라고 주고 그랬어요. 그걸 본 적이 있고 하니 이 양반이 진짜 돌아가시려고 그걸 먹나 일부러 그런 건가를 잘 봐야 했어요. 거부감이라고 하니 그런 적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이야 이거 싫어 그럼 안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면담자 : 공무원들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구술자 : 정부의 시책이니까 그건 반강제지요. 사실 통일벼도 그래요. 못자리를 확인하는데 통일벼 못자리가 아니면 밟아버리라고 했어요. 통일벼는 수확이 몇 배 나거든요. 이렇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니 맛은 나쁘더라도 수확을 많이 내야겠다.' 하면 그냥 해야 하는 거지요. 또 '전기를 아껴서 공장을 돌려야겠다.' 하면 에너지 절약을 하는 거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 부채로 여름을 나는 거야.'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 다 부채로 여름을 나는 거지 '선풍기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면담자 : 그렇긴 하죠.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시면.

구술자 :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에 가셔서 간호사와 탄광 광부 400명을 모아놓고 '광부, 간호사 여러분이 목숨 걸고 고생하고 있는 것은 전부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같이 울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독일에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그걸 담보로 해서 서독에서 차관을 받아다가 일본의 차관이랑 같이해서 경제 발전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면담자 :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시죠. 새마을 운동으로 공무원들 일이 많아졌을 텐데 시간 외 수당이나 월급도 올려 주고 그랬나요?

구술자 : 그 당시는 그런 것 없었지요. 당시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있어 통일벼 증산 목표에 맞춰 퇴비와 객토의 관리를 해서 그날그날 작업을 완료해야 했어요. 밤 10시까지 계속 야근을 하는 가운데 군수께서 너무 고생한다고 사모님을 시켜서 야식을 해주신 그런 경험은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생겼지만 그 당시엔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맡은 임무를 수행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그 덕택으로 인해서 승진도 빠르고 그런 거죠. 내가 그랬고.

면담자 : 새마을 운동 태동기에 용인에서 많은 일을 하셨군요. 또 다른 기억에 남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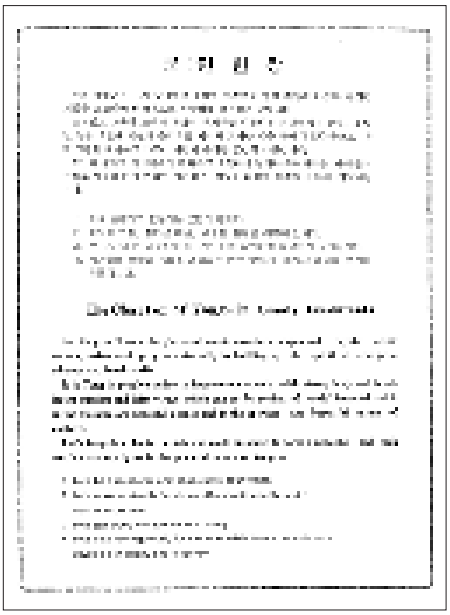
구술자 : 용인군민헌장[9]을 제정했지요. 태성고등학교 이경환 선생하고 헌장 초안을 작성해서 이병도 박사와 아들, 며느리, 사위까지 일곱 박사의 감수를 받아가지고 용인군민헌장을 제정하고 배지를 제작해 용인군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면담자 : 그게 언제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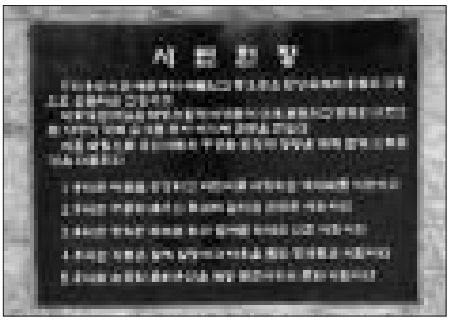
구술자 : 우리나라가 9 · 28 수복이 됐을 때 용인은 9월 30일 날 수복이 됐어요. 그 날을 기념해서 9월 30일을 용인군민의 날로 제정해서 제일 첫 번째 군민의 날 행사를 그날 한 겁니다.

면담자 : 용인군민헌장 제정 과정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구술자 : 용인군의 의지와 발전 방향을 담고 용인의 역사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군민헌장이 된 것이죠. 굉장히 중요했으니 글자 한 자 한 자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한 글자 가지고 두 시간 동안 검토를 한 그런 기억도 나고. 그렇게 이경환 교장과 초안을 같이 만들어서 이병도 박사께 전해드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아들딸,



용인군민헌장(사진출처 제34회 용인통계연보 1994)



용인시민헌장(용인군민헌장과 비교했을 때 내용이 일부 수정됨을 알 수 있다. 사진출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9) 1971년 9월 30일 '제1회 용인군민의 날'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용인군민헌장'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93년 3월 1일을 기하여 용인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용인시민헌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용인군민의 날을 9월 30일로 정하게 된 것은 9 · 28 서울 수복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1971년 오호선 군수재임 당시 군수와 경찰서장, 농협조합장 등 용인군내 각급기관장들의 친목모임인 용금회[지금의 용구회]에서 군민의 날 제정이 발의되고 확정 되었다. 가을에 열자는 의견이 채택되었는데 10월에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등이 연이어 있어 날짜를 정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용인 일대에서 인민군과 중공군 패잔병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간 날을 기준으로 9월 30일로 정하자는 이재학의 의견이 채택되어 결정되었다. 1971년 9월 30일 제1회 용인군민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동면[현 이동읍] 천리 출신인 원로사학자 두계 이병도 박사가 지은 용인군민헌장이 채택되기도 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며느리, 사위, 일곱 박사가 협심하여 탄생한 거지요.

면담자 : 용인의 역사와 홍보에 큰 업적을 남기셨네요.
구술자 : 그 당시 저는 공보실장으로 승진해 공보실로 자리를 옮겨서 각 읍면에 순회 영화와 문화 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민방위과[10]가 창설됨으로 그리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각 읍면에 민방위 교육 또는 소방시설 허가 업무를 담당하다가 농산과장으로 자리를 다시 옮겼습니다.

면담자 : 일을 활발하게 하시려면 이동수단이 있어야 했을 텐데 당시에는 어땠나요? 자전거?
구술자 : 조그만 트럭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도 비싸고 마침 떨어져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일하던 때인데 군수님이 아시고 날 불러서 당신 차를 내주는 거야. 차에 기름을 만땅 채워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관내 편안히 좀 다녀봐. 출장도 다녀' 하시면서.

면담자 : 관용차량을요?
구술자 : 하도 재미있게 열심히 일하니까는 군수님이 관용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마음대로 써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면담자 : 군수님이 특별히 아끼셨네요.
구술자 : 남들 퇴근해도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걸 보신 거지. 한번은 명절에 밤 10까지 일하는 걸 보시고 부인에게 찌개하고 녹두 빈대떡 부치게 해서 양주 한 병을 보내시고 전화로 '오늘은 이거 한잔하고 좀 일찍 들어가라' 하는 격려도 받고.

면담자 : 특별한 격려로 큰 힘이 되었겠어요.
구술자 : 또 보름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격려금을 주시면서 '오늘은 내가 대신 농산과장할 테니까 가족하고 같이 식사 한 번 해라.' 해주시고.

면담자 :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속상했거나 마음이 아픈 경험은 없으셨어요?

10) 1962년 '국가방공계획'을 발표하고 내무부 치안국에 방위과를 설치했다. 1971년 12월 31일에는 대통령령으로 '방공 · 소방의 날'을 정하고 이듬해 1월 제1차 '민방공 · 소방의 날' 훈련을 실시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외교 · 통일 · 안보 〉 민방위)

구술자 : 별로 그런 거는 없었어요.

면담자 : 1974년 민속촌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을 하셨나요? 민속촌 건립은 당시로는 기발한 아이디어였을 듯해요.
구술자 : 민속촌 생길 때에 문화공보실 공보실장이었어요. 그 당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속촌이란 것이 생긴 거예요. 민속촌에서 약주를 파는데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씨가 거기 시찰 왔다가 처음 약주를 드셨어요.

면담자 : 당시 술 제조는 허가제였지요? 민속촌 동동주 유명하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 민속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구술자 : 과거 민가에서는 술을 만들어 팔지 못하던 때라 민속촌만 제조 허가를 받아 술을 빚었어요. 민속촌을 홍보하기 위해서 학생들부터 견학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용인군의 교장들을 전부 무료입장 시켜 견학을 시켰어요.

면담자 : 민속촌을 홍보하는 데 있어 그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구술자 : 학생들이 옛날 집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교장들을 제일 먼저 경험시켜서 '이걸 학생들에게 견학시키면 교육적 효과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교장들을 무료로 입장시켰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지요.

면담자 : 학생들이 옛날 방식을 모르니까 스스로 보고 깨닫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교장들을 먼저 보여줘야겠다, 그 집단들이 움직여야 학생들이 계속 오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신 거였군요.
구술자 : 그렇지요. 그 공로로 경기도 교육감의 표창을 받은 경험도 있어요.

면담자 : 수를 내다보는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1973년 설립된 자연농원도 비슷한 스토리가 있을듯합니다.
구술자 : 자연농원 그 얘기를 하나 하면 돈사 개통식에서 내가 사회를 봤던 일이 있었어요. 자연농원 안에 돈사가 있었는데 그 냄새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지역 협력을 위해서 그 주변 농가에 돼지 한 마리씩을 무료로 전부 분양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시작돼서 부락에 돼지 농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면담자 : 그렇군요. 자연농원이 전대리에 들어오면서 돈사를 만들고 신원리 일대에 돼지 농장이 생긴 건 알았는데 그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구술자 : 처음에는 자연농원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돈사 개통식이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주민들이 막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돼지 새끼 한 마리씩 무료로 분양을 했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마을에 돼지 농장이 형성된 거지요.

면담자 : 그 돼지가 그 일본에서 들여온 품종이 좋은 돼지라고 들었어요.
구술자 :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산물 판매장을 자연농원 입구에다 하나 설치해 달라고 했었어요. 자연농원을 찾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싱싱한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상생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담당자에게 그거를 약속받고 내가 도청으로 인사이동이 나서 바로 진행을 못하여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게 저 뒤쪽에다가 허가를 해줬더라고요.

면담자 : 쉽게 접하도록 앞쪽으로 설치하려고 한 건데 그리되었군요.
구술자 : 그렇지요.

면담자 : 지역의 상생을 하려 했던 원래 계획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겠네요.
구술자 : 그래서 자연농원을 생각하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면담자 : 그 일이 아쉽긴 하셨겠지만 용인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구술자 : 문화공보실장 당시 유관기관의 협조를 위한 행사로 용인군 4대 기관 한마음 체육대회를 창안한 일도 있었네요. 군청과 경찰서, 교육청과 농협의 간부와 읍면장, 읍면 지서장, 농협 단위조합장의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해 배구와 탁구, 줄다리기 등을 오찬 겸 해서 진행한 것이 호응을 얻었어요. 그것을 현재까지 확대 실시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천 부군수로 있을 때 용인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사람이 이천 수사과장으로 와서 용인에서 했던 한마음 체육대회를 왜 이천은 안 하느냐 해서 이천에도 적용했지요. 체육대회를 통해 친선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기관 간 행정 협조도 원활해지며, 군민이나 타 기관이 볼 때 분위기 쇄신도 되는 여러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 창의적인 발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상도 받으셨을듯합니다. 기억에 남는 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구술자 : 사회 각계 인사한테 서한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걸로 나중에 상록수 공무원 표창을 받았지요.

면담자 : 어떤 서한이었나요?
구술자 : 용인 시골에 다리가 없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니 다리를 좀 놔 줘야겠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때는 가방 이런 게 없었거든요. 보자기에다가 책을 싸서 옆구리에 졸라매고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면 다리가 없어가지고 못 건너가는 거지요. 물이 흐르면 그것만 쳐다보다가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가고. 그리고 지붕이 새 가지고 비가 오면 빠케스나 대야에 비를 받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과거를 생각해서 협조를 좀 해 달라 하는 내용이었지요.

면담자 : 서한의 효과는 어땠나요?
구술자 : 그저 구구절절로 각계 인사한테 편지를 보내니 한 달 만에 6억이 모였어요. 그걸 가지고 순차적으로 다리 놓아주고 지붕 개량을 했지요. 그것이 경기도에 보고되고 아이디어맨으로 지역 신문에 나고 그랬어요. 내무부까지 보고가 돼서 그 서한을 하나 보내 달라 이거야, 그걸 보내줬더니 그것이 시범 사례로 전국으로 확산이 된 거지요. 그래서 상록수 공무원 표창을 받고.

면담자 : 대단한 아이디어를 실현하셨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께 서한을 보내셨는지요?
구술자 : 용인 출신의 인사들이었지요. 기업회장, 협회회장, 장관 등.

면담자 : 선생님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의 마음이 더 아프고 안타깝게 느껴졌나 봅니다.
구술자 : 물론이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고 나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막 흐르니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면담자 : 서한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표창도?
구술자 : 그게 없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다 폐기됐지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면담자 : 공보실장에서 민방위과를 거쳐 농산과장으로 이동하셨으면 다양한 경험을 하셨겠습니다.
구술자 : 농산과장 1년 만에 경기도청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면담자 : 도청으로요?
구술자 : 예. 통계담당관실[11] 경제 통계계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경기도민의 물가 조사 대책 GNP 조사 상정관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다가 상정계장으로 상정국 상정과로 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슈퍼와 마트 등 시장 허가 업무를 담당하다가 또다시 농정국 농산과 농산계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면담자 : 매사 열정을 다하시니 승진을 계속해서 한 거로군요.
구술자 : 군 사무관에서 도청이라고 하는 곳에 오는 것은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청와대 배경이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도청에 왔느냐?' 하고.

면담자 : 그래서 어찌하셨어요?
구술자 : 그 도청에 3천 명 직원이 있는데 빨리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여직원이고, 젊은 사람이고 뭐고 보기만 하면 무조건 먼저 다가가서 전부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직무 검열로 청소 이런 거를 해야 하는데 1층에서 3층까지 돌려면 3시간 내지 4시간 걸려요. 그걸 다들 안 하려는 걸 내가 다니며 하고. 또 대민지원 사업도 자진해서 가고.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노력했지요. 그랬더니 용인군에서 온 어느 사무관이다 하고 소문이 나서 전부 알게 되었어요.

면담자 : 그런 일이 몇 살 때인가요?
구술자 : 이십 대 말에 공무원 되고 40대에 사무관이 되었는데 도청에 간 거는 42살인가 그랬을 겁니다.[12]

면담자 : 도청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성과를 낸 지방 공무원이 간다고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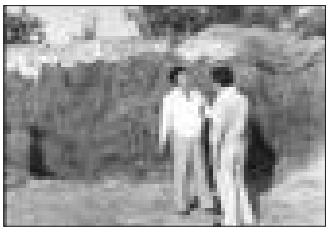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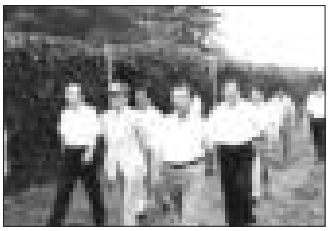
---

11) 1977년 9월 20일 용인군에서 경기도 지방 공무원 기획관리실 통계담당관실 경제통계계장으로 전출

12)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64년 28세에 공무원 되고, 1975년 39세에 사무관이 되고, 1977년 41세 되는 해에 경기도청으로 발령받음.

구술자 : 용인군에서의 농산과장 경험으로 농산계에 발탁이 되고 거기서 역시 퇴비, 객토 등을 담당하면서 각 시군의 퇴비 심사는 물론 각 시도 심사관으로 차출돼서 전국 심사를 했습니다.

면담자 : 퇴비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구술자 : 퇴비 심사할 때 기준이 있어요. 심사 기준은 퇴비의 질과 목표량 달성 여부 등을 보는 거예요.

퇴비심사 모습(1970년대. 사진제공 이 범상)

면담자 : 질 좋은 퇴비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듯합니다.
구술자 : 질적으로 우수한 퇴비를 보려면 그냥 풀로만 된 것인지, 나뭇가지나 다른 것을 섞은 것인지 보는 거랍니다.

면담자 : 어떤 퇴비가 우수한 건가요?
구술자 : 풀로만 잘 베어서 써주는 게 좋아요.

면담자 : 심사해서 좋은 퇴비라고 판정을 받으면 어떤 이득이 있었겠지요?
구술자 : 우수 농가로 표창을 받아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농사를 중요하게 보시고 농가 생산량 증대에 제일 많은 신경을 쓰셨어요.

면담자 : 그렇군요. 상이 있으면 벌도 있을 터이니, 목표량을 달성 못 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퇴비를 생산한 곳은 불이익이 있었겠습니다.
구술자 : 제일 성적이 좋지 않은 군수는 모가지야. 군수가 잘리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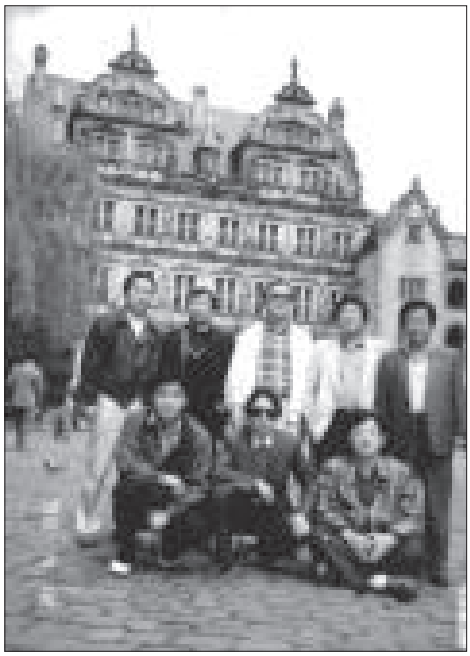
면담자 : 비료가 귀한 시절 식량 증대에 퇴비가 중요한 요소였으니 그랬을 듯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솔방울도 따오고 퇴비 모으러 삼삼오오 모여 다니고 그

랬습니다.

구술자 : 그렇지요. 그 후 내무국 새마을지도과 자연보호 계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자연은 사람 보호, 사람은 자연 보호' 타이틀을 가지고 자연보호 업무를 했는데 남양주 천마산에 심신 수련장을 설치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특히 '선진국 일본에 가서 견학을 통해 참고해서 설치해라' 하는 명을 받아, 일본에 가서 견학하고 견문 결과 보고를 했지요. 한편 천마산 수련장 설치는 훌륭하게 완료해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내무장관이셨는데 현지 확인하시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면담자 : 하시는 일마다 성과가 훌륭하게 나타나는군요. 80년대에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구술자 : 그때 기획관리실 체육지원담당관실 체육지원 계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86 · 88 올림픽을 담당했어요. 당시 경기도에 올림픽 경기장이 열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 추진은 물론 안보 관계나 이런 것을 합동으로 근무를 하는 가운데 모든 점검이 끝나면 새벽 두 시가 되요. 그때 모든 것을 취합해서 그날 지사한테 결과 보고를 하고 신문을 깔고 바닥에서 자고 아침에 업무 보고 준비를 하고 그런 고생도 있었지요. 거기서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수원시 기획실장[13]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1990년 수원시 기획실장 시절 수원시 시정 협조 유럽 선진국 시찰. 연합통신, KBS,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 기자들과 함께(사진제공 이 범상)

면담자 : 수원시 기획 실장으로요?

구술자 : 예. 수원시 기획실장으로 감사와 기획업무, 그리고 원천 저수지의 관광지 업무를 담당했어요. 전국체전을 수원에서 개최하게 되었는

13) 1986년 6월 21일 지방서기관 수원시 기획실장 발령

데 거기에 관람객 전원에게 전국 처음으로 국수를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면담자 : 전국체전에 관람객에게 국수를 대접하는 아이디어가 참 독특합니다.
구술자 : 그런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노태우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대통령과 영부인과 같이 오찬을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부군수 시절

면담자 : 승승장구하던 시기셨네요.
구술자 :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용인군 부군수로 부임을 했는데(1991년) 근무 당시에 원삼과 이동 · 남사에 큰 수해가 나서 24명의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회까지 문제가 되고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에게 인재냐 천재냐를 묻는 청문회를 받게 됐어요. 여당은 군수가 담당하고 야당은 부군수가 담당해서 청문회를 했는데 확인 결과 인재가 아니고 천재로 확인돼서 무사히 넘기고 수해 대책을 시행했어요. 당시에도 한 달 동안 먹고 자면서 수해대책본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면담자 : 호사다마라고 잘 나가던 시기에 어려운 일도 있었군요. 그 후로는?

이천군 부군수 취임식
(1992년 7월 1일. 사진출처 이천시청 미디어 홍관)

이천군 부군수 퇴임식
(1994년 3월 31일. 사진출처 이천시청 미디어 홍보관)

구술자 : 당시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아 가지고 수원시 재무국장으로 좌천되었다가 58일 만에 오해가 해소돼서 이천군 부군수[14]로 가게 됐습니다.

면담자 : 힘든 시기였겠어요.

구술자 : 이천군 부군수로 가서 취임식이 끝났는데 전국 최초로 의회 환영을 받았어요. 이천 지역 유지들의 환영을 받고 그런 가운데 자전거를 하나 구입해서 새벽 5시부터 관내 순찰을 다녔어요. 당시 이천에 공중변소가 8개소가 있어요. 이천을 순찰 돌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본드를 마시고 문짝과 유리창을 다 파괴해서 말이 아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 우범 지대가 되어 지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 소요 예산을 보고 받아서 8개소 전부를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했어요. 또 한 번은 군청에 보도블록이 없어 비가 오면 길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을 불러서 공사 집행 잔액을 가지고 보도블록을 설치했고요. 이천 마장면에 시내 포장도로가 없고, 하수도도 없고 그래서 비만 오면 장화를 신고 다니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도청과 내부에 건의해서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 마장면 시내에 도로포장과 하수도를 설치해 준 그 경험도 있고.

면담자 :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시네요.

구술자 :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그동안에 적십자 관계라든가 지역 노조 관계 등에 최선을 다했어요, 기업체마다 노조 위원장들을 불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군수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협조를 구하도록 했지요. 이천군에 공원 놀이터 청소라든가 운동기구 수리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조가 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받도록 했어요. '노조는 맨날 데모만 한다.' 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들 받는데 그렇게 해서 인식 개선에 힘썼다고 중앙 노동부 장관의 감사인사를 받은 적도 있고 했지요. 제가 퇴임식 당시에 축하객이 700명이 모였어요.

면담자 : 취임식도 아니고 퇴임식인데 참석자가 매우 많았네요. 그동안의 활동과 업적에 대해 감사한 마음들이 컸나 봅니다.

구술자 : 지역 기관 단체의 감사패를 스물네 개나 받았습니다.

14) 1992년 7월 1일 수원시 재무국장에서 이천군 부군수 지방서기관으로 전출

신조를 실천하며 사는 퇴직 이후의 시간들

면담자 : 퇴직 이후 행보는 어찌 되는지요?

구술자 : 그렇게 공직을 마무리하고 용인 군수 직접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갔어요.

면담자 : 용인군수 출마를 하신 거로군요

구술자 :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친한 친구하고 만나서 '출마를 안 하겠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현직에 있을 때나 장관이고 그만두면 다 똑같다. 그래서 나는 임시 직원에서부터 부군수까지 했기 때문에 이걸로 영광이라 생각하지 더 이상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강원도 가서 3개월 동안 있다가 왔는데 '출마를 안 하면 용인에서 떠나라.'하고 강제적으로 군수 출마를 시켜서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이라고 있는데 거기 공천을 받아 군수 출마를 했어요.

면담자 : 그때가 처음으로 군민이 군수를 선출하던 때[15] 인가요? 후보는 누가 나왔나요?

구술자 : 그렇지요. 민주당 나진우 후보, 민주자유당 윤병희 후보와 저까지 해서 3명이 나왔어요.

용인군자유민주연합 결성대회
(1995년 3월 30일. 사진제공 이 범상)

민선 용인군수 합동 연설회
(1995년 6월 15일. 사진제공 이 범상)

15)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가 허용된 합동연설회 KBS뉴스 참조. 당시 뉴스에서는 '민자. 민주. 자민련 등, 3당의 지역토박이 후보가 맞붙은 경기도 용인군의 첫 합동연설회 현장'이라고 소개하며 '전직 군수와 지구당 위원장. 전직 부군수 3명의 후보가 맞붙은 경기도 용인군 합동연설회'라며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1995.6.15 용인군수 후보 연설. 경기도 용인군 첫 합동연설회 KBS뉴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752024)

면담자 : 당시 합동연설회 때 공약을 내세우고 그랬나요?
구술자 : 그땐 그런 거 없었어요.[16]

면담자 : 그랬군요. 선거의 결과는?
구술자 : 결과는 예측대로 내가 낙선을 하게 된 거지요. 민주자유당 윤병희 후보가 민선 용인군수로 당선되었어요.

면담자 : 당시 첫 민선에 관심이 크게 쏠렸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아픈 경험으로 남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셨을 거 같은데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구술자 : 사회 활동으로서는 전주이씨 용인시 분원장, 도덕성 회복 국민운동 용인시 지부장, 새마을운동 경기도 협의회 운영위원, 민족통일협의회 경기도 운영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용인시 대표 운영위원. 그 이후에는 사회활동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면담자 : 참 많은 일을 하셨네요. 혹시 신조나 가훈 같은 게 있으신가요?
구술자 : 가훈이 '밑지고 살자'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자는 뜻이랍니다.

면담자 : 굉장히 특이한 가훈입니다.
구술자 : 참 열심히 살았기에 즐거웠고 보람이 아주 컸어요. 말단 공무원에서 부군수가 되고 군수에 출마까지 했으니 보람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옛날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누굴 데리고 있었다든가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제 다 똑같은 사람이고.

면담자 : 그러기 쉽지 않으실 듯합니다.
구술자 : 똑같은 사회인이니 그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하고 의식을 하지요. 그리고 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젊었을 때 공부도 제대로 못 해서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

16) 1995.6.15 용인군수 후보 연설. 경기도 용인군 첫 합동연설회 KBS뉴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752024 보도에 따르면 합동연설에서 이범상 후보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이강균기자 : 자민련의 이범상 후보는 이 지역의 말단공무원에서 출발해 군수후보로 까지 나서게 됐다며 지역의 머슴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범상 (자민련 후보) :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하여 마을버스를 과감하게 허가하겠습니다."

주고 살아야 하겠다 해서 지금 캄보디아에 후원하고 있어요. 9살 먹은 애를 매달 3만 원씩 후원하는데 걔가 20살이 될 때까지 도와주려 하는데 내가 그때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어요.

면담자 : 퇴직 이후 다른 활동으로는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구술자 : 정년퇴직 후 전주이씨 종친의 자녀, 공무원 자녀, 친구들의 자녀 등 결혼식 주례를 무료로 해줬어요. 그때 주례사로 세 가지를 강조했지요. '첫째 상대방의 약점을 얘기하지 마라. 둘째 서로 존경심이 생기도록 경어를 써라. 셋째 부부싸움은 5분을 넘기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둘이 서약을 하게 했어요.

면담자 :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군요. 총 몇 쌍에게 주례를 해주셨나요?
구술자 : 한 200쌍 정도 했을 겁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건강은 돈 주고 살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 건강에 유의해야 하므로 그런 말도 해주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노심초사하며 정성 들여 키워준 부모님의 은공을 생각해 효도하고,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에게까지 효도해라 하는 말도 해줬지요. 그리고 살면서 선도적 역할을 해라. 남이 잘 때 일어나고, 남이 걸을 때 뛰어라 하는 인생 선배로의 조언도 해주고.

면담자 : 참 훌륭한 말씀입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구술자 : 좋은 일들 좀 하고 살자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용인 상고에 다니는 장애아가 있었는데 그 학생을 좀 도와준 적이 있고, 양쪽 팔이 절단된 아버지를 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대준 적도 있고, 돈이 없어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조금씩 도우며 살았어요.

면담자 : 최근에는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구술자 : 최근에는 '모든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라.' 하는 말을 염두에 두며 살려고 합니다. 좀 회한이 있더라도 '참자 또 참고 또 참자. 세 번만 참자.' 이렇게 하면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며 지냅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상황, 상대가 내 맘 같지 않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살라고 아이들에게도 말해줘요.

면담자 : 굉장히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가족에게 삶의 모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구술자 : 살면서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아 늘 미안했지요. 다행히 아이들이 모두 결혼해서 화목하게 잘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생일날은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과일이나 부식 같은 것도 항상 신경 쓰고 용돈 떨어지면 용돈 주고. 또 나는 연금 타고 있고. 그러니까 별로 불편 없이 잘 지내요.

칠순연에서 가족과 함께(1995년 8월 20일. 사진제공 이범상)

면담자 : 참 다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공무원으로 평생을 사신 분의 관점에서 현재 용인시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떠신지요? 용인군이 용인시가 되고 특례시를 앞두며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구술자 : 용인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지켜볼 때 기쁜 마음보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적정해야 하거든요. 인구가 100만이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인구가 많아지면 교통체증과 쓰레기 등 여러 제반 된 문제가 많아집니다. 밀집한 인구 증가로 교통체증, 매연, 도로 확장, 쓰레기 처리 등의 여러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므로 인구 증가를 지켜보는 부분에 있어 걱정이 좀 됩니다.

면담자 : 역시 행정가다운 시각이십니다.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술자 : 제 이야기가 뭐 조금 기록적인 게 되겠습니까?

면담자 : 물론입니다. 우리나라 새마을 태동기에 공무원으로 겪은 일화라든가, 말단 공무원에서 부군수까지의 입지전적 인물로의 삶, 행정 공무원으로 용인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력 등. 1960년대에서 1990년대 말까지 선생님께서 겪은 개인적 삶이 우리의 역사이자 용인의 역사,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역사이니 기록적 가치 충분합니다.

구술자 : 제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록해 주신다고 하니 제가 감사하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자편에 서야 한다’,

지경환(知慶煥) 선생

1938년 12월28일	용인군 양지면 대대리199번지 출생
1951년 3월	양지초등학교 39회 졸업
1954년 3월	태성중학교 7회 졸업
1957년 3월	태성고등학교 4회 졸업
1958년 11월	군대 입대
1959년 1월	육군헌병학교 졸업
1962년 3월	군대 제대
1962년 10월	경기도 경찰학교 1기 입학
1996년 12월 14일	정년퇴임

개요

- 구술자 : 김명배
- 면담자 : 김정희
- 1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14:00
  - 장소 : 용인학 연구소(용인시 처인구 금령로93번길 1)
- 2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12월 1일(수) 14:00
  - 장소 : 용인학 연구소(용인시 처인구 금령로93번길 1)

요 약 정 리

지경환(知慶換)선생은 충주 지씨로 1938년 12월 28일 양지면 대대리 199번지에서, 농부였던 지달원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동생인 지정환은 용인시교육청의 교육장을 역임한 교육공무원이기도 하다. 선생님은 어려서 마을의 동년배인 8명과 함께 치루개에 있는 강습소에 다니다가 해방이 되던 1945년에 양지국민학교로 전학을 했다.

국민학교 등하교는 산고개를 넘어 다녀야 했는데 어린나이에 산고개를 넘는 일은 매우 힘이 들었다. 양지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걸어서 한시간 반이 넘는 거리의 태성중학교와 태성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으나 준비해 두었던 대학입학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바람에 대학진학을 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집에서 쉬면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 드렸다.

1958년에 군대에 입대하여 육군헌병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대한민국헌병으로 복무를 하여 만기제대를 하였다. 어려서부터의 장래희망은 교사였지만, 1962년에 경기도 경찰학교에 지원하면서 경찰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경기도경찰학교에 1기로 합격한 선생님은 4주 동안의 훈련을 받고 고향인 용인경찰서로 발령을 받았다.

처음에는 경무과에서 근무를 하였지만, 승진시험에 합격하면서 인천의 205전투경찰대에서 1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다시 용인경찰서의 수사계장으로 복귀를 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승진시험을 보게 되면 다른 지역의 경찰서로 발령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옮겨 다닐 수가 없어서 다시는 승진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계장직분을 가장 오래 수행했다고 한다.

용인의 수도 없이 일어난 여러 많은 사건 중에서 오대양사건, 경기도여자기술학원방화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거의 선생님이 담당하였다.

1996년 12월 14일, 35년간 휴가도 휴일도 거의 없이 보낸 경찰생활을 퇴임한 지경환선생님은, 자동차 트렁크에 쌀 몇 됫박과 김치를 싣고 몇 개월 동안 부인과 함께 전국방방곡곡을 다니며 명상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경찰직분을 수행하면서 곤두세웠던 신경을 가라앉히고 돌아왔다.

퇴임 후에는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으셨지만, 부인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자주 모시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은 포기하셨다.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 내외로 걷기 운동을 하신다고 한다. 산악회에도 가입을 하여 전국의 명산을 두루 다녔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집 뒤의 산에 주로 다니신다고 하신다.

경찰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약자편에 서야 한다.'를 평생의 모토로 삼고, 고향인 용인에서 청렴결백하려고 노력하신 선생님은 슬하에 딸 셋, 아들 하나를 두시고 현재는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다.

출생과 가족들

면담자 : 선생님이 용인에서 태어나셨다고 들었는데요, 용인 어디에서 태어나신 거죠?
구술자 :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사면인데, 지금은 양지면이죠. 양지면 대대리 199번지에서 태어났어요.

면담자 : 거기에서 부모님이 대대로 사셨던 건가요?
구술자 : 그렇죠. 우리 선대가 쭉 사시던 곳이죠.

면담자 : 본관은 어디인가요?
구술자 : 충주에요.

면담자 : 대대리에 충주지씨들이 많이 사나요?
구술자 : 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두 집 밖에 없어요. 현재는 우리 육촌하고 우리 집에 조카가 살고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사촌 형제 두 집 밖에 없었어요. 후손들은 전부 나가서 사니까 두 집 그대로 살고 있어요.

면담자 : 몇 년도에 태어나셨나요?
구술자 : 1938년 음력으로 7월 28일. 범띠에요. 양력은 내 호적상에는 12월 18일로 돼 있어요. 근데 내 생일은 그냥 칠월 이십팔일이죠.

면담자 :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술자 : 우리 아버님 함자가 지달원이신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순수한 농부죠. 시골 농부. 농사는 그때로 따지면 우리가 충분히 먹고 곡식이 될 만큼 농지가 많았죠. 거기서 농지가 좀 많은 측에 끼었어요. 그래서 주로 품을 많이 사서 농사를 지었죠. 먹고 사는 것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면담자 : 아버님도 고향이 원래 한터이신 거예요?
구술자 : 그럼요. 우리 할아버님도 거기예요.

면담자 :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구술자 : 우리 어머니 원 고향은 서울이에요. 그때만 해도 뭐 살기 힘들 때니까 어떻게 해

서 서울에서 우리 집에 시집을 오셨는지는 몰라.

면담자 : 형제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구술자 : 난 지금 동생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동생이 여기 용인시 교육장 했지. 지정환이라고 우리 동생은 걔 하나에요.

면담자 : 사모님 성함은 어떻게 되나요? 언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구술자 : 우리 안식구는 나하고 같은 고향이에요. 이름이 송추자인데, 44년생으로 나랑 7살 차이가 나요.

면담자 : 한터분이신가요?
구술자 : 우리 안식구는 양지 소재지 살았어요. 한터는 안식구의 외가이고, 그 외삼촌이 나하고 친구야. 우리 안식구의 작은 외삼촌하고는 어려서 초등학교서부터 계속 같이 다녔지. 그래서 우리 안식구는 그냥 조그마서부터 잘 알았지.

강화도에서 가족들과 함께

면담자 : 그럼 거의 연애 반 중매 반 이렇게 하신 거겠네요?
구술자 :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저기하다 보니까, 그냥 나하고 둘이 살기로, 그래서 부모님한테 우리 함께 살려고 그러는데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럼 살라고 하셨어요.

면담자 : 그래서 결혼은 몇 년도에 하셨어요?
구술자 : 64년도에 한 것 같은데... 경찰할 때 했어요.

면담자 : 자녀분은 몇 분이나 두셨어요?
구술자 : 딸 셋에 아들 하나. 위로 쭉 딸 셋, 막내로 아들 하나. 다들 시집 장가가서 손자들이 군대까지 다 갔다 왔어요. 지금은 아들하고 같이 살아요.

강습소와 학교 생활의 추억

면담자 : 초등학교는 용인초등학교 나오셨나요?
구술자 : 아니야. 양지. 양지국민학교 나왔죠.

면담자 : 양지국민학교 그다음에 용동중학교 나오시고?
구술자 : 아니, 태성중학교 나왔어요. 내가 어려서 해방되기 전에는 치루개, 그러니까 저 양지면 주북리 지금 현재로는 그 자연부락 이름으로 치루개라고 그러거든. 거기에 있던 강습소에 다녔어요. 왜정시대에 강습소에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그 대대리 골짜구니에는 학교가 없고. 윤 시장이 태어난 그 대령간말 강습소하고 치루개의 강습소 두 군데가 있었어요.

면담자 : 그래서 처음에 강습소에 다니신 거예요?
구술자 : 네. 강습소에 다니다가 해방 후에 양지국민학교에 들어갔죠.

면담자 : 그럼, 45년에 9살에 해방되는 해에 양지국민학교 1학년이신 건가요?
구술자 : 아니, 내가 거기 해방되고 양지국민학교 그때 당시에 4학년으로 왔어요.

면담자 : 그럼 이제 강습소에서 3학년까지는 배우신 거고?

구술자 :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써줬으니까 그걸로 학년을 갔겠죠. 그땐 왜 그렇게 뭘로 기준해서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기억이...

면담자 : 이게 그러면 아마 간이 학교였을 거예요. 간이 학교에서 3학년까지만 교육시키면 그 다음에는 주변의 국민학교로 보내서 나머지 과정을 마치게 하는 것인데?
구술자 : 강습소가 그런 거죠. 강습소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간이 학교로 만드는 거죠.

면담자 : 이 강습소에서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구술자 : 그러니까 우리가 다닐 때는 일본어, 그러니까 일본 교육을 배운 거죠. 근데 거기 우리가 다닐 때 일본 교육을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애국자이기 때문에 일본 순사가 오면은 칠판에다 일본어를 써놓고 일본어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이 하고, 일본 순사가 가고 나면 지우고 한글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 말을 잘 못해.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그 양반이 애국자이니까.

면담자 : 거기 선생님은 몇 분 계셨어요?
구술자 : 강습소에는 어디든지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과목을 한 분이 전부 가르치는 거야.

면담자 : 그럼 강습소에 몇 명이 같이 다녔는지 기억나세요?
구술자 : 나하고 같이 다닌 부락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그때 당시에 다닌 게 우리 부락에서 여덟 명이 다녔는데...

면담자 : 많았네요? 그럼 전체인원은 아주 많았겠네요?
구술자 : 아니요. 왜냐하면 그 강습소는 치루개하고 숲원이, 고래실, 우리 아래한터, 가장 골 이렇게 밖에 안 다니니까 학생이 몇 명 안 되지. 거기에서만 그곳으로 다닌 걸로 기억이 나지. 배실 거기는 뭐 고래실에 속하니까. 우리 친구들 여덟 명이 같이 다니고. 그때는 조그만 부락인데도 우리 친구들이 많았어요. 나는 어려서 그랬는지 아버지가 업어서 강습소에 데려다 준 기억이 나요.

면담자 :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양지국민학교로 4학년이었는데, 양지국민학교 몇 회 졸업이신 거예요?

구술자 : 양지초등학교 39회 졸업인 것 같은데.[1)]

면담자 : 초등학교 갈 때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구술자 : 양지국민학교 다닐 때는 거기는 산고개를 넘어 다녔어요. 한터에서 양지를 가려면 산고개를 넘어가는데, 아시아나 골프장 있는 데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골프장 때문에 길이 없어졌어요. 무량골이라고 하잖아? 저수지 있는 데에 그 뒤로 해서 넘어 다녔죠. 그것을 대대리 사람들은 양지고개라고 했지요.

면담자 : 그 다음에는 이제 태성중학교 가신 거지요?
구술자 : 태성중학교 다녔지. 거기서 걸어서 1시간 한 20분 내지 30분 걸려서 다녔어요.

면담자 : 거기에서 그러니까 한터 쪽에서 나오면 경안천을 건너잖아요?
구술자 : 그럼요. 여러 개 개울을 건너잖아요. 옛날에는 다리도 없었어요.

면담자 :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등교하나요?
구술자 : 비가 많이 오면 저 우리 부락 앞서부터 다리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우리가 개울을 몇 개 건너냐 하면, 하나 둘 셋 다섯 개를 건너서 고림리 이집말로 해서 마평리 나와 이렇게 학교로 가고 그랬어요. 이 밑으로는 물살이 세서 못 건너고 저 위쪽으로 가갖고 아래한터에서는 가장골로 해서 대령간말로 고림리로 해서, 그래서 나오는 거죠.

면담자 : 거기는 물길이 약해서 건너오실만 한 거예요?
구술자 : 그때는 우리가 떠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왔을 때도 옷 벗고 책가방을 머리위로 올리고 친구들과 같이 건넜으니까. 아침에 그렇게 학교에 다녔어요.

면담자 :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쪽에서 학교 다니신 분들은 비가 많이 오면 학교에 안 와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구술자 : 어, 우리 그때는 비가 많이 왔다고 안 온다고 뭐 결석으로 치고 이런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일찍 보내주고 그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개울에 물이 많으면 못 건너 갈 수도 있으니까, 수업을 좀 단

1) 양지초등학교 39회 졸업은 1951년

축해서 보내는 그런 건 있었어요.

면담자 : 중학교 3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힘드셨겠네요?
구술자 : 중학교 때는 그래도 컸죠.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조그마해 가지고 이거 책가방에다 이거 얼러서 X자로 메고 그저 집에서 나오면 친구들하고 들고 뛰는 거지. 빨리 학교 가야 하니까 늦고 이러니까 그 산고개를 뛰어다녔어요.

면담자 : 그때도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렸을 텐데요?
구술자 : 용인 나오는 것보다 훨씬 힘들죠. 어려서. 그래서 우리 친구 중에 마라톤을 잘 하는 친구가 있어요. 산고개에 맨날 뛰니까. 양지 대표 선수로 활약했는데, 우리 한터에 있는 우리 친구가 용인 전체에서 1등이라고 그랬어요. 그전에 용인에서 연합대회 운동회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체육대회라고 하는데, 옛날에 연합대회 운동회라고 해서 용인군 내 전부 국민학교에 모여서 용인운동회라고 하는 체육대회를 했어. 그때 마라톤 하면은 우리 친구가 맨날 일등 했어.

면담자 : 고등학교는 태성고등학교 가신 거지요?
구술자 : 네. 태성고등학교. 태성고등학교도 그때 계속 고등학교 내내 3년 졸업할 때까지 한터에서 계속 걸어 다녔어요. 전부 그때만 해도 다 걸어 다녔어요.

면담자 : 여기 이 동네는 대중교통이 언제 들어간 거예요?
구술자 : 우리 있을 때는 안 다녔죠. 70년대에 그 밑에 한터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버스가 하루에 아마 두세 번 정도 들어왔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대중교통은 전혀 없었어요. 대중교통이라는 건 뭐 알지 못했으니까. 운이 좋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대대리가 태화산 밑이고 산골짜기니까 그러니까 나무 자른 것들을 실러 다니는 트럭들이 있었는데, 그 트럭에 몰래 뒤에 매달려서 갔던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버스가 어디 있어요?

면담자 : 그러다 다치지 않아요?
구술자 : 그 전에는 우리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어떤 트럭 운전기사 양반들은 어린 것들이 그러니까 태워주는 양반이 있는데, 백 대라고 그러면 한 대 정도 태워줄까? 나머지는 안 태워 줘. 그러니까 뒤에 가서 몰래 매달려갖고 그냥 이러고 옛날에 그런 기억은 나.

면담자 : 친구들 8명이 전부 양지초등학교 간 거죠?
구술자 : 우리 친구들은 다 양지국민학교 나왔어요.

면담자 : 그다음에 중학교도 다 같이 갔나요?
구술자 : 아니죠. 중학교는 태성중학교 간 친구는 나하고 또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용인고 간 친구도 있고 그리고 중학교는 못 간 친구가 더 많아

면담자 : 태성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대학교 진학은 안 하셨나요?
구술자 : 내가 당시에 대학 등록금을 못 내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려고 등록금을 만들어 놨던 거를 우리 어머님이 누굴 줬어. 그 등록금 낼 거를 누가 달라고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사업을 망해갖고 못 받았어. 그래서 대학을 못 갔지

면담자 : 원서는 내셨던 거예요?
구술자 : 그렇죠. 우리 그때만 해도 대학 가는 거, 서울대학교이면 몰라도 웬만한 대학은, 지금 상위권 대학이라는 데도 갈 수 있을 시절이니까. 그때만 해도 원서만 내고 돈만 있으면... 그때면 뭐 그렇게 경쟁이 세지 않아서 갈 수 있었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내가 바로 군대에 지원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영장이 일찍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로 집에서 일 년 정도 쉬었다가 군대 갔어요.

면담자 : 1년 정도는 집에서 농사일을 돕고 계셨겠네요?
구술자 : 난 농사일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일을 전부 했지. 내가 늦게 본 아들이라고, 귀한 아들이라고 그래서 일을 절대 안 시켜서 내가 일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딴 사람들은 다 아들들이 하고 집에서 노는데, 우리 아버님은 아들인 내가 어리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몰래 가서, 밤에도 가서 어떤 땐 풀도 베다 소 주고 이랬거든. 그래서 내가 일을 할 줄 몰라요

군대 가서 헌병학교에 들어가다.

면담자 : 아버님 몰래 조금이나마 뭐라도 도와드렸구나!. 그러다가 1년 정도 있다가 군대 가신 때는 몇 년도이신 거예요?

구술자 : 군대 간 게 내가 1958년 12월인가 11월인가 추울 때 갔어. 김장을 하기 전에 갔는데,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배추에 좀 물을 많이 줘서 키워서 잘 됐는데, 내가 그걸 못 먹고 갔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갔어요. 제대증을 보면 잘 알 텐데 그 기억이 잘 안 나. 언제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갔는지. 그래 이제 뭐 가서 논산훈련소 거쳐서 헌병학교, 대구 영천에 있는 헌병학교 나왔잖아요.

면담자 : 헌병학교는 지원을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선발을 하나요?

구술자 : 우리가 군대에 갈 때만 해도 IQ 지능 검사를 했죠. 그때 우리 때만 해도 발전이 돼서 지능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큐가 백이십 이상인 사람은 이 특수학과야. 부관 헌병 뭐 이런 특수학과에, 그거 보고 주특기라고 그러지. 군대에서 그 주특기를 부여해. 근데 내가 부관하고 정훈 두 개 병과를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그 제일 좋은 병과지. 병과 중에서 부관병과, 정훈병과 이것은 가서 뭐 펜대 가지고 노는 거니까 이게 좀 좋은 병과였었죠. 그거를 받아 갖고 훈련을 끝마치고 오는데 대기를 해야 돼. 그 학교 들어가려면. 그냥 훈련만 끝마치고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한 달을 있어야 거길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조금 용인하고 관련됐던 분으로 주임상사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양반이 내가 용인에서 왔다니까,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와서 "야! 그 계속 한 달 기다리느니 헌병학교가 지금 일주일 후면 입교하는데 너 그리로 입교해라" 그래서 나 혼자 가기 뭐 하니까 우리 친구도 같이 간다고 해서 우리 친구하고 둘이 헌병학교를 가게 된 거야.

면담자 : 헌병학교는 훈련을 얼마나 받아요?

구술자 : 그때 당시에 4주, 4주 받은 것 같은데. 4주 받고 이제 부대 배치를 받죠. 근데 그때 헌병학교가 규율이 해병대보다 더 힘들 정도로 가장 셌어. 헌병학교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영천에 거기 그 단포다리라는 자리, 학교에서부터 아침이면 완전히 빤스만 입고 다 벗고 철모 쓰고 완전군장하고 그 맨발로 구보하는 거야. 단포다리까지 겨울에 영천 개울이 싹 얼어붙었거든. 그렇게 추울 땐데... 거기 가서, 단포다리 개울에 가서 얼음을 깨고 거기서 다 씻고, 철모에 자갈을 하나 담아서 앞에 앉고 솔선수범 해갖고 또 구보해서 오는 거야. 이런 정도로 훈련이 세죠.

면담자 : 그러면 헌병 훈련받고 부대 배치는 어디로 받으셨어요?

구술자 : 그때 당시에 거기서 훈련받고 헌병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서울에 헌병사령부로 발령이 났죠. 그러니까 헌병사령부라는 게 옛날에는 사령관이 별이 셋이었었는

데 원영덕 사령관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양반이 워낙 의사 출신인데 미국에서 이 박사하고 다 이렇게 가깝던 분 같아. 그런 양반이 헌병사령관으로 있었지. 나는 그 헌병사령부 예속 헌병중대가 별도로 있어. 헌병중대 거기로 발령을 받아간 거지. 그랬다가 거기서 헌병사령부 정보과로 나갔어. 거기에서 그 옛날에는 헌병사령부의 쫄병도 전부 사복 입고 서울 시내 돌아다니고 이랬어. 요즘은 군인경찰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면담자 : 여기서 계시다가 제대하신 거예요?
구술자 : 그렇죠. 거기서 62년도에 만기제대 했죠.

경찰 공무원이 되어 고향인 용인으로 발령을 받다.

면담자 : 군대 제대하시고 경찰관은 언제 되신 건가요?
구술자 : 경찰관은 내가 군대 갔다 와서 1962년도 9월인가 10월쯤 아마 내가 경찰관학교 들어갔을 거야.

면담자 : 이거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죠?
구술자 : 그럼요. 내가 경기도 경찰학교 1기생이야.

면담자 : 경찰이 되기로 한 이유가 있나요?
구술자 : 군대 있을 당시에 아는 분에게 취직자리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영 소식이 없더라구.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서 경찰학교 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오는 거야. 그 당시 공무원은 임시직이 많았는데, 이것은 임시직이 아니라 정식공무원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책을 사서 20일 정도 잠도 안자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27명 뽑는데 600명이 넘게 왔어요. 용인에서도 8명이 갔는데 다 떨어지고 나 혼자 붙었지.

면담자 : 경기도 경찰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술자 : 인천, 옛날에 하인천 가면 미군들이 그 세탁소 하던 데 있어요. 로터리 옆에 있는 건물 중에 그것을 경찰학교 건물로 썼지. 그때 당시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갈

때만 해도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면담자 : 요즘은 경찰 시험 볼 때 체력 테스트도 하잖아요? 옛날에도 체력 테스트를 했나요?
구술자 : 필기하고 면접을 보죠. 이제 체력테스트라는 실기나 이런 건 옛날에는 없었고, 1차 필기 2차 면접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자를 발표해야 되지.

면담자 : 경찰학교에서는 훈련을 얼마나 해요?
구술자 :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3개월인가 받은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법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무술, 저 체포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지. 무술도 하고 그렇죠.

면담자 : 그래서 3개월 훈련 받고 나면 발령을 받는 거예요?
구술자 : 졸업하고 나면은 옛날에는 그게 경찰국이거든요. 경찰국 인사과에서 인사 발령을 하지. 어느 누구는 어느 경찰서, 누구는 어느 경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발령을 하는 거지. 그런데 대개 처음에는 그때만 해도 가고 싶은 자리 써냈지. 그러니까 주로 연고지, 그때만 해도 월급이 몇 푼 됐어요? 그래서 연고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지. 그래서 나도 용인을 연고지로 희망한 거지.

면담자 : 용인은 그 당시에 여기 용인경찰서 하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면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구술자 : 그럼요. 여기 예전 경찰서 헐은 자리로 온 거지요.

면담자 : 맨 처음에는 순경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구술자 : 그렇죠. 순경부터 시작하지요. 여기 발령받으면 또 용인경찰서에서 또 인사 조치를 하지요. 어느 지서, 무슨 경무과, 경비과, 정보과, 수사과 이렇게 또 배치를 받아서 해야지.

면담자 : 선생님은 처음에 여기 오셔서 어느 과로 배정받으신 거예요?
구술자 : 내가 여기 처음에 경무과에 근무를 했어요.

면담자 : 경무과에서는 무엇을 해요?
구술자 : 간단히 얘기하면 경찰에 대한 총괄적인, 그러니까 총무과나 마찬가지인 거야. 군

청에는 행정과라고 그랬잖아? 내무과라고 그랬지. 그 행정계 그거에요. 그냥 경찰에 대한 행정을 주로 하는, 인사도 경무과에서 했거든. 거기에서 한 2년 있었어요.

면담자 : 그동안 경찰 공무원 하시면서 제일 많이 계셨던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구술자 : 제일 오래 근무한 부서가 형사 계장을 제일 오래 했지. 용인서 형사 계장을 내가 제일 오래 했어

면담자 : 초기에 경무과에서 근무하시다가 그때는 뭐 총무과에 해당하니까 경찰서 안에서 주로 계셨던 거겠네요?
구술자 : 내근이지 내근. 그러니까 내근이라고 그랬지

면담자 : 외근을 하시게 된 거는 형사과로 와서부터인가요?
구술자 : 아니 아니야. 내가 그러다가 1967년도에 승진을 했죠. 시험을 봐서 승진을 해가지고 인천으로 발령이 나서 전경대에 가서 근무를 했어요. 그 전에는 젊은 사람이 승진을 하게 되면 전투 경찰이기 때문에, 전경대가 옛날에 간첩 작전 나가고 이러는 거거든. 우리는 파주로 작전을 많이 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무장간첩이 많이 내려오고 그랬는데, 내가 데리고 나간 부대원은 죽은 사람이 없는데 다른 부대원은 작전 나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어. 나는 김신조 무장간첩 사건 바로 후에 간 것이라서 우리 205전경대에 김신조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전경대에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주로 갔어. 젊어서 승진하면 한 번은 가려니 생각해. 67년에서 68년까지 1년 정도 전경대 갔다가 다시 왔지.

면담자 :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구술자 : 그러니까 전경대 갔다 와서부터 이제 계장이지. 그때서부터 계장을 한 게 경기도에서도 나같이 계장을 오래 한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면담자 : 경찰도 로테이션 근무를 하는 것 같던데요? 어느 부서 계장으로 오신 거예요?
구술자 : 내가 전경대에서 와서 제일 첫 번에 내가 했던 계장이 수사계장을 했다고. 그다음에는 보안계장을 했는데 보안계장이 경범죄하고 자동차교통법규 단속하고 뭐 이러는 게 보안계장이야. 교통단속 뭐 이런 게 다 보안계 소관이니까.

면담자 : 요즘은 교통단속은 교통과에서 하지 않나요?
구술자 : 지금은 교통과가 분리됐지. 그때는 교통과라는 게 없었어요. 청소년 관계 무슨 이런 거 다 보안과에서 했어.

면담자 : 수사계장하고 형사계장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구술자 : 수사계장은 수사과에서 내근하는 거야. 내근계장이 이제 수사계니까 서무계장이지. 형사 계장은 외근하면서 도둑놈 잡아오는 형사들의 그 책임 계장이 형사 계장이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리하는 부서가 형사계인데, 하튼 도둑질을 하건 사람을 때려갖고 어떻게 했든 죽였든 뭐 이런 거 전부다 형사과에서 하는 일이야.

면담자 : 제가 경찰의 직급을 잘 몰라서 맨 처음에는 순경인 거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구술자 : 경사, 경사 그다음에는 경위, 경감, 경정, 총경 이렇게 직급이 돼요.

면담자 : 선생님은 어디에서 정년퇴임하신 거예요?
구술자 : 경사, 경사에서 정년퇴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계장을 했다고 그랬지.

면담자 : 순경에서 경사로 승진하는 데는 얼마 안 걸리셨는데, 정년퇴임하실 때까지 계속 경사이셨던 이유가 있나요?
구술자 : 어, 내가 승진 시험을 전혀 안 봤지. 노인네를 모시고, 이제 어머니 모시고 여기 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직장이라는 게 승진하면 다른 데로 가야 하거든.

면담자 : 승진하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구술자 : 그럼. 승진하면, 그래서 나도 경사로 승진하면서 인천 갔다 왔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 타서(다른 경찰서)로 가든가 해야 돼. 그래서 승진시험을 한 번 보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면담자 : 주로 경사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셨겠네요?
구술자 : 그렇지. 그걸로 이제 오랫동안 내가 1996년도 12월 달에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엄청 오랜 시간을 내가 경찰로 살았죠. 한 34년 몇 개월 정도 했어. 그래서 35년 했다고 그러는데...

면담자 : 용인에서 큰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대양 사건이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제일 먼저 현장에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술자 : 오대양 사건은 내가 제일 먼저 간 게 아니고, 오대양 사건이 났을 때는 내가 포곡지소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대양 사건이 터지고 나서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거든. 그래서 내가 형사계장으로 들어왔어.

면담자 : 오대양 사건 때문에?

구술자 : 그래서 내가 형사 계장을 맡아서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데 청문회에 내가 계속 불려 다녔죠. 거기 서류 만들어가지고 가고 청문회장에 계속 불려 다녔어. 그 사건 때문에

면담자 : 직접 이 현장을 보신 거예요?

구술자 : 사건 난 현장을 발견 당시에 그때 바로는 못 봤죠. 근데 내가 발령나고 나가서 그 현장 자체를 전부 확인을 했지요. 왜냐하면 청문회에 나가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원래는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계장이 가야 되는데, 그 친구는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도 전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다시 그걸, 현장 나가서 전부 재점검하고 다시 또 서류 만들고 뭐 하여튼 조그만 봉고차로 한 차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국회에 청문회에 서류를 맨날 그냥, 그 오대양 사건이 그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게 국회에서 청문회 할 정도면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면담자 : 진두지휘하신 분은 따로 있으신 거죠?

구술자 : 오대양 사건을 담당한 거는 용인경찰서에서 한 것이고, 용인 관내에서 발생했으니까 용인경찰서가 담당한 것이고, 이제 경찰국에서도 나오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님도 나오시고 다 나왔어. 이 수사기관에서는 여기 관계된 워낙 큰 사건이니까.

면담자 : 자살이다. 타살이다. 이런 거를 밝히시는 과정에도 참여하신 거예요?

구술자 : 그럼요. 그래서 내가 국회 청문회 가서 설명을 했죠. 뭐 이러저러 해서 타살? 자살?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결론을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 대전에 그 지역구 국회의원 그 양반이 거기 나와 청문회 나오셔갖고 그 유족들 편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그것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니까 그냥 뭐... 그래서 우리 경찰이 애를 많이 먹었죠.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님들도 분과위원들도 사건의 결과는 전부 내가 설명한 게 맞다. 용인형사계장이 나와서 진술하는 내용이 맞다. 타살이 맞다. 전부 자기가 자살한 게 아니고 몇 놈들이 죽여서 가져다 쌓은 거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그놈들이 죽은 거다.

면담자 : 그러니까 몇 사람은 자살이고 나머지는 타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장에 있던 시신으로 인해 말이 많았던데요?

구술자 : 근데 그게 천장이거든. 공장인데 이 천장이 합판을 이렇게 대 갖고 그러니까 난간사이에 합판 대고 이러니까 천장 위에 갖다 쌓을 수 있거든. 그거는 뭐냐면 그 '시신을 죽여서 거기다 숨기기 위해서 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시끄러웠던 거야. 죽여서 갖다 올렸느냐? 위에서 죽은 거 가져다 거기 그냥 쌓아놓은 거냐? 그걸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그 죽은 시신을 가지구 올라가서 쌓는 것 보다는, 그 공장 뒤에가 산인데 이게 산하고 공장의 경계 사이에 아주 깊이 구뎅이가 있어. 그러니까 시신을 숨기려고 그랬으면 거기다 가져다, 밑에서 죽였으면 거기다 내버리는 게 편한데 왜 그놈을 지고 천장으로 올라가느냐? 그리고 또 천장에 올라가게 되면 언젠가는 시신이 썩어서 위에서 떨어질 텐데, 근데 어느 병신이 이 시신을 지고 거기 올라가겠냐 이거야? 그래서 결론은 살았을 때 다 올라간 거예요. 피신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혹시 공장에 누가 오면 발각이 되니까, 안에 여러 사람이니까 천장을 뜯고 그 위로 가서 숨어 있다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생을 마감한 거지.

면담자 : 그때 '이미 의식이 없으시다' 하는 쪽지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쪽지도 보신 거예요?

구술자 : 그건 다 헛소리고 그런 거는 없고, 그거는 이제 옆댕이 사람들이 별의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지. 그러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뭐를 남겼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건은 그걸로 마무리 된 거예요.

면담자 : 몇 년 뒤에 또 그 사건 가지고 또 한 번 시끄럽게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세모회사가 배후 세력이라고?

구술자 : 그게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 이제 이걸로 해서 유사한 거다. 이것도 사이비종교에 몰두된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들이라고 봐야죠.

면담자 : 이 사건 말고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구술자 : 수도 없이 많아서. 내가 있으면서 뭐 살인 사건, 강도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났어요. 하여튼 경기도에서 사건이 용인에서 많이 났어. 그런데 이게 사람 많이 죽는 것은 이 사건하고 '경기여자기술학교 화재 방화사건'이지. 화재 방화 사건.

면담자 : 방화예요? 누군가가 불을 낸 거예요?
구술자 : 이건 방화 사건이라고 결론 진 거예요.

면담자 : 저는 신문 기사만 짤막하게 봐서 거기서 37명이 죽어간 것 같던데요?
구술자 : 그때 당시에 거기 그 경기도 그 무슨 여자국장인가 여기 신OO가 여기 계셨었지. 그전에? 친정아버님도 문화원에 와 계셨고, 그 양반도 그때 그 사건으로 공무원을 그만 두셨어요. 굉장히 좋은 부서인데 그 사건으로 그만두셨어요, 안 됐어요.

면담자 : 그럼 방화범은 잡은 건가요?
구술자 : 다 죽었는데 뭘 잡아? 누굴?

면담자 : 이 중에 한 분이 방화를 한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이 화장실 쪽에서 발견이 됐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구술자 : 그건 이제 그때 당시에 사건이 그냥, 학원에 있는 원생들이 탈출하려고 방화를 한 건데, 불이 나면은 사람들이 한 군데로 몰리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냥 처벅처벅 엎어져 죽는 거지. 질식사하는 거지.

면담자 : 이걸로 인터뷰하신 것을 봤거든요?
구술자 : 그때 당시에 그냥 뭐 매스컴에서도 수도 없이, 나는 아무튼 아침이면 사건이 나면 그냥 내빼. 기자들이 수도 없이 몰려와서 인터뷰하자고 덤벼드니까. 그냥 뭐 TV, 방송사에서 와서 카메라 들이대고, 난 내 앞에다 카메라 대지 말아라 이거야. 그때만 해도 아주 골 아플 때지 뭐. 그것도 방송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하자고 그래서 했지.

면담자 : 그 밖에 다른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안타깝거나 이런 사건은 없을까요?
구술자 : 옛날 수지에서 살인한 사건이 있었어. 그게 피의자가 그때 중학교 다녔나?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인가 이런 정도 됐어. 근데 피해자와 이웃인데, 죽

은 아이를 산에다 파묻고 그 옷을 나무에 걸쳐 놨기 때문에, 그 나무에 옷 걸친 것 때문에 발견이 됐을 거예요. 그게 신고가 돼서 수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은 참 가슴 아프죠. 피의자도 가해자도 어린 아이이고, 피해자도 그렇고. 그게 참... 그게 참 그 죽은 아이도 죽은 아이지만, 내가 교도소에 보낸 사람 중에 제일 어린 아이를 보낸 것 같아. 이 직업을 갖고 있는 동안에 너무 어린놈을... 그렇다고 살인한 놈을 봐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 내가 보내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죠.

면담자 : 옛날에 용인 해골에서 여자고등학생이 죽은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구술자 : 옛날에 해골 저 다리 밑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그 사건도 내가 경찰관 할 때 일어난 사건인데, 내가 그때는 승진을 안 해서 수사 안 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지. 여기 시장에 정미소 하는 집안인데 아주 괜찮았던 집안이거든요. 그런 사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커서 성인이니까, 그 피의자는 나하고 중학교 동창이야.

면담자 : 이분은, 피의자는 지금 뭐 하시는지는 모르시죠?
구술자 : 전혀, 그건 전혀 모르지. 그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그 집에 그 집 아들, 조카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나하고 학교 동창이었었는데, 근데 그 친구들도 다 나가서 사니까 여기 없어.

면담자 : 경찰로 근무 하시면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원칙 같은 거 있으세요?
구술자 : 그거는 나는 평생 그거지. 우리 경찰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약자 편에 서야 한다'는 거지. 강자 편에 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면담자 : '약자 편에 서야 한다'가 원칙이면서 공직관이죠?
구술자 : 그렇지. 내 공직관은 그거야. 우리는 약자 편에 서야지 강자 편에 서면 안 되는 것이다.

면담자 : 그러면 보람이 있었던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직업도 많은데 경찰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람이 있었어! 이런 것을 느끼셨던 적은 많을 텐데요?
구술자 : 내가 자화자찬한 것 같아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이 직업을 하면서 높은 사람들이 말단에서 일하는 경찰관들도 고생한다는 거를 좀 알아주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건 옛날에 내가 한번 느껴봤어.

면담자 : 그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구술자 : 그러니까 아주 최상위 높은 사람들이지.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국제 무슨 대회를 했어. 아시아, 유럽, 하여튼 엄청 큰 대회였었는데 거기 참석했던 어느 나라 대표인지 여자인데 하도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나. 그 양반이 민속촌에 왔어. 옛날에는 외국 손님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면 민속촌에 오거든. 그러니까 민속촌에 오면 경찰서에서 우리는 무조건 경호 가야 되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온 여자 대표가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자기 반지를! 그래서 난리버거지가 난 거지. 이게 경호 대상인데 반지를 잃어버렸다니까. 그 신고를 받아서 내가 형사 계장이니까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당시 우리나라 대행사이고 국가적인 세계적인 대회니까. 그런데 내가 잘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통역관들이 다 따라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소위 인터뷰를 한 거지. 그 수사 관계에 대한 여러 사항을. 그래서 내가 이제 최종 판단을 거기서 내렸어. 이건 도난 사건이 아니고 '본인의 사고로 인한 과실로 인해서 아마 어떤 유류사고, 놓아두고 온 것일 것이다.' 이제 여기서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는 이런 결론을 내가 내렸지. 그러니까 이건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사항이거든. 그냥 즉보!.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내가 그 양반이 묵었던 호텔 서울에 거기에다 즉시 전화를 해서 세면대 거기를 가서, 지금 즉시 확인해서 연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외교부 직원들이 금방 연락을 해서 내가 딱 찍은 대로 거기서 반지를 발견해 서울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외국 대표도 얼마나 좋겠어? 아마 자기한테 그 반지가 귀했던 모양이지. 그리고 국가 체면도 섰고. 내가 그래서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경기도 경찰국장님과 우리 서장님 몇 사람이, 끝나고 나서 청와대에서 유공자 행사를 했는데 대통령이 점심 대접을 해서 청와대 정원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죠. 그래 내가 거기 초청이 돼서 한 번 갔었지. 이거 맨날 뭐 욕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때 당시에 그걸 잘못 오판을 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면 국가적인 망신이거든. 세계적인 행사인데 거기서 쓰리꾼이 어떤 놈이 이걸 가져갔으면 그건 치안 상태가 말이 되느냐? 그런데 잘 해결이 되어서 내가 청와대 가서 점심 잘 얻어 먹었어요.

면담자 : 상은 안 타셨어요?

구술자 : 상? 상 같은 거는 수없이 많이 탔지. 상은 그냥 집에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표창을 많이 탔어요.

면담자 : 그중에 제일 큰 상이 대통령상도 있으신 거죠?
구술자 : 내가 훈장 하나 탄 게 있어요. 옥조근조훈장인가? 그거 내가 탔죠. 96년 12월 14일 날 탔어요. 그전에는 훈장 탄 것은 없고 이제 표창장이지. 표창!

훈장

훈장증– 옥조근정훈장

퇴직 이후는 전국을 방방곡곡 자유롭게 다니다.

면담자 : 96년에 퇴직하시고 나서 지금 벌써 25년이 됐네요?
구술자 : 그렇지요. 시간이 금방 가

면담자 : 퇴직하시고 나서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구술자 : 퇴직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 저기 뭐 그러니까 소일할 자리를 뭐 주겠다고 전부... 나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동안 하도 고생을 하면서 이 직업을 해 먹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을 정도지 뭐. 이 형사 계장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외부 사람들이 봐서 경찰서 형사계장 대단해! 저 앞에 가서 누가 머리를 한 번 잘못 들

었다니 그건 뭐... 어 이럴 정도로 올려보는 사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고뇌가 여하튼 24시간 이 머리가 편한 시간이 별로 없죠. 매일 사건에 얽매여서 사니까. 그렇게 힘드는 자리라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퇴직하게 되면 무조건 나는 우리 안식구하고 차 가지고 전국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무전 여행한다. 이러고 나서 우리 안식구하고 뭐 강원도고 어디고 방방곡곡 차 가지고 트렁크에 쌀 몇 됫박 김치 하나 이렇게 싣고 그냥 막 다니면서 사 먹고 해서 먹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아주 그냥 방랑 생활을 좀 했지. 머리 좀 식히고, 강원도 동해안 같은 데 가서 명상도 해보고, 그냥 며칠씩 해변가에 나가서...

면담자 : 사모님 힘들다고 안 하세요?

구술자 : 우리 안식구는 몸이 약해서요. 여튼 내가 봤을 때는 평생 아팠던 것 같아. 암 수술 두 번 하고 뭐 어깨, 또 수술을 몇 번 했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완전히 오대 중증 환자라 그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살다시피 해. 그래서 우리는 서울대병원, 그전에는 강남 세브란스, 아주대병원 이렇게 3개 대학병원을 과별로 나눠서 명의 되는 분들이 계신 과를 골라서 세 개로 나눠서 다녔는데, 이제 자꾸 나이 먹어가고 그러니까 합쳐갖고 강남 세브란스는 용인으로 옮겼고, 서울대학교는 그냥 지금 다니는데 어떻게 할지 다니기가 힘들어.

면담자 : 분당서울대병원 다니시는 거예요?

구술자 : 그런데 다니기가 힘들어. 오늘 세브란스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냥 여기로 다 옮기시죠 뭐. 저희가 전부 총괄적으로 해보게. 우리가 강남 세브란스나 삼성이나 이런 데 다닐 때는 서울 한 번 갔다 오면 하루 종일 힘들어. 아침에 새벽에 가면 저녁에 오는 거야. 나도 강남세브란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스물네 개를 했어요. 내가 정년퇴직해서 우리나라 임플란트 초창기에 1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1억 들여서 했지.

면담자 : 대출을 받아서 하셨어요? 그때는 임플란트가 비쌌을 텐데요?

구술자 : 우리 친구들이 나보고 그래 “야! 세상에 임플란드 한다고 대출 받아서, 그것도 몇 천만 원, 1억씩이나 받아다 이에다 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내가 그때 당시에 바로 그렇게 하고 났으니까 지금까지도 음식 잘 먹으니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피해가 요만큼도 안 들었어. 그때 당시 내가 괜히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여서 했다는 생각이 안 나고, 그때만 해도 임플란트 하나

에 450만 원 할 때거든요. 초창기니까 우리나라 국산은 아예 없을 때에요. 계속 강남 세브란스 다녔는데, 지금은 여기 용인 세브란스로 옮겼지. 용인 세브란스가 새로 생겨서.

휴가나온 손자와 함께

면담자 : 대출은 어떻게 갚으셨어요?

구술자 : 나는 우리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시골에 옛날 농사짓던 전답이 있잖아! 논하고 밭. 그때 당시에도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에서 얼씨구나 하고 돈 주지. 뭐 그거 떼어먹을 사람 아니니까.

면담자 : 한터에 아직도 전답이 있는 거예요?

구술자 : 지금도 가지고 있죠. 내가 이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것들은 조금 조금씩 심어서 그걸로, 채소 같은 것은 전부 심어서 먹죠. 우리는 병원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만이 아닌 것 같아. 나이를 먹게 되면 늙은이의 용돈은 의사 선생님 드려야 되는, 병원에 갖다 줘야 되는 돈이야. 만약 병원에 가도 남으면 그거는 손자 용돈이지. 뭐 늙은이들은 쓸 돈이 없는 거야. 그냥 돈이 필요가 없어. 병원 갈 돈만 있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죠.

면담자 :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이세요?
구술자 : 앞으로 지금같이, 내 소망은 우리 안사람이 좀 덜 아프게 살다가, 돈은 더 있을 필요도 없고. 난 돈에 대한 욕심은 어렸을 때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지금 같이 남한테 빌리러 가지 않고 내 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에서 그저 다 건강하게 어떻게 좀 살았으면... 그리고 내가 처음에 퇴직하고 나서 나도 죽기 전에 사회에 한번 봉사활동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안식구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거기에 쫓아다니는 것만 해도 힘들어. 그래서 내가 봉사활동 하는 것을 포기했어.

면담자 : 요즘도 4km 정도는 걸으신다고 하셨는데, 운동으로 걸으시는 거예요?
구술자 : 매일 앉아 있느니 나는 생활의 리듬을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형사계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난 그때만 해도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공휴일이고 명절이고 없이 난 출근했어요. 휴가라는 것도 안 가봤어. 왜냐하면 갈 새가 없어. 휴가 갔다가 일 터지면 또 와야 되는데. 퇴직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그렇게 방랑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 그걸 몇 년 끝마치고 나서 내가 산악회도 다녔고, 아침마다 운동을 했어. 최소한 적게 걸으면 40분, 많이 걸으면 한 시간 반 이 정도로 걸었어.

면담자 : 경안천으로 가세요? 아니면 산쪽으로 걸으세요?
구술자 : 우리 아파크 뒷산. 주로 처음에는 뒷산을 많이 걸었지. 거기로 많이 올라갔다 왔지.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 걷는 거예요. 그것도 비탈길 산길보다는 흙길, 야산이나 비아리가 아닌 이런 흙길을 걷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내가 걸으러 등산도 다니는데, 전국구로 다녀서 우리나라 명산에 안 가본 자리가 없이 다녔다고.

면담자 : 지금도 산악회는 다니시나요?
구술자 : 코로나 있고 난 이후로는 전혀 안 가죠. 코로나가 끝나면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지금도 아침이면 내가 하루에 한 번씩은 최소한 한 시간은 걸어. 어떤 핑계를 대든지 걸어야 해. 그래야 저녁에 잘 때 잠 잘 오고 이러죠.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모든 수족이 아파. 늙으면 그게 문제더라고.

면담자 : 건강 유지하시는 비결이네요. 다른 데 아프신 데는 그럼 없으신 거죠?
구술자 : 나는 별로 아픈 것을 몰라요. 내가 병원에 가서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해. 나이를 먹을수록 꾀가 나거든.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

면담자 : 부지런하게 사시면 건강해지겠네요?

구술자 : 가장 즐거운 거는 젊음이 가장 즐거워. 살아보니까 그래. 제일 서글픈 게 나이 먹어가면서 바깥에 나오면 늙어서 꼬부리고 이거 몸도 못 가누고, 그런 거 보면 '야! 나도 불원간 저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 금방 눈앞에 오는 거야. 그때가 나이 먹은 사람이 제일 서글픈 거야. 근데 난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그건 하늘로 머리를 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한테는 하느님이 동일한 운명을 준 것이다 이거야. 그건 뭐 대통령을 지내던, 세계 어떤 최고의 무슨 학자를 했던 마지막 가는 인생의 길은 하느님이 다 공평하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도 가고 너도 가라.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이렇게 한 거니까 슬퍼할 것도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도 그냥 그 비참한 거 보면 늙는다는 게 좀 아쉽지.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 딴 거는 여직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후회하고 산 적 없어요. 내가 이 직업을 괜히 가졌어! 내가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좋은 직장을 갈 수도 있었어. 내 어려서 꿈은 학교 선생님을 하려고 그랬어. 우리 집에 선생들이 몇 있지만, 나도 교육자가 되어야겠다. 내 성격상 맞고 그래서.

면담자 : 앞으로 하시고 싶으신 것은 없으신가요?

구술자 :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았었는데 나이를 먹어서...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했는데, 나는 이미 차표 사서 맨 앞좌석에 앉아서 종착역 바라 보여. 이 기관차가 고장 날 때 기다리는데 고장 안 나고 그냥 가는데, 조금 슬슬 갔으면 좋겠다. 글쎄 내가 90까지 산다고 그러면 이제 5년, 이제 이해는 다 갔으니까 5년 살면 90인데, 지금 생각에는 앞으로 내가 노력하면 이대로 잘 10년은 더 살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근데 사실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 적당할 제, 하느님은 안 믿는데, 내가 적당하게 살다가 육신을 내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나를 살려두지 말고 그 전에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면담자 :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되지요?

구술자 : 난 교회도 다녀봤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도 가서 절도 많이 해봤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그래요. 내가 교회 안 다니는지 한 3년 됐어요. 몇 년 계속 해서 다니면서 성경책도 읽어보고, 천주교회에 가서 신부님 말씀도 들어보고, 개신교에 가서 목사님 말씀 설교도 들어보고,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한테 그 부처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이랬지.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터득한 건 모든 건 내 마음이지, 부처님이 어쨌든 하느님이 어쨌든 뭐 이게 아니다. 우선 자기 마음이 선해야 된다. 인간은 그저 태어나는 순간, 그때 울음 터지던 그 순간으로 살다가 그 순간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본능이면서 철칙이다 이거야. 그게 남한테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못 할망정 남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조금만 참아도 되는 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자꾸 긁어가지고 시비를 한다면 난 이런 거 싫어요. 내가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용인에서 나보다도 성질이 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 내가 "너 이러저런 데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우기면 그건 우선 따귀 한 대 맞는 거야. 양심 회복이 안 됐다 이거지. 근데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게 그때 따귀를 한 대 맞은 사람은 아팠겠지. 그리고 그 순간은 억울해 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따귀를 맞고 정신적인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그러면, 그거는 몇 천만 원 준 것보다도 잘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여기 뭐 옛날에 그냥 말썽꾸러기 자식들 둔 사람들, 그 노인네들이 와서 내 손 붙잡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잘 좀 되도록 해달라고 그래요. 그 교도소 보낸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거든. 교도소 보내면 더 나빠져요. 사람이 거기 가서 못된 것만 배워. 이게 교도소 가서 반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오거든. 그러니까 전과자라는 게 사회에서 냉대를 받는 게 그거야. 그래서 나 같은 직업은 어떻게 됐든 잘못된 놈을 잡아넣어서 교도소 가게 되면 무조건 전과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국가가 사회가 돌아가려면, 편안하게 돌아가려면 그런 사람들이 제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선량한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필요불가결한 법인데, 이게 참... 법을 집행한다는 게 아주 쉬우면서도 그냥 법대로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아주 쉽지. 그러나 법대로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고뇌가 많지. 죽일 놈도 있고 살릴 놈도 있고 그러는데, 이놈은 꼭 살려줘야 되겠는데 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참 번뇌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이 사회에서 냉대받는 직업에 속했잖아? 저 새끼들은 못된 짓만 하고 국민들한테 뭐나 뜯어 먹고 이런 놈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지. 요즘은 이제 좀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돈벌이도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분이 많이 늘어서 좀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내가 경찰학교 졸업하고 나서 정복을 딱 입고 우리 집에 왔어. 난 오늘부터 용인의 내 고향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고향에서 우리 선대가 몇 대가 살았으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죽는 날까지 살아갈 땅이 용인이다. 그러니까 난 이 땅에서 내 이름 석자를 더럽힐 수 있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겠다. 나도 죽어서 여기 묻힐 텐데 ,내가 여기서 뭐 나쁜 짓 해갖고 딴 사람 괴롭히고 돈이나 뜯어먹고 이렇게 해서 그 명예를 후손한테까지 더럽힌다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난 나름대로 이왕 하는 공부니까 청렴결백한 공무원 중에 나도 그 근처라도 가서 있다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했지. 고향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워요.

경찰관으로 용인의 민생을 지킨,

지동수(智東壽) 선생

1943년 5월	여주군 흥천면 문장리에서 출생
1959년 2월	강원도 영월 마차중학교 졸업
1962년 2월	경기도 연천 연천고등학교 졸업
1967년 1월	육군 하사 만기 전역
1968년 3월	경찰 임용, 용인경찰서 근무
1969년 3월	제주도 국토건설단 파견
1969년 9월	수원경찰서 근무
1971년	용인경찰서 근무 (김량파출소, 수사과, 경비과, 백암 및 원삼지서장, 보안과 등 근무)
2000년 6월	용인경찰서에서 정년퇴임, 옥조근정훈장 수훈

개요

- 구술자 : 지동수(智東壽)
- 면담자 : 김태근
- 1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9월 13일(월)
  - 장소 : 용인학연구소
- 2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10월 12일(화)
  - 장소 : 용인학연구소
- 3차 인터뷰
  - 일시 : 2021년 11월 10일(수)
  - 장소 : 용인학연구소

요 약 정 리

지동수 선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1968년 3월 경찰에 입문하여 용인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공직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69년부터 1971년까지 1년 6개월 정도 용인을 떠나 제주도 국토건설단 지원 근무 파견과 수원경찰서 근무를 제외하고 정년까지 용인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용인시민의 민생을 챙겼다.

용인경찰서에서 파출소 근무하다가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며 강력 범죄등 다수의 사건을 해결하였다. 용인 농촌 지역 지서 근무로 나가서 형사로서의 감각을 살려 담당 지역의 농민들의 민생을 해치는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비과로 자리를 옮겨 1988년 서울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 안전 및 1990년대 민주화 열기 속에서 일어난 용인의 대학생 시위 대처, 대통령 등 국내외 요인 방문에 경호대책 수립 등에 자신의 책임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였다.

2000년 6월 33년간 봉직했던 경찰에서 정년퇴임으로 물러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관내 초등학교에서 아동 지킴이 활동을 하며 어린 학생들이 안전사고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동수 선생은 평생 경찰로서 외길을 걸으며 용인시민의 민생을 지켜온 자신의 경찰 복무 원칙으로 누구 편에도 서지 않고 중간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출생 및 성장 과정

면담자 :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구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선생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말씀해주시죠.

구술자 : 나는 1943년 5월 4일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곳은 외가집인데 거기가 여주군 흥천면 문장리이고 여기서는 태어나기만 했고 바로 영월로 옮겨갔어요.
본적지는 충북 제천군 백운면 애련리인데 박달재 바로 밑이죠.

면담자 : 왜 영월로 가시게 되었어요?

구술자 : 아버지가 영월 마차 탄광에서 일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식구 모두 이사를 가서 내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죠.

면담자 : 선생님의 아버님은 마차 광업소에서 언제부터 일하셨나요?

구술자 : 내가 1943년도 생이니까. 아마 1939년이나 1940년 정도 될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3, 4년 전부터 일하셨어요. 아버지는 원래 제천 백운면에서 농사지으며 사셨죠. 그때는 장사 같은 것을 하고 싶으셨는데 잘못하면 부역에 끌려갈 수 있어서 마차로 가셨대요. 그때 마차에 고모님이 살고 계셨어요. 고모부님이 마차에서 광업소에 들어가 일을 하면 부역을 피할 수 있고 해서 거기서 일하시게 된 거죠. 마차 광업소는 당시 일본 국영광업소라 부역에 빠질 수 있었대요.

면담자 :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구술자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마차에서 다녔어요. 내가 나온 마차국민학교는 전교생이 1,500명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나요. 중학교는 마차중학교를 다녔는데 한 학년이 2개반이고 한반 60명씩 전부 120명이 다녔어요. 그때 마차가 있는 영월군 북면에 마차중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면담자 : 영월 마차에서 어린 시절 특별하게 기억나시는 것 있으세요?

구술자 : 우리는 그때 벌써 서울과 같이 왜정(일제 강점기 – 주) 때부터 수도물 먹고 전기불 키고 살았어요. 광업소에서 일을 하면 봉급은 잘 나왔지요. 강원도에서 제일 컸던 광업소가 마차광업소인데 해방 이후에는 대한석탄공사 마차광업소가 됐어요.
우리 어릴 때는 구슬치기를 즐겨 했고, 6.25 직후에는 깡통 차기를 많이 했어요. 구슬치기는 우리가 살았던 데가 광업소라 석탄 실어나르는 구르마가 있어서 거

기 바퀴에서 나온 쇠구슬로 했지. 바퀴에서 몰래 빼다가 깨서 그걸로 구슬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유리로 만든 구슬은 잘 몰랐어요.

면담자 : 학창 시절 또 특별하게 기억나는 일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특별활동으로 농구를 했는데 그때부터 군대 제대할 때까지 계속했지요. 경찰로 용인에 와서도 용인초등학교나 태성중학교에 가서 가르쳤어요. 태성에서는 애들하는거 봐주기만 한 거고 용인초등학교는 시합 있을 때 내가 가서 직접 지도해줬죠. 그때 가르친 애들이 지금도 나를 보면 알아보고 인사를 해요.

면담자 : 학창시절에 농구하면서 대회에 나간 적이 있었나요?
구술자 : 중학교때는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니라 대회에 나간 적은 없고, 고등학교 다닐 때 인천에 가서 경기도 대회에 참가한 적은 있어요.

고교 재학 중 서울 수학여행

면담자 : 경기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군요. 경기도 어디서 고등학교 다니셨나요?
구술자 : 고등학교는 경기도 연천에서 다녔어요. 연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면담자 : 농구 때문에 연천으로 가셨나요?
구술자 : 그렇지는 않았어요. 내 위의 형님이 그때 연천에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 식구가 마차에서 살기 어려워져서 내가 중학교 마치고 바로 형님한테 간 거죠. 그리고 연천고등학교에서도 농구는 계속했어요.

면담자 : 마차에서 연천으로 가셔서 고등학교 입학하실 때 형님은 무슨일 하셨나요?
구술자 : 그때 우리 형님은 군대 하사관으로 있다가 전역해서 결혼도 하고 가정이 있었지. 그때는 규석광을 크게 하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연천으로 가게 된 거죠.

면담자 :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 무엇을 하셨나요?
구술자 :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학은 하지 않고 1년 정도 있다가 군입대를 했어요. 농구도 군대에 가서도 계속 했구요.

면담자 : 군입대를 논산훈련소로 하셨나요?
구술자 : 논산으로 입대해서 논산서 제대했어요. 논산훈련소에서 28연대에서 훈련받고 다시 거기로 배치된 거죠.

1966년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군복부 시절

면담자 :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그곳에 기간 요원으로 남으신 거네요?
구술자 : 논산훈련소 28연대에서 조교로 있었죠. 거기서 교도대와 연대 조교가 훈련시키

는 것 달라요. 교도대는 각개전투, 사격, 또 수류탄 그런 거를 가르쳐요. 그 나머지 P.R.I(사격술 예비훈련–주), 제식훈련, 내무위병, 총검술 그런 것은 전부 연대 조교들이 가르쳤어요.

면담자 : 군복무는 얼마 동안 하셨나요?

구술자 : 내가 1964년도 쯤 입대해서 1967년도 1월에 제대했지요. 논산훈련소에서 2년 7개월 모두 31개월 근무한 거죠. 우리보다 늦게 제대한 사람은 김신조가 넘어온 것 때문에 2개월인가 3개월 더 했을 거예요.

면담자 : 거기서 병장으로 제대하신 거죠.

구술자 : 아니요. 난 하사로 제대했어요. 시험을 쳐서 일반 하사가 됐지. 논산훈련소에 병장이 한 500명 이렇게 되는데 하사를 8명 뽑았어요. 내가 제일 먼저 되고 우리 동기생들은 나보다 한 2, 3개월씩 늦었죠. 하사가 되니까 봉급만 늘더라고. 일반 하사는 병장 봉급의 배니까.

그리고 교관반을 나와서 그때부터 내무위병하고 제식훈련하고 총검술하고 수류탄 훈련 교관이 되어 강의를 할 권한을 줬어요. 사병은 강의를 할 수 없잖아요. 교관반 나오면 조교인데도 교관이라고 달고 “나에게 물어라” 써붙이고 다녔지. 제대하고 나서 비상사태가 되면 군대로 재소집하면 우리는 다 장교로 임관시켜 준다고 했어요.

면담자 : 군대 제대 후에 무엇을 하신 거죠?

구술자 : 내가 1967년 1월 제대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우리 형님이 연천 신탄리에서 광산을 하고 있어서 3월부터 거기 가서 감독을 좀 했죠. 감독이란 게 군대 제대한 직후여서 광산 일에 대해 전혀 몰라서 인원 파악이나 하고 오늘 몇 명 나와서 일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주는 일이었어요. 경찰시험 보기 전까지 한 7, 8개월 정도 있었던 거죠.

면담자 : 연천에 있는 어떤 광산에서 일하신 거죠?

구술자 : 규석신탄광업소였죠. 규석광이죠. 그런데 광산이라는 것이 운이 잘 맞아야 돼요. 우리 형님이 그 광산 쪽으로 아주 잘 알고 있지만 때가 맞지 않았던 거지. 우리가 그 광산을 그때 5천만원에 팔았는데 1년 만에 10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고 난 다음에 무지무지하게 올라갔지. 규석이 유리 생산에 원료로 들어가는 거라 인천의 한국유리에서 우리 거 다 가져갔어요.

경찰에 입문

면담자 : 경찰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죠?

구술자 : 우리 광산이 때를 잘못 만나서 그런지 잘 안됐어요. 광업소가 잘되면 거기서 계속 일하라고 하셨겠는데 잘 안되고 일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공직에 들어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형님 말대로 공직으로 들어가기 위해 경찰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광산에서 한 7, 8개월 일하다 경찰시험을 보고 붙어서 1967년도 12월에 부평에 있는 경찰전문학교에 들어갔죠. 거기서 3개월 교육받고 순경으로 임용되었어요.

면담자 : 신임 경찰 발령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구술자 : 그때 경찰 발령을 내무부 치안국에서 했어요. 지금은 경찰청이죠. 그때는 경찰 임용될 때 군대의 병과처럼 일반직, 통신직, 운전직 3가지 경과가 있어요. 운전 요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운전 경과이고, 통신 요원은 통신 경과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경찰이지. 일반 경찰로 들어와 근무 경력이 생겨서 형사나 교통으로 가는 거고 또 정보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면담자 : 경찰전문학교를 마치고 바로 용인으로 발령을 받으셨나요?

구술자 : 부평에 있는 경찰전문학교에서 3개월 교육받았죠. 거기서는 전국에서 온 사람들 한 360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마치고 경기도로 발령을 내려 먼저 경기도로 왔죠. 아마 주소지가 경기도 연천이라 그런 거 같아요. 그땐 경기도 경찰국이 인천에 있어서 거기에서 용인으로 발령받았어요.

면담자 : 용인경찰서로 발령받아 오실 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술자 : 내 경찰 발령 일자가 1968년 3월 20일입니다. 용인에 처음 왔을 때 경찰서는 지금 주차장으로 변한 구 경찰서 자리에 있었죠. 그때 용인경찰서에는 새로 지은 2층 건물하고 옛날부터 쓰던 건물이 있었어요. 그때 용인경찰서장은 지의택 경감

인데 지금은 총경이 서장인데 그보다 낮은 경감이 했어요. 그때 용인군청은 내가 오기 바로 전에 지금 처인구청 자리로 이전했구요.

면담자 : 용인경찰서로 처음 발령받으셔서 어디에서 근무하셨나요?
구술자 : 용인경찰서에서 처음 발령받아 근무한 곳은 직할파출소예요. 김량파출소라고도 불렀는데 구 경찰서 자리 바로 앞에 있었어요. 지금 있는 제일약국 뒤편에 있어서 경찰서랑 마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옆에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있었고 그 앞에 차고가 있었어요. 제일약국 자리에는 원래 하원다방이 있었어요.

면담자 : 김량파출소에서 어떤 일 하셨나요?
구술자 : 김량파출소에서는 얼마 못있었어요. 그게 1968년 4월 3일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잖아요. 예비군이 창설되는 바람에 김량파출소에 근무하면서 당시 용인면의 예비군 훈련을 시켰어요. 군대 시절 논산훈련소 조교도 하고 교관도 했으니까 잘 가르친다고 했죠.
총검술, 제식 훈련 이런 걸 잘 가르치니까 용인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경찰에 들어왔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김량파출소에서 6개월도 못 채우고 본서 경비계로 발령이 났어요.
그때 용인면 예비군 중대장은 장기만씨가 했는데 삼가리 살고 육군 소령 출신이죠. 양지는 유성수, 모현면은 최동석이고. 그 초대 중대장들은 거의 나를 다 알고 각 중대에서 초청하려고 했어요. 훈련 잘 시키니까. 또 각 지역 마다 예비군 진지를 파면 다 내가 다니며 감사를 했어요. 그렇게 다녀서 소대장들도 다 알게 되고. 군청에는 예비군 직장 소대가 있었는데 성무경씨가 소대장이었고, 또 우체국, 농협 직장 소대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나한테 훈련받았어요.

면담자 : 그때 예비군 훈련은 몇세까지 받았나요? 동원예비군 훈련이 있었나요?
구술자 : 예비군 훈련은 무조건 45세까지 받았어요. 지금처럼 동원예비군 훈련은 없었고 무조건 출퇴근하며 받았지. 훈련일은 우리가 정해서 시켰어요. 예비군 훈련 규정에 의해서 한 달에 몇 번, 전체 몇 번 범위를 정해서 했지.
예비군 총기는 전부 경찰에서 관리했어요. 훈련받을 때 예비군 무기는 지파출소에서 가서 M1총 수령해가지고 와서 총기의 기름 덩어리 제거하고 그랬지.

면담자 : 이후에도 계속 예비군 훈련을 담당했나요?

구술자 :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신임 경찰관들은 전투경찰대를 가야 되는데 나는 면제받고 안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제주도 국토건설단에 보냈어. 경기도에서 경찰관 36명이 가게 되었는데 나도 차출되어 1969년 9월까지 6개월 동안 있었지.

면담자 : 제주도 국토건설단에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구술자 : 주로 깡패들하고 소매치기들을 데려다 국토건설단을 만들어 제주도 한라산 제2횡단도로 건설하는데 투입했지. 지금 도깨비 도로가 있는 그 도로예요.
건설단은 수로 파고 도로 모양만 잡는 거지. 그러면 삼부토건이 도로 건설을 하는 것이었어요. 건설단 인부들은 거의 손으로 하는 작업을 했어요. 당가라는 거 있죠. 가마니 양쪽에 막대 대서 흙을 퍼서 담아 날랐죠. 깡패들 노역으로 다 한 것이지요.

면담자 : 제주도에서는 어디에서 계셨어요?
구술자 : 제주도에서는 어승생에 가서 있었지. 거기가 800에서 900고지 되는 곳이지요.

면담자 : 제주도에 파견된 경찰은 어떻게 지냈어요?
구술자 : 거기 경찰은 경감이 중대장으로 1명, 경위가 2명인데 소대장, 그 다음에 경사가 3명, 그 밑에 순경이 36명, 이렇게 총 42명이 있었지. 건설단원은 300명이 있어서 경찰관 1명이 12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실탄이 장전된 총을 들고 다니며 건설단원 12명의 내무생활 상태를 저녁에 잠깐 봐주고, 아침엔 밥 먹고 현장에 들어가 작업 할당을 하고 감독하면 되는 거지. 내가 데리고 있던 애들 가운데 6명이 제주도에서 왔고 부산에서 6명 이렇게 12명이 있었지요.

면담자 : 건설단은 12명이 한 막사 쓰는 거예요?
구술자 : 건설단원은 철조망을 쳐놓고 그 안에 열두 명이 잘 수 있도록 천막을 치고 잤지. 우리는 철조망 양쪽 입구에 일개 소대 18명에서 20명 정도 자는 천막을 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소대장하고 행정반장하고 우리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건설단 천막은 철조망 안에 있고 우리는 철조망 밖에 있고.

면담자 : 제주도 국토건설단에는 유명한 깡패들도 있었겠네요?
구술자 : 그럼요. 우리가 서울하고 부산에서 온 단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대단했지. 그때

부산에서 온 이준채라고 신문에도 날 정도로 정치깡패였는데 제주도 지구 해병 사령관이 직접 면회올 정도였으니까. 그 사람 나이가 45살 정도 됐는데 거기서 부단장을 했지.
또 서울에서 온 마도로스박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단장을 했어. 그런데 이준채가 나보고 마도로스 박은 진짜가 아니라며 자신이 한번 혼 좀 내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더니 마드로스 박을 불러서 "너 진짜 아니지" 그러니까 마도로스 박이 꼼짝 못하는 거야. 우리가 감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애들이 알아서 다 시키는 거야. 자기들끼리 순찰 돌고 그렇게 했지.

1969년 제주도 근무 당시 모습

면담자 : 그때 제주도 들어갈 때 교통편은 어떻게 해서 갔어요?
구술자 : 우리 경기 경찰 36명은 남봉진 경기도지사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태워 보냈어요. 쌍발프로펠러 비행기라 김포에서 한 시간 20분 걸렸어요.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한번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왕복했어요. 목포에서 제주까지 가야호가 다녔는데 7시간 걸렸죠. 부산서 제주는 아리랑호로 11시간 걸렸어요.

1969년 6월 제주도 근무 당시 모습

면담자 : 제주도 근무 끝나고 어디로 가셨나요?

구술자 : 제주도에서 1969년 9월에 해단식을 하고서 자기 희망지로 보내주는데 우리는 경기도로 전부 다시 온 거지. 우리는 제주도에서 해단식을 하고 나올 때 부산 (건설)단원을 데리고 나왔지. 부산에 와서 그 애들을 부산 영도경찰서에 인계하면 우리 임무는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목포를 거쳐 서울로 올라가는 단원들은 열차 안에서 말썽이 많았나 봐요. 그때 일당을 120원씩 쳐줬는데 여섯 달을 모으니까 제법 돈이 된 거지. 그걸로 술먹고 시비를 걸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면담자 : 그렇게 부산에 도착해서 바로 용인경찰서로 복귀하셨나요?

구술자 :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인천에 있는 경기도 경찰국으로 갔죠. 그때 우리는 용인경찰서 소속이 아니고 제주도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제주도에서 다시 경기도로 발령을 낸 거지. 경기도 경찰국에서 근무 희망지로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용인으로 선택하지 않고 수원으로 갔어요.

면담자 : 그때가 1969년 9월이겠네요. 수원에서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구술자 : 수원에서는 한 8개월 있었나. 수원에서 병점에 있는 태안지서에 발령이 났어요. 그땐 화성군 전체가 수원경찰서 관할이었어요. 태안이 원래 태장면하고 안용면을 합쳐서 된 거잖아요. 안용리하고 용주사가 있는 송산리 그리고 지금 영통 지구도 태안지서 관할이었어요. 여기서 나는 신리, 망포리, 영통리 이 세 군데를 담당했었어요. 그때 순찰 나갈 때는 자전거 타고 가는데, 영통은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것도 영덕리 고개에서 내려서 걸어서 산 하나 넘어 들어가야 영통이 나오죠. 이렇게 영통 한번 나갔다 오면 하루 종일 걸렸어요.
1970년 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경찰에서 선거에 개입하고 그럴 때지. 1969년도 말부터 직접 개입은 안 해도 동네 반장들 통해서 여론 조사한다면서 정부 편해야 한다 하고, 또 대략 반대파가 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할 때였지요. 그래서 경찰들은 지서내 근무자 하나만 남고 전부 담당 마을로 나가고 또 매일 통계내고 그랬어요.

면담자 : 태안지서에 계실 때 기억에 남는 일 있나요?
구술자 : 태안지서 있을 때 용주사가 우리 관할이었지.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되면 깡패들이 많이 온다고 순경들이 거길 못 나갔어요. 그때만 해도 유원지에 놀러 오는 사람들은 공장 같은 데서 단체로 놀러 오고 그랬지. 그러다 보니 용주사 같은 곳은 불량배들이 잡고 있으면서 여기 놀러 온 사람한테 금품 갈취하고 또 싸움도 자주 나고 그랬지. 그래서 지서에서 서로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제주도에서 국토건설단에서 깡패들하고 같이 있었다고 소문이 나서 주로 내가 나가는 거지. 거기에 수원 검댕이라고 있었는데 이름이 김길준이야. 그 애는 용주사에 살고 있었는데 나만 가면 오늘 싸움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그냥 노시다 가라는 거야. 그러면 정말 싸움 한 번 안 나는 거야.

용인경찰서 근무

면담자 : 수원에서 용인으로 어떻게 해서 오신 거죠?
구술자 : 내가 태안지서에서도 예비군 훈련을 시켰거든. 그때 중대장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나한테 반한 거지. 경찰서장도 좋아했었고.
그런데 1969년 12월 결혼하고 나서도 내 안식구는 용인에 살았어요. 그때 우체

국에 교환으로 있었지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일요일만 되면 용인으로 온 거야. 용인이 집이니까.

그때만 해도 경찰은 관외 외출을 못하게 할 때였어요. 그래도 계속 용인에 가니까 경무계 차석이 뭐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언쟁을 하다 내가 수원에서 나간다고 했지. 그때 용인경찰서장을 지냈던 지의택씨가 경기도 경찰국에서 인사계장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나보고 동인천으로 오래요. 그땐 경기도에서 동인천경찰서가 제일 좋을 때였어요.

그래도 나는 용인으로 간다니까 왜 용인으로 가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용인에서 살림을 한다니까 알았다면서 네 시간 만에 발령을 내더라고. 용인으로 발령이 나니까 수원경찰서장이 불러요.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하면서 교통으로 보내준다는 거야. 그때만 해도 교통이 좋을 때였어요. 특히 수원에서 교통하면 알아줬지요. 그래도 간다고 해서 용인으로 왔지

면담자 : 그때 결혼하신 거군요.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구술자 : 내가 1968년 용인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안식구는 여기 우체국 전신 전화교환원이었거든. 그때 처음 만나서 나하고 싸우다가 사귀게 된 거야.

그때는 전화를 걸면 전부 교환이 연결시켜주잖아요. 그런데 파출소서 야간 근무하면서 전화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아마 나를 장난 전화 거는 사람으로 봤나봐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전화 받으면서 그렇게 잔소리하냐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그만 권한 가지고 뭐라 한다고 하는 거야. 그때가 밤 12시 넘었는데 우체국으로 가서 숙직 깨워 불러냈지.

그랬더니 나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너무 했단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왔어. 그 뒤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해 크리스마스 때가 됐을 때 다시 전화해서 통화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자주 연락하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서 사귀기 시작해서 제주도 다녀와서 수원경찰서 근무할 때 결혼했어요.

면담자 : 용인으로 다시 오셔서 어디에 배치되었어요?

구술자 : 여기 오니까 김량파출소에 발령이 나 있는 거예요. 신고하러 갔더니 경비과장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경비과 근무로 발령을 다시 냈어. 경비과로 와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파출소로 나갔지.

면담자 : 당시 용인에 오셨을 때 김량장 시내 모습은 어땠나요?

구술자 : 1968년도 3월 처음 용인에 왔을 때 전기가 김량장리만 들어왔을 거야. 그것도 밤에만 들어왔었지. 그래서 호야라고 있는데 남포라고도 하는 그거 닦아서 불을 키고 살았어요. 집들도 대부분 초가집이고 당시에 수여선 철도가 다녔고. 1970년에도 용인에 기와집이 한 20집 정도 됐을 거야. 이층집도 네집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요. 그것이 용광당, 신신옥 옆에 대성관이 있었고, 또 용인 상점, 또 사거리 건너 태성양복점 당구장이 있던 건물 그게 2층 건물이었지요. 그 다음에 통천관이 이층이 됐어. 그 나머지는 2층 집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3군사령부[1]가 들어오기 전에 172연대가 먼저 들어왔지. 172연대 들어설 당시에 군인들하고 우리 경찰들하고 잠시 야간에 순찰을 다녔어. 그런데 군인은 통금 시간이 없는데 민간인은 통금 시간이 있어서 단속하다 보면 술집에서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거지.

172년대 헌병들이 같이 단속을 하면 되는데 헌병들은 술 먹는 건 단속 잘 안해요. 왜나하면 군인들은 통금이 없잖아요. 그때 단속할 적에 경찰하고 군인 사이에 약간 트러블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면담자 : 김량파출소 근무하실 때 특별히 기억에 남아있는 일이 있나요?

구술자 : 그때 김량파출소는 마평리 다리 옆 하천 변으로 옮겨가 있었어요. 거기 건물 뒤에 예비군 무기고가 있었지요. 그런데 1972년도 그때 파출소 차석으로 근무할 때인데 그해 여름에 용인에 비가 많이 내려 큰 수해가 났어요. 파출소에 있었는데 사이렌을 울리라는 거야. 사이렌은 경찰서 앞에 먼저 직할파출소가 있던 자리에 있었어. 거기로 가서 사이렌 스위치를 올리려니까 비가 와서 우비도 막 젖고 그래서 손에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그렇게 감전되어 사이렌을 울릴 수 없어서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그걸로 스위치를 켰지. 그렇게 해서 사이렌을 울리고 파출소로 갔어요.

그런데 파출소 바로 앞에 있는 여인숙 쪽에서 물이 넘쳐 파출소하고 사거리로 밀려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파출소 앞에 물이 차니까 저 예비군 무기가 다 떠내려가게 생겼잖아.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얘기했더니 닷지차[2] 그게 나와서 물이 막 차올라오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비를 맞으며 예비군 무기를 모두 꺼내 실어서 본

1) 현재는 육군 제1지상작전사령부

2) 1.25톤 적재 용량의 군용 다목적 차량

서로 보냈지. 다른 것은 떠내려 가도 괜찮은데 무기 떠내려가면 큰일 나잖아.
그러고 나서도 사거리에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누가 그랬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그 사람이 이래 가지고 되겠냐면서 파출소 앞 여인숙 거기 개울 제방 둑을 터버렸어. 그러니까 사거리 물이 거기로 쫙 빠지는 거야.

면담자 : 그때 김량천은 어디에서 넘쳐 시내로 밀려 들어왔어요?
구술자 : 남리에서 제방이 터져서 넘어 들어 왔는데 거기 남상빈씨 제재소있죠? 거기서 터져서 물이 밀려와서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시내로 다 들어온 거지. 그래서 거기 여인숙 뒤 제방을 헐어 터버리니까 시내에 들어찼던 물이 빠진 거지.

면담자 : 용인 부임 초기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구술자 : 용인에 와서 예비군이 쓰는 호(참호-주)나 진지를 파고 그럴 때였는데, 유방동 햇골에 들어가 보면 산 중턱에 옛날에 만든 호 같은 게 있어서 파보면 탄피도 나왔어요. 6.25전쟁 때 전투가 벌어진 곳이라고 하니까 그때 쓰던 거 같아.
거기에 경찰 사격장이 있었어요. 지금 골프연습장 못가서 있었는데 이쪽 산에서 저 쪽 산을 향해 쏘고 그랬지. 그랬다가 이제 경찰대학 생기고 나서는 거기서 하지 않고 경찰대학 지하실 사격장에서 하게 됐죠.
그때가 1972년인가 햇골 골짜기 끝에 올라가서 지장실로 넘어가기 전에 홍원표라는 사람이 살았어. 어머니는 개울가에 있던 도축장 옆에서 술장사했지. 그때 나는 예비군 훈련시키고 김량파출소 차석을 할 때지. 그런데 그때 임신 8개월인 부인하고 한 살 먹은 애가 불에 타 죽었어요. 술막(금학교 북쪽-주)에서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어. 그거 범인을 못 잡아서 지금까지도 미제사건이예요.
그때 여러 가지 추리를 하며 수사를 해봤는데 하여튼 못 잡았어. 가끔 거기 가면 지금도 눈에 선하고 머리가 쭝긋 서지. 내가 해결한 사건도 많지만 그게 기억이 많이 나요.

면담자 : 김량파출소에 근무하시고 나서 어디로 옮기셨나요?
구술자 : 김량파출소 근무를 하고 1973년 쯤 보안과로 발령이 나서 교통을 하게 되었지. 그런데 교통을 하려면 6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는 교육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용인경찰서에 교통은 2명이 정원인데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고 나오는 바람에 나는 6개월 근무하다 거기서 나오게 됐지. 나는 교통을 하다가 신갈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로 가서 근무했어.

면담자 :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구술자 : 거기서 관리라는 것이 내가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이상하다 싶으면 세워 검문하는 일밖에 없는 거야. 그것도 본서에서 수배 내린 차가 오면 세워 검문하는 거지. 여기 근무할 때 나한테 큰일 날뻔한 사건이 있었지. 그때가 1972년 겨울쯤이었을 거야. 무장한 탈영 군인 하나가 버스를 잡아타고 서울에서 영동고속도로로 빠져나가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나보고 잡으라는 거지.

탈영병이 오기 전에 먼저 내가 트럭을 세워 도로 양쪽에서 세워 길가에 둔 거야. 그러다 그 탈영병 차가 진입하면 세워놓은 트럭으로 길을 막고 본서에서 타격대 올 때까지 대치하려고 한 거지.

그런데 (탈영병 차) 통과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경찰서에서 막지 말라는 거야. 그냥 통과시키라고 그래서 통과시켜 주었지. 그러면서 탈영병 버스 지나갈 때 나보고 피하라고 그래요. 경찰관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 안된다고 하면서. 그 차가 지나가는 거 보니까 먼저 내려 놓았는지 승객은 3명 정도 타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이 그 차는 사고없이 강릉까지 가서 탈영병 부모들이 와서 설득해서 잡았다고 그러더군요.

면담자 : 영동고속도로 생길 때나 지금은 에버랜드인 자연농원이 개장하기 전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구술자 : 경부고속도로는 1969년도에 처음 오산까지 개통했지. 그게 개통된 다음에 내가 제주도로 갔지. 영동고속도로는 마성고개서 양지까지 구간을 평화건설이 맡아서 건설했지.

자연농원이 개장하기 전에 중앙개발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때 내가 그때 교통할 때인데 중앙일보라고 써서 붙인 차에 나무 싣고 다니는 거 많이 봤지.

자연농원 땅 매입할 때 브로커 한 사람이 빈○○씨지. 땅주인한테 싸게 사가지고 거기에 더 붙여 삼성에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빈○○씨가 경찰에 잡혀간 것이 삼성에서 한 거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빈○○씨가 잡혀갈 때는 수사과 형사를 하고 있어서 상황실에 있었어. 그런데 빈○○씨가 잡혀간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경찰서장은 신갈지서에서 연락해서 막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갈지서에다 연락을 해서 거기 직원들이 나가서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신갈지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냥 보내야 되겠다고 그

러는 거예요. 그게 체포해가는 사람들이 치안본부 특수반에서 나왔다는 거지. 바로 서장한테 전화했더니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통과시키라고 그래요.

면담자 :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시고 다음엔 어디로 가셨어요?
구술자 : 그곳에서 6개월 근무하고 난 다음 나보고 원천유원지 하계 임시파출소장 하라는 거예요.

면담자 : 그때 원천저수지는 용인에 속했죠? 지금 광교가 된 수지면 이의리와 하리가 1983년 1월 수원시로 편입되었으니까요.
구술자 :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거를 하냐고 따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한다고 나보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순경이지만 다른 순경 두 명 데리고 원천유원지 하계파출소장 갔어요. 거기 가서 파출소장을 아마 1973년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을 했나 봐요. 거기는 유원지라 술에 취해 난동부리는 사람도 많아 근무하기가 쉽지 않았던 곳이죠. 그래도 거기 근무를 마치고 형사계로 발령이 났어요. 이후 형사계에서 한 4, 5년 근무했지요.

형사로 민생 수호

면담자 : 형사계에 계시면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있는 사건이 있나요?
구술자 : 용인에서 그래도 중요한 사건 많이 해결했지. 대표적인 것이 삼가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피의자 이름이 최oo이고 아마 궁촌 살았지. 여자 노인 죽이고 강간한 그런 사건이지. 사건이 일어난 삼가리 멱조현에 나가서 하루 밤을 새고 잡았지.

면담자 : 또 다른 사건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구술자 : 원천유원지 윗방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살인에다가 사체유기한 사건이지. 피의자가 이름이 정oo였는데 사건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거 우리가 수사해서 이름을 알아내고 무주경찰서에 연락해서 거기 가서 잡았지.

면담자 : 형사계에 얼마나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구술자 : 1974년서부터 1977년까지 있었지요. 1977년도에 내가 원삼지서로 갔어. 원삼지서에서는 차석으로 한 1년 있었나. 가기 있으면서 도둑 서너명 잡았지.

면담자 : 도둑이면 원삼이 농촌 지역이라 주로 농작물을 훔쳐 갔겠네요?
구술자 : 그저 남의 뽕 훔쳐가고. 그때만 해도 누에 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뽕 따가서 피해자 신고에 의해서 잡는 거지. 또 마늘 같은 것도 훔쳐가고. 솔직히 같은 동네 사람들이니까 봐주는 것도 많아요.
원삼지서에 있을 때 원삼 유지들이 나보고 쪽집게 무당이라고 그랬어. (도둑)잘 잡는다고. 먼저 형사계 있다가 나갔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감각이 빨랐지. 거기 있다가 상황실로 발령이 났어.

면담자 : 상황실에서는 얼마나 계신 거죠?
구술자 : 상황실에 한 6개월인가 있었나. 거기 있다가 수사과 형사계로 발령을 받아 갔지. 형사계 근무하면서 삼청교육대 갈 사람 잡아들이기도 했어요. 거기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를 이동지서로 발령을 내는 거야.

1970년대 용인경찰서 근무 당시

면담자 : 이동지서로 발령이 났군요.
구술자 : 1981년도로 기억하는데 이동 지서에 가서 내가 인삼 도둑을 잡았어요. 야간에 검문하다가 운전수까지 절도범 세명을 검문해서 잡았어요. 안성에서 절도해가지고 송전 거쳐가지고 용인으로 나가려다 검문에 잡힌 거지. 그것도 내가 이동지서에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 그랬으니 소발에 쥐를 잡은 거지.
지서에는 그 시간에 예비군 무기고 지키는 방위병하고 나 혼자 있었고 숙식실에 직원 한 명이 자고 있었어. 그런데 차 소리가 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세우고 검문을 했어요. 봉고차에 3명이 타고 있어서 먼저 신분증을 보자고 하고 2명한테 받아 놨지. 그리고 운전사 내리라고 하고 뭐 실었냐 물었더니 도라지를 실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인삼 냄새가 나는데 도라지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아 챘지.

그런데 3명을 나 혼자 잡기 어렵잖아.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해 물어 본다고 하면서 두 명을 지서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방위병하고 같이 수갑을 채웠지. 다른 한 명은 도망갔는데 숙직하던 직원을 깨워 보내 시미리 쯤 따라가서 잡아 왔지. 그래서 인삼절도범 3명 다 잡았어.

3명 잡아놓고 인삼 어디서 훔쳤나고 물어보니 양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양성지서에 얘기하니까 바로 나오는 거야. 다음날 서장이 전화해서 칭찬 듣고 바로 형사계에서 나와서 다 넘겼지. 그리고 서장이 나를 다시 형사계로 발령 내더라고

면담자 : 삼청교육대 관련하여 생각나시는 것이 있나요.

구술자 : 삼청교육대 잡아들인 것은 헌병대하고 같이 다니며 했어요. 그리고 삼청교육대 명단은 원래 수사과에서 올려야 되는데 정보과하고 군대 보안대 그 둘이 명단 작성해서 올렸어. 그런데 잡다 보니 안 어울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원래 좋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억울하게 잡혀 온 사람도 있었지.

사실 정보과하고 보안대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하고 좀 멀잖아. 거기서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도 있었어. 잡을 때는 정보과 그 사람들이 잡지 않고 형사들하고 헌병대가 가서 잡고 그랬어요.

면담자 : 수사과 계실 때 해결한 사건 중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구술자 : 내가 수사과에 있을 적에 전국적으로 큰 사건 하나 터졌는데 우리 용인 경찰이 잡았잖아.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를 했으니까 거기서 금품을 턴 거예요. 은행강도 같은 거지. 제천도 털리고 용인 신갈우체국도 크게 털렸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지.

용인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 해결 단서 하나를 발견했지. 그때 신갈에서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쪽지를 하나 발견했어. 그걸 수사하다 보니까 그게 대전에 있는 용의자 애인의 집 전화번호라는 것을 알아냈지.

용인경찰서에서 나 포함해서 경찰 3명이 주범을 잡기 위해 대전에 가서 애인집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했지. 잠복하고 기다리는데 용의자가 들어가서 우리도 조금 있다가 뒤따라 들어갔지. 용인경찰서 후배인 이철수하고 이원화하고 나 셋이서 그 집에 들어간 거죠.

면담자 : 용인경찰서 소속만 들어가신 거죠?

구술자 : 그렇죠. 본국(서울 치안본부-주)에서 온 경찰 두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밖에

있었어. 우리 셋이 들어갔는데 집안에 두 사람이 있어서 얼른 한 사람은 수갑을 채우고 나머지 한 사람도 나와 원화 둘이서 싸워서 수갑을 채워 검거했지요.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이름 냈지. 그 체신부 사건을 전부 우리가 해결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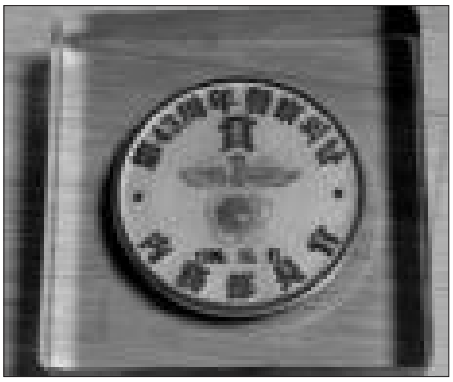
면담자 : 대단한 성과였군요. 그 정도면 특진 대상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사과에 있다가 다음엔 어디로 가셨어요.

구술자 : 특진 대상에는 들지 못했어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신갈로 갔는가? 하여튼 신갈 파출소에서 근무도 하며 1년 반 정도 있다가 1988년도 쯤에 경비과로 다시 발령이 났어요.

경비과 근무

면담자 : 그때 경비과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구술자 : 경비과에서 8년간 있으면서 주로 했던 일이 (요인) 경호하고 데모 진압이죠. 그때 각 대학에서 데모 심했잖아.



1988년 서울올림픽 공로 내무부 장관 표창

면담자 : 그렇군요. 용인에는 국내외 정상급 요인들이 방문하는 시설도 많고 또 대학과 기업체들도 많아 시위가 자주 발생했죠. 먼저 1988년 올림픽 때도 경비과에 계셨

는데 이때 어떤 일 하셨어요?

구술자 : 88올림픽 때는 성화 봉송이 용인에도 지나가서 그 경비 계획을 내가 세웠지. 그거 끝나고 내무부 장관상 받았어. 기념패에 사진을 넣어서 사회안정 기수라고 하고 밑에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안전 주역이라 했지. 그거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면담자 : 다음으로 용인을 방문한 요인을 경호하신 경험 말씀해주세요.

구술자 : 경비과에 있을 때 대통령 경호 작전을 200근무라고 불렀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경호) 계획을 전부 내가 세웠어요. 경찰대학 등에 대통령이 오거나, 민속촌, 자연농원에 외국 대통령이 용인에 오면 이에 대한 (경호) 계획을 세우고 나가서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때 경호하러 나갈 때 우리는 200근무 나간다고 그랬죠. 원래 경찰의 중요 업무 중에 하나가 경호였으니까.

용인에는 경찰대학이 있어서 졸업식때 대통령이 거의 매년 오는데 그 경호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비행기가 어디에 내린다고 지령이 떨어지면 장소 물색해서 좌표 불러주고 그런 일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원수들이 어딜 많이 왔냐면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 거기를 잘 와. 또 그 다음으로 외국 귀빈들이 잘 왔던 곳이 민속촌, 자연농원 등이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내가 한 일주일씩 걸려서 계획 세워서 근무했지.

그런데 우리는 외국 원수가 올 적에는 우리가 일선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가 이선이 되고 일선 근접 경호는 전부 경호실에서 담당해. 그래도 그때 조그만 사고라도 나면 그게 정말 큰일 나지.

용인에 대통령이 온 것이 노태우 때에 상하리 식목 행사하러 왔을 때 우리가 전부 (경호) 계획을 세우고 그랬지. 김영삼 때도 상하리에 식목하러 왔는데 그때도 우리가 했지.

노태우 땐가 남사면에서 팀스피리트 훈련하는 거 참관하러 온다고 해서 남사면 벌판에 가서 경호한 적도 있어요. 또 곱든고개 넘어 원삼면 사암리 삼성연구원에도 왔잖아. 그것도 내가 현지에 나가서 다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 경호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있죠. 그땐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가 용인휴게소 개관할 때 대통령까지 와서 그때도 내가 했지. (경호) 계획 세울 때는 현장의 약도와 이동 거리 두 가지부터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 다음 도로와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 용인으로 오가는 교통로 점검하고 그랬어.

그런데 경찰대학이나 기흥 반도체는 거의 매년 하다 보니까 기본 방식은 비슷하잖요. 그걸 계획 세워서 경호실까지 보내서 승인이 나면 보통 한 일주일씩 그냥 현장에서 끝날 때까지 밤낮 없이 고생하는 거지.

면담자 :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온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구술자 :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밤새워서 계획 세우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림만 그려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튿날에는 현지 답사해서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어디에 배치시킨다는 것이 계획서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게 힘들지.

면담자 : 용인에는 대학이 많은데 그 당시 학생 시위는 어땠어요?

구술자 : 경비과에 있으면서 학생 데모에 경찰 진입하고 막고 이런 것을 전부 내가 계획 세웠지.

그때 용인에서 학생 데모가 심한 게 경희대, 외대 거기가 제일 심했고, 그다음에 심한 데가 용인대는 옛날에 유도대학이었잖아. 그러다가 체육과학대가 되었고. 걔네들은 길에 엎어지면 그냥 안 일어서. 그리고 명지대. 사회복지대는 지금 강남대가 됐죠. 그때 또 우리가 경기대까지 담당했잖아. 경기대는 지금은 수원 광교에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그 학교가 용인에 있었지.

학생 데모 진압 병력은 당시에 우리 용인경찰서에 269 방범순찰대와 기동3중대 이렇게 2개 중대 배치되어 있었지. 그거 가지고는 막지 못하니까 매일 3개 중대 병력 이상을 딴 데서 받아야 했어. 그렇게 5개 중대 정도로 매일 데모 막는 거지.

면담자 : 학생 시위 규모가 컸기 때문에 외부 지원이 필요했군요. 그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구술자 : 나는 거의 (진압) 계획 세우고 현장에서는 통제실에 앉아서 통제하고 그런 일을 했지.

면담자 : 그때 학생 시위 중 특별하게 기억나는 경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구술자 : 경희대학교에서 일어난 데모가 기억나네요, 당시에 그 학교에서 북한 영화 '꽃파는 처녀' 그걸 상영 한다는 거야. 위에서 그걸 상영 못하게 하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경찰 5개 중대 병력을 가지고 학교 안으로 진입해야 되잖아. 그 진입 계획을 전부 내가 짜는 거지.

면담자 : 경희대에서 영화 상영은 학교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서 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입구에서 좁고 긴 학교 구조라 진입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구술자 : 그래서 더 힘든 거죠. 진입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교 안에 들어가면 중앙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게 한 10개나 20개 중대 가지면은 충분히 진입할 수 있지만 5개 중대로는 많이 부족하지. 우리가 잘못되면 학교 안에서 고립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짜냐면 정문은 우리가 하여튼 맡아야 되니까 일개 중대로 정문을 맡기고 4개 중대를 가지고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중간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점에다가 1개 중대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리고 3개 중대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진짜 학생들하고 붙는 거지. 그리고 철수할 때는 반대지. 그 계획을 전부 내가 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희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안쪽에서 3개 중대가 포위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병력을 가지고 밀어달라는 거지. 그런데 중간에 병력이 밀지 못하는 거야. 그게 중간에 있는 중대에 보안과장이 맡고 있으면서 밀지 못하게 한 거지. 나는 통신으로 중간 병력보고 밀라고 했어. 서장도 밀라고 하고 그래서 보안과장한테 항의했지.

나중에 3개 중대가 거기를 뚫고 나왔어. 영화 상영만 저지시키고 온 거지. 위에서 필림을 압수하라고 그랬는데 압수가 되나 저지만 하고 나온 거지. 그래서 저녁 일곱시 정도에 끝내고 들어왔어. 그런데 과장이 와서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자신도 죽겠는데 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밀라고 한 게 아니라 서장님이 밀라고 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 나중에 서장이 들어와서 과장한테 본인이 밀라고 한 거라고 해서 끝났지.

그런데 대학 같은 그런 데는 다발탄[3] 그걸 못가져 들어간다고. 다발탄이라는 게 한번 쏘면 최루탄 72발이 발사돼. 그걸 들여 보내야 되는데 그게 들어갔다가 학생들한테 포위돼서 뺏기게 되면 큰일이지. 그러니까 정문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지. 정문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

면담자 : 진압하러 들어간 경찰들이 학생들한테 포위되어 고립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외국어대에서는 어땠나요?

구술자 : 그랬던 때가 있었지. 경희대와 외국어대에서 혼나고 나왔던 경우가 있었어. 그런데 외국어대는 항상 우리가 유리했어. 거기서도 북한 영화 '꽃파는 처녀' 상영한

3) 다연발 최루탄 발사 차량. 페퍼포그 차량을 개조하여 분당 64발 이상 최루탄 발사 장치를 부착하여 시위 현장에 투입.

다기에 들어갔지. 정문에서 밀어붙이는데 외국어대는 골짜기에 있어서 우리가 바람을 등지고 들어가서 가스(최루)탄을 들여보내면 학생들 한테 가는 거지. 바람이 거꾸로 불면 반대인 거고.

면담자 :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진출해서 경찰고 대치한 경우고 있었나요?

구술자 :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나와 신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점령한 적이 있었지. 그걸 우리가 막으려고 나갔지. 그때 남영호 서장이 있을 때였을 거야. 그 서장은 막돌이 날라오는데도 그냥 복판에 서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직원들도 피할 수가 없지. 참 그런 서장도 있었어.

그래서 다발탄도 없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발사기 총으로 전부 쏘는 거지. 그러다가 누가 최루탄을 거꾸로 넣고 쏴서 자기 앞에서 터진 거야. 모두 오만상 찡그리고 그냥 눈물 쏟고 그랬지.

학생들은 아니지만 고속도로 차단했던 적이 있어요. 농민대회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농민들이 전라도, 충청도 쪽에서 고속도로로 올라오는데 이걸 서울로 못 올라가게 차단하라는 거야. 사실 우리 전에 남쪽에서 차단시키면 되는데 다 뚫리고 용인까지 온 거지.

우리 보고 옛날 비상활주로 있던 자리에서 죽전 휴게소 쯤에서 차단을 시키라는 거야. 나는 현장 본부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 배치를 시켜놓고 외부에서 한 10개 중대 이상을 받았지. 그런데 차단해서 차가 밀리니까 데모 군중이 올라갈 수 없는 거야 .

속도로는 차가 정체되니까 난리지. 우린 그걸 차단시키라고 해서 한 건데. 나중에 차가 워낙 밀려 정체가 되다 보니까 도로 보내라 이거야. 현장에서 사람들이 차단하며 애쓰고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나는 전화 받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

면담자 : 전화는 상부 기관에서 오는 거예요.

구술자 : 우리 위에 경기경찰청 있지. 그 다음에 치안본부 있지. 청와대에서도 막 오는 거지. 서장이나 과장들은 욕먹을 거 같으니까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받았지. 그래서 서장도 과장도 다 현장에 나갔다고 했지. 그러니까 치안본부 경비국장이 전화했어. 계급이 치안감인 것으로 생각나. 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서장 바꾸라고 해서 현지에 나갔다니까 경비과장 바꾸라는 거야. 또 현지에 나갔다고 하니까, 거기서 하도 어이가 없는지 당신 계급이 뭐냐고 물어. 그래서 경사라고 대답하니까

그쪽에서 용인서는 경사가 다 지휘냐고 그러는 거야. 하여튼 한 두 시간더 차단하고 있다가 나중에 터주라 그런 거야. 차가 밀리니까 민원이 하고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고속도로 상에서 무척 애먹었지.

면담자 : 용인에는 공장이나 기업체의 노동자들 시위나 파업 현장에는 안 나가셨나요?

구술자 : 용인에서 파업은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슷한게 기억나는 게잇어요. 전에 기독교 교회에서 통일교 일화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마평리의 제일교회에서 통일교는 이단이라는 강연을 하고 일화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화 공장이 이동읍 천리에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 제일교회로 항의하러 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2개 중대를 보내 막았지. 그런데 일화에서 아주 극렬하게 나와서 우리가 막지 못하고 뚫린 거지. 거기다가 교회 앞은 민간인 지역이라 최루탄도 쏠 수 없잖아.

그 당시 용인경찰서에는 경목이 9명이 위촉되어 있었어. 그날 경목실에서 회의하다가 어떤 목사가 경찰서장한테 일화에서 온 사람들을 막지 못했다고 막 항의하는 거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간 것이라 못 참고 막 따진 적이 있었지.

면담자 : 경사 진급은 언제하셨어요?

구술자 : 경사 진급은 1994년도에 장기근속으로 하게 됐어, 경사로 진급하니까 경비과에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1996년 쯤에 백암지서장으로 보내주는 거야. 지금있는 백암파출소 건물은 내가 지서장할 때 지었어. 옛날에 백암지서 건물은 너무 형편없었어. 건물은 경찰서가 지었지만 감독은 내가 했어요. 그거 짓느라고 1년 동안 고생했어.

백암지서장으로 근무할 때 IMF가 터진거야. 그때 금모으기에 (참여)해가지고 넉 돈인가 가지고 있던 반지를 내놨는데 나중에 이득을 본거 같아요.

백암지서에서 2년 정도 근무하고 1998년도에 원삼지서장으로 갔어. 지금 원삼파출소 건물도 내가 지서장으로 있을 때 지었지. 원삼지서장으로도 2년 근무했지.

면담자 : 백암과 원삼 지서장 하시고 어디로 가셨나요.

구술자 : 지서장 하다가 1999년 정년이 한 8개월 정도 남아서 발령이 난 곳이 보안과야. 여기서 대공관계 업무인 탈북자 보호 감시하는 일을 맡겼어. 내가 담당했던 탈북자는 이학철인데 자연농원 환경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 그래서 출근하면 바로

자연농원으로 갔지. 그게 내 업무가 탈북자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접촉해오는지, 또 누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등 보호 차원의 일을 한 거지.
이학철 부인도 탈북한 사람이라 용인서에서 여경 하나가 파견되었어. 이학철 부인은 북한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탈북했기 때문에 이북 실정에 대한 강의를 많이 나갔지. 그러면 담담 여순경은 대전이고 서울이던지 따라갔어.

면담자 : 탈북자들이 아는 데도 같이 다녔던 것인가요?
구술자 : 그럼요. 그거 알면서 따라붙는 거야. 그때는 용인에 탈북자가 많지 않아서 그게 가능했겠지. 따라 다닌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호 차원으로 다닌 거지. 이학철은 내가 퇴임을 한 다음에도 한 2년 동안 나한테 전화하곤 했지. 그러다 안양인가 그쪽으로 이사 갔어,

퇴임 후 활동

면담자 : 퇴임은 언제 언제 하신 거죠?.
구술자 : 원래 경찰공무원 정년이 59세였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MF 때문에 1년 반납한다고 해서 2000년도에 정년 퇴임했지. 그래서 58세에 나왔는데 경찰 생활만 33년 몇 개월 했나 봐요, 퇴직할 때는 옥조근정훈장 받고 나왔어요,

정년퇴임 후 받은 옥조근정훈장

면담자 : 2000년도에 퇴임하시고 난 후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구술자 : 경찰하다 나오니까 기업체에서 오라는 거야. 회사 경비반장인가 경비 주임인가 이런 거 시켜준다는데 가지 않았어. 거기 가는 게 경찰 출신이 그런데 있다는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 갔어. 그냥 쉬면서 한 4, 5년간 국내 여행만 다녔어. 그러다가 증권을 한 4, 5년간 하다가 그만뒀어요.

면담자 : 아동지킴이 활동을 지금까지 몇 년째 하시고 계시는 거죠?
구술자 : 한 10년 넘었는가 봐요.

면담자 : 아동지킴이 활동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구술자 : 지구대에서 해요. 근무지에 갈 때 들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갈 때는 근무지로 나가고 끝나고 올 때 쓰고 가요. 이거 운영은 복지부에서 하는 건데 경우회에 위임을 했어요. 경우회도 관리하기 힘드니까 경찰청에 위임을 했지.
그래서 경우회 회원도 해주고 노인회 에서도 받지. 연금 타는 사람은 이거 안할려고 하지.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보호 활동 하는 사람이 한 120명 되는데 이중 전직 경찰이 10명 미만이야. 거의 전부 노인회에서 지원받은 사람들이야.

면담자 : 아동지킴이 활동은 방학 때 안 하시죠?.
구술자 : 우린 방학 때와 관계 없어요. 학교 뿐아니라 공원 같은 데 돌아다녀. 그런 곳에 가서 애들 싸우고 잘못되는 거 봐주라는 거지.

면담자 : 경우회 활동도 하시나요.
구술자 : 정년 퇴직하고 나서 지금까지 경우회 직책은 용인읍 분회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 사무실은 동부파출소 건너편에 있는데 땅은 시유지에 지원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은 헐라고 해요. 동부경찰서 안에도 우리 사무실이 또 있어요.

선생의 경찰 복무 원칙

면담자 : 1968년부터 2000년까지 거의 33년을 경찰이라는 공직에 계시다 퇴직하셨는데 근무하시면서 가졌던 소회나 가치관 이런 것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술자 : 항상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경찰은 50%다. 아무리 잘해야 50%고 100% 없다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그 수사를 하는데 한쪽은 피해자고 한쪽은 피의자야. 피해자한테 잘해주면 피의자가 욕할 거고, 피의자한테 잘해주면 피해자가 욕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100%라는 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중립선에서 봐야죠. 경찰이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라

면담자 : 편파적으로 누구를 봐줬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술자 : 예. 내가 형사계 있을 테니까 1982년인가 그 다음 해인가 오래전 일이지. 대학 재수하는 사람이 이동면 묵리 안에 있는 수녀원에 와서 공부를 했어. 그때 수녀원 공사를 하는데 업체 사장이 이 재수생하고 좀 잘 알아요.

그런데 수녀원에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사장이 자고 나니 현금 7, 80만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수사해서 그 재수생을 범인으로 잡았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잡은 거지.

훔친 돈을 다 물어줬는데 그 애 아버지가 전매청 다녔어. 그런데 수녀와 피해자가 그 애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수생 아버지도 공무원이라 봐주면 굉장히 찝찝하지.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봐줬어.

재수생 아버지가 내년에 대학교 들어가면 꼭 형사님한테 인사 오겠다며 돈을 내놓는 걸 난 안 받았어. 그게 이 학생이 돈 받는 걸 알면 그 애한테도 좋지 않고 나도 돈 받고 봐준다는 것이 양심에 걸리고. 그래서 알았다며 가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질 않더라고.

또 하나는 백암장이 옛날에 우시장 컸잖아요. 백암장서 중개업자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검문을 했는데 하는데 팔러 나온 소가 자기 누나 거래. 그러면서 누나 여기 장에 왔으니까 데리고 온다며 소를 두고 도둑은 튀었어. 그전에 이미 그 애 신분증을 받아놨지.

그런데 그 소를 어디서 훔쳐 왔는지 알아야 주인을 찾아줄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마평리에 소나 말을 먹이는 마방이 있어서 거기다 갖다 매어 놓고 그 소 도둑 잡으러 다녔지. 우리가 수사하는데 2개월을 쫓아다니서 도둑을 잡았어. 그 수사비도 많이 들어갔지.

도둑은 수원 사는데 이석호라고 잡았는데 소는 여주서 훔쳐 왔어. 그런데 여주 가남 파출소에 전화하니까 도둑맞은 사실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긴 용인 형사계인데 우리가 도둑을 잡았다는데 그쪽에 신고해온 것 없냐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거기 파출소장이 전화 걸어 왔어. 사실은 있었는데 신고도 없어서 우리 지서에서 없던 일로 했다면서 피해 조서도 없다는 거야.

피해자가 거기 산다니까 보내 달라고 했지. 나중에 피해자가 왔는데 한 5,60세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 피해자 조서 받고 마방비 있냐고 했더니 돈을 10만 원을 내놔. 그런데 마방비는 석 달 간을 먹였으니까 15만 원이야. 그렇지만 그 여자보고 더 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어. 또 그때 황소 한 마리에 한 90만 원인가 100만 원 갈 때야.

그래도 마방 주인은 우리하고 잘 아는 사이라 10만 원만 받으라고 줬다가 만 오천 원을 깎았어. 소를 끌고 여주까지 가려면 밥이라도 먹고 가야 될 거 라면서 그 돈을 주고 보냈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떡이라고 해가지고 오겠다는 거야.
그때 우리는 수사비가 개인 돈이 10만 원 이상 더 들어 갔지. 석달동안 매일 같이 수원 가서 잠복 근무도 하고 그랬지. 그런데 그 소가 그 집 전 재산이야. 그것도 시집간 딸이 친정 동생한테 사준 거야.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친정 동생한테 누가 시집 오겠냐며 돈이 있어야 된다고 소 한 마리 사주고 키워서 늘려서 돈 모으라고 보내 준거야. 이게 자라서 팔 때쯤 됐는데 이걸 훔쳐 온 거지. 그런데 나중에 찾아오지는 않았어.
나는 경찰 생활하면서 마음 바르게 먹지 않고 부정하게 돈도 벌려면 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50%로 밖에 안 된다고 봐요. 10명 중에 너 잘했어 하는 게 다섯명이다. 그렇게 50%로만 하면 그 경찰관은 잘한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찰관을 했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 이상으로 선생님의 구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술하신 내용은 1970년대 이후 급속히 팽창한 용인 지역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간 내주셔서 구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술자 : 감사합니다.

■ 총 괄
김태근(용인학연구소장)

■ 채록자
김도영(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정희(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지현(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지혜(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남기주(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숙현(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은성(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 기 획
이현구(용인문화원 팀장)

용인 근 · 현대사 증언 구술생애 자료집 XI

용인사람 용인이야기 용인의 공직자 편

발　행 :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
발행인 : 심언택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문화예술원 1층
전　화 : 031-324-9600 http://www.ycc50.org
인　쇄 : 주식회사 광문당

비 매 품

• 본 책자는 용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